

발간등록번호

11-1371944-100006-01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제100호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제100호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구 책임자 | 박중휘



국립국어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25년 3월 10일 ~ 2025년 12월 5일

2025년 12월 5일

연구 책임자: 박중휘(유원대학교)

사업 수행 기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박중휘

공동 연구원

권성진, 김동복, 김미선,
김홍진, 박성수, 박은희,
송효섭, 임종아, 정미란

연구 보조원

정은우

요약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이 연구는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점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구는 20세에서 69세 사이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 인식 조사와 20세에서 69세 사이의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 사용 환경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1부에서는 국민의 인식 조사에 대한 서론과 선행 연구, 연구 방법,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점자 인식을 개선할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으며, 2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대한 서론과 선행 연구, 연구 방법,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할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1부에서 기술한 국민의 점자 인식에 대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에서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점자 인식을 조사하는 도구는 조사 영역(‘점자 인지도’, ‘점자 경험’, ‘점자에 대한 느낌’,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을 여섯 개로 구분하여 비시각장애인 29개 문항, 시각장애인 30개 문항으로 조사 도구를 확정해 사용하였다.

국민의 점자 인식을 조사할 표본은 전국의 20~69세 비시각장애인 1,000명과 시각장애인 500명으로 설정하였다.

비시각장애인 설문 조사는 설문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원이 전화 조사로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인 설문 조사는 조사 방법의 신뢰도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 대상 설문 조사 경험이 있는 비시각장애인 네 명을 조사원으로 선발하였다. 조사원 교육을 거친 후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자 인지도 영역의 경우, 비시각장애인 응답자 100%가 점자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구체적인 점자 형태(6점 구성)를 알고 있는 사람은 22.8%에 불과했다. 시각 장애인 중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은 14.4%로 매우 낮았다.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식률은 전체 50.0%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60.4%)이 비시각장애인(44.8%)보다 높았다.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전체 28%로 매우 낮았다.

둘째, 점자 경험 영역의 경우, 비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승강기 버튼(93.6%)이었으며, 계단 손잡이(33.1%), 화장실 입구(31.6%) 등의 순이었다. 점자 사용 환경은 물리적 표식에 한정되어 있으며, 점자 도서·명함 등 지식 정보 접근형 경험은 10% 이하로 매우 낮았다. 점자 학습 경험은 비시각장애인의 경우 3.4%에 불과하며, 주요 학습 동기는 ‘봉사 활동 목적(26.4%)’과 ‘가족·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20.5%)’였다. 점자를 학습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52.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로 학습·직장·공공 서비스 환경에서 경험했으며, 점자 서비스 부족(약 70%)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셋째, 점자에 대한 느낌 영역의 경우, 비시각장애인 다수는 점자를 ‘복잡하고 낯설다’고 인식하였으며, 친근감과 편리성 인식도 낮았다.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배우기의 어려움과 실생활 사용 불편을 함께 지적하였다. 비시각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느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것 같다(49.8%)’가 가장 많았고, ‘찾기 어려울 것 같다(24.8%)’,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다(13.5%)’ 순이었다.

넷째,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영역의 경우, 비시각장애인의 61.5%가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시각장애인의 사용률(14.4%)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시각장애인은 점자 사용이 학업·자립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디지털 음성 서비스의 확산으로 점자 학습 동기가 약화되고 있었으며, 점자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미만이었다.

다섯째,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영역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이 점자가 사회적 소통에 기여한다고 보았으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65%)고 응답했다.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교육 강화(48%)’, ‘공공 기관 표기 확대(31%)’, ‘디지털 점자 기기 보급(21%)’이 제시되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점자기기 보급과 표준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응답자 특성별 차이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장애 유형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학력·도시 거주·직업 보유층에서 점자 인지 및 사용 인식이 높았으며, 고령층과 읍면 지역 응답자의 인식이 낮았다. 또한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점자 활용률이 더 높았다.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시각장애인 대상 정책 제언으로 점자를 국가의 공용 문자로 인식하도록 대국민 교육 확대, 일상생활 속 점자 체험 기회 확대, 공공 기관의 점자 서비스 홍보와 정보 제공 강화, 미디어와 대중 캠페인을 활용한 점자 인식 개선 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시각장애인 대상 정책 제언으로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점자 교육 확대, 점자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생활 중심 점자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점자 활용 환경 강화, 점자 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환경 기반 강화, 점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적 접근 필요를 제시하였다.

2부에서 기술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대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으로 설문 조사에 사용한 설문 도구는 선행 연구인 국립국어원(2019, 2020)의 점자 표기 실태 조사에서 개발한 조사 도구를 초점 집단 면담(FGI)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보완하였으며, 이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와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존 조사 항목 중 유지해야 할 항목과 새롭게 추가해야 할 항목을 검토하여 최종 조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20~6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으로 표본을 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동 시설 및 공공 시설 등의 점자 사용 환경 관련 문항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응답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집단 간 응답 차이를 확인하려고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인 경우에는 독립 표본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는 현재 만족 수준(만족도)과 바람직한 수준(필요성)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개선 요구 사항을 보리치(Borich) 요구도와 로커스 포 포커스(Locus for Focus) 모형을 이용하였다. 국립국어원(2020)의 점자 표기 실태 조사에서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해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시계열적 비교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동일한 분석 기준을 유지하였으며, 2020년과 2025년 조사 결과를 모두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으로 이동 편의 시설과 공공시설의 점자 이용, 중요도, 만족도 및 인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동 편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이동 편의 시설 중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교통수단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는 약 41%, 지하철은 42% 이상이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버스는 약 49%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약 13%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등 도시 생활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활용성을 보였다. 이용 빈도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높았고, 고령·저학력·비도시권 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나 이동권의 지역·사회적 격차가 확인되었다.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이동 편의 시설에서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은’ 불균형이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항목은 승강기 버튼 및 통화장치 점자(중요도 4.58점)였으며, 만족도도 3.85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점자와 화장실 성별 구분 점자(중요도 약 4.40점)는 만족도가 각각 3.12점, 2.65점으로 낮았다. 또한 계단 손잡이(4.39점), 경사로 손잡이(4.36점) 역시 중요도는 높았으나 만족도는 약 3.08점 수준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이동의 방향과 안전과 관련된 점자는 중요도가 매우 높았지만, 화장실·자동 발매기·좌석 등 생활 편의 영역의 만족도는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점자 표기의 적절성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응답은 약 30~40% 수준에 머물렀다. 점자 위치와 간격·높이 등 물리적 구조는 중간 수준, 내용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유지 관리 상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자유 의견에서는 점자 위치의 비일관성, 과도한 높낮이, 오염·마모, 오탈자 및 비표준 규격, 관리 부재 등이 주요 문제로 반복 지적되었다. 즉, 점자의 존재 여부보다 ‘설치 기준과 유지 관리의 미흡’이 실제 이용 불편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시설은 도시 생활권 중심 대중교통(지하철·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점자 표기는 높은 중요도 인식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와 적절성 평가는 중간 수준에 머물러 체계적 설치 기준과 유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020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공공시설)’ 결과와 본 조사를 비교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공공 시설 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병원 이용 빈도는 3.25에서 4.11로 증가(+0.86)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으며, 공연장 및 관람장은 2.03→2.46,

학교는 1.48→1.93, 업무 시설은 1.04→1.52로 확대되었다. 반면 사회 복지 시설은 4.23에서 4.22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이용 수준을 유지하였다.

점자 표기의 중요도 인식은 모든 시설에서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감소 경향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는 4.70→4.33(-0.37), 공공청사는 4.64→4.31(-0.33)로 나타났다. 이는 점자 필요성 감소라기보다 디지털·음성 안내 등 정보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점자 안내 만족도는 일부 영역에서 개선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3.13→3.69(+0.56)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승강기 점자 만족도 역시 3.30→3.70(+0.40)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점자 안내 이용 빈도는 승강기 4.87, 계단 3.38, 복도 손잡이 3.20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출입문 방 이름 점자 2.28, 자동판매기 점자 1.76 등은 낮게 나타나 실제 이동 동선 중심의 점자 정보 활용 특성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은 확대되고 일부 점자 안내 환경의 만족도는 개선되었으나, 향후 정책은 단순 설치 확대보다 실제 이동 동선과 사용 맥락을 반영한 기능적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자 표기를 ‘형식적 설치’에서 ‘실질적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실효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하다.

셋째, 이동과 안전 중심 시설 개선에 초점을 두고 확장해야 한다.

넷째, 중도가가 높고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집중 개선해야 한다.

영문요약 Survey on Braille usage patter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braille policy by investigating the public's awareness of braille and the needs related to the braille-use environment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he research on public awareness of braille and the braille-use environment was conducted in two parts: a survey on braille awareness targeting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aged 20 to 69, and a survey on the braille-use environment targeting visually impaired people aged 20 to 69 who know braille. Accordingly, Part 1 describes the introduction, previous studies, research methods, survey results, summary and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braill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Part 2 describes the introduction, previous studies, research methods, survey results, summary and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braille-use environment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 summary of the research methods,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public awareness of braille described in Part 1 is as follows.

In examin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braille, the instrument for investigating braille awareness was divided into six domains: “awareness of braille,” “experience with braille,” “feelings toward braille,” “perceptions of braille use,” and “perceptions of braille development.” The finalized survey instrument consisted of 29 items for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and 30 items for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The sample for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braille was set at 1,000 non-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and 500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nationwide, all aged 20 to 69.

The survey of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was commissioned to a

professional survey organization and conducted by trained interviewers via telephone from May 12 to June 12, 2025. The survey of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was conducted by four non-visually impaired interviewers who had experience administering surveys to visually impaired participants,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survey method. After interviewer training, the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both online and telephone methods from June 1 to July 10, 2025.

The major findings of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braill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domain of awareness of braille, 100% of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said they had “seen braille before,” but only 22.8% knew its specific form, that is, the six-dot configuration. Among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the proportion who could read and write braille was very low, at 14.4%. Awareness of braille as an officially designated national script was 50.0% overall, with a higher rate among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60.4%) than among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44.8%). Awareness of the public institution system for providing braille documents was also very low at 28% overall.

Second, in the domain of braille experience, the places where non-visually impaired people most frequently encountered braille in daily life were elevator buttons (93.6%), followed by stair handrails (33.1%) and restroom entrances (31.6%). The braille-use environment was limited to physical signage, while experience related to access to informational resources such as braille books and braille business cards was extremely low, at under 10%. Experience in learning braille among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was only 3.4%, and the main motivations for learning were “for volunteer activities” (26.4%) and “having a visually impaired family member or acquaintance” (20.5%). More than half (52.5%) of those who had not learned braille said the reason was that “there was no need to use it.”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mainly encountered braille in learning, workplace, and public service settings, and about 70% pointed to a lack of braille services as a problem.

Third, in the domain of feelings toward braille, many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perceived braille as “complex and unfamiliar,” and levels of familiarity and perceived convenience were also low.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agreed on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braille, but also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learning it and the inconvenience of using it in real life. Among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the most common feeling toward braille was “it seems that visually impaired people would use it conveniently” (49.8%), followed by “it seems difficult to find” (24.8%) and “I would like to touch it out of curiosity” (13.5%).

Fourth, in the domain of perceptions of braille use, 61.5% of non-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answered that “visually impaired people use braille frequently in daily life,” which showed a large discrepancy from the actual usage rate among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14.4%).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stated that braille use is important for academic work and independent living, but the spread of digital voice services was weakening motivation to learn braille, and fewer than 30% responded that braille services were sufficient.

Fifth, in the domain of perceptions of braille development, more than 70% overall viewed braille as contributing to social communication, but 65% respond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policy support for its development. Suggested government roles for improving awareness of braille included “strengthening education” (48%), “expanding braille signage in public institutions” (31%), and “distributing digital braille devices” (21%). In particular,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emphasized the need for the distribution of braille devices and standardized education.

Sixth, in differences according to respondent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in awareness were found across all factors, including gender, age, region,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and type of disability. Awareness of braille and perceptions of its use were higher among highly educated respondents, urban residents, and those with occupations, while awareness was lower among older adults and respondents living in rural township or village areas. In addition, among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the rate of braille use was higher among those with more severe visual disabilit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on public awareness of braill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Fir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non-visually impaired people included expanding public education so that braille is recognized as an official national script, increas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braille in daily life, strengthening publicity and information provision regarding braille services in public institutions, and reinforcing braille awareness improvement activities through media and public campaigns.

Seco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included expanding customized braille education for people with acquired visual impairments, creating everyday braille environments to increase motivation for braille learning, strengthening braille-use environments linked with digital technology, fostering professional personnel for braille education and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aking a cultural approach to promote positive perceptions of braille.

A summary of the research methods,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survey on the braille-use environment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described in Part 2 is as follows.

As for the research methods, the survey instrument used in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based on the instrument developed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2019 and 2020 surveys on the status of braille notation. Its content validity was supplemen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In order to enable time-series analysis with previous surveys on braille notation, the researchers reviewed which existing survey items should be retained and which new items should be added, and then finalized the survey instrument.

The population for the survey on the braille-use environment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consisted of severely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aged 20 to 69, and a sample of 300 was selected. As for the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n items related to the braille-use environment in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identify overall response trends. In addition,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gender, age, residential area, educational level, and other variables, independent-samples t-tests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when the dependent variable was quantitative,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as used when the dependent variable was categorical. For the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the braille-use environ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level of satisfaction and the desirable level of need was examined using the Borich needs assessment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Since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2020 survey on braille notation included respondents with no experience using the relevant facilities when analyzing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is study maintained the same analytical criteria to ensure continuity in time-series comparison. Both the 2020 and 2025 survey results were converted to a five-point scale for comparison under the same standard.

A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survey on the braille-use environment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is as follows.

This survey analyzed the use, perceived importance,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braille in mobility and public facilities among 300 severely visually impaired respondents.

First, regarding the use of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subway stations and subway transportation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use among such facilities. About 41% reported using subway stations daily or weekly on a regular basis, and more than 42% reported regularly using the subway. While about 49% responded that they did not use buses, about 13% used them regularly, indicating a certain level of utility as an urban means of transportation. Frequency of use was higher among younger respondents, those with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ose living in large cities, while it was lower among older, less educated, and non-urban groups, confirming regional and social disparities in mobility rights.

The results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braille signage showed an imbalance in most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in which “importance was

high but satisfaction was low.” The item perceived as most important was braille on elevator buttons and communication devices (importance score: 4.58), and satisfaction was also relatively high at 3.85. In contrast, braille on subway platform screen doors and restroom gender-identification braille, both with importance scores of about 4.40, had low satisfaction scores of 3.12 and 2.65 respectively. Likewise, stair handrails (4.39) and ramp handrails (4.36) were also rated highly in importance, but satisfaction remained at around 3.08. Overall, braille related to direction and safety in mobility was perceived as highly important, but satisfaction tended to be low in areas of everyday convenience such as restrooms, ticket vending machines, and seating.

The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braille signage was generally at a “moderate level,” and positive responses remained at only about 30% to 40%. Physical structure, such as braille location, spacing, and height, was rated at a medium level, and content accuracy received relatively positive evaluation, whereas maintenance conditions received the lowest ratings. Positive perceptions increased with age, while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s showed more critical perceptions. In open-ended comments, respondents repeatedly pointed to inconsistency in braille placement, excessive differences in height, contamination and wear, typographical errors and non-standard specifications, and poor maintenance as major problems. In other words, the core factor causing inconvenience in actual use was not merely whether braille existed, but rather the inadequacy of installation standards and maintenance.

In summary, braille in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is concentrated in urban public transportation settings such as subways and buses. Despite the high perceived importance of braille signage, satisfaction and evaluations of appropriateness remained at only a moderate level, confirming the need to strengthen systematic installation standards and maintenance.

A comparison between the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Braille Notation (Public Facilities)” and the present survey showed that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by visually impaired people generally tend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frequency of hospital use increased from 3.25 to 4.11 (+0.86), showing the

largest increase. Use of performance venues and exhibition spaces increased from 2.03 to 2.46, schools from 1.48 to 1.93, and office facilities from 1.04 to 1.52. In contrast,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wed almost no change, from 4.23 to 4.22, but still maintained the highest level of use.

Perceived importance of braille signage remained very high, above 4 points, across all facilities, although a slight downward trend was observed in some areas. For example, schools declined from 4.70 to 4.33 (-0.37), and public office buildings declined from 4.64 to 4.31 (-0.33). This is interpreted not as a decrease in the need for braille, but rather as reflecting diversification in information access methods such as digital and audio guidance.

Satisfaction with braille guidance improved in some areas. Social welfare facilities showed the largest increase, from 3.13 to 3.69 (+0.56), and satisfaction with elevator braille also increased from 3.30 to 3.70 (+0.40).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use of braille guidance was relatively high for elevators (4.87), stairs (3.38), and corridor handrails (3.20), whereas it was low for braille room-name labels on doors (2.28) and braille on vending machines (1.76), confirming that braille information is used mainly along actual movement routes.

Overall, although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by visually impaired people has expanded and satisfaction with some braille guidance environments has improved, future policy should focus not merely on expanding installation but on functional improvements that reflect actual movement routes and contexts of us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on the braille-use environment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First, braille signage should be shifted from “formal installation” to “practical usability.”

Seco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social awareness need to be improved.

Third, improvements should be expanded with a focus on mobility- and safety-centered facilities.

Fourth, areas with high importance but low satisfaction should be prioritized for improvement.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
 2. 통계표에 수록된 모든 자료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항목 간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복수 응답이 있는 문항은 항목 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4.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국립국어원, 2025) OO 쪽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야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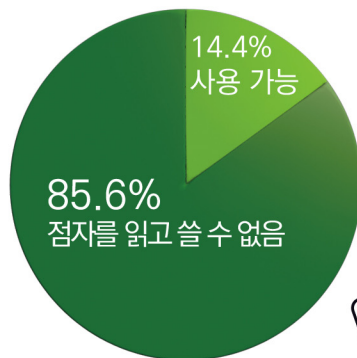
2025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20~69세 비시각장애인 1,000명, 시각장애인 500명

점자 인지도

점자 사용

점자 읽고 쓰기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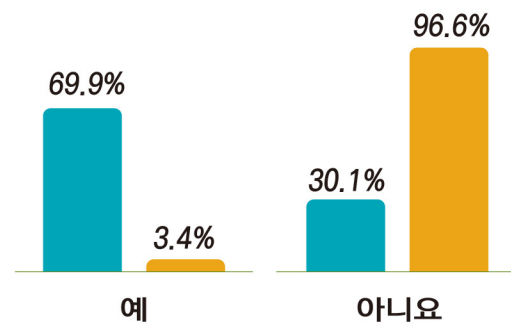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의 14.4%만
점자를 읽고 쓸 수 있음”



“심한 장애인의 69.9%,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3.4%가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다고 응답”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점자 형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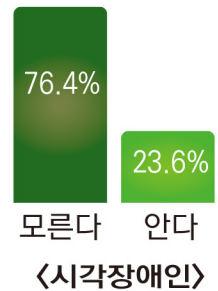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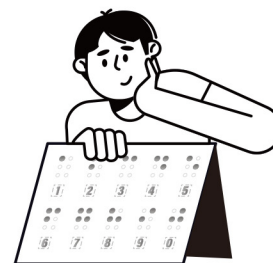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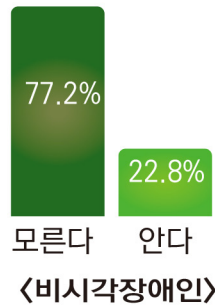
점자를 본 경험 (비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100%
모두 점자를
본 경험이 있음”

100%
모두 점자를 본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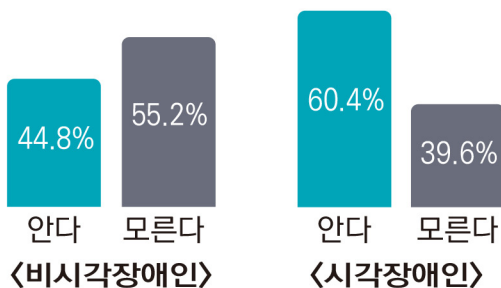


“비시각장애인 22.8%, 시각장애인 23.6%가 점자가
가로 2점, 세로 3점으로 구성된 문자라는 것을 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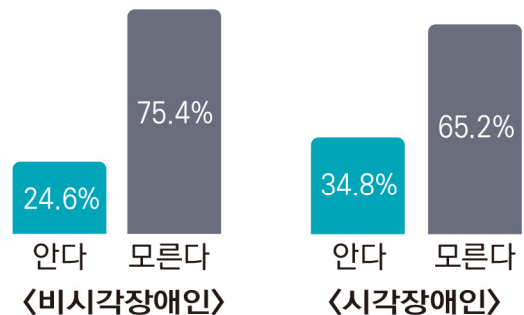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문자로 점자 인지

“비시각장애인 44.8%, 시각장애인 60.4%가 안다고 응답”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인지

“비시각장애인 24.6%, 시각장애인 34.8%가 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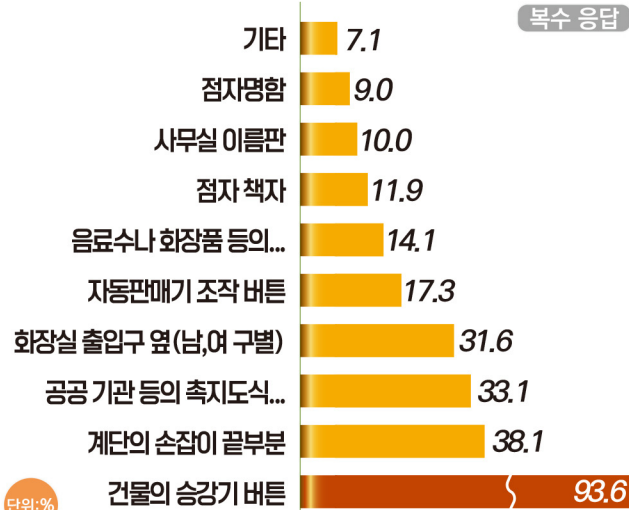
*비율의 합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음.

점자 경험

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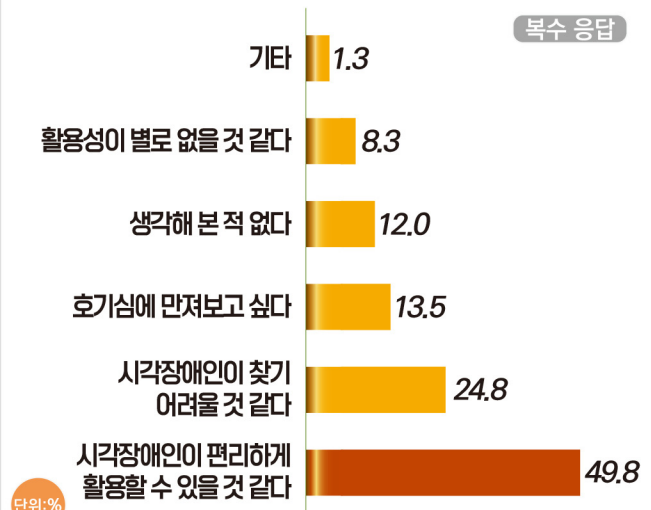
일상생활의 점자 경험

“건물의 승강기 버튼(93.6%),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33.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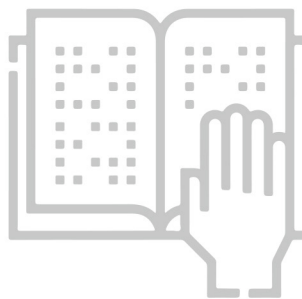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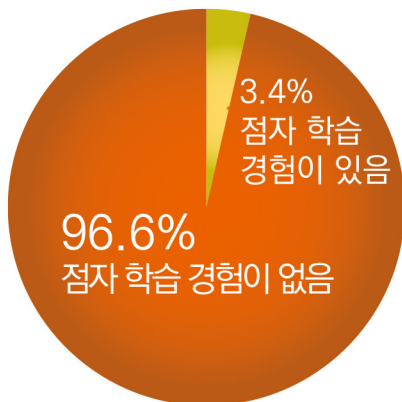
일상생활의 점자에 대한 느낌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49.8%), 시각장애인이 찾기 어려울 것 같다(24.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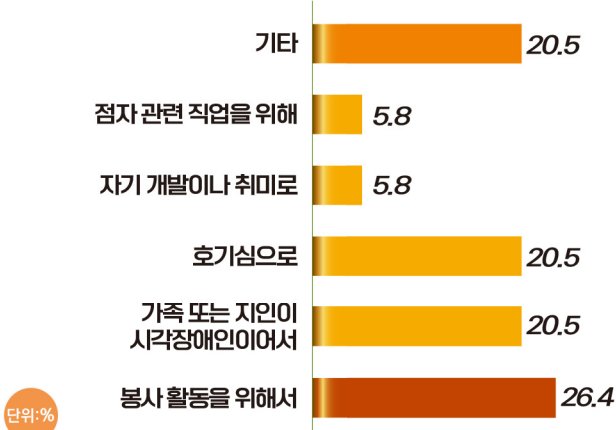
점자 학습 경험

“비시각장애인의 96.6%는 점자 학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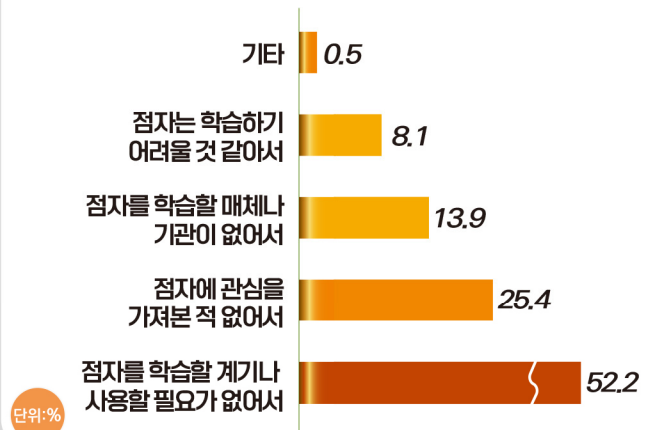
점자 학습 계기

“봉사활동(26.4%), 가족이나 지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20.5%) 순으로 나타남”



점자 학습 경험이 없는 이유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52.5%), 점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어서 (25.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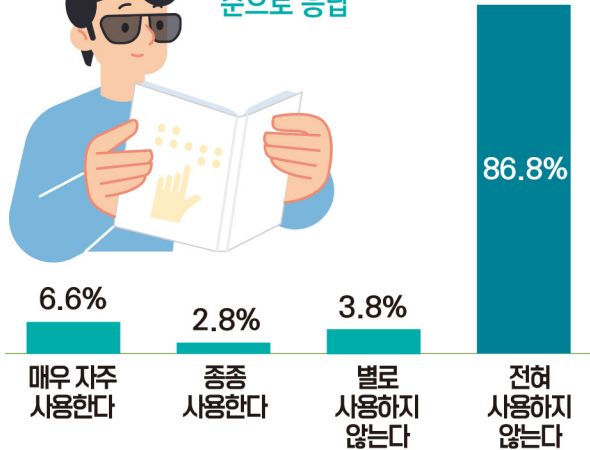
점자 경험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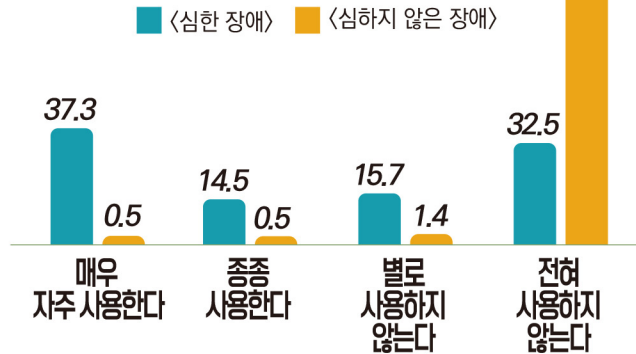
일상생활의 점자 경험



“사용하지 않는다(86.8%),
매우 자주 사용한다(6.6%)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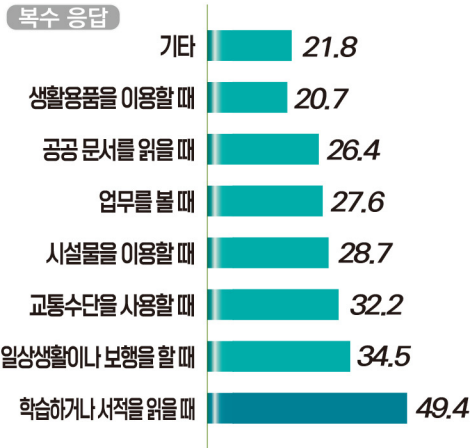


“심한 장애인의 37.3%,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0.5%가 점자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
“심한 장애인의 32.5%,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97.6%가 점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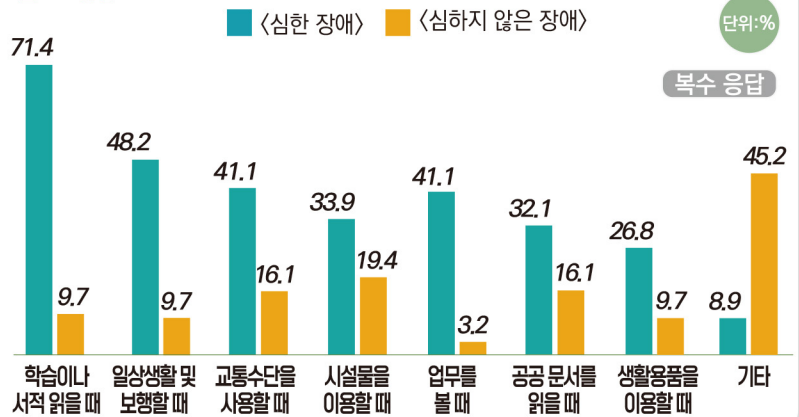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

“시각장애인 응답자 87명 중 학습하거나 서적을 읽을 때(49.4%), 일상생활 및 보행(34.5%)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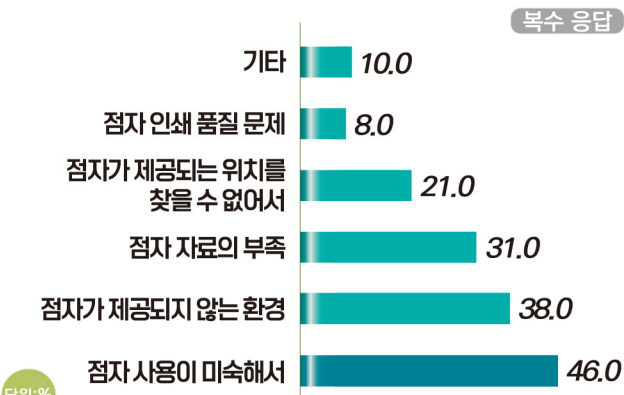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사용 환경

“심한 장애인은 학습이나 서적 읽을 때(71.4%),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48.2%) 순으로 응답”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물을 이용할 때(19.4%), 교통수단 사용 및 공공 문서 읽기(16.1%)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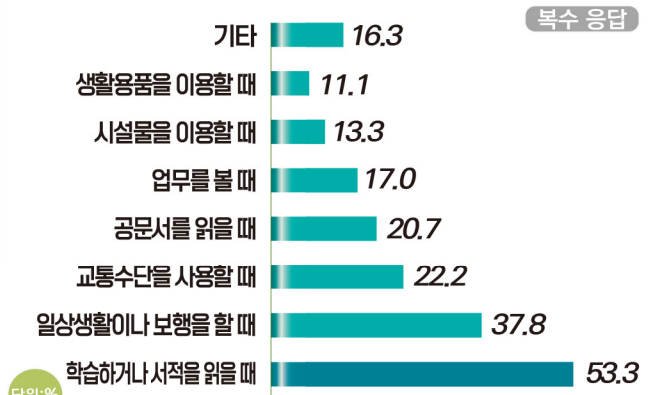
점자 사용의 어려운 점

“시각장애인 응답자 100명 중 점자 사용 미숙(46%),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38%) 순으로 응답”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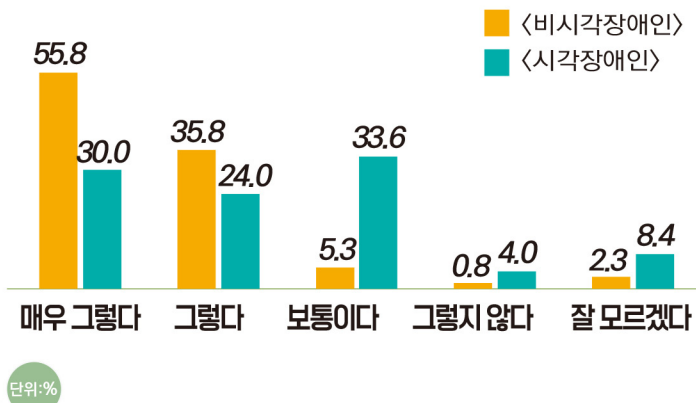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응답자 135명 중 학습하거나 서적을 읽을 때(53.3%),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37.8%) 순으로 응답”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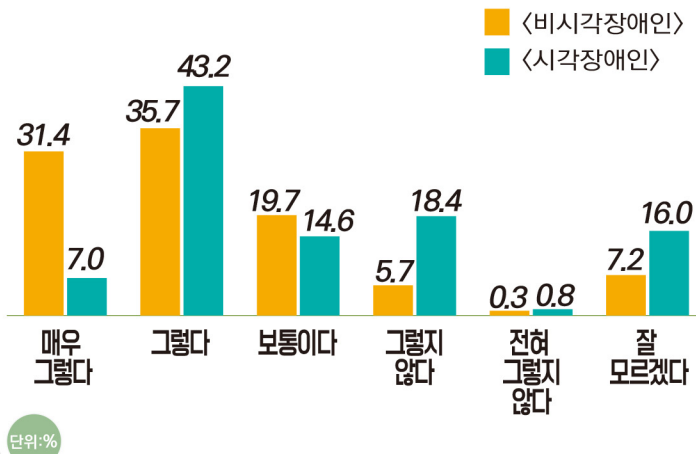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비시각장애인의 91.6%, 시각장애인의 54.0%가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점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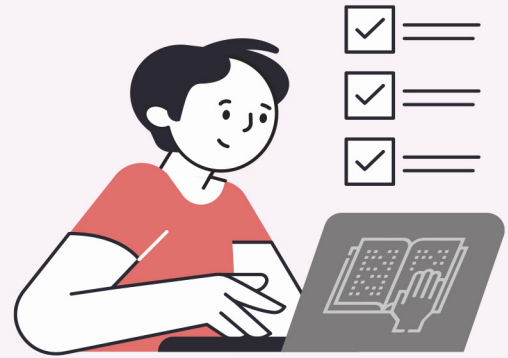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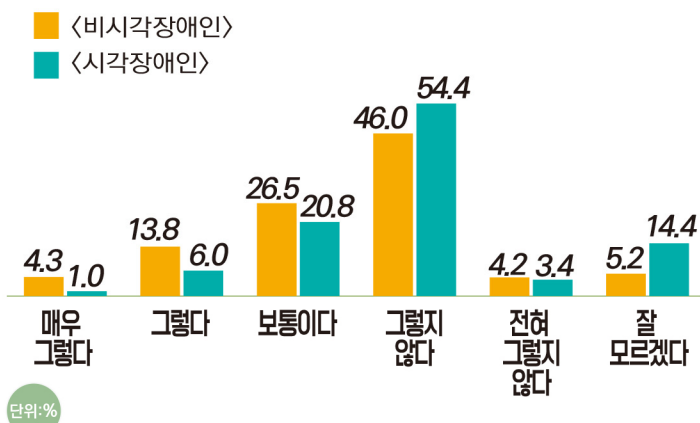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

“비시각장애인의 67.1%, 시각장애인의 50.2%가 긍정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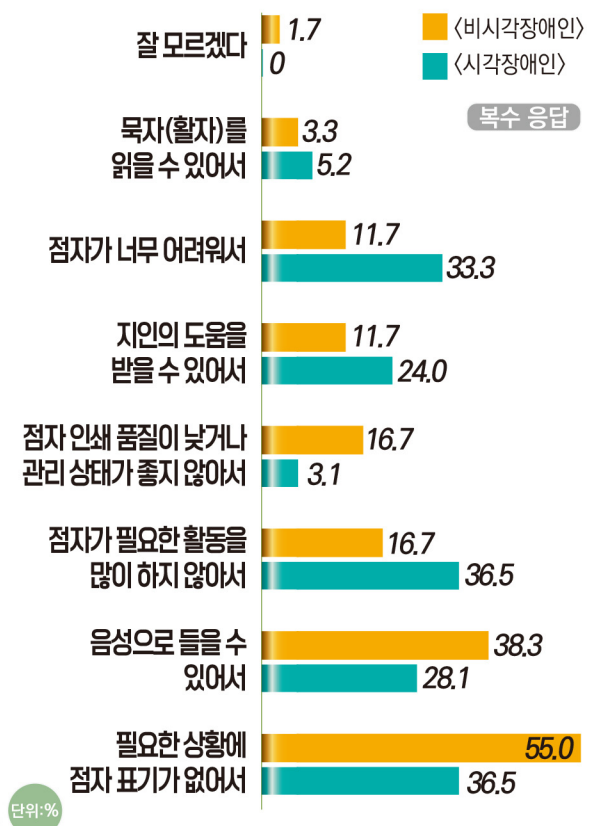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가에 대한 인식

“비시각장애인의 18.1%, 시각장애인의 7.0%가 긍정 응답, 비시각장애인의 48.2%, 시각장애인의 57.8%가 부정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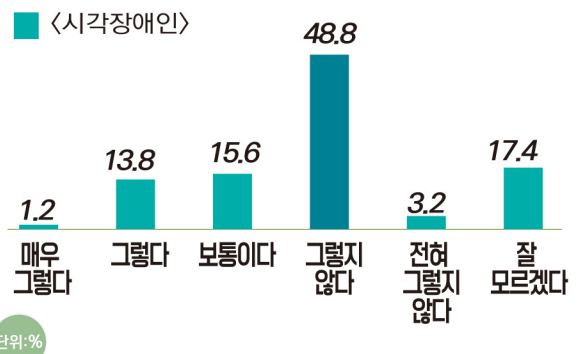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모두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가 가장 많음”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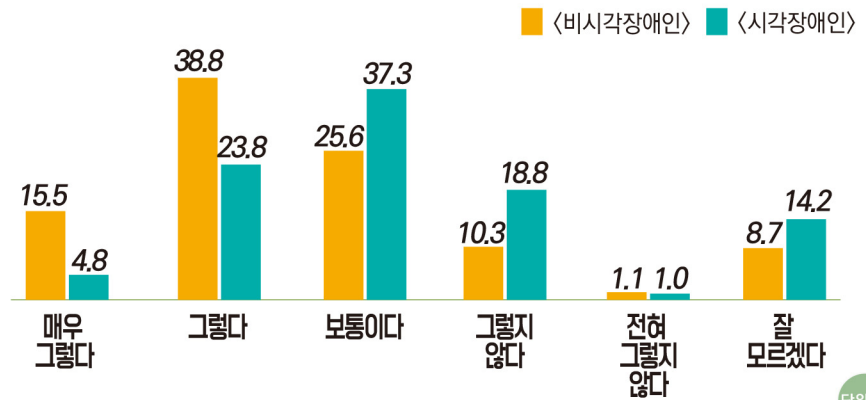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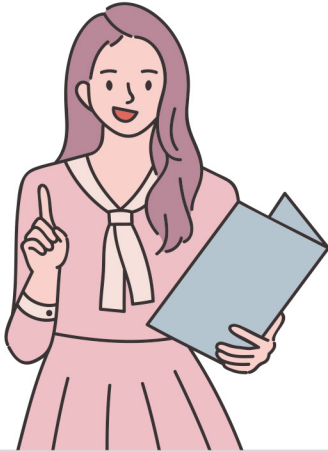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중 부정 응답 52%로 절반 이상은 점자 서비스가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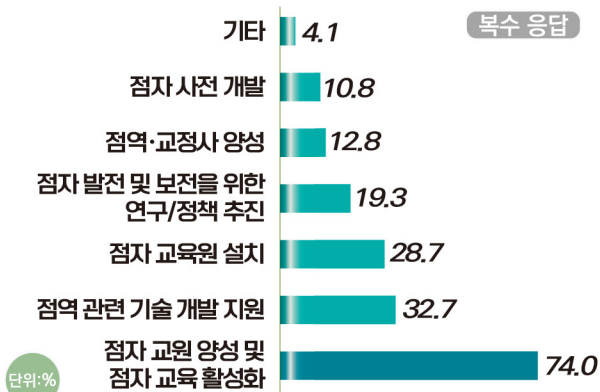
사회적 소통에 대한 점자의 기여 여부

“비시각장애인의 54.3%, 시각장애인의 28.6%가 긍정적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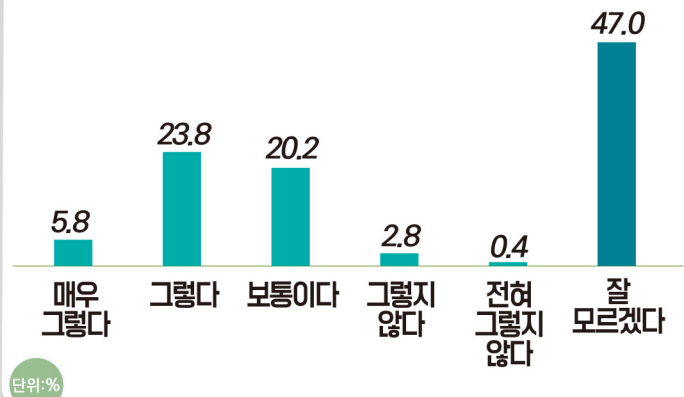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각장애인)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74%), 점역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32.7%) 순으로 응답”



디지털 점자 기기가 문자 사용에 도움되는 정도 인식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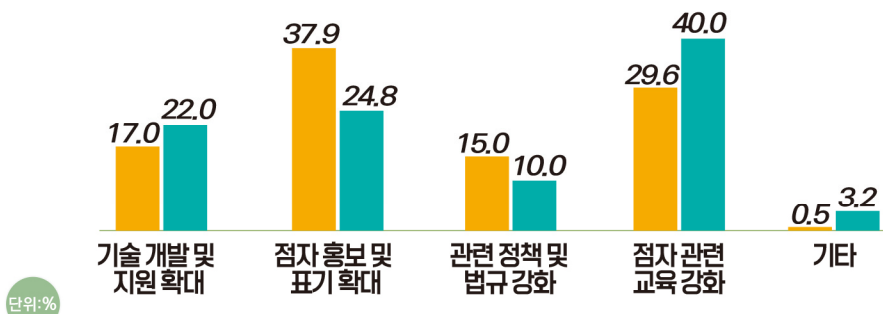
“긍정 응답 29.6%, 부정 응답 3.2%, 잘 모르겠다 47%로 체감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비시각장애인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37.9%), 시각장애인은 점자 관련 교육 강화(40.0%)가 가장 많음”

■ <비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



2025 점자 사용 환경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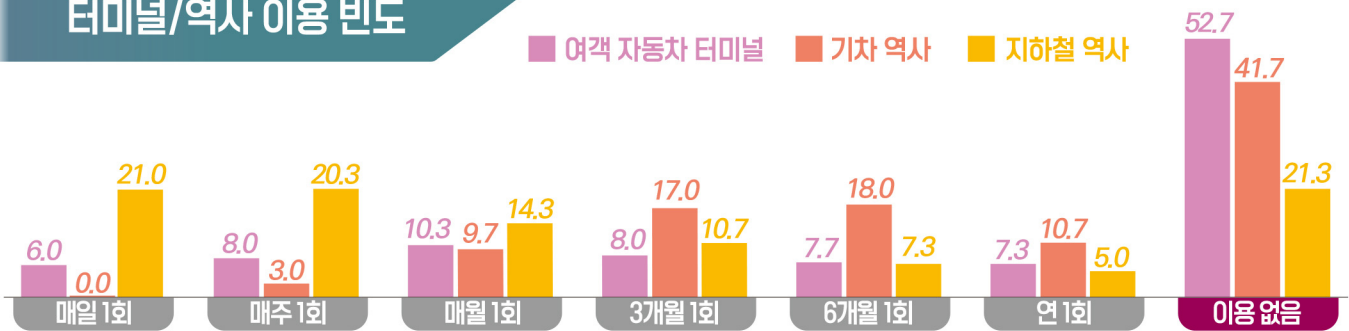
20~69세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

최근 1년간 이동 편의 시설의 이용 빈도

대부분의 질문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는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버스의 이용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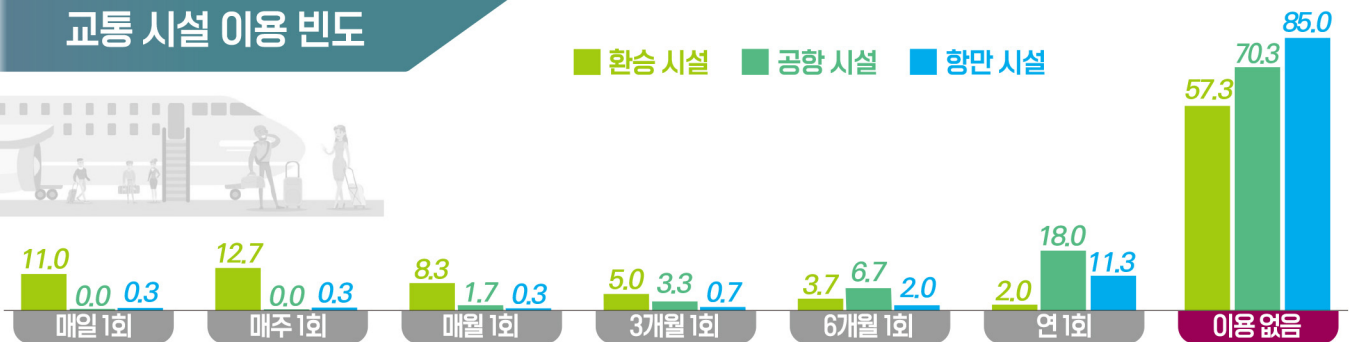
터미널/역사 이용 빈도

■ 여객 자동차 터미널 ■ 기차 역사 ■ 지하철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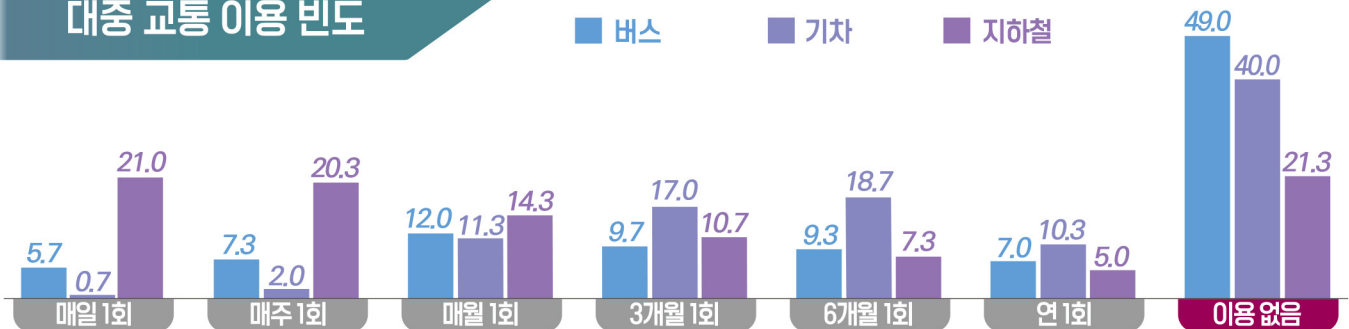
교통 시설 이용 빈도

■ 환승 시설 ■ 공항 시설 ■ 항만 시설



대중 교통 이용 빈도

■ 버스 ■ 기차 ■ 지하철



항공기/선박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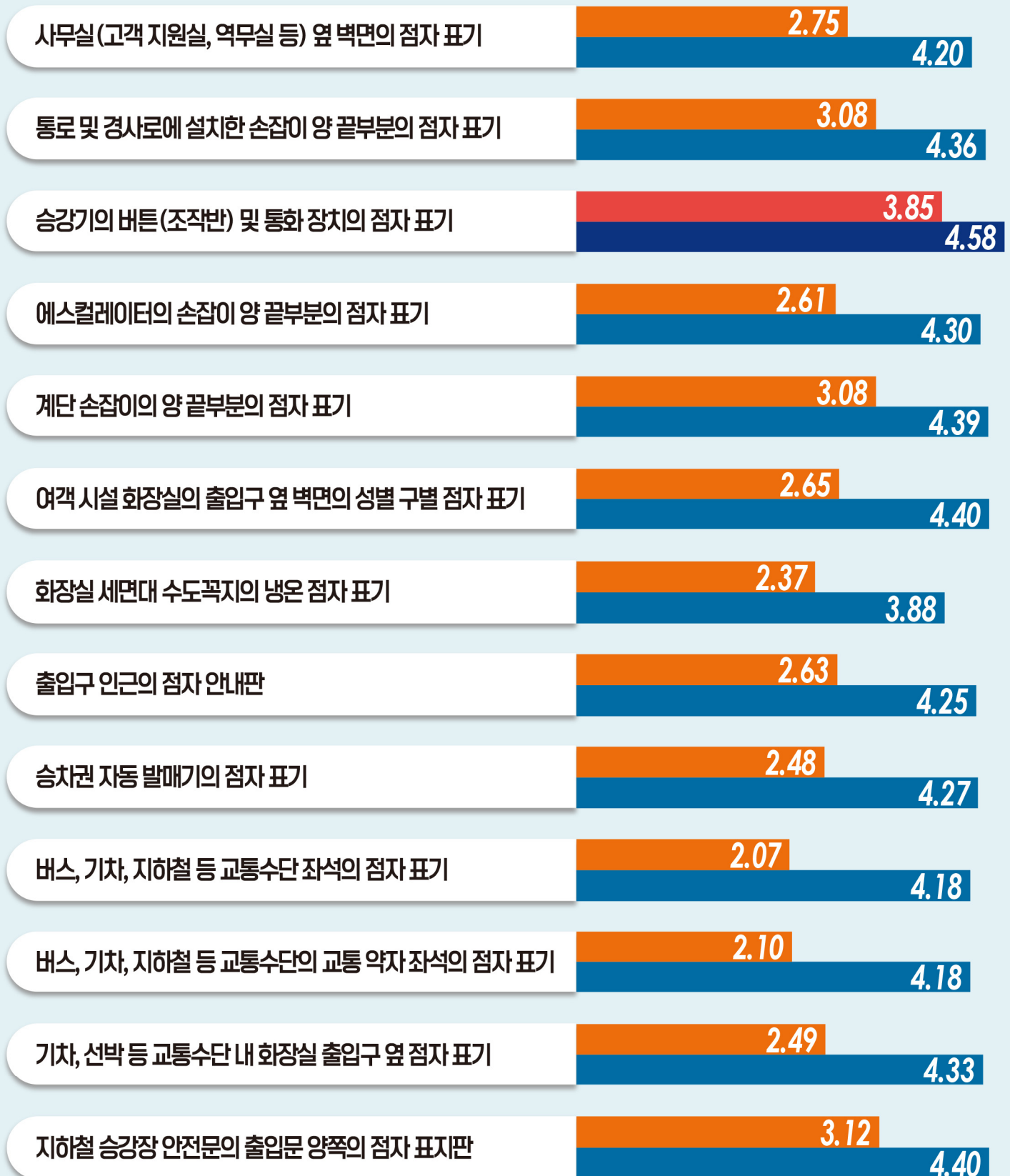
■ 항공기 ■ 선박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중요도(4.18점~4.58점)에 비해 만족도(2.07점~3.85점)는 매우 낮은 편. 승강기 조작반 점자(4.58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점자(4.40점),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4.40점)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임.
만족도는 승강기 조작반 점자(3.85점)가 가장 높았고 교통수단 좌석 점자(2.07점)가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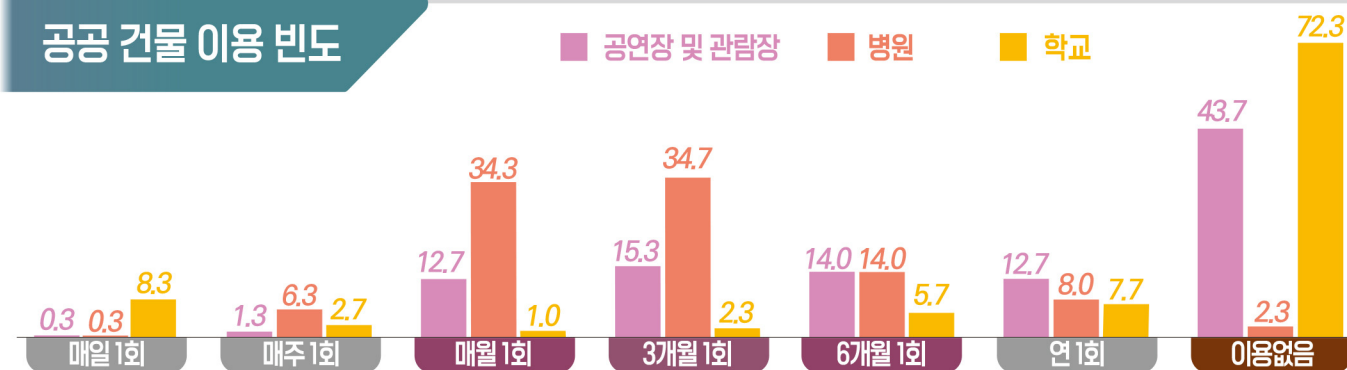
■ 만족도 ■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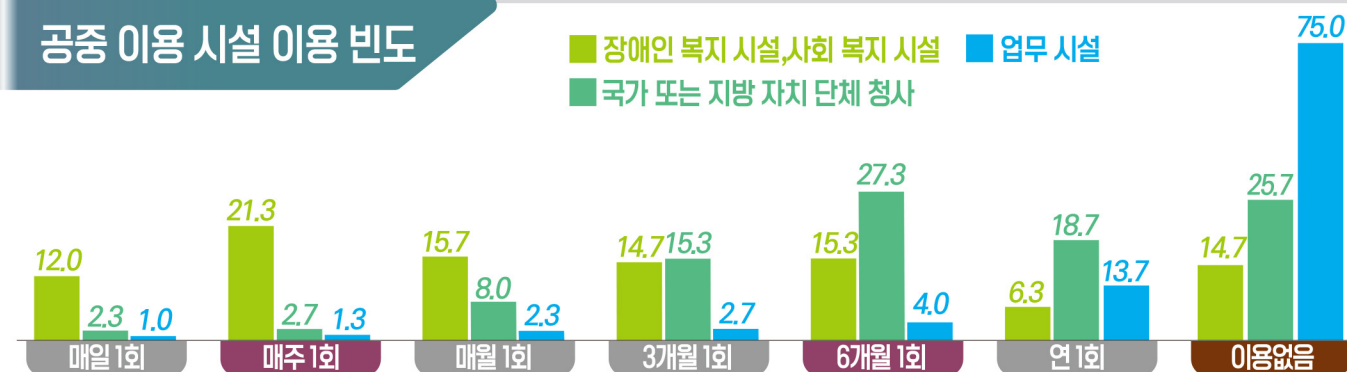
최근 1년간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이용 빈도

시설 유형에 따른 격차가 뚜렷함. 복지 시설과 병원의 이용률이 높고, 공연장, 업무 시설과 학교 등은 낮은 편임

공공 건물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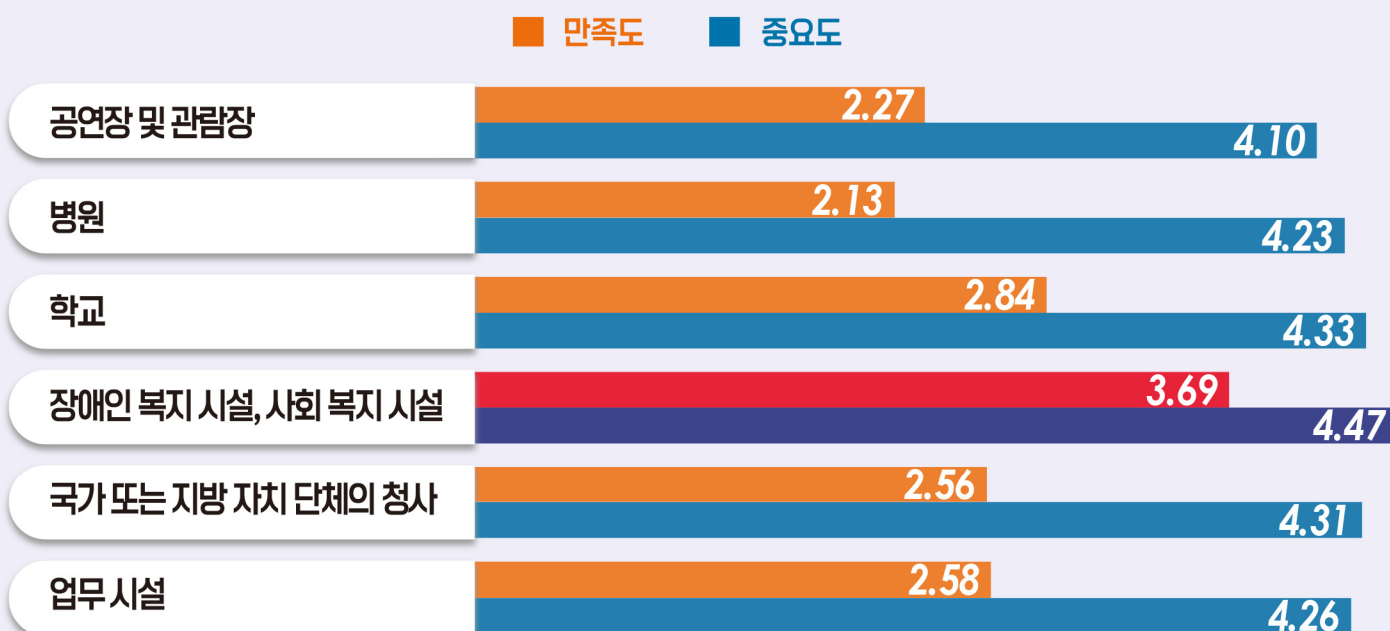


공중 이용 시설 이용 빈도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점자 표기 중요도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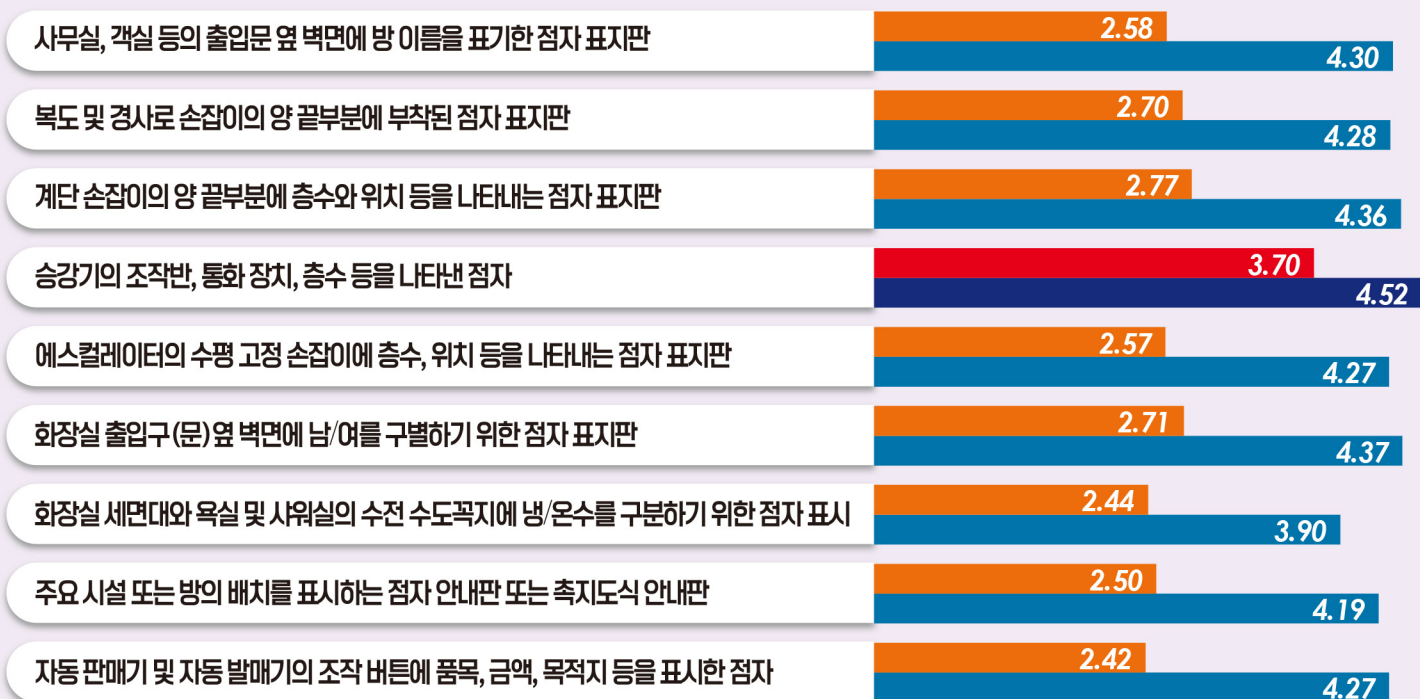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를 중요하게 인식(평균 4.3점 내외)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은 수준(2.5점 전후).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의 중요도(4.47)와 만족도(3.69)가 높은 편임



편의 시설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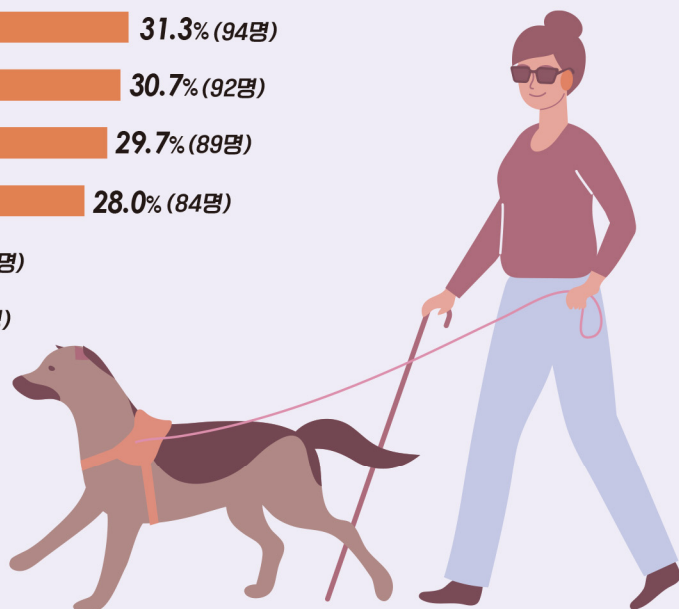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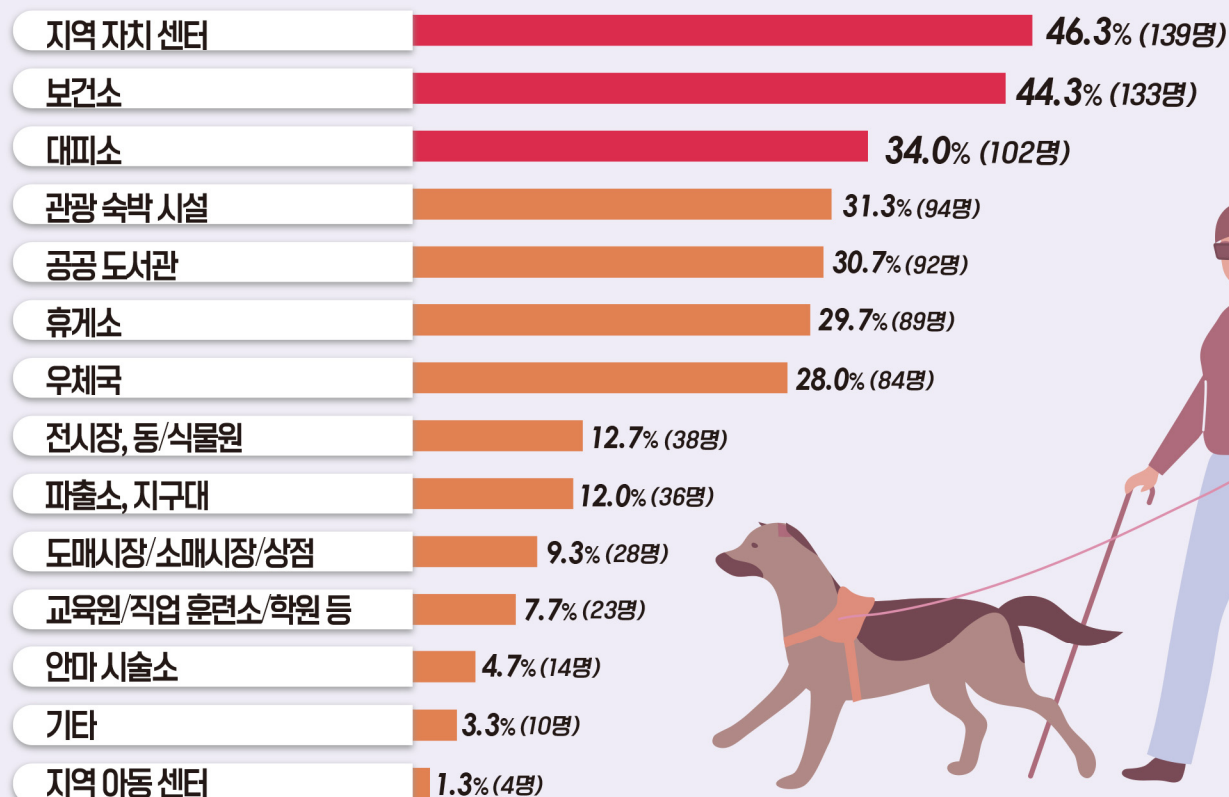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를 중요하게 인식(평균 4.3점 내외)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은 수준(2.5점 전후). 상대적으로 승강기 관련 점자 표기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았음

■ 만족도 ■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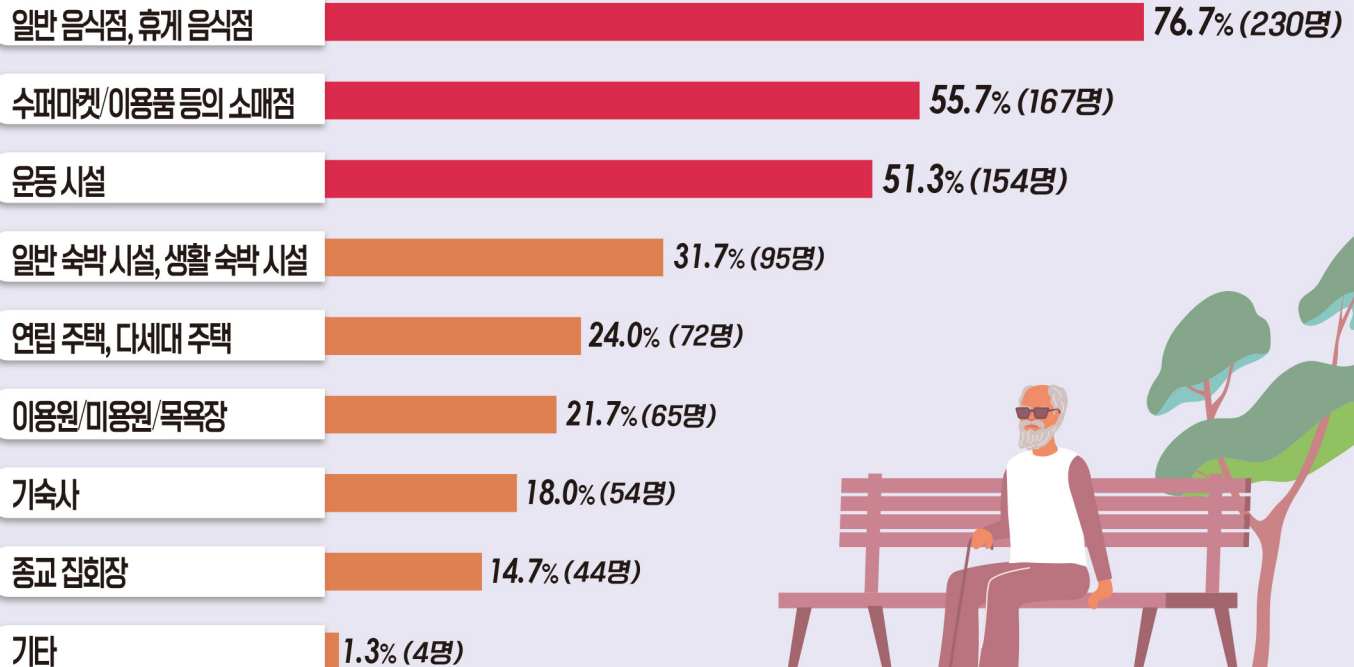
공공 시설 점자 안내판 설치 권장 우선순위 3개

점자 안내판 설치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지역 자치 센터(46.3%)였으며, 보건소(44.3%), 대피소(34.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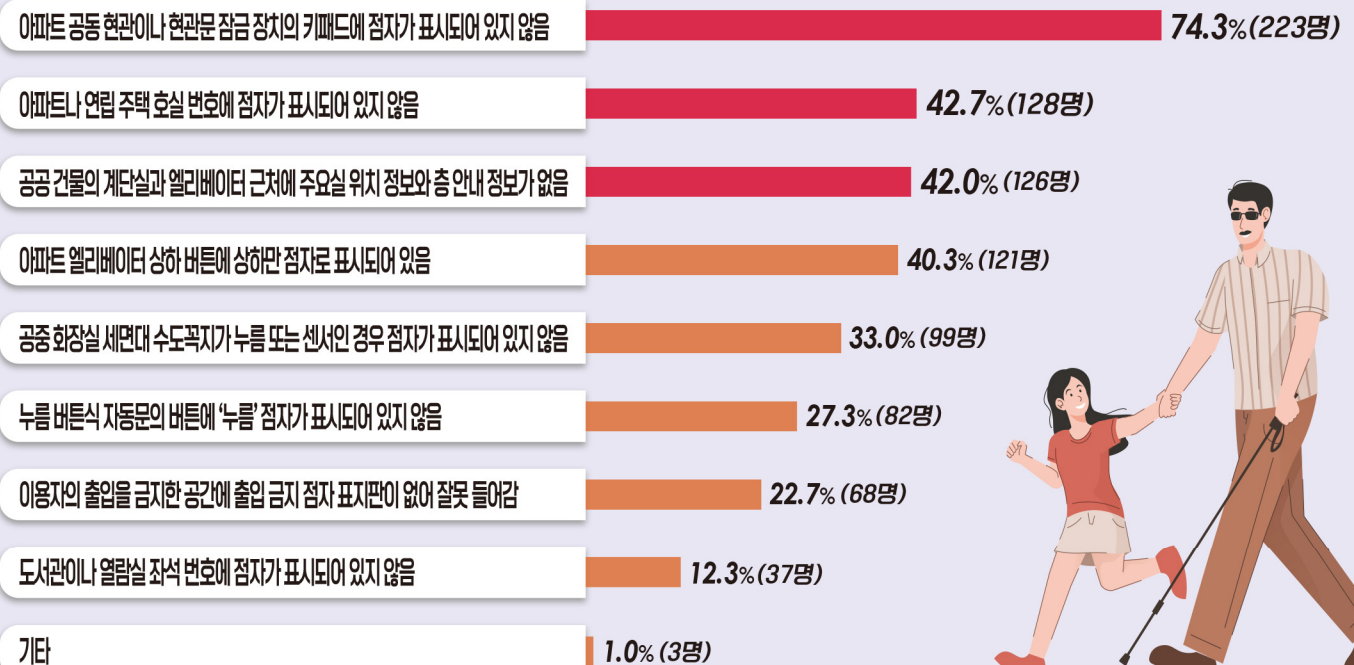
공공 시설 점자 표지판 설치 권장 우선순위 3개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이 76.7%로 가장 높았으며,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55.7%), 운동시설(51.3%) 순으로 나타남



개선이 시급한 사례 우선순위 3개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키패드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74.3%)가 가장 많고 아파트 연결 복도나 호실의 초인종·벨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42.7%), 공공 건물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근처에 주요실 위치 정보와 층 안내 정보가 없음(40.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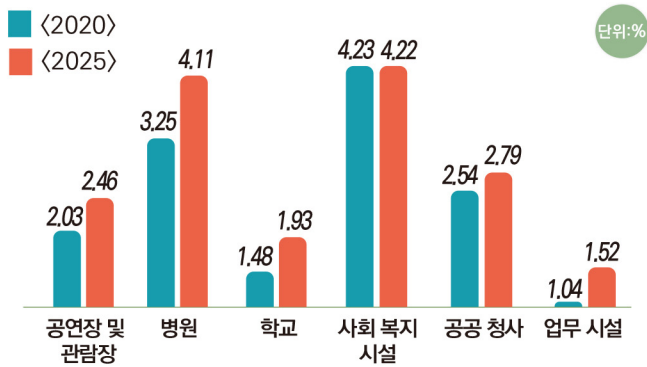


2020, 2025 점자 사용 환경과 인식의 변화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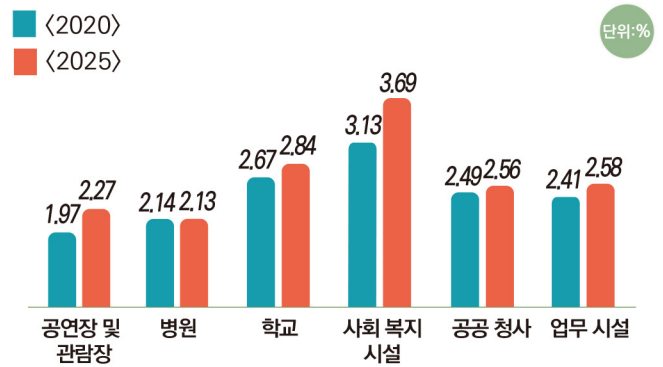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이용 빈도

“시각장애인의 공공 시설 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함,
특히 병원 이용 빈도가 가장 큰 증가”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점자 표기 만족도

“전반적으로 개선, 특히 사회 복지 시설이 3.13에서 3.69로
가장 크게 증가함, 다른 시설에 비해 병원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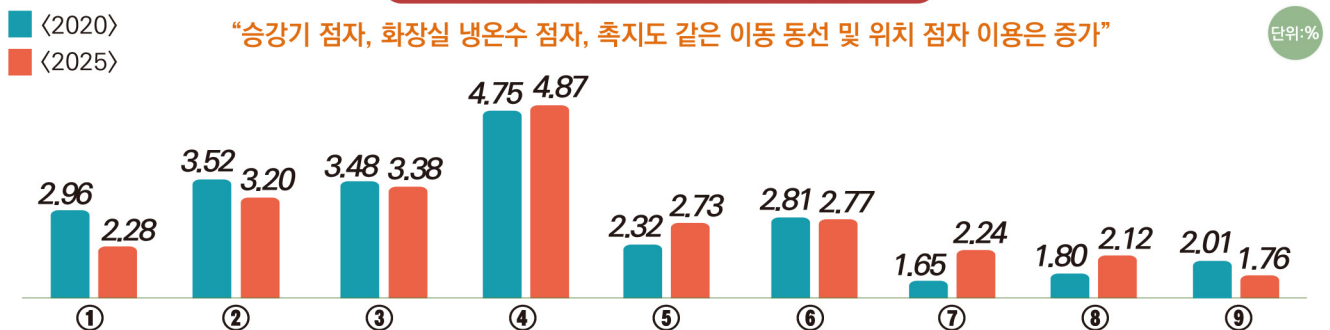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

목 록

- ①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 ②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 ③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④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 ⑤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⑥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녀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 ⑦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 ⑧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 ⑨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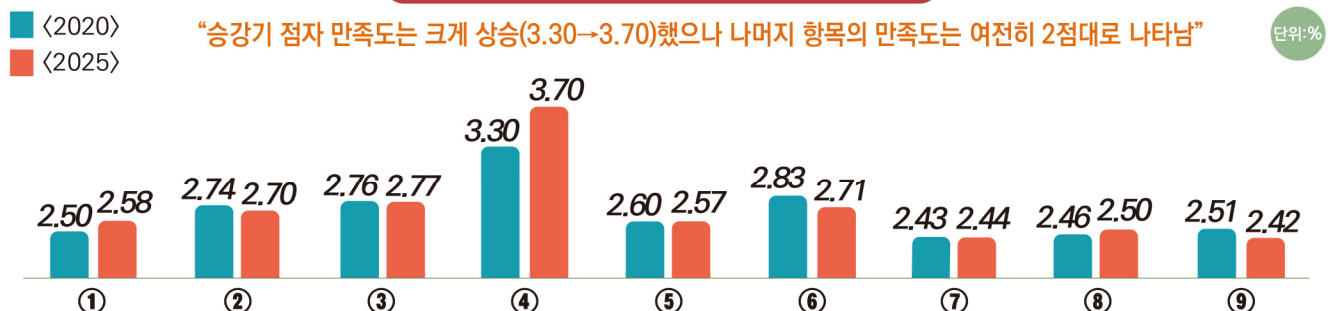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이용빈도

“승강기 점자, 화장실 냉온수 점자, 축지도 같은 이동 동선 및 위치 점자 이용은 증가”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만족도

“승강기 점자 만족도는 크게 상승(3.30→3.70)했으나 나머지 항목의 만족도는 여전히 2점대로 나타남”



목차

I.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1. 서론	2
2. 선행 연구	5
3. 연구 방법	13
4. 조사 결과	39
5. 요약 및 시사점	150
6.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55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1. 서론	160
2. 선행 연구	163
3. 연구 방법	175
4. 조사 결과	197
5. 요약 및 시사점	316
6.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22

참고문헌	325
------------	-----

부 록

[부록 1]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330
[부록 2]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설문지(비시각장애인용)	343
[부록 3]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설문지(시각장애인용)	349
[부록 4]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에 대한 FGI 사전 조사지	355
[부록 5]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356
[부록 6]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	365

표목차

〈표 I-1〉 국립국어원(2024)의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문항	16
〈표 I-2〉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지 타당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17
〈표 I-3〉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지 검토 진행 과정	18
〈표 I-4〉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토 결과	18
〈표 I-5〉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문항의 수정 내용 및 수정 사유	25
〈표 I-6〉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	32
〈표 I-7〉 국내 시각장애인 현황	34
〈표 I-8〉 20~69세 시각장애인 모집단 분포	35
〈표 I-9〉 비례 층화 추출에 따른 시각장애인 표본 설계	35
〈표 I-10〉 20~69세 비시각장애인 모집단 분포	36
〈표 I-11〉 비례 층화 추출에 따른 비시각장애인 표본 설계	36
〈표 I-12〉 시각장애인 조사 현황	38
〈표 I-13〉 응답자 기본 정보	40
〈표 I-14〉 점자를 본 경험 여부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42
〈표 I-15〉 점자 읽고 쓰기 여부(시각장애인)	44
〈표 I-16〉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45
〈표 I-17〉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비시각장애인)	47
〈표 I-18〉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시각장애인)	48
〈표 I-19〉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조사 결과	49
〈표 I-20〉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비시각장애인)	51
〈표 I-21〉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시각장애인)	52
〈표 I-22〉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조사 결과	53
〈표 I-23〉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비시각장애인)	55
〈표 I-2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시각장애인)	56
〈표 I-25〉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비시각장애인)	58
〈표 I-26〉 일상생활 중 점자에 대한 느낌(비시각장애인)	60
〈표 I-27〉 점자 학습 경험(비시각장애인)	62
〈표 I-28〉 점자 학습 계기(비시각장애인)	64
〈표 I-29〉 점자 학습 경험이 없는 이유(비시각장애인)	66
〈표 I-30〉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시각장애인)	68
〈표 I-31〉 점자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70
〈표 I-32〉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시각장애인)	72
〈표 I-33〉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74
〈표 I-34〉 점자 학습 의향 조사 결과	75
〈표 I-35〉 점자 학습 의향 조사 결과(평균 비교)	75
〈표 I-36〉 점자 학습 의향(비시각장애인)	78

〈표 I -37〉 점자 학습 의향(시각장애인)	79
〈표 I -38〉 점자 유용성 조사 결과	80
〈표 I -39〉 점자 유용성 조사 결과(평균 비교)	80
〈표 I -40〉 점자 유용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83
〈표 I -41〉 점자 유용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84
〈표 I -42〉 점자 배움의 용이성 조사 결과	85
〈표 I -43〉 점자 배움의 용이성 조사 결과	85
〈표 I -44〉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88
〈표 I -45〉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89
〈표 I -46〉 점자 사용 편리성 조사 결과	90
〈표 I -47〉 점자 사용 편리성 조사 결과	90
〈표 I -48〉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93
〈표 I -49〉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94
〈표 I -50〉 점자 친근감 조사 결과	95
〈표 I -51〉 점자 친근감 조사 결과	95
〈표 I -52〉 점자 친근감(비시각장애인)	98
〈표 I -53〉 점자 친근감(시각장애인)	99
〈표 I -54〉 점자 복잡성 조사 결과	100
〈표 I -55〉 점자 복잡성 조사 결과(평균 비교)	100
〈표 I -56〉 점자 복잡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102
〈표 I -57〉 점자 복잡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103
〈표 I -58〉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조사 결과	104
〈표 I -59〉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조사 결과(평균 비교)	104
〈표 I -60〉 시각장애인 학업 및 직업, 자립에서 점자 중요성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107
〈표 I -61〉 시각장애인 학업 및 직업, 자립에서 점자 중요성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08
〈표 I -62〉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조사 결과	109
〈표 I -63〉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조사 결과(평균 비교)	109
〈표 I -64〉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점자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112
〈표 I -65〉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13
〈표 I -66〉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	114
〈표 I -67〉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117
〈표 I -68〉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18
〈표 I -69〉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119
〈표 I -70〉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평균 비교)	119
〈표 I -71〉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122
〈표 I -72〉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23

표목차

〈표 I-73〉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25
〈표 I-74〉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	126
〈표 I-75〉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평균 비교)	126
〈표 I-76〉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130
〈표 I-77〉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31
〈표 I-7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	132
〈표 I-79〉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135
〈표 I-80〉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36
〈표 I-81〉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중복)	138
〈표 I-82〉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140
〈표 I-83〉 점자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에 따른 응답자 분포	141
〈표 I-84〉 점자인지에 대한 점자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의 응답	142
〈표 I-85〉 점자가 국가에서 정한 문자라는 사실 인지에 대한 응답	143
〈표 I-86〉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점자법에 대한 인지 여부	143
〈표 I-87〉 점자를 주로 사용할 때에 관한 집단 비교(복수 응답)	144
〈표 I-88〉 점자 사용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집단 비교	144
〈표 I-89〉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 및 학습 의향에 관한 집단 비교	145
〈표 I-90〉 점자 대신 음성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응답 비교	146
〈표 I-91〉 점자의 느낌에 관한 집단 비교	147
〈표 I-92〉 점자의 중요성 및 영향에 관한 집단 비교	148
〈표 I-93〉 점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 응답 비교	149
〈표 I-94〉 18_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응답 비교	149
〈표 II-1〉 초점 집단 면담(FGI) 참여자 명단	177
〈표 II-2〉 초점 집단 면담(FGI) 질문지 내용	178
〈표 II-3〉 초점 집단 면담(FGI) 결과 주요 내용	180
〈표 II-4〉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 타당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182
〈표 II-5〉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 검토 진행 과정	182
〈표 II-6〉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토 결과	183
〈표 II-7〉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문항의 수정 내용 및 수정 사유	186
〈표 II-8〉 20~69세 심한 시각장애인 모집단 분포	195
〈표 II-9〉 비례 층화 추출에 따른 심한 시각장애인 표본 설계	195
〈표 II-10〉 시각장애인 조사 현황	196
〈표 II-11〉 응답자 기본 정보	198
〈표 II-12〉 1년간 시각장애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 빈도	200
〈표 II-13〉 1년간 시각장애인의 기차역사 이용 빈도	202
〈표 II-14〉 1년간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역사 이용 빈도	204

〈표 II-15〉 1년간 시각장애인의 환승시설 이용 빈도	206
〈표 II-16〉 시각장애인의 공항시설 이용 빈도	208
〈표 II-17〉 1년 간 시각장애인의 항만 시설 이용 빈도	210
〈표 II-18〉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빈도	212
〈표 II-19〉 1년간 시각장애인의 기차 이용 빈도	214
〈표 II-20〉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빈도	216
〈표 II-21〉 1년간 시각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빈도	218
〈표 II-22〉 1년간 시각장애인의 선박 이용 빈도	220
〈표 II-23〉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1
〈표 II-24〉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2
〈표 II-25〉 승강기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3
〈표 II-26〉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4
〈표 II-27〉 계단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5
〈표 II-28〉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6
〈표 II-29〉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7
〈표 II-30〉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28
〈표 II-31〉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9
〈표 II-32〉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31
〈표 II-33〉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좌석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32
〈표 II-34〉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33
〈표 II-35〉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34
〈표 II-36〉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236
〈표 II-37〉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위치의 적절성	238
〈표 II-38〉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점 간격, 점 높이의 적정성	240
〈표 II-39〉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내용의 정확성	242
〈표 II-40〉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의 유지 관리	244
〈표 II-41〉 1년간 시각장애인의 공연장, 관람장 이용 빈도	250
〈표 II-42〉 1년간 시각장애인의 병원 이용 빈도	252
〈표 II-43〉 1년간 시각장애인의 학교 이용 빈도	254
〈표 II-44〉 1년간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빈도	256
〈표 II-45〉 1년간 시각장애인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이용 빈도	258
〈표 II-46〉 시각장애인의 업무 시설 이용 빈도	260
〈표 II-47〉 공연장 및 관람장의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61
〈표 II-48〉 병원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62
〈표 II-49〉 공연장 및 관람장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63
〈표 II-50〉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64

표목차

〈표 II-5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65
〈표 II-52〉 업무 시설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66
〈표 II-53〉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268
〈표 II-54〉 1년간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	270
〈표 II-55〉 1년간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272
〈표 II-56〉 1년간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	274
〈표 II-57〉 1년간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의 이용 빈도	276
〈표 II-58〉 1년간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	278
〈표 II-59〉 1년간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280
〈표 II-60〉 1년간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의 이용 빈도	282
〈표 II-61〉 1년간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이용 빈도 ..	284
〈표 II-62〉 1년간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의 이용 빈도	286
〈표 II-63〉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87
〈표 II-64〉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88
〈표 II-65〉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89
〈표 II-66〉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290
〈표 II-67〉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291
〈표 II-68〉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92
〈표 II-69〉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의 중요도와 만족도	293
〈표 II-70〉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295
〈표 II-71〉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296
〈표 II-72〉 편의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298
〈표 II-73〉 공공 시설 점자 안내판 설치 권장 우선 순위 3개	300
〈표 II-74〉 공공 시설 점자 표지판 설치 권장 우선 순위 3개	302
〈표 II-75〉 개선이 시급한 사례 우선 순위 3개	304
〈표 II-7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빈도	307
〈표 II-7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점자 표기 중요도	308
〈표 II-78〉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점자 표기 만족도	310
〈표 II-79〉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이용 빈도	311
〈표 II-80〉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	313
〈표 II-81〉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만족도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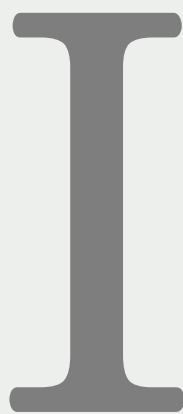
[그림 I-1]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진행 절차	15
[그림 I-2] 점자를 본 경험 여부(비시각장애인)	41
[그림 I-3] 점자 읽고 쓰기 여부(시각장애인)	43
[그림 I-4]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읽고 쓰기 여부	44
[그림 I-5] 점자 형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45
[그림 I-6] 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형태 인지	48
[그림 I-7]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49
[그림 I-8] 장애 정도에 따른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52
[그림 I-9]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53
[그림 I-10] 장애 정도에 따른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56
[그림 I-11] 일상생활 중 점자 경험(비시각장애인)	57
[그림 I-12] 일상생활 중 점자에 대한 느낌(비시각장애인)	59
[그림 I-13] 점자 학습 경험(비시각장애인)	61
[그림 I-14] 점자 학습 계기(비시각장애인)	63
[그림 I-15] 점자 학습 경험이 없는 이유(비시각장애인)	65
[그림 I-16]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시각장애인)	67
[그림 I-17]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 정도	69
[그림 I-18] 점자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69
[그림 I-19]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사용 시기	70
[그림 I-20]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시각장애인)	71
[그림 I-21]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	71
[그림 I-22]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73
[그림 I-23]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73
[그림 I-24] 점자 학습 의향	75
[그림 I-25]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학습 의향	79
[그림 I-26] 점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80
[그림 I-27]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84
[그림 I-28]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	85
[그림 I-29]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	89
[그림 I-30]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	90
[그림 I-31]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	94
[그림 I-32] 점자의 친근감	95
[그림 I-33]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의 친근감	99
[그림 I-34] 점자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100
[그림 I-35]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103
[그림 I-36]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인식	104

그림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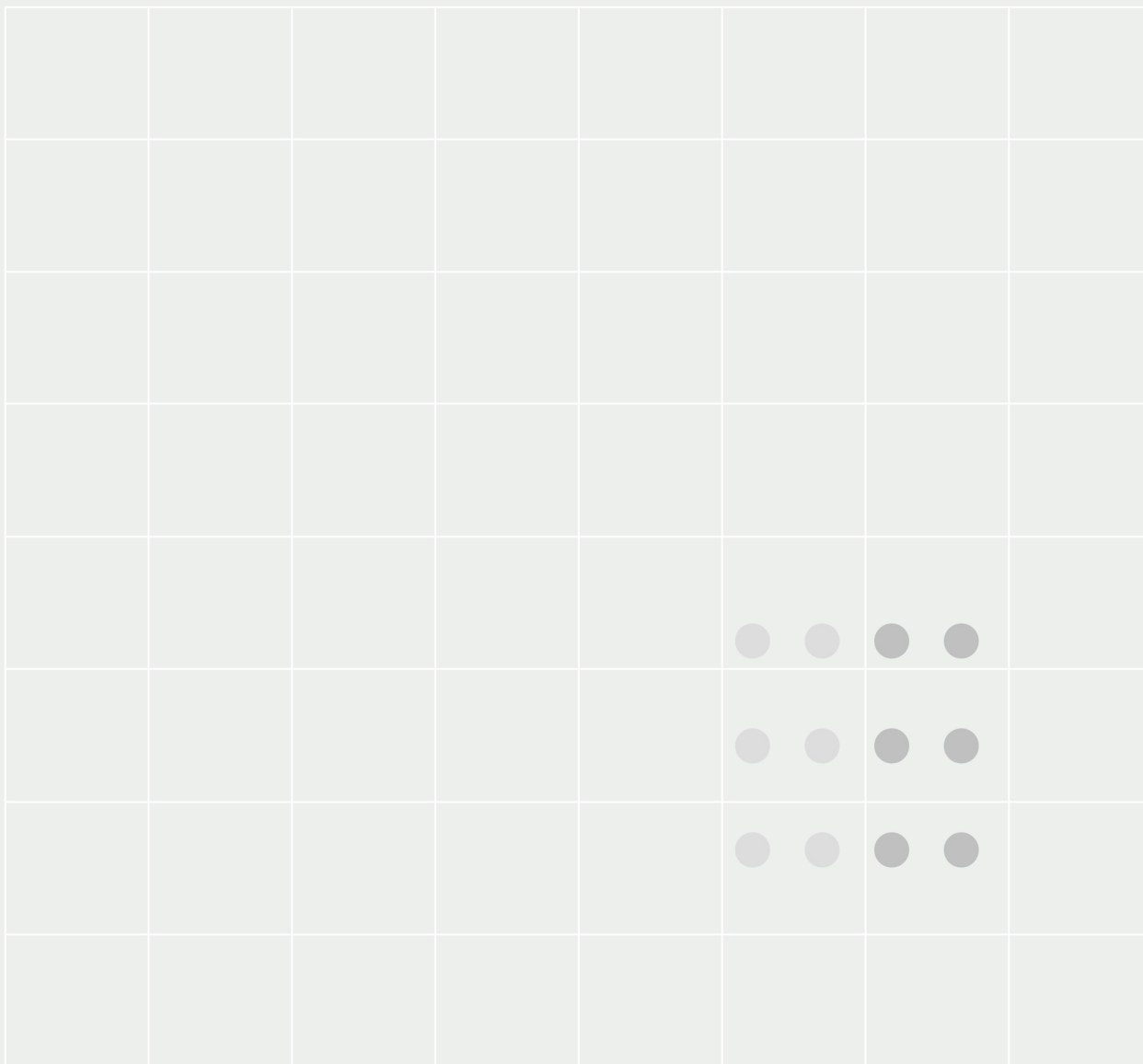
[그림 I-37] 장애 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인식	108
[그림 I-38]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인식	109
[그림 I-39] 장애 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인식	113
[그림 I-40]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114
[그림 I-41]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응답 결과	118
[그림 I-42]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	119
[그림 I-43]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관한 장애 정도별 인식	123
[그림 I-44]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	124
[그림 I-45]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	125
[그림 I-46]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	126
[그림 I-47]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에 관한 장애 정도별 인식	131
[그림 I-4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	132
[그림 I-49]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장애 정도별 인식	136
[그림 I-50]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137
[그림 I-51]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138
[그림 I-52]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	139
[그림 I-53]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	140
[그림 II-1] 항목별 점자편의 시설 미설치(부적정) 사례	166
[그림 II-2] 식품의 점자 표시 예	166
[그림 II-3]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 추진전략	167
[그림 II-4] 국제 점자 및 점자 기술 센터(IBTC)	171
[그림 II-5] 일본의 점자 표기 예시	172
[그림 II-6] 일본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우유 용기 포장	173
[그림 II-7]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진행 절차	176
[그림 II-8] 초점 집단 면담(FGI) 절차	179
[그림 II-9]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 빈도	199
[그림 II-10] 기차 역사 이용 빈도	201
[그림 II-11] 지하철 역사 이용 빈도	203
[그림 II-12] 환승시설 이용 빈도	205
[그림 II-13] 공항시설 이용 빈도	207
[그림 II-14] 항만시설 이용 빈도	209
[그림 II-15] 버스 이용 빈도	211
[그림 II-16] 기차 이용 빈도	213
[그림 II-17] 지하철 이용 빈도	215
[그림 II-18] 항공기 이용 빈도	217
[그림 II-19] 선박 이용 빈도	219

[그림 II-20]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236
[그림 II-21] 공연장, 관람장 이용 빈도	249
[그림 II-22] 병원 이용 빈도	251
[그림 II-23] 학교 이용 빈도	253
[그림 II-24]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 빈도	255
[그림 II-2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청사 이용 빈도	257
[그림 II-26] 업무 시설 이용 빈도	259
[그림 II-27]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268
[그림 II-28]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	269
[그림 II-29]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271
[그림 II-30]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	273
[그림 II-31]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의 이용 빈도	275
[그림 II-32]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277
[그림 II-33]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279
[그림 II-34]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의 이용 빈도	281
[그림 II-35]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의 이용 빈도	283
[그림 II-36]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의 이용 빈도	285
[그림 II-37] 편의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298
[그림 II-38]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이용 빈도	307
[그림 II-39]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점자 표기 중요도	308
[그림 II-40]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점자 표기 만족도	309
[그림 II-41]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이용 빈도	311
[그림 II-42]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	313
[그림 II-43]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만족도	315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점자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자신감과 독립성 그리고 동등권을 갖게 되며(Schroeder, 1989), 점자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yles, 1996).
- 점자의 중요성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2016년 점자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법은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 시행되고 있다. 점자법에 따라 「제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19~2023)」,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이 실행되어 왔다.
- 이 연구의 시행 근거는 「점자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점자법」 제9조 ①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988호, 2022. 9. 27., 일부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점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실태 조사의 내용을 ①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사항, ②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③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④ 점자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⑥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대통령령 제33364호, 2023. 3. 28., 일부개정).
- 2024년에는 점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의 1차 연도 실태 조사 사업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를 실행하였으며, 2025년에 시행하기로 한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실행하려고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 이 연구는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의 2차 연도 실태 조사 사업으로 계획된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라 진행되었다.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는 202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해 실행하였다.
- 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점자 인식을 조사하여 점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 확정 및 실행 계획 수립
 - 2024년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를 보완하여 조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 2024년 국립국어원이 수립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실행 계획을 참조하여 조사 방법의 타당성, 조사 대상자의 조사 접근성, 조사 피로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사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본 조사를 위한 실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실시
 - 조사 대상은 시각장애 성인 남녀 20세에서 69세까지 500명과 비시각장애 성인 남녀 20세에서 69세까지 1,000명이며, 전국 단위로 전화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고, 조사 표본 설계 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였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점자 인지도, 점자 경험, 점자 인식 등으로 하였다.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및 홍보 자료 제작
 - 조사 결과 통계 처리 및 연구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어 국민의 점자 인식을 개선할 위한 정책 제언을 수립하였다. 전문가는 시각장애인 및 관련 단체 종사자, 점자 전문가, 실태 조사 전문가, 편의 시설 전문가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 분석 결과 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자료를 제작(인포그래픽)하였다. 홍보 자료 제작 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3) 연구의 특징

- 연구 내용 측면에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내용의 범위를 점자 인지도, 점자 경험, 점자 인식 등으로 설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였다.
- 연구 방법 측면에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방법은 2024년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22년 점자 사용 실태 조사 도구 개발과 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실태 조사,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 및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 개발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추출된 조사 대상의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 다년간 시각장애 학교에서 점자를 지도하였고 대학 등에서 시각장애와 점자 분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책임 연구자가 조사를 기획, 진행,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사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 점자 사용 실태 조사 도구 개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실태 조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 및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 점자 연구 전문가, 조사 통계 전문가를 공동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조사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노력하였고,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통해 유용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기대 효과

- 이 연구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에서 타당한 조사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점자 교육과 평가 방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논의가 관련 학계에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1) 점자 인식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연구

- 「점자법」에 따라 수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을 근거로 2019년 점자 사용 환경 관련 실태 조사(지하철 등), 2020년 점자 사용 환경 관련 실태 조사(공공 시설 등), 2021년 점자 사용 환경 관련 실태 조사(공적 인쇄물 등), 2022년 점자 사용 실태 도구 개발 연구(국립국어원, 2022)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사용 능력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23)가 진행되었다.
-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은 제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발전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의 연구와 교육·보급 확산으로 공용 문자로서 점자에 대한 인식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점자 발전 전략을 마련하려고 수립되었다. 2024년에는 점자법 제9조, 점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의 1차 연도 실태 조사 사업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의 연차별 실태 조사 계획으로 2024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에 이어 2025년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행하고자 2024년에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2025년 조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 국립국어원은 2024년에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선행 연구 분석과 전문가 집단의 협의,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거쳐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비시각장애인 30명, 시각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비시각장애인용과 시각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점자 인지도, 점자 경험, 점자 인식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다수 문항이 동일하나 일부 문항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은 총 18문항, 비시각장애인용은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제도화되어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점자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교육 강사에 따라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일상생활 속 점자 문화 등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편차가 있으므로 점자 문화 홍보와 인식 개선 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정보 습득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수 요소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를 누리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소이다.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정보화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음성 기반의 디지털 매체가 개발되어 있지만 정확한 지식 습득이 필요한 학업이나 직무 수행에서 점자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고 효과적이다(김영일, 이태훈, 2015).
-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 식품 등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3.12.14. 시행),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2024.7.21. 시행) 등이 이루어졌다. 「약사법」 개정(제59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의 표시), 2024.7.21.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표시된 바코드 등을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 통신 단말 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 영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 표시 대상 및 정보 내용을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약사법」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최근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자 표기에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자발적인 점자 표기 참여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일상생활 속 점자 표기 확대로 일반 국민의 점자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지만 점자를 잘못 표기하는 일이 많아 비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점자 문화 경험과 인식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포용과 협력이 증진되는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점자 인식 관련 국외 연구

(1) 영국 점자 인식 관련 연구

가. 브레일 프로파일링 프로젝트

- 2002년 영국 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RNIB)의 브레일 프로파일링 프로젝트(Braille Profiling Project)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현재 점자 사용의 맥락을 탐구하고, 관련 시장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는 조사였다(RNIB, 2018-2023). 이 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교육, 직업,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점자가 중요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 접근 방식에 따라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자의 필요와 읽기, 쓰기 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고 변화할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 이 조사에서는 점자 사용자 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읽기/쓰기 활동, 점자 및 다른 읽기/쓰기 방법의 활용, 점자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정성적 인터뷰로 점자 사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깊이 분석하고, 향후 점자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점자 사용자 집단의 특성

2011년 기준 점자를 사용하는 영국의 등록 시각장애인은 약 1만 8,0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0년 12월 기준 왕립시각장애인협회의 점자 서비스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은 약 7,500명으로, 실제로 점자를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 연령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약 6,000명으로 추정된다. 왕립시각장애인협회를 이용하는 점자 사용자의 98%는 시각장애인 사용자로 다양한 시각장애가 있었다. 왕립시각장애인협회 전체 이용자의 시각장애 유형 비율이 맹과 저시력 각각 50%인 것을 감안하면 점자 사용자는 시각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장 흔한 장애는 망막색소 변성증(retinal pigmentosa)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점자 사용자 중 55%는 전혀 빛을 인지하지 못하며, 67%는 출생 시 또는 유년기 초기부터 시력을 상실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점자 사용자 41%가 두 가지 이상의 안질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시신경 손상, 선천적 백내장, 마르판 증후군, 스티커 증후군, 출생 시 과도한 산소 공급 등의 이유로 시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점자 사용자 집단은 점자에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며, 점자가 없으면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87%는 고객이 점자가 없으면 삶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동의하였으며, 81%는 점자 사용에 대해 열정적이었다. 반면, 점자의 미래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48%는 점자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동의하는 반면, 39%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43%는 향후 몇 년 안에 새로운 기술이 점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55%는 점자로 전환된 자료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용자도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점자 콘텐츠 활용

점자는 주로 읽기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이 읽기와 쓰기 모두에서 최소 주 1회 이상 점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점자를 사용한 쓰기의 주요 용도는 라벨 및 목록 작성(86%)과 개인 서신 작성(39%)으로, 대부분이 퍼킨스 점자 타자기(Perkins Braille)를 사용하고 있었다(85%). 전반적으로 점자 사용이 이전보다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았는데, 전체 응답자 중 39%는 ‘이전보다 적게 사용함’으로 응답하였으나, 23%는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함’으로 응답하였다. 점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2종 점자(약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9%는 1종 점자(정자)와 2종 점자 모두 사용하고, 단 3%만이 1종 점자만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주요 점자 콘텐츠를 살펴보면, 점자를 주로 신문, 잡지 등 사실을 다룬 글을 읽는 데 사용하며, 소설책은 대부분 오디오 형식[보통 데이지(DAISY) 플레이어]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서신의 경우 점자 대신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④ 점자에 접근하려고 보조공학기기 활용

전체 점자 사용자의 약 60%가량이 컴퓨터 및 새로운 기술을 저시력 사용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사용자 73%는 점자 사용자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으며, 66%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목적은 주로 전자우편 사용,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 문서 읽기/작성 등으로, 팟캐스트 내려받기, 오디오/전자책 읽기, 온라인 커뮤니티[포럼/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사용 등]도 점점 일반화되고 있었다. 점자 사용자 33%는 컴퓨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달력과 주소록 기능 사용, 음악 감상, 온라인 쇼핑,

주문형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은행 업무 등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 점자 사용자는 현재 전자점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점자 정보 단말기를 비롯한 점자 디스플레이(braille display)를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16%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83%는 향후 몇 년 동안 점자 디스플레이를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다.

⑤ 점자 활용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

점자 사용자 집단은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점자 사용에 ‘만족하는 옹호자(contented advocates)’ 집단으로, 전체 점자 사용자의 약 50%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노령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여성으로, 점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집단은 새로운 기술에 다소 두려움을 느끼지만, 지원과 안내가 있다면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열정적인 투사’ 집단(passionate fighters)으로, 전체 점자 사용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들은 남녀 혼합 집단으로, 종종 인생에 대해 비관적이지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점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점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나머지 약 20%는 ‘무관심한 사용자(take it or leave its)’ 집단으로, 이들은 점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정보에 접근할 때 점자 대신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는 주로 실용적 용도로 사용되며, 장기적으로 공학적 접근이 점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⑥ 점자 활용 특성 차이에 따른 차별적 접근 제언

분석 결과 점자 활용 특성 차이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한데, 구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한 옹호자 집단은 점자 서비스와 점자 자체에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현재의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므로 1) 정서적·감정적 유대 강화, 2) 전문가 역할 부여, 3) 공학 관련 지원, 4) 창의적인 점자 제품 제공 등이 필요하다.

둘째, 열정적인 투사 집단의 경우 종종 부정적 시각이 있으며, 점자 관련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므로, 1) 의견 수렴 및 참여 유도, 2) 캠페인 참여 독려, 3) 정보 제공, 4) 점자 서비스의 정확성과 품질 관리 등을 제언한다.

셋째, 무관심한 사용자 집단의 경우 점자 관련 서비스에 가장 낮은 관심과 동기를 보이므로 1) 점자 사용에 대한 자신감 향상, 2)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혜택 강조, 3)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품 제공이 필요하다.

나. 왕립시각장애인협회의 ‘공중 인식’ 연구 및 캠페인

- 왕립시각장애인협회는 여러 여론조사·패널 데이터를 종합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식하는 일반인의 태도에 관해 보고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력 손실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이해와 고정관념이 시각장애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대다수 대중은 시각장애를 ‘완전 실명’으로만 인식하며,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직업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가정하였다.
- 시각장애인이 경험하는 대중의 태도는 긍정적 경험(58%)이 부정적 경험(27%)보다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10명 중 7명은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경험한 바 있다. 부정적 경험의 유형으로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능력 평가 절하 성급함·조바심, 무시·배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감 저하, 취약감 증가,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 일반 대중은 시각장애를 ‘전적으로 보지 못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력 손실의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직업을 갖거나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시각장애인을 만난 경험 부족이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명 중 4명은 ‘가장 읽고 싶지 않은 감각은 시각’이라고 응답하여 시각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나타냈다.
- 대중은 시각장애인이 겪는 차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40%가 ‘차별 거의 없음’)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실제 차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는데, 예를 들면 접근 가능한 정보 미제공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이 겪는 실제 상황의 차별과 대중의 인식에 간극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20년 이후 매년 시각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16-24세 청년층은 시각장애인과 더 많이 접하지만 도움을 회피하거나 시각장애인의 활동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해서 노출 증가가 반드시 이해 증가는 아니라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왕립시각장애인협회는 2022년에 대중 캠페인(See The Person)을 벌여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각장애인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도움 제공 의향 및 도움 제공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는 10명 중 1명에 그쳐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중은 선의는

있으나 시각장애에 대한 실제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와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시각장애인의 일상·직업·참여 가능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므로, 지속적인 대중 교육, 실제 접촉 경험 확대, 미디어 속 정확한 재현이 인식을 개선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제안하였다.

(2) 미국 점자 인식 개선 관련 연구

- 웰스-젠슨 외(Wells-Jensen et al., 2005)는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문해와 자립의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였다. 미국의 일반 대중은 점자 사용의 필요성을 높게 보지 않으므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비용의 교육 캠페인이나 공공 관계 프로그램 같은 상향식 접근보다는 일상적으로 점자를 접하게 되는 경험과 같은 하향식 접근이 비시각장애인의 점자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미국 중서부의 한 주립대학에서 세 집단의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각각 ① 시각장애인 강사가 가르치는 일반 언어학 강좌를 수강한 학생, ② 비장애인 강사가 가르치는 동일한 강좌를 수강한 학생, ③ 일반 영어 작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조사 내용은 점자에 대한 지식(점자 메뉴·점자 방 번호의 필요성, 본인이 시력을 잃게 될 경우 점자를 배우려는 의향 등)과 점자가 독립성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 연구 결과, 시각장애인 강사가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접한 학생 집단이 점자에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비시각장애인 강사에게 배운 집단이 그다음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영어 작문 수업을 수강한 학생 집단은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이러한 결과는 점자를 일상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으면 점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특히, 점자를 배울 의사, 점자 사용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질문에서 첫 번째 집단이 가장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의 태도는 점자 사용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시각장애 강사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노출과 경험으로 개선될 수 있다. 큰 예산이 드는 대규모 프로그램이 없어도 점자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자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으므로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증대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3) 독일 점자 인식 관련 연구

- ‘점자의 미래(Zukunft der Brailleschrift, ZuBra)’ 프로젝트(2014~2019)는 독일·스위스 등 독일어권의 점자 사용 경험이 있는 맹·준맹 819명(6~89세)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조사였다. 이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조사였으며 그 중 점자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 점자 인식과 관련된 질문들은 ‘점자가 오늘날, 보조 공학이 발달한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묵자를 쓸 수 없을 때, 점자를 익히는 것은 중요한가?’, ‘기술(스크린리더, 음성 출력 등) 덕분에 오늘날 점자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등이었다.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90% 안팎이 ‘점자를 익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중장년층은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술이 있으니 점자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가장 젊은 연령층이 이 주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중장년층은 더 강하게 반대하였다. 점자와 기술의 병행에 대한 인식은 점자와 기술 둘 다 중요하며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결합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에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으나 78~92%로 대다수가 긍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세대 차이는 있으나 점자의 위상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젊은 층일수록 점자의 중요성을 약간 낮게 평가하고 기술을 더 많이 쓰지만, 여전히 다수가 점자를 필수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위상이 무너진 것”이라기보다 사용 양식과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4) 일본 점자 인식 관련 연구

가. 정보 보장 및 소통 지원에 관한 인식 조사

- 2024년 도쿄도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보 보장 및 소통 지원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이 점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東京都, 2024). 점자는 정보 보장 수단 항목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일반 시민 응답자들에게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정보 지원 수단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2%가 점자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보장 수단 중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점자 인지도가 높은 것이 곧 실제 활용 경험이나 점자 이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 조사에서 ‘점자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나 ‘점자를 읽을 수 있는지’, ‘점자 학습 의향’ 등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으며, 점자 실제 활용성에 대한 태도 또한 세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높은 인지도(96.2%)는 ‘점자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점자에 대한 기초 인식 수준은 높으나, 점자 활용 역량과 접촉 경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점자 인식 및 활용 조사

- 2013년 일본 점자 도서관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点字利用と読書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委員会, 2014)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점자 활용 영역으로는 ‘메모(전화 번호, 일정, 장보기, 노트 등)’(응답자 74명 중 55명)와 ‘식별(CD, 용기, 약, 의류, 냉동식품, 우편물)’(74명 중 33명)을 위해 점자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점자는 읽기보다는 ‘생활 속 식별과 메모’ 기능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독서 영역에서 점자보다 음성과 오디오 자료가 활용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점자 독서 비율은 감소했지만 사전과 법령이나 과학, 건강, 매뉴얼 등 점자가 ‘필수적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 처리 영역에서는 점자가 압도적으로 선호되었으며, 반복 학습, 정교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에서도 점자 사용이 우세하여 점자가 정보 제공의 핵심 매체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뉴스와 속보, 문학 등 대량 소비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음성 자료가 점자를 대체해 목적에 따라 음성 자료와 점자 자료가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점자에 대한 인식으로는 점자는 숫자, 전문 용어, 지명, 고유 명사 등에서 ‘정확성’이 뛰어나며, 식별과 메모 등 ‘실용적 쓰임새’가 높아 음성 자료와 기능이 분화된 결과 ‘생활 중심’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수행 절차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그림 I-1]과 같다.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과업명	과업 내용	진행 방법
조사 도구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2024)의 조사 도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연구 조사 도구 검토 및 수정 논의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조사 방법 검토 논의 선행 연구 및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 검토 조사 도구의 전문가 타당성 조사와 분석 결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진 논의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협의 자문 위원 의견 수렴
조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도구 및 조사 방법 확정 조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 추출 방법 협의 조사 방법 및 조사 업체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협의 조사 업체 협의
조사 대상 선정 및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 인식 조사 대상 선정 및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장애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단위 20~69세, 500명 시각장애인의 인구 특성을 반영한 조사 대상 선정 조사 표본은 장애 정도,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비례 층화 추출 실시 ② 비시각장애인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전문 기관을 활용한 전국 단위 조사 20~69세, 1,000명 조사 표본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비례 층화 추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협의 전문가 자문
조사 기관 및 조사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 인식 조사 기관 및 조사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장애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를 위한 음성 기반 설문지 제작 조사원 선정 및 조사 방법 교육 ② 비시각장애인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 조사 전문 기관 선정 및 조사 내용과 방법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 전문 조사 기관 선정 (비시각장애인 조사) 한국점자도서관 협의 (시각장애인 조사)

I.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그림 I-1]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진행 절차

2) 조사 도구의 개발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는 시각장애인용과 비시각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30문항, 29문항으로 국립국어원에서 2024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에 개발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2024년 실시한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 문항과 차별화하고 「점자법」과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에서 밝힌 점자 발전 목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표 I-1>은 2024년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문항이다.

〈표 I -1〉 국립국어원(2024)의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문항

영역	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비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1. 점자 인지도	1.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여부	1. 점자 인지 여부
		1-1. (예시) 점자를 본 적 있는지 여부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이미지 포함)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2. 점자 경험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5.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	5.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
	5-1.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않는 이유	6.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에 대한 느낌
	6.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	7. 점자 학습 및 사용 여부
	7.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	7-1. 점자 학습 및 사용 계기
		7-2. 점자 학습 및 사용 경험 없는 이유
	8. 점자 학습 의향	8. 점자 학습 의향
3. 점자 인식	9. 음성 서비스 사용 환경	
	10. 점자를 접할 때 느낌	9. 점자를 접할 때 느낌
	10-1. 점자 유용성	9-1. 점자 유용성
	10-2. 점자 배움의 용이성	9-2. 점자 배움의 용이성
	10-3. 점자 사용 편리성	9-3. 점자 사용 편리성
	10-4. 점자 친근감	9-4. 점자 친근감
	10-5. 점자 복잡성	9-5. 점자 복잡성
	11.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10.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12.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11.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12-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11-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13.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12.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14.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13.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15.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14.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16.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응답자 기본 정보	17.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	
	1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15.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성별	1. 성별
	2. 연령	2. 연령
	3. 거주 지역	3. 거주 지역
	4. 교육 수준	4. 교육 수준
	5. 직업	5. 직업
	6. 시각장애 정도	6. 시각장애인 가족 및 지인 여부

* 음영 부분은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대상 조사 내용이 동일한 문항임

(1)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토

- 조사 도구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사 도구를 보완하고자 전문가 자문용 타당성 조사지를 개발하여(〈부록 1〉 참조)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전체 영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전체적인 조사 항목의 구성에 대한 타당도 검토, 조사 영역별 조사 문항의 기술과 보기 등에 대한 타당도 검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대상 공통 조사 문항과 개별 조사 문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집단은 학계와 교육계, 시각장애인 단체, 점자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표 I-2〉와 같다.

〈표 I-2〉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지 타당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자문위원	소속	직위	비고
자문위원1	○○맹학교	교사	
자문위원2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3	○○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4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5	○○개발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6	○○공단	부장	
자문위원7	○○협회	회장	
자문위원8	○○점자도서관	부장	
자문위원9	○○개발원	부연구위원	
자문위원10	○○시각장애인복지관	센터장	
자문위원11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팀장	
자문위원12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13	○○편의시설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자문위원14	○○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장	
자문위원15	○○편의시설지원센터	연구원	

- 설문 조사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전자우편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서는 모두 15부이며, 이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 협의 회의와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쳤다(〈표 I-3〉 참조).

〈표 I -3〉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지 검토 진행 과정

진행 절차	일정	방법
자문위원 선정	4. 21. ~ 4. 25.	전화 통한 섭외
조사 도구(안) 검토 조사지 발송	4. 28.	전자우편 자료 발송
조사 도구(안) 검토 의견서 회신	4. 28. ~ 5. 9.	전자우편 자료 회신
검토 의견 반영 조사지 수정 협의	5. 10. ~ 5. 20.	연구진 회의 및 국립국어원 협의
설문 조사지 최종 확정	5. 20.	조사 방법 반영하여 확정

-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대한 타당도 판단 기준은 페어링(Fehring, 1987)에서 제시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s Validation Index, CVI)를 근거로 하였으며, .79 초과(타당함), .50 초과~.79 이하(수정 후 선택 가능), .50 이하(타당하지 않음)를 활용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조사 결과는 〈표 I -3〉과 같다.(점수별로 가중 치(1점 = 0; 2점 = .25; 3점 = .50; 4점 = .75; 5점 = 1.00)를 두고)
 - 타당도 지수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1개, 비시각장애인 조사 문항 4개에서 타당도가 낮게 나타났다.
 - 시각장애인 조사 문항은 ‘직업’을 묻는 항목에서 0.725로 나타났으며, 비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은 ‘점자를 접할 때 느낌’ 0.725,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0.725,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0.675, ‘직업’ 0.775 등 4개 항목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타당도 판단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문가 개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개선에 대한 연구진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15명의 검토 내용 중 개선 요청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 -4〉와 같다.

〈표 I -4〉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조사 영역의 적절성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이므로 비시각장애인의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이를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대상에 맞는 적절한 정책 마련 가능
조사 항목 구성의 적절성	4.4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문항의 순서에 대한 검토 필요(시간, 공간, 의식의 흐름 순) 예) 비시각장애인용: 점자 인지 여부 → 점자 본 적 있는지 여부 →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 등 2. 점자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비시각장애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음(3 점자 인식 등) → 답변자를 분류할 필요 • 전반적 적절 • 비시각장애인이 3. 점자 인식 중 12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1.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여부	4.7	0.925	• 점자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분 검토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4.7	0.925	• 해당 질문은 시각장애인이면 다 알 것 같아서 굳이 질문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4.8	0.95	• 문맥 수정(점자는 한글처럼 국가에서 정한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4.9	0.975	-
	5.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	4.8	0.95	• 본 문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 • 문맥 정비(귀하는 주요 정보 습득 및 활용을 위해 점자를 사용합니까?)
	5-1.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않는 이유	4.4	0.85	• 3번 → 지인(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 점자를 배울(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배울 필요가 있으나 못한 경우 구분 • 보기 문항 정비 • 3. 활동지원인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를 느끼지 못해서
	6.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	4.6	0.9	• 공공 문서 읽을 때와 업무 볼 때(직장~?) 조정 필요 • 점자 미사용자 고려 • 일반 의약품 점자 표기가 의무화 되었으니, ⑧ 기타 앞에 ‘의약품을 복용할 때’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 5번 문항의 일상생활이 너무 포괄적 항목이라 판단됨
	7.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	4.3	0.825	• 점자가 바르지 않음(= 인쇄 품질?) • 보기 문항을 더 개발하여 추가하면 좋을 듯함 • 점자 미사용자 고려 어려운 점에 대한 보기가 부족 • 추가)점자 규정 및 지침이 준수되지 않은 자료, 일상환경에서 어디에 점자가 있는지 모름 • 점자 해독의 어려움 선택지 추가 • 개인의 점자 사용 미숙에 관한 항목은 전혀 없어 보임. 예를 들어 점자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점자를 축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등 • 항목 수정 의견으로 2번을 ‘점자 물리적 크기 규격에 문제가 있을 때’
	8. 점자 학습 의향	4.7	0.925	• 점자를 모르는 경우에만 질문 • 보기는 긍정 순으로 배열
	9. 음성 서비스 사용 환경	4.6	0.9	• 공공 문서 읽을 때와 업무 볼 때(직장~?) 조정 필요
	10. 점자를 접할 때 느낌	4.7	0.925	• 점자 미사용자 고려 필요 • 비시각장애인 대상 질문지처럼 대칭적 5점 척도로 바꾸면 좋겠음
	10-1. 점자 유용성	4.8	0.95	-
	10-2. 점자 배움의 용이성	4.7	0.925	-
	10-3. 점자 사용 편리성	4.8	0.95	-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10-4. 점자 친근감	4.7	0.925	• 무슨 의미? 뭘 묻고자 하는지 모르겠음
10-5. 점자 복잡성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에서 현재의 단순 → 복잡하다 순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보기 문항은 복잡 → 단순의 순으로 제시되어 혼동될 수 있으므로 통일 필요 • 단순 복잡의 의미와 배우기 어렵다, 쉽다가 일맥상통한 문항이 아닐지 고려
11.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4.6	0.9	• 학업, 직업, 자립 생활의 개념이 다르고, 영역마다 점자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음. 영역별로 중요도를 묻는 게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 점자의 중요도를 추가 고려
12.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4.7	0.925	• 보기는 긍정순으로 배열
12-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4.4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문항과 질문의 적합성에 고민이 필요함(점자 인쇄 품질, 화면 낭독 사용 등) • 화면 낭독 프로그램, 선택지 문구 수정 ④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13.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4.4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미사용자 고려 필요 • 점자 서비스 → 점자 표기 환경(?)으로 수정. 서비스는 시혜적인 의미로 느껴짐 • 점자 서비스라는 용어를 문항의 취지에 적합한 문구로 수정 13.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점자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14.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4.7	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문항은 긍정 순으로 • 점자가 비시각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인가를 질문한 것인가요?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 모르겠음. 차라리 “점자가 비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나 사회 통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수정
15.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4.7	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사용 필요성 → 점자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 점자 사용 필요성 → 점자 표기 의무화
16.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4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문항 1 사전 개발이라 함을 점자 사전 개발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점자 사전 개발로 • 보기 추가: 점자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점자 규정 및 지침 제·개정, 디지털 점자 환경 개선 등 • 사전 개발이 문항과 관련 있는지, 있다면 6번으로 이동, 점자 자료 수집(말뭉치 사업)은 5번 연구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 말뭉치 사업이 들어가면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지. 말뭉치 사업은 점자 자료 수집 사업보다 점자 표기 사례 수집 아닌지? 점자 자료 수집이라고 하면 점자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사업으로 파악됨. 또한 시각장애인은 말뭉치 사업에 대한 인식 낮을 듯 •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점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선택지 추가 • 점자의 ‘발전’보다는 ‘진흥’ 또는 ‘활성화 모색’으로 문항 변경
17.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	4.7	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긍정 순으로 배열 • 디지털 기기에 보조 기기도 포함되는지 의문 • 디지털 점자 기기(한소네 등) 예시 추가가 이해를 도울 듯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1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4.8	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와 표기 구분할 필요가 있음(점자 홍보 강화 / 점자 표기 확대) • 16-18-17 등의 순 •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는 나누어 응답토록(점자 인식 개선 및 홍보/점자 표기 확대)
	1. 성별	4.9	0.975	-
	2. 연령	4.9	0.975	-
	3. 거주 지역	4.8	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참가자가 직접 시, 구 또는 도, 군까지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듯.
	4. 교육 수준	4.8	0.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준보다는 최종 학력이라고 바꾸는 건 어떨까요?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보기에 '미취학'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 수준 → 최종 학력 •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 추가로 맹학교 재학, 졸업 등의 학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5. 직업	3.9	0.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문항에서 무직이나 학생인 경우는 어디에 표시할지? • 보기 값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인데, 조사 대상자 입장에서 응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문에 직업별 정의를 제시해 주거나,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직업 분류 고민이 필요함(점자 및 시각장애인 관련성으로)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분야 조사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적절한 보기 필요. • 시각장애인 참여 가능한 직종 예시로 변경 필요 • 무슨 직업 또는 직종 분류에 따른 항목 분류인지요? 항목 간 상호 배타성은 고려된 건지요? 특히 시각장애인이 설문 응답 대상이라면 ⑩번의 군인은 의미 있는 항목인지?? • 무직과 기타 추가 필요 • 시각장애인 직업군 특성을 반영하여 교사, 복지기관 종사자, 안마업 종사자, 점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 필요.
	6. 시각장애 정도	4.7	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 정도 점자 인지 및 사용 여부 등을 처음에 확인한다면 문항 구성이 더욱 용이해질 것임 • 장애 정도 표현을 거부감을 줄이려고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보다 '중증, 경증'으로 해도 무방할 듯함.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해당 표현으로 사용 중
비시각장애인의 조사 문항	1. 점자 인지 여부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고 하는지? • 점자 인지 여부 항목으로서 점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기보다는 점자에 대한 간략 설명 후, 1-1. 점자를 본 적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2번 문항과 중복 가능성 있으므로 1번 문항 삭제 의견
	1-1. (예시) 점자를 본 적 있는지 여부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정비 • 점자 예시를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1. 문항에서 점자를 모르는 비시각장애인이 설문을 너무 빨리 종료하기보다 8번 문항 정도로 이동하여 점자에 대한 향후 관심이나 생각, 유추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을 듯 함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이미지 포함)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보다는 ‘국’ 등 한 글자로 2점과 3점을 명확히 표기 • 질문의 의도가 될까요? 비시각장애인이 점자의 구성 체계 또는 원리의 인지 여부 파악이 목적인지? 그 파악이 유용한 정보인지 의문임. • 점자가 찍히지 않은 부분에서 점은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음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4.7	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맥 수정(점자는 한글처럼 국가에서 정한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수정)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4.7	0.925	-
5.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	4.4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명함 • 질문) 일상생활 중에 점자를 발견한 곳이나 장소가 있다면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보기 문항 중 8번 점자책이 적절한지 고민해 주세요. • 점자를 접한 곳에 대한 선택지 내용 간략화 필요 ② 공공 기관 등의 안내표지판 ③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 ⑤ 화장실 출입구 옆 • 점자를 접한 곳에 대한 선택지 내용 간략화 필요 ② 공공 기관 등의 안내 표지판 ③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 ⑤ 화장실 출입구 옆 • 3번 손잡이 끝부분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 내용 추가 6번 자동판매기에 지하철 자동 발매기도 추가
6.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에 대한 느낌	4.3	0.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않음 • 보기 문항 정비(오타자 및 문어체 형식으로) 읽나, 불편감, 다시 한번, 그냥 등 전체적으로 정비 • 답변이 일부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봄.
7. 점자 학습 및 사용 여부	4.7	0.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웠거나 사용해 본’ → ‘접하거나 학습한’으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 배워본 것과 사용해 본 것은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 비시각장애인은 ‘사용’보다는 ‘활용’이 보다 적합할 것 같음
7-1. 점자 학습 및 사용 계기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나 지인은 묶어도 될 듯 • 대상이 비시각장애인이므로 배우게 된 계기로 수정 제안(사용의 이해석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문해 매체로 도구 아닐까요?) - 선택지 연관 순으로 배치 수정 • 추가로 호기심으로 배우도 넣는 방안 고려.
7-2. 점자 학습 및 사용 경험 없는 이유	4.4	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번에서 학습할 계기 삭제 • ‘점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관심이 없었음’이라면? • 질문의 목적이 점자 학습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건가요? 마치 누구나 점자를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편향적 질문은 아닌지?
8. 점자 학습 의향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 없다, 모르겠다’의 세 가지 • 긍정(매우 많음 - 많음 - 보통)순으로 배치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9. 점자를 접할 때 느낌	3.9	0.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보기만 한 경우, 무엇인지 알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 등 많은 비시각장애인이 해당 문항 답변이 어려울 것임 응답자를 구분할 필요(이하 동일) • 유용하다/유용하지 않다, 배우기 쉽다/배우기 어렵다 등 대칭 응답 보기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면 좋겠음. • 친근감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유사 의미 검토(유용하다/편리하다, 단순하다/배우기 쉽다) 단순하다는 이미 쉽다는 의미 내포됨 아닌지. • 9번 문항 문구 수정 점자에 대한 다음의 인식 중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점자 사용자가 아닌 비시각장애인인데 점자의 유용성을 묻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뭘 파악할 수 있나요? 9-2) 점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본 대상에게만 적당한 질문인 듯. 9-4)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듯함 • 생각 느낌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하다고 판단
10.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직업, 자립 생활의 개념이 다르고, 영역마다 점자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중요도를 묻는 게 어떨까요? 일상생활에서 점자의 중요도를 추가해도 좋을 것 같음. • 보기는 긍정 순으로
11.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4.6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는 긍정 순으로
11-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3.9	0.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번, 5번 항목의 적절성? •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질문해야 할 문항 • 보기 문항과 질문의 적합성에 고민이 필요함(점자 인쇄 품질, 화면 낭독 활용? 등) • 전문가가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선택할 것 같음. 질문의 적절성 여부 필요. • 화면 낭독 프로그램, 선택지 문구 수정 ④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 일반적으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요? 이 문항으로 비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걸까요?
12.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3.7	0.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서비스(?) → 점자 지원 •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질문해야 할 문항 • 점자 서비스 → 점자 표기 환경(?)으로 수정. 서비스는 시혜적인 의미로 느껴짐 • 전문가가 아닐 경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선택할 것 같음. 질문의 적절성 여부 필요. • 점자 서비스라는 용어를 문항의 취지에 적합한 문구로 수정 • 상기 문항도 적합한 질문이 아닌 듯. • 거의 대부분인 6번을 선택할 듯
13.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는 긍정 순으로 • 점자 사용자로서도 점자 자체가 일반 문자 사용자와의 소통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듯합니다만!
14.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4.5	0.8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사용 필요성 → 점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 • 점자 사용 필요성 → 점자 표기 의무화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15.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4.5	0.875	•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는 나누어 응답토록(점자 인식 개선 및 홍보/점자 표기 확대)
1. 성별	4.8	0.95	-
2. 연령	4.8	0.95	-
3. 거주 지역	4.7	0.925	• 17개 지역 중에서 선택한 이유가 거주 지역만을 알고자 함인가요? 아니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비교를 위함인가요? 만일 후자라면 더 정보를 얻고자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거주지를 '시 → 구' 또는 '도 → 군'까지만 직접 적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지역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비교도 가능할 듯.
4. 교육 수준	4.7	0.925	• 교육 수준보다는 최종 학력이라고 바꾸는 건 어떨까요?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보기에 '미취학'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 수준 → 최종 학력
5. 직업	4.1	0.775	• 보기 문항에서 무직이나 학생인 경우는 어디에 표시할지? • 보기 값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인데, 조사 대상자 입장에서 응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문에 직업별 정의를 제시해 주거나, 개방형 문항으로 응답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기에 있는 직업군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 공무원, 무직 등이 빠졌으며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직종 모호, 중복되고, 누락 있어 답하기 어려움 • ⑪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 무직과 기타를 추가 필요
6. 시각장애인 가족 및 지인 여부	4.7	0.925	• 점자 사용 여부 등 구분 필요? • 인식 조사상 시각장애인 지인 여부가 비시각 답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전문가 타당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항목의 통합 또는 조정, 영역별로 조사 문항을 삭제, 통합,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수정 후 채택 가능'으로 조사된 5개 항목은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외 항목은 전문가 자문의견과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한 항목씩 연구진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 삭제와 통합 및 신설 등의 과정을 거쳐 문항을 보완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문항별 연구진 협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은 <표 I-5>, <부록 3>과 같다. 그 외 일부 문항의 보기를 긍정 순으로 재배열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다.

조사 영역	2024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변경	수정 사유
I. 점자 인지도	<p>1. 점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2번으로 이동) ② 모른다(☞ 1-1번으로 이동)</p> <p>1-1.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한 특수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의 층수 버튼이나 공공 기관 안내표지판에 볼록하게 새겨진 점을 점자라 합니다. 이 점자를 본 적 있습니까? ① 예(☞ 2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점자를 알지 못하셔서 설문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1.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한 특수 문자입니다. 이 점자를 본 적 있습니까? ① 예(☞ 2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점자를 알지 못하셔서 설문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수정	• 1번, 1-1번 두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여 수정(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되묻는 방식 지양)
II. 점자 경험	<p>5.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건물의 승강기 버튼 ② 공공 기관 등의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③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층수 및 위치 표기) ④ 사무실 이름판 ⑤ 화장실 출입구 옆(남·여 구별) ⑥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 ⑦ 음료수나 화장품 등의 상품이나 생활용품 ⑧ 점자책 ⑨ 기타 자주 접하는 곳()</p>	<p>5.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건물의 승강기 버튼 ② 공공 기관 등의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③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층수 및 위치 표기) ④ 사무실 이름판 ⑤ 화장실 출입구 옆(남·여 구별) ⑥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 ⑦ 음료수나 화장품 등의 상품이나 생활용품 ⑧ 점자 책자 ⑨ 점자 명함 ⑩ 기타 자주 접하는 곳()</p>	수정	<p>⑧ 점자책 → 점자 책자 ⑨ 점자 명함 추가</p>
	<p>6. 승강기, 계단, 공공 기관 안내판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을 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p>	<p>6. 승강기, 계단, 공공 기관 안내판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을 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p>	수정, 삭제	• 보기 항목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보기 삭제, 추가, 수정

조사 영역	2024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변경	수정 사유
	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긍정적 인상 ② 어떻게 읽나 궁금하여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음 ③ 시각장애인의 일상의 불편감이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함 ④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침 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인상 ⑥ 나와는 거리가 있어 불편감이 들 ⑦ 기타()	①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② 시각장애인이 찾기 어려울 것 같다 ③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다 ④ 활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⑤ 생각해 본 적 없다 ⑥ 기타()		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긍정적 인상: 삭제 ② 어떻게 읽나 궁금하여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음: 수정 ③ 시각장애인의 일상의 불편감이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함: 삭제 ④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침: 시각장애인이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수정 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인상: 활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수정 ⑥ 나와는 거리가 있어 불편감이 들: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수정
	7. 점자를 배웠거나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7.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수정	• 사용보다는 경험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 질문자구 수정 • 배웠거나 사용한 적 있습니까? →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로 수정
	7-1. 점자를 배우거나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점자 관련 직업을 위해 ② 가족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자연스럽게 접함 ③ 봉사 활동을 위해서 ④ 지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관심이 생김 ⑤ 자기 계발이나 취미로 ⑥ 기타()	7-1. 점자를 학습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점자 관련 직업을 위해 ② 가족 또는 지인 시각장애인이어서 ③ 봉사 활동을 위해서 ④ 호기심으로 ⑤ 자기 계발이나 취미로 ⑥ 기타()	수정	• 기존의 ②, ④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통합 ④ 호기심으로 추가

조사 영역	2024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변경	수정 사유																																																								
	7-2. 점자를 배워보거나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2.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	• 사용 보다는 경험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 배웠거나 사용한 적 있습니까? →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로 수정																																																								
Ⅲ. 점자에 대한 느낌	9.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자에 대한 다음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table><tr><th></th><th>느낌</th><th>매우 그렇다</th><th>그렇다</th><th>중간 이다</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h>느낌</th></tr><tr><th></th><th></th><th colspan="2">←</th><th></th><th colspan="2">→</th><th></th></tr><tr><td>1)</td><td>유용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별 쓸모없다</td></tr><tr><td>2)</td><td>배우기 쉽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어렵다</td></tr><tr><td>3)</td><td>편리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불편하다</td></tr><tr><td>4)</td><td>친근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거리감 있다</td></tr><tr><td>5)</td><td>단순하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복잡하다</td></tr></table>		느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느낌			←			→			1)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별 쓸모없다	2)	배우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어렵다	3)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불편하다	4)	친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거리감 있다	5)	단순하다	①	②	③	④	⑤	복잡하다	9.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하다 ③ 보통이다 ④ 쓸모없다 ⑤ 전혀 쓸모 없다 2) 점자는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쉽다 ② 쉽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3) 점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편리하다 ② 편리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다 ⑤ 매우 불편하다 4) 점자는 친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친근하다 ② 친근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리감 있다 ⑤ 매우 거리감 있다 5) 점자는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단순하다 ② 단순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복잡하다 ⑤ 매우 복잡하다	수정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질문을 통일하려고 문항과 보기 항목을 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수정함. • 대칭되는 느낌의 질문 대신, 유용성, 학습 용이성, 사용 편리성, 친근감, 단순성 등 5점 척도로 수정
	느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느낌																																																					
		←			→																																																							
1)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별 쓸모없다																																																					
2)	배우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어렵다																																																					
3)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불편하다																																																					
4)	친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거리감 있다																																																					
5)	단순하다	①	②	③	④	⑤	복잡하다																																																					

조사 영역	2024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변경	수정 사유
IV.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11-1.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필요한 상황에서 점자 표기가 없어서 ②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③ 점자를 배우지 못해서 ④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⑤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⑥ 목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⑦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⑧ 기타()	11-1.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 ②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③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④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 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⑥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⑦ 목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⑧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⑨ 잘 모르겠다	수정	• 시각장애이용 12-1 문항과 동일하게 질문과 보기 항목을 변경
	12.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점자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삭제	삭제	• 비시각장애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VI. 응답자 기본 정보	3. 거주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3. 거주 지역은? ① 읍면 지역 ② 중소도시(동) ③ 대도시(동)	수정	• 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수정 - 보기 항목을 읍면/중소도시(동)/대도시(동)
	5.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5.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수정	• 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직업의 유무로 질문 자구 수정 ⑪ 기타() 추가

■ 시각장애인 조사 문항

조사 영역	2024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변경	수정 사유
II. 점자 경험	7. 귀하가 점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점자 자료의 부족 ② 점자 인쇄 품질 문제 ③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④ 기타()	7. 귀하가 점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점자 자료의 부족 ② 점자 인쇄 품질 문제 ③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④ 점자가 제공되는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⑤ 점자 사용이 미숙해서 ⑥ 기타()	수정	• 보기 항목 추가하여 보완 수정 ④ 점자가 제공되는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⑤ 점자 사용이 미숙해서 항목 추가 함
III. 점자에 대한 느낌	10.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자는 '쓸모없다' 부터 '유용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하다 ③ 보통이다 ④ 쓸모없다 ⑤ 전혀 쓸모 없다 2) 점자는 '배우기 어렵다' 부터 '쉽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쉽다 ② 쉽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3) 점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 부터 '편리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편리하다 ② 편리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다 ⑤ 매우 불편하다 4) 점자는 '거리감 있다' 부터 '친근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10.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하다 ③ 보통이다 ④ 쓸모없다 ⑤ 전혀 쓸모 없다 2) 점자는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쉽다 ② 쉽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3) 점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편리하다 ② 편리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다 ⑤ 매우 불편하다 4) 점자는 친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친근하다 ② 친근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리감 있다 ⑤ 매우 거리감 있다	수정	• 10-1~10-5번 모두 보기 항목 긍정 순으로 변경 • 묻고자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 변경 • 10-1 쓸모없다를 삭제하고 유용성에 대한 인식으로 질문 변경 • 10-2 어렵다를 삭제하고, 배우기 쉬운지에 대한 인식으로 질문 변경 • 10-3 불편하다 를삭제하고 편리한지에 대한 인식으로 질문 변경 • 10-4 거리감 있다를 삭제하고 친근한지에 대한 인식으로 질문 변경 • 10-5 복잡하다를 삭제하고 단순한지에 대한 인식으로 질문 변경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질문을 통일하려고 문항과 보기 항목을 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수정 • 대칭되는 느낌의 질문 대신, 유용성, 학습 용이성, 사용 편리성, 친근감, 단순성 등 5점 척도로 수정

조사 영역	2024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변경	수정 사유
	① 매우 친근하다 ② 친근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리감 있다 ⑤ 매우 거리감 있다 5) 점자는 ‘단순하다’ 부터 ‘복잡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단순하다 ② 단순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복잡하다 ⑤ 매우 복잡하다	5) 점자는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단순하다 ② 단순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복잡하다 ⑤ 매우 복잡하다		
IV.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12-1.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필요한 상황에서 점자 표기가 없어서 ②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③ 점자를 배우지 못해서 ④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⑤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⑥ 목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⑦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⑧ 기타()	12-1.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 ②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③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④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 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⑥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⑦ 목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⑧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⑨ 잘 모르겠다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항목 추가 및 수정 • 기존의 5-1 문항과 질문이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합 수정 ③ 점자를 배우지 못해서 →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④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삭제 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추가
V.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16. 점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사전 개발 ② 점자교육원 설치 ③ 점역·교정사 양성 ④ 점자 자료 수집 사업(말뭉치 사업) ⑤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 사업 ⑥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 ⑦ 기타()	16. 점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점자 사전 개발 ② 점자교육원 설치 ③ 점역·교정사 양성 ④ 점역 관련 기술 개발 지원 ⑤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정책 추진 ⑥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 ⑦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항목 자구 수정 및 삭제, 추가 ① 사전 개발 → 점자 사전 개발 ④ 점자 자료 수집 사업(말뭉치 사업) 삭제 ④ 점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추가 ⑤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정책 추진 자구 수정

조사 영역	2024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변경	수정 사유
VI.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2. 연령 3. 거주 지역 4. 교육 수준 5. 직업 6. 장애 정도	1. 성별 2. 연령 3. 장애 정도 4. 거주 지역 5. 교육 수준 6. 직업	수정	• 내용 변동 없이 문항 배치 순서만 수정
	3. 거주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4. 거주 지역은? ① 읍면 지역 ② 중소도시(동) ③ 대도시(동)	수정, 삭제	•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하게 수정 - 보기 항목을 읍면/중소도시(동)/대도시(동) - 지역구분이 많아 지역 간 차이 분석의 변별도를 갖기가 어렵고 통계적 의미가 없어 17개 시도 삭제

(2) 최종 설문 조사 도구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에 필요한 조사 도구를 확정하고자 국립국어원(2024)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의 시사점 검토, 연구진 협의와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사 도구 문항을 보완한 후 조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 조사 도구는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영역은 ‘점자 인지도’, ‘점자 경험’, ‘점자에 대한 느낌’,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조사 문항은 비시각장애인 29개 문항, 시각장애인 30개 문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15개 일반 조사 문항과 6개 응답자 기본사항 문항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시각장애인 조사에서는 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시각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두고, 시각장애인일 경우 시각장애인 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6〉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

조사영역	조사 항목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
	0. 시각장애 여부	-
I. 점자 인지도	1. 점자 인지 여부	1.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여부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II. 점자 경험	5.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	5.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
	6.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에 대한 느낌	6.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
	7. 점자 학습 경험	7.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
	7-1. 점자 학습 계기	-
	7-2. 점자 학습 경험 없는 이유	-
	8. 점자 학습 의향	8. 점자 학습 의향
III. 점자에 대한 느낌	-	9. 음성 서비스 사용 환경
	9. 점자를 접할 때 느낌	10. 점자를 접할 때 느낌
	9-1. 점자 유용성	10-1. 점자 유용성
	9-2. 점자 배움의 용이성	10-2. 점자 배움의 용이성
	9-3. 점자 사용 편리성	10-3. 점자 사용 편리성
	9-4. 점자 친근감	10-4. 점자 친근감
	9-5. 점자 복잡성	10-5. 점자 복잡성

조사영역	조사 항목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
IV.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10.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11.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11.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12.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11-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12-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3.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12.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14.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V.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13.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15.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	16.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17.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
	14.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1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VI.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1. 성별
	2. 연령	2. 연령
	3. 거주 시도	3. 거주 시도
	3-1. 거주 지역	3-1. 거주 지역
	4. 교육 수준	4. 교육 수준
	5. 직업	5. 직업
	6. 시각장애인 가족 및 지인 여부	6. 시각장애 정도

* 음영 부분은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대상 조사 내용이 동일한 문항임

3) 표본 설계

(1) 전체 모집단 및 표본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에 필요한 모집단은 20~69세 시각장애인과 20~69세 비시각 장애인이며, 표본은 전국의 20~69세 비시각장애인 1,000명과 시각장애인 500명으로 설정하였다.
- 표본 추출에 필요한 모집단 자료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 비시각장애인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시각장애인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우리나라 전체 시각장애인은 <표 I-7>과 같이 24만 6,000여 명이며, 이 중 심한 장애는 4만 5,000여 명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20만 1,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 점자 인식 조사에 필요한 20~69세 시각장애인 모집단은 13만 3,534명으로, 모집단 분포는 <표 I-8>과 같다. 표본의 추출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와 성별, 연령(20~49세, 50~69세)을 기준으로 500명을 비례 층화 추출(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하였다.
- 비례 층화 추출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극대화하고 성별·지역·연령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연구의 시각장애인 표본 500명을 모집단 비율에 따라 <표 I-9>와 같이 배분하였다.

<표 I-7> 국내 시각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서울특별시	4,678	3,911	8,589	19,385	12,251	31,636	40,225
부산광역시	1,576	1,513	3,089	8,646	5,626	14,272	17,361
대구광역시	1,065	1,053	2,118	5,822	3,805	9,627	11,745
인천광역시	1,281	1,222	2,503	7,001	4,321	11,322	13,825
광주광역시	677	599	1,276	3,471	2,322	5,793	7,069
대전광역시	700	585	1,285	3,314	2,174	5,488	6,773
울산광역시	433	441	874	2,410	1,475	3,885	4,759
세종특별자치시	76	76	152	701	376	1,077	1,229
경기도	4,548	4,490	9,038	28,745	16,783	45,528	54,566
충청북도	832	729	1,561	4,312	2,787	7,099	8,660
충청남도	1,025	971	1,996	6,161	3,796	9,957	11,953
전라남도	1,055	1,179	2,234	6,175	4,443	10,618	12,852
경상북도	1,298	1,389	2,687	7,174	4,956	12,130	14,817
경상남도	1,350	1,437	2,787	8,554	5,339	13,893	16,680
제주특별자치도	337	393	730	1,912	1,291	3,203	3,933
강원특별자치도	843	838	1,681	4,426	2,987	7,413	9,094
전북특별자치도	953	965	1,918	5,262	3,461	8,723	10,641
합계	22,727	21,791	44,518	123,471	78,193	201,664	246,182

〈표 I -8〉 20~69세 시각장애인 모집단 분포

(단위: 명)

구분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서울권	3,434	8,409	1,456	3,992	990	1,931	647	1,194	22,053
경기권	6,975	16,878	2,778	7,601	948	2,441	582	1,718	39,921
충청권	2,623	6,465	1,028	2,976	475	1,083	246	678	15,574
전라권	2,267	6,481	890	2,991	367	1,053	226	645	14,920
경상권	5,004	14,952	2,022	7,074	744	2,404	495	1,740	34,435
강원·제주권	957	2,830	415	1,389	144	489	101	306	6,631
합계	21,260	56,015	8,589	26,023	3,668	9,401	2,297	6,281	133,534

〈표 I -9〉 비례 층화 추출에 따른 시각장애인 표본 설계

(단위: 명)

구분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서울권	13	31	5	15	4	7	3	4	82
경기권	26	63	10	28	4	9	2	6	148
충청권	10	24	4	11	2	4	1	3	59
전라권	8	24	3	11	1	4	1	2	54
경상권	19	56	8	26	3	9	2	7	130
강원·제주권	4	11	2	5	1	2	1	1	27
합계	80	209	32	96	15	35	10	23	500

(3) 비시각장애인 모집단 및 표본 설계

- 점자 인식 조사에 필요한 20~69세 비시각장애인 모집단은 36,68만 365명으로 모집단의 분포는 〈표 I -10〉과 같다.
- 비시각장애인 조사 대상 1,000명은 모수 추정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전국 단위 표본 수집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성별·연령을 기준으로 비례 층화 추출을 적용하였으며 표본은 〈표 I -11〉과 같다.
- 전국 단위 실태 조사에서 비례 층화 추출은 특정 집단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표본에 포함할 수 있으며, 동질적 대상의 경우 표본 수를 줄여도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본 설계로 이 연구는 국민의 점자 인식에 대한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 및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른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 국민의 점자 인식을 조사하려고 설정한 비시각장애인 모집단에는 시각장애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율이 0.36%에 불과하므로 20~69세 전체 국민을 비시각장애인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등록 시각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확인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10〉 20~69세 비시각장애인 모집단 분포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서울권	607,685	724,541	679,734	729,727	625,887	686,122	723,394	696,047	753,451	695,131	6,921,719
경기권	1,018,208	1,222,557	1,367,542	1,445,634	1,189,984	931,760	1,113,793	1,306,901	1,431,248	1,200,335	12,227,962
충청권	333,170	373,862	428,094	478,506	427,084	282,977	318,510	399,614	446,906	421,870	3,910,593
전라권	281,726	270,053	349,045	443,074	397,191	239,053	244,691	330,737	409,722	393,818	3,359,110
경상권	683,625	750,477	919,739	1,092,145	1,033,100	573,566	655,581	881,895	1,082,522	1,075,871	8,748,521
강원·제주권	121,741	124,174	153,166	195,960	188,093	98,839	110,882	148,815	183,769	187,021	1,512,460
합계	3,046,155	3,465,664	3,897,320	4,385,046	3,861,339	2,812,317	3,166,851	3,764,009	4,307,618	3,974,046	36,680,365

〈표 I-11〉 비례 층화 추출에 따른 비시각장애인 표본 설계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서울권	17	20	19	20	17	19	20	18	21	19	190
경기권	28	33	37	39	32	25	30	36	38	33	331
충청권	9	10	12	13	12	8	9	11	12	12	108
전라권	8	7	10	12	11	6	7	9	11	11	92
경상권	19	20	25	30	28	15	18	24	30	29	238
강원·제주권	3	4	4	5	5	3	3	4	5	5	41
합계	84	94	107	119	105	76	87	102	117	109	1,000

4)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조사원을 선정하였다. 조사원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비시각장애인 4명이며 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이었다.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전화 조사용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전반 소개, 조사 도구 소개, 조사 방법의 구체적 절차와 전화 조사용 스크립트 소개, 전화 상담 연습 등을 포함하였다. 전화 조사용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다.

점자 인식 설문 조사 진행 스크립터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인식 조사(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점자 관련 정책과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저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원 ○○○(이)라고 합니다. 등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드렸으며, 통계법 제34조 2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 승인받아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귀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인식과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조사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이 설문에 응해 주시면 1만원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점자 사용 실태 관련 설문 조사에 응해 줄 수 있으신지요?

예		아니요
<p>2. 네.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설문 조사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p> <p>① 구글 유알엘(URL)을 문자로 보내 드리면 응답하시는 방법 ② 전화로 지금 설문지를 읽어 드리고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방법</p> <p>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실까요?</p>		<p>네, 응답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점자 인식 조사(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통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① 구글 url	② 전화 음성 설문	
<p>네. 감사합니다.</p> <p>- 구글 유알엘을 문자로 보내 드릴테니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p>	<p>네. 그러면 지금부터 문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응답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화로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반응을 체크함)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설문 대상자가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시간 약속을 정해야 할 경우) 가능한 시간 알려주시면 추후 다시 연락드려서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 설문 결과 응답이 완료되면 0일 0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비시각장애인 대상의 조사는 설문 조사 전문 기관(KT **)에 의뢰하였으며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원이 전화로 조사하였다. 권역별 인원은 서울권 190명, 경기권 331명, 충청권 108명, 전라권 92명, 경상권 238명, 강원제주권 41명 등 총 1,000명이었다.
- 시각장애인 대상의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를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에 응할 의사를 확인하고, 조사에 동의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음성 기반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전화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화로 조사 문항을 읽어주고 시각장애인 참여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인 대상의 조사 현황은 <표 I-12>와 같다.

<표 I-12> 시각장애인 조사 현황

권역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수	전화 조사(명)	온라인 조사(명)
서울권(1)	2025. 6/2-6/26	82	48	34
경기권(2)	2025. 6/1-7/5	148	94	54
충청권(3)	2025. 6/2-6/26	59	36	23
전라권(4)	2025. 6/24~7/10	54	40	14
경상권(5)	2025. 6/2~7/3	130	75	55
강원제주권(6)	2025. 6/1~6/12	27	20	7
전체	2025. 6/1~7/10	500	313	187

5)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점자 인지 여부, 점자 경험, 점자에 대한 느낌 및 인식 등의 문항에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응답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 응답 경향을 파악하려고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긍정 응답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부정 응답으로 묶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 먼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설문지의 공통 문항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으로 구분한 설문 문항의 전체 문항에서 성별, 연령, 직업 유무, 거주 지역, 학력, 장애 유형 등에 따른 집단 간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 집단 간 차이 분석 시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인 경우에는 독립 표본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고,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27을 사용하였다.

4 조사 결과

1) 응답자 기본 정보

-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500명으로 비시각장애인 1,000명, 시각장애인 500명이었다.
- 비시각장애인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은 509명(50.9%), 여성은 491명(49.1%)이고, 연령별 구성은 20대 160명(16.0%), 30대 181명(18.1%), 40대 209명(20.9%), 50대 236명(23.6%), 60대 214명(21.4%)이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 37명(3.7%), 중소도시(동) 지역 453명(45.3%), 대도시(동) 지역 510명(51.0%)이다. 학력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명(1.6%), 중학교 졸업 38명(3.8%), 고등학교 졸업 337명(33.7%), 대학교 재학/ 졸업 576명(57.6%), 대학원 재학 이상 33명(3.3%)이다. 직업이 있는 응답자는 748명(74.8%)이며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252명(25.2%)이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는 80명(8.0%),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920명(92.0%)이다.
-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유무, 시각장애 정도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은 339명(67.8%), 여성은 161명(32.2%)이고, 연령별 구성은 20대 56명(11.2%), 30대 37명(7.4%), 40대 44명(8.8%), 50대 171명(34.2%), 60대 192명(38.4%)이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 87명(17.4%), 중소도시(동) 지역 201명(40.2%), 대도시(동) 지역 212명(42.4%)이다. 학력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27명(5.4%), 중학교 졸업 45명(9.0%), 고등학교 졸업 187명(37.4%), 대학교 재학/졸업 200명(40.0%), 대학원 재학 이상 41명(8.2%)이다. 직업이 있는 응답자는 305명(61.0%)이며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195명(39.0%)이다.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심한 장애 83명(16.6%), 심하지 않은 장애 417명(83.4%)이다.

〈표 I-13〉 응답자 기본 정보

응답자 기본사항		비시각		시각	
		n	%	n	%
성별	남성	509	50.9	339	67.8
	여성	491	49.1	161	32.2
연령	20대	160	16.0	56	11.2
	30대	181	18.1	37	7.4
	40대	209	20.9	44	8.8
	50대	236	23.6	171	34.2
	60대	214	21.4	192	38.4
거주 지역	읍면 지역	37	3.7	87	17.4
	중소도시(동)	453	45.3	201	40.2
	대도시(동)	510	51.0	212	42.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	1.6	27	5.4
	중학교 졸업	38	3.8	45	9.0
	고등학교 졸업	337	33.7	187	37.4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재학)	576	57.6	200	40.0
	대학원 재학 이상	33	3.3	41	8.2
직업 유무	직업 유	748	74.8	305	61.0
	직업 무	252	25.2	195	39.0
가족이나 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80	8.0		
	없다	920	92.0		
장애 정도	심한 시각장애 (일반 활자 읽을 수 없음)			50	10.0
	심한 시각장애 (확대 활자 읽을 수 있음)			33	6.6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읽는 것이 불편함)			137	27.4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읽는 것 큰 불편 없음)			280	56.0
계		1000	100.0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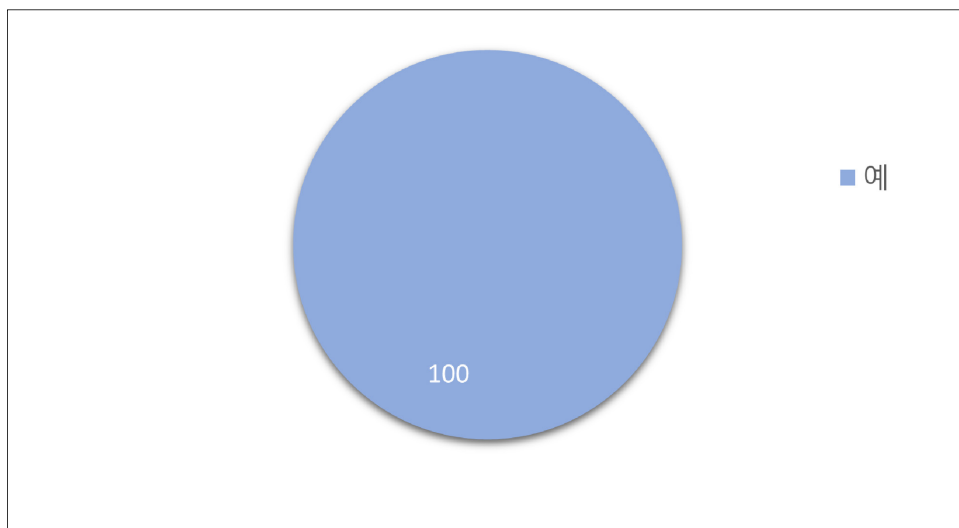
2) 점자 인지도

(1) 점자 인지 및 사용

가. 점자를 본 경험(비시각장애인)

문1(비시각)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한 특수 문자입니다.
이 점자를 본 적 있습니까?



[그림 I-2] 점자를 본 경험 여부(비시각장애인)(단위: %)

- 설문에 응답한 비시각장애인 1,000명(100%) 모두가 점자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여부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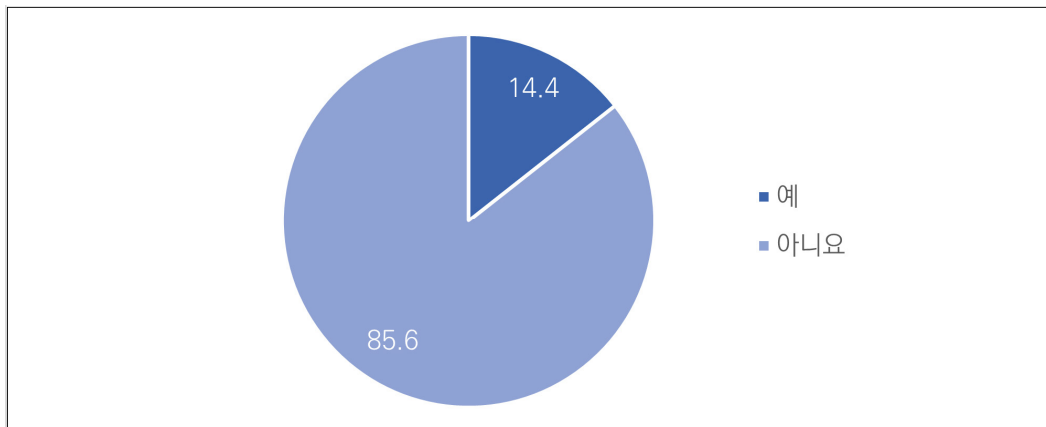
〈표 I -14〉 점자를 본 경험 여부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점자를 본 경험 여부		예		아니요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509	100	0	0.0	509	100	0.0
	여성	491	100	0	0.0	491	100	
연령	20대	160	100	0	0.0	160	100	0.0
	30대	181	100	0	0.0	181	100	
	40대	209	100	0	0.0	209	100	
	50대	236	100	0	0.0	236	100	
	60대	214	100	0	0.0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37	100	0	0.0	37	100	0.0
	중소도시(동)	453	100	0	0.0	453	100	
	대도시(동)	510	100	0	0.0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16	100	0	0.0	16	100	0.0
	중학교 졸업	38	100	0	0.0	38	100	
	고등학교 졸업	337	100	0	0.0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576	100	0	0.0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33	100	0	0.0	33	100	
직업	유	748	100	0	0.0	748	100	0.0
	무	252	100	0	0.0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80	100	0	0.0	80	100	0.0
	없다	920	100	0	0.0	920	100	0.0
전체		1,000	100	0	0.0	1,000	100	

나. 점자 읽고 쓰기(시각장애인)

문1(시각)

점자를 읽고 쓸 수 있습니까?



[그림 I -3] 점자 읽고 쓰기 여부(시각장애인)(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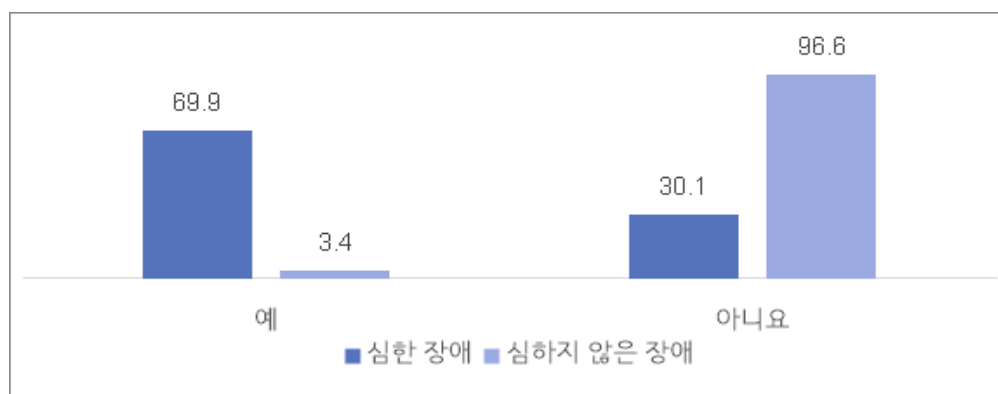
- 설문에 응한 시각장애인 500명 중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명 (14.4%), 점자를 읽고 쓸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27명(85.6%)이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령대별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30대(32.4%)가 20대(14.3%), 40대(13.6%), 50대(14.1%), 60대(11.5%)에 비하여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1.122$, $p < .05$).
 - 거주 지역별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도시(45%) 응답자가 읍면 지역(2.3%)이나 중소도시(12.4%)에 비하여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9.145$, $p < .05$).
 - 학력별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 36.6%, 대학 재학, 졸업 19.1%, 고등학교 졸업 8.6%, 중학교 졸업 2.2%, 초등학교 졸업 이하 7.4%로 대학원 재학 이상은 고졸~초등 졸업 이하의 학력에 비하여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31.544$, $p < .05$).
 - 직업 유무에 따라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응답자(19.4%)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6.7%)에 비하여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5.620$, $p < .05$).

- 장애 정도에 따라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심한 장애인(58%)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3.4%)에 비하여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247.936$, $p< .05$).

〈표 I-15〉 점자 읽고 쓰기 여부(시각장애인)

점자 읽고 쓰기 여부		예		아니요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48	14.2	290	85.8	338	100	0.044
	여성	24	14.9	137	85.1	161	100	
연령	20대	8	14.3	48	85.7	56	100	11.122*
	30대	12	32.4	25	67.6	37	100	
	40대	6	13.6	38	86.4	44	100	
	50대	24	14.1	146	85.9	170	100	
	60대	22	11.5	170	88.5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2	2.3	85	97.7	87	100	19.145*
	중소도시(동)	25	12.4	176	87.6	201	100	
	대도시(동)	45	21.3	166	78.7	211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2	7.4	25	92.6	27	100	31.544*
	중학교 졸업	1	2.2	44	97.8	45	100	
	고등학교 졸업	16	8.6	171	91.4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38	19.1	161	80.9	199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5	36.6	26	63.4	41	100	
직업	유	59	19.4	245	80.6	304	100	15.620*
	무	13	6.7	182	93.3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58	69.9	25	30.1	83	100	247.936*
	심하지 않은 장애	14	3.4	402	96.6	416	100	
전체		72	14.4	427	85.6	4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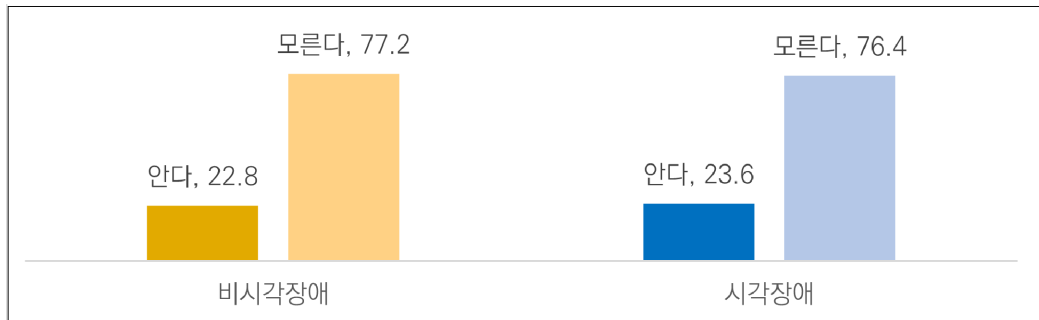
* $p< .05$



[그림 I-4]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읽고 쓰기 여부(단위: %)

(2) 점자 형태 인지(공통)

문2(비시각) 문2(시각)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의 6점 형식으로 구성된 문자입니다. 이와 같은 점자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	---



[그림 I-5] 점자 형태 인지 여부 조사 결과(단위: %)

〈표 I-16〉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228	772	1000	0.120
	%	22.8	77.2	100.0	
시각장애	n	118	382	500	
	%	23.6	76.4	100.0	
전체	n	346	1154	1500	
	%	23.1	76.9	100.0	

가. 전체 조사 결과

- 6점 형식 점자 문자의 구체적 형태를 알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안다는 응답이 346명(23.1%), 모른다는 응답이 1,154명(76.9%)이었다.
- 비시각장애인 1,000명 중 228명(22.8%)과 시각장애인 500명 중 118명(23.6%)이 안다고 응답하여 시각장애 여부에 따른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0.120$, $p>.05$).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8명(22.8%), 점자의 형태를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772명(77.2%)이었다.
- 성별,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 거주 지역,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 연령대별로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50대 28.0%, 60대 27.1%, 40대 24.4%, 20대 24.4%, 30대 7.7%로 조사되어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낮았다($\chi^2=29.698$, $p<.05$).
 - 거주 지역별로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읍면 지역 37.8%, 중소도시 26.3%, 대도시 18.6%로 조사되어, 대도시가 안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2.896$, $p<.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36%, 없는 경우 20.9%로 조사되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높았다($\chi^2=24.348$, $p<.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8명(23.6%),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명(86.8%)이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령대별로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20대(35.7%)와 30대(37.8%)는 40대(25%), 50대(26.3%), 60대(14.6%)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8.123$, $p<.05$).
 - 거주 지역별로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중소도시 27.4%, 대도시 26.9%, 읍면 지역 6.9%로 읍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6.311$, $p<.05$).
 - 학력에 따라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 43.9%, 대학교 재학/졸업 30.5%, 고등학교 졸업 18.2%, 중학교 졸업 6.7%, 초등학교 졸업

이하 7.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안다는 비율이 높았다($\chi^2=28.781$, $p<.05$).

- 직업 유무에 따라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직업이 있는 응답자(91%)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27%)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6.868$, $p<.05$).
- 장애 정도에 따라 점자의 형태를 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심한 장애(63%)가 심하지 않은 장애(55%)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50.998$, $p<.05$).

〈표 I-17〉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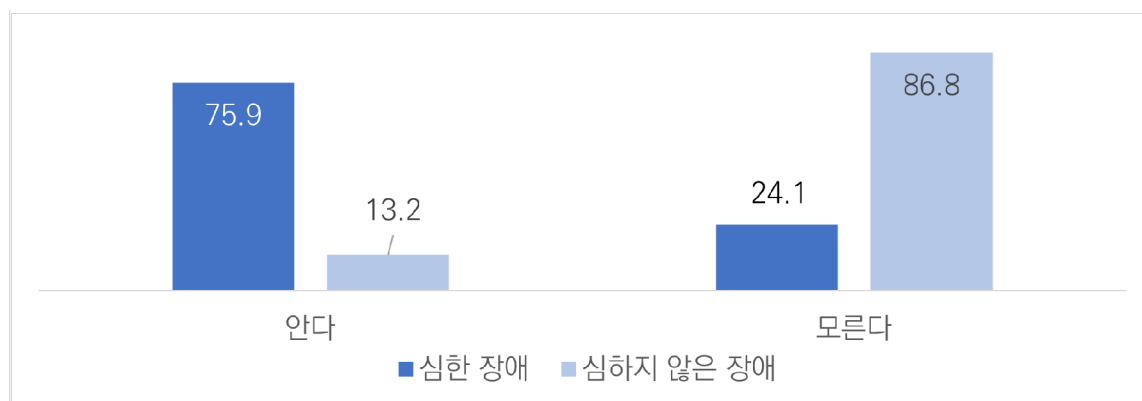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이미지 포함)		안다		모른다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120	23.6	389	76.4	509	100	0.354
	여성	108	22.0	383	78.0	491	100	
연령	20대	39	24.4	121	75.6	160	100	29.698*
	30대	14	7.7	167	92.3	181	100	
	40대	51	24.4	158	75.6	209	100	
	50대	66	28.0	170	72.0	236	100	
	60대	58	27.1	156	72.9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4	37.8	23	62.2	37	100	12.896*
	중소도시(동)	119	26.3	334	73.7	453	100	
	대도시(동)	95	18.6	415	81.4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25.0	12	75.0	16	100	0.559
	중학교 졸업	8	21.1	30	78.9	38	100	
	고등학교 졸업	81	24.0	256	76.0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28	22.2	448	77.8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7	21.2	26	78.8	33	100	
직업	유	174	23.3	574	76.7	748	100	0.360
	무	54	21.4	198	78.6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36	45.0	44	55.0	80	100	24.348*
	없다	192	20.9	728	79.1	920	100	
전체		228	22.8	772	77.2	1,000	100	

* $p<.05$

〈표 I -18〉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시각장애인)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이미지 포함)		안다		모른다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84	24.8	255	75.2	339	100	0.811
	여성	34	21.1	127	78.9	161	100	
연령	20대	20	35.7	36	64.3	56	100	18.123*
	30대	14	37.8	23	62.2	37	100	
	40대	11	25.0	33	75.0	44	100	
	50대	45	26.3	126	73.7	171	100	
	60대	28	14.6	164	85.4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6	6.9	81	93.1	87	100	16.311*
	중소도시(동)	55	27.4	146	72.6	201	100	
	대도시(동)	57	26.9	155	73.1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2	7.4	25	92.6	27	100	28.781*
	중학교 졸업	3	6.7	42	93.3	45	100	
	고등학교 졸업	34	18.2	153	81.8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61	30.5	139	69.5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8	43.9	23	56.1	41	100	
직업	유	91	29.8	214	70.2	305	100	16.868*
	무	27	13.8	168	86.2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63	75.9	20	24.1	83	100	150.998*
	심하지 않은 장애	55	13.2	362	86.8	417	100	
전체		118	23.6	382	76.4	500	1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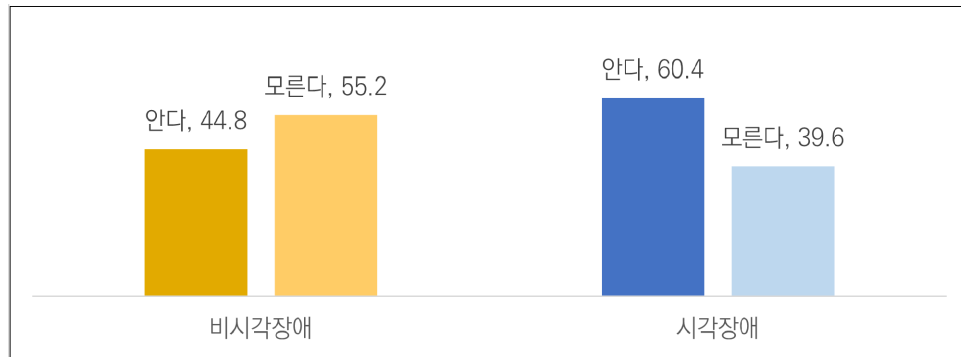


[그림 I -6] 시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형태 인지(단위: %)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공통)

문3(비시각)
문3(시각)

점자가 한글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정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림 I-7]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단위: %)

〈표 I-19〉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조사 결과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448	552	1000	32.448*
	%	44.8	55.2	100.0	
시각장애	n	302	198	500	
	%	60.4	39.6	100.0	
전체	n	750	750	1500	
	%	50.0	50.0	100.0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1,500명 중 750명(50.0%)이 안다고 응답하였다.
 - 비시각장애인 448명(44.8%), 시각장애인 302명(60.4%)이 안다고 응답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32.448$, $p < .05$).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8명(44.8%),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552명(55.2%)이었다.
-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37.9%, 여성 51.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chi^2=19.857$, $p<.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 62.5%, 그렇지 않은 응답자 43.3%로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chi^2=11.016$, $p<.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2명(60.4%),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98명(39.6%)이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 연령대별로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80%, 30대 70%, 40대 65%, 50대 64%, 60대 47%로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안다는 비율이 높았다($\chi^2=25.002$, $p<.05$).
 - 거주 지역별로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도시 69%, 대도시 58%, 읍면 지역 46%로 중소도시의 안다는 비율이 높았다($\chi^2=14.509$, $p<.05$).
 - 학력에 따라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 75%, 대학교 재학/졸업 66%, 고등학교 졸업 57%, 초등학교 졸업 이하 48%, 중학교 졸업 37% 순으로 나타나, 중학교 졸업 이하에 비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 중 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chi^2=18.947$, $p<.05$).
 - 직업 유무에 따라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응답자(64%)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53%)보다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5.741$, $p<.05$).

- 장애 정도에 따라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임을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심한 장애(83%)가 심하지 않은 장애(55%)보다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21.502$, $p<.05$).

〈표 I-20〉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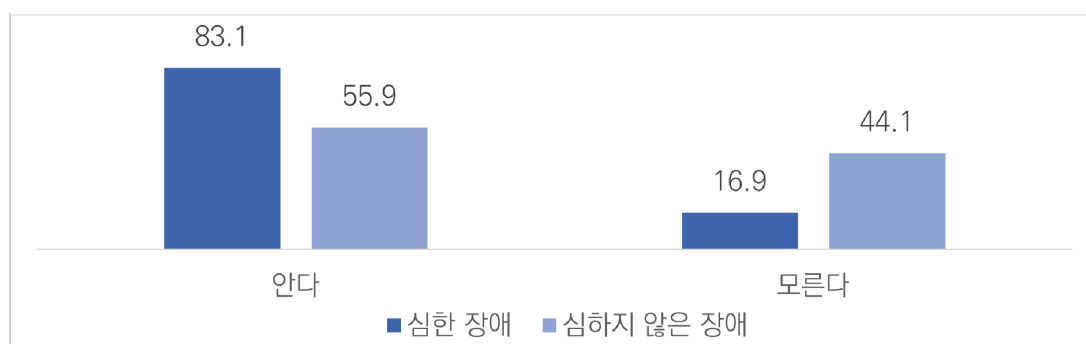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193	37.9	316	62.1	509	100	19.857*
	여성	255	51.9	236	48.1	491	100	
연령	20대	78	48.8	82	51.3	160	100	8.112
	30대	71	39.2	110	60.8	181	100	
	40대	106	50.7	103	49.3	209	100	
	50대	107	45.3	129	54.7	236	100	
	60대	86	40.2	128	59.8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21	56.8	16	43.2	37	100	3.628
	중소도시(동)	210	46.4	243	53.6	453	100	
	대도시(동)	217	42.5	293	57.5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25.0	12	75.0	16	100	5.527
	중학교 졸업	13	34.2	25	65.8	38	100	
	고등학교 졸업	147	43.6	190	56.4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270	46.9	306	53.1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4	42.4	19	57.6	33	100	
직업	유	329	44.0	419	56.0	748	100	0.799
	무	119	47.2	133	52.8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50	62.5	30	37.5	80	100	11.016*
	없다	398	43.3	522	56.7	920	100	
전체		448	44.8	552	55.2	1000	100	

* $p<.05$

〈표 I -21〉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시각장애인)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202	59.6	137	40.4	339	100	0.291
	여성	100	62.1	61	37.9	161	100	
연령	20대	45	80.4	11	19.6	56	100	25.002*
	30대	26	70.3	11	29.7	37	100	
	40대	29	65.9	15	34.1	44	100	
	50대	110	64.3	61	35.7	171	100	
	60대	92	47.9	100	52.1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40	46.0	47	54.0	87	100	14.509*
	중소도시(동)	139	69.2	62	30.8	201	100	
	대도시(동)	123	58.0	89	42.0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13	48.1	14	51.9	27	100	18.947*
	중학교 졸업	17	37.8	28	62.2	45	100	
	고등학교 졸업	108	57.8	79	42.2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133	66.5	67	33.5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31	75.6	10	24.4	41	100	
직업	유	197	64.6	108	35.4	305	100	5.741*
	무	105	53.8	90	46.2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69	83.1	14	16.9	83	100	21.502*
	심하지 않은 장애	233	55.9	184	44.1	417	100	
전체		302	60.4	198	39.6	500	1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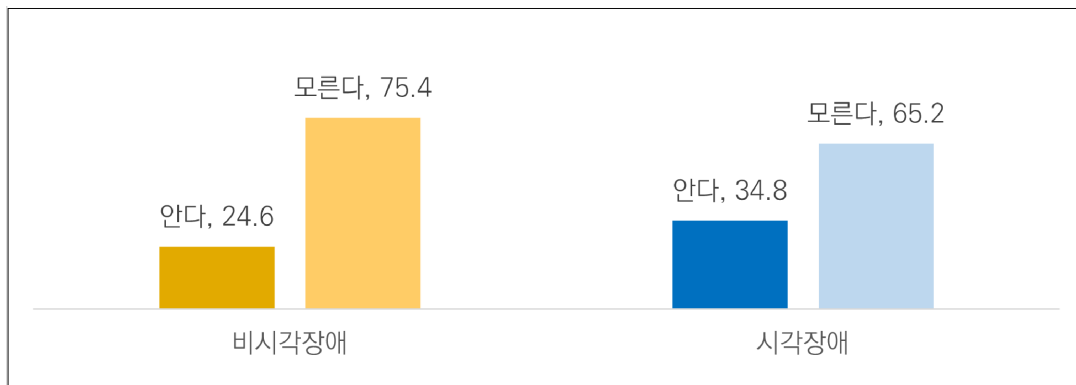


[그림 I -8] 장애 정도에 따른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단위: %)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공통)

문4(비시각)
문4(시각)

공공 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점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림 I-9]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단위: %)

〈표 I-22〉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조사 결과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246	754	1000	17.202*
	%	24.6	75.4	100.0	
시각장애	n	174	326	500	
	%	34.8	65.2	100.0	
전체	n	420	1,080	1,500	
	%	28.0	72.0	100.0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1,500명 중 420명 (28.0%)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시각장애인 246명(24.6%), 시각장애인 174명(34.8%)이 안다고 응답하여 시각 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chi^2=17.202$, $p<.05$).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6명(24.6%),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754명(75.4%)이었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알고 있는 비율을 보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43.8%)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22.9%)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chi^2=17.192$, $p<.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174명(34.8%)이었고,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26명(65.2%)이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 연령대별로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46.4%, 30대 48.6%, 40대 45.5%, 50대 36%, 60대 25%로 나타나, 20, 30, 40대는 50대, 6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6.953$, $p<.05$).
 - 거주 지역별로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대도시 38.7%, 중소도시 37.8%, 읍면 지역 18.4% 순으로 조사되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12.534$, $p<.05$).
 - 학력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 58%, 대학교 재학/졸업 44%, 고등학교 졸업 27%, 초등학교 졸업 이하 22%, 중학교 졸업 11% 순으로 조사되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중학교 이하의 졸업자에 비하여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35.323$, $p<.05$).
 - 직업 유무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 39.3%, 없는 경우 27.7%로 조사되어 직업이 있는 응답자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보다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는 비율이 높았다($\chi^2=7.118$, $p<.05$).

- 장애 정도에 따라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심한 장애 67.5%, 심하지 않은 장애 28.3%로 조사되어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하여 점자 문서 서비스를 안다는 비율이 높았다($\chi^2=46.814$, $p<.05$).

〈표 I -23〉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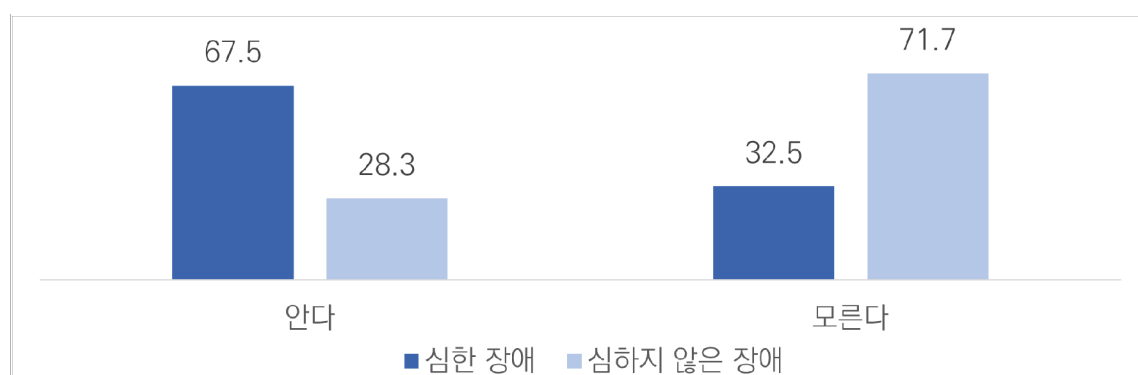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116	22.8	393	77.2	509	100	1.831
	여성	130	26.5	361	73.5	491	100	
연령	20대	43	26.9	117	73.1	160	100	9.408
	30대	33	18.2	148	81.8	181	100	
	40대	53	25.4	156	74.6	209	100	
	50대	71	30.1	165	69.9	236	100	
	60대	46	21.5	168	78.5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8	21.6	29	78.4	37	100	5.270
	중소도시(동)	127	28.0	326	72.0	453	100	
	대도시(동)	111	21.8	399	78.2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3	18.8	13	81.3	16	100	2.952
	중학교 졸업	8	21.1	30	78.9	38	100	
	고등학교 졸업	75	22.3	262	77.7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53	26.6	423	73.4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7	21.2	26	78.8	33	100	
직업	유	183	24.5	565	75.5	748	100	0.029
	무	63	25.0	189	75.0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35	43.8	45	56.3	80	100	17.192*
	없다	211	22.9	709	77.1	920	100	
전체		246	24.6	754	75.4	1,000	100	

* $p<.05$

〈표 I -2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시각장애인)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110	32.4	229	67.6	339	100	2.566
	여성	64	39.8	97	60.2	161	100	
연령	20대	26	46.4	30	53.6	56	100	16.953*
	30대	18	48.6	19	51.4	37	100	
	40대	20	45.5	24	54.5	44	100	
	50대	62	36.3	109	63.7	171	100	
	60대	48	25.0	144	75.0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6	18.4	71	81.6	87	100	12.534*
	중소도시(동)	76	37.8	125	62.2	201	100	
	대도시(동)	82	38.7	130	61.3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6	22.2	21	77.8	27	100	35.323*
	중학교 졸업	5	11.1	40	88.9	45	100	
	고등학교 졸업	51	27.3	136	72.7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88	44.0	112	56.0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24	58.5	17	41.5	41	100	
직업	유	120	39.3	185	60.7	305	100	7.118*
	무	54	27.7	141	72.3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56	67.5	27	32.5	83	100	46.814*
	심하지 않은 장애	118	28.3	299	71.7	417	100	
전체		174	34.8	326	65.2	500	100	

* $p < .05$



[그림 I -10] 장애 정도에 따른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단위: %)

3) 점자 경험

(1) 일상생활의 점자 경험(비시각장애인)

문5(비시각)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습니까?(복수 응답)



[그림 I-11] 일상생활 중 점자 경험(비시각장애인)(단위: %)

- 설문에 응한 비시각장애인 1,000명 중 ‘건물의 승강기 버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36명(93.6%)으로 가장 많았다.
- 다음은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 381명(38.1%), ‘공공 기관 등의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331명(33.1%), ‘화장실 출입구’ 316명(31.6%),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 173명(17.3%), ‘음료수나 화장품 등의 상품이나 생활용품’ 141명(14.1%), ‘점자 책자’ 119명(11.9%), ‘사무실 이름판’ 100명(10.0%), ‘점자 명함’ 90명(9.0%), ‘기타’ 71명(7.1%) 순으로 나타났다. 비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점자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 -25〉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비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전체
성별	남성	n	474	162	194	55	150	81	71	64	54	36	509
		%	93.1	31.8	38.1	10.8	29.5	15.9	13.9	12.6	10.6	7.1	100
	여성	n	465	170	185	45	170	92	70	56	36	35	491
		%	94.7	34.6	37.7	9.2	34.6	18.7	14.3	11.4	7.3	7.1	100
연령	20대	n	146	49	58	23	57	44	41	19	16	10	160
		%	91.3	30.6	36.3	14.4	35.6	27.5	25.6	11.9	10.0	6.3	100
	30대	n	174	54	69	10	55	28	28	23	12	12	181
		%	96.1	29.8	38.1	5.5	30.4	15.5	15.5	12.7	6.6	6.6	100
	40대	n	197	83	99	20	68	33	24	20	16	16	209
		%	94.3	39.70	47.4	9.6	32.5	15.8	11.5	9.6	7.7	7.7	100
	50대	n	228	84	93	25	81	37	21	31	28	18	236
		%	96.6	35.60	39.4	10.6	34.3	15.7	8.9	13.1	11.9	7.6	100
	60대	n	194	62	60	22	59	31	27	27	18	15	214
		%	90.7	29.0	28.0	10.3	27.6	14.5	12.6	12.6	8.4	7.0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31	19	20	7	19	6	8	4	1	2	37
		%	83.8	51.4	54.1	18.9	51.4	16.2	21.6	10.8	2.7	5.4	100
	중소도시(동)	n	426	161	184	44	160	86	69	59	39	27	453
		%	94.0	35.5	40.6	9.7	35.3	19.0	15.2	13.0	8.6	6.0	100
	대도시(동)	n	482	152	175	49	141	81	64	57	50	42	510
		%	94.5	29.8	34.3	9.6	27.6	15.9	12.5	11.2	9.8	8.2	1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n	15	8	8	4	7	4	6	5	5	0	16
		%	93.8	50.0	50.0	25.0	43.8	25.0	37.5	31.3	31.3	0.0	100
	중학교 졸업	n	37	13	11	3	12	4	2	3	2	2	38
		%	97.4	34.2	28.9	7.9	31.6	10.5	5.3	7.9	5.3	5.3	100
	고등학교 졸업	n	313	95	102	28	96	40	40	38	21	31	337
		%	92.9	28.2	30.3	8.3	28.5	11.9	11.9	11.3	6.2	9.2	100
	대학 재학, 졸업	n	542	204	244	58	194	118	89	70	58	38	576
		%	94.1	35.4	42.4	10.1	33.7	20.5	15.5	12.2	10.1	6.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n	32	12	14	7	11	7	4	4	4	0	33
		%	97.0	36.4	42.4	21.2	33.3	21.2	12.1	12.1	12.1	0.0	100
직업	유	n	703	253	294	79	245	133	102	88	68	50	748
		%	94.0	33.8	39.3	10.6	32.8	17.8	13.6	11.8	9.1	6.7	100
	무	n	236	79	85	21	75	40	39	32	22	21	252
		%	93.7	31.3	33.7	8.3	29.8	15.9	15.5	12.7	8.7	8.3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n	77	39	41	17	26	14	17	17	24	4	80
		%	96.3	48.8	51.3	21.3	32.5	17.5	21.3	21.3	30.0	5.0	100
	없다	n	862	293	338	83	294	159	124	103	66	67	920
		%	93.7	31.8	36.7	9.0	32.0	17.3	13.5	11.2	7.2	7.3	100
전체		n	936	331	381	100	316	173	141	119	90	71	1000
		%	93.6	33.1	38.1	10.0	31.6	17.3	14.1	11.9	9.0	7.1	100

가: 건물의 승강기 버튼

나: 공공 기관 등의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다: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층수 및 위치 표기)

라: 사무실 이름판

마: 화장실 출입구 옆(남·여 구별)

바: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

사: 음료수나 화장품 등의 상품이나 생활용품

아: 점자 책자

자: 점자 명함

차: 기타

(2) 일상생활의 점자에 대한 느낌(비시각장애인)

문6(비시각)

승강기, 계단, 공공 기관 안내판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을 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그림 I-12] 일상생활 중 점자에 대한 느낌(비시각장애인)(단위: %)

- 설문에 응한 비시각장애인 1,000명 중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가 498명(49.8%)으로 가장 많았다.
- 다음은 ‘시각장애인이 찾기 어려울 것 같다’ 248명(24.8%),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다’ 135명(13.5%), ‘생각해 본 적 없다’ 120명(12.0%), ‘활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83명(8.3%), ‘기타’ 13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 정도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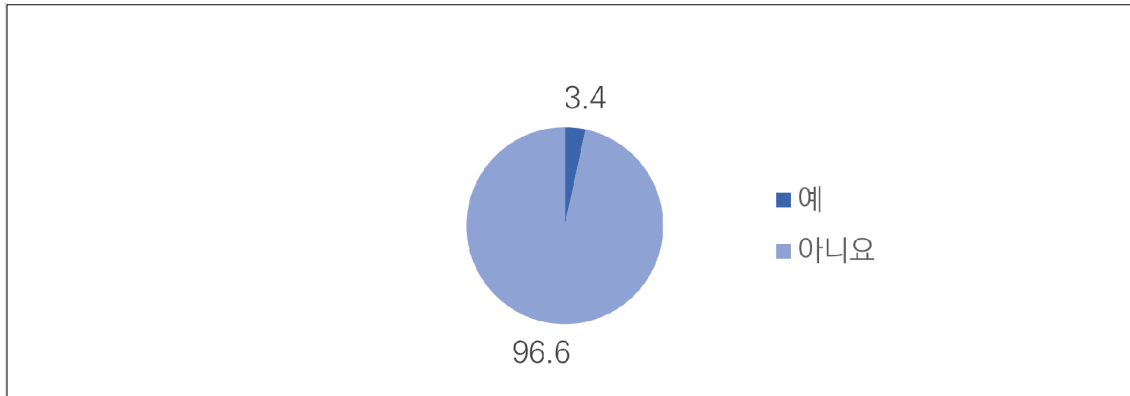
〈표 I -26〉 일상생활 중 점자에 대한 느낌(비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중 점자에 대한 느낌		시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이 찾기 어렵다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다		활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해 본 적 없다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42	47.5	128	25.1	57	11.2	46	9.0	71	13.9	8	1.6	509	100
	여성	256	52.1	120	24.4	78	15.9	37	7.5	49	10.0	5	1.0	491	100
연령	20대	64	40.0	56	35.0	31	19.4	12	7.5	14	8.8	4	2.5	160	100
	30대	71	39.2	59	32.6	29	16.0	21	11.6	17	9.4	6	3.3	181	100
	40대	97	46.4	60	28.7	31	14.8	25	12.0	19	9.1	0	0.0	209	100
	50대	130	55.1	55	23.3	26	11.0	18	7.6	28	11.9	2	0.8	236	100
	60대	136	63.6	18	8.4	18	8.4	7	3.3	42	19.6	1	0.5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8	48.6	10	27.0	7	18.9	1	2.7	5	13.5	0	0.0	37	100
	중소도시(동)	232	51.2	119	26.3	61	13.5	36	7.9	49	10.8	5	1.1	453	100
	대도시(동)	248	48.6	119	23.3	67	13.1	46	9.0	66	12.9	8	1.6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6	37.5	3	18.8	4	25.0	2	12.5	4	25.0	0	0.0	16	100
	중학교 졸업	17	44.7	5	13.2	8	21.1	0	0.0	8	21.1	1	2.6	38	100
	고등학교 졸업	193	57.3	62	18.4	34	10.1	19	5.6	50	14.8	5	1.5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269	46.7	168	29.2	86	14.9	55	9.5	52	9.0	7	1.2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3	39.4	10	30.3	3	9.1	7	21.2	6	18.2	0	0.0	33	100
직업	유	366	48.9	201	26.9	107	14.3	65	8.7	79	10.6	8	1.1	748	100
	무	132	52.4	47	18.7	28	11.1	18	7.1	41	16.3	5	2.0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32	40.0	30	37.5	12	15.0	6	7.5	9	11.3	1	1.3	80	100
	없다	466	50.7	218	23.7	123	13.4	77	8.4	111	12.1	12	1.3	920	100
전체		498	49.8	248	24.8	135	13.5	83	8.3	120	12.0	13	1.3	1,000	100

(3) 점자 학습 경험 및 계기(비시각장애인)

문7(비시각)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림 I-13] 점자 학습 경험(비시각장애인)(단위: %)

- 설문에 응한 비시각장애인 1,000명 중 점자 학습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66명 (96.6%)이었고, 34명(3.4%)만이 점자 학습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점자 학습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 16.3%, 그렇지 않은 응답자 2.3%로 조사되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점자 학습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chi^2=43.717$,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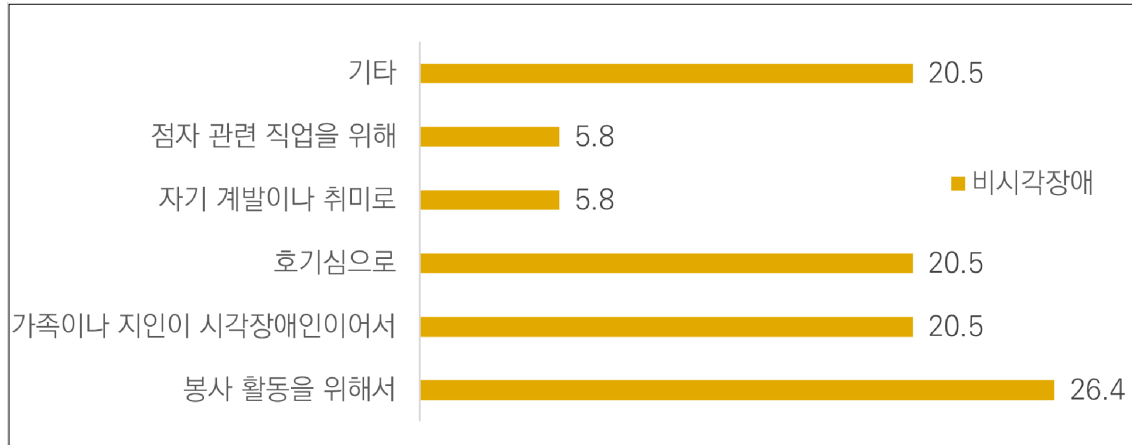
〈표 I -27〉 점자 학습 경험(비시각장애인)

점자 학습 경험		예		아니요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17	3.3	492	96.7	509	100	0.011
	여성	17	3.5	474	96.5	491	100	
연령	20대	10	6.3	150	93.8	160	100	8.119
	30대	2	1.1	179	98.9	181	100	
	40대	9	4.3	200	95.7	209	100	
	50대	8	3.4	228	96.6	236	100	
	60대	5	2.3	209	97.7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2.7	36	97.3	37	100	0.086
	중소도시(동)	16	3.5	437	96.5	453	100	
	대도시(동)	17	3.3	493	96.7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2	12.5	14	87.5%	16	100	8.836
	중학교 졸업	0	0.0	38	100	38	100	
	고등학교 졸업	10	3.0	327	97.0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9	3.3	557	96.7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3	9.1	30	90.9	33	100	
직업	유	27	3.6	721	96.4	748	100	0.397
	무	7	2.8	245	97.2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13	16.3	67	83.8	80	100	43.717*
	없다	21	2.3	899	97.7	920	100	
전체		34	3.4	966	96.6	1,000	100	

* $p < .05$

문7-1(비시각)

점자를 학습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림 I-14] 점자 학습 계기(비시각장애인)(단위: %)

-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시각장애인(34명)을 대상으로 점자를 학습한 계기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봉사 활동을 위하여’ 9명(26.4%), ‘가족이나 지인이 시각장애인인으로서’ 7명(20.5%), ‘호기심으로’ 7명(20.5%), ‘자기 계발이나 취미로’ 2명(5.8%), ‘점자 관련 직업을 위해’ 2명(5.8%)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답한 응답자가 7명(20.5%) 이었다.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여부에 따른 경향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중소도시에서는 ‘봉사 활동을 위해서’와 ‘기타’가 동일하게 31.3%로 가장 많았으나, 대도시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인 있어서’가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chi^2=19.91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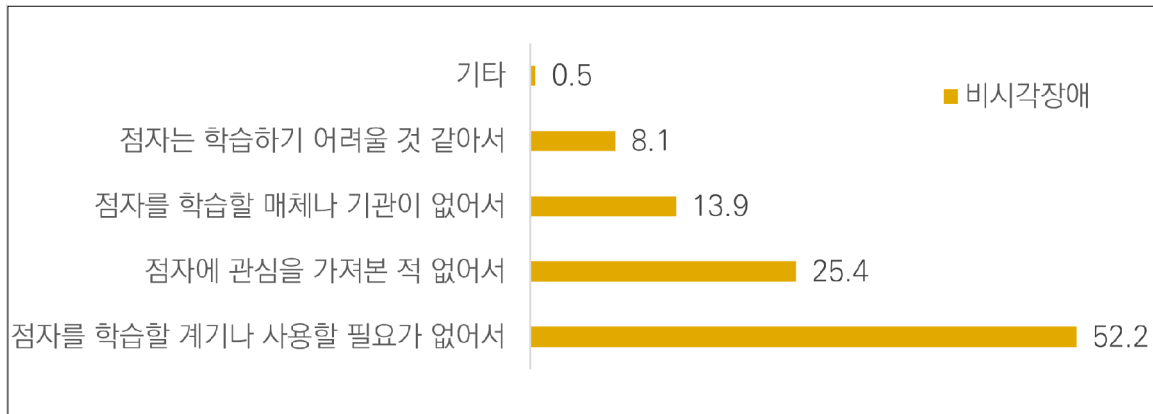
〈표 I -28〉 점자 학습 계기(비시각장애인)

점자 학습 계기		점자 관련 직업을 위해		가족·지인 시각장애인 이어서		봉사 활동을 위해		호기심으로		자기 계발이나 취미로		기타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	5.9	3	17.6	4	23.5	4	23.5	1	5.9	4	23.5	17	100	0.540
	여성	1	5.9	4	23.5	5	29.4	3	17.6	1	5.9	3	17.6	17	100	
연령	20대	1	10.0	1	10.0	3	30.0	1	10.0	1	10.0	4	40.0	10	100	19.039
	30대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2	100	
	40대	1	11.1	3	33.3	1	11.1	1	11.1	1	11.1	2	22.2	9	100	
	50대	0	0.0	2	25.0	2	25.0	4	50.0	0	0.0	0	0.0	8	100	
	60대	0	0.0	2	40.0	2	40.0	1	20.0	0	0.0	0	0.0	5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19.914*
	중소도시(동)	0	0.0	2	12.5	5	31.3	3	18.8	1	6.3	5	31.3	16	100	
	대도시(동)	1	5.9	5	29.4	4	23.5	4	23.5	1	5.9	2	11.8	17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1	50.0	0	0.0	1	50.0	0	0.0	0	0.0	2	100	19.983
	중학교 졸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고등학교 졸업	0	0.0	2	20.0	2	20.0	1	10.0	0	0.0	5	50.0	10	100	
	대학 재학, 졸업	1	5.3	4	21.1	6	31.6	5	26.3	1	5.3	2	10.5	19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	33.3	0	0.0	1	33.3	0	0.0	1	33.3	0	0.0	3	100	
직업	유	2	7.41	6	22.2	7	25.9	5	18.5	1	3.7	6	22.2	27	100	2.204
	무	0	0	1	14.3	2	28.6	2	28.6	1	14.3	1	14.3	7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0	0.0	6	46.2	3	23.1	1	7.7	1	7.7	2	15.4	13	100	10.106
	없다	2	9.5	1	4.8	6	28.6	6	28.6	1	4.8	5	23.8	21	100	
전체		2	5.8	7	20.5	9	26.4	7	20.5	2	5.8	7	20.5	34	100	

* $p < .05$

문7-2(비시각)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 I-15] 점자 학습 경험이 없는 이유(비시각장애인)(단위: %)

-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시각장애인(966명)을 대상으로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없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504명(52.2%), ‘점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어서’ 245명(25.4%), ‘점자를 학습할 매체나 기관이 없어서’ 134명(13.9%), ‘점자는 학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78명(8.1%), ‘기타’ 5명(0.5%) 순이었다.
- 성별, 거주 지역,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 학력,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30대는 60.3%로 나타나, 20대(54%), 40대(56.5%), 50대(46.5%), 60대(45.9%)에 비하여 높게($\chi^2=31.102$, $p<.05$) 나타났다.
 -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점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어서’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이와 달리 초등학교 졸업 이하(50.0%), 고등학교 졸업(44.6%), 대학교 재학/졸업(57.8%), 대학원 재학 이상(46.7%)은 모두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chi^2=38.530$, $p<.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는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와 ‘점자, 학습 매체, 기관이 주변에 없어서’가 동일하게 29.9%였으나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53.8%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41.988$, $p<.05$).

〈표 I -29〉 점자 학습 경험이 없는 이유(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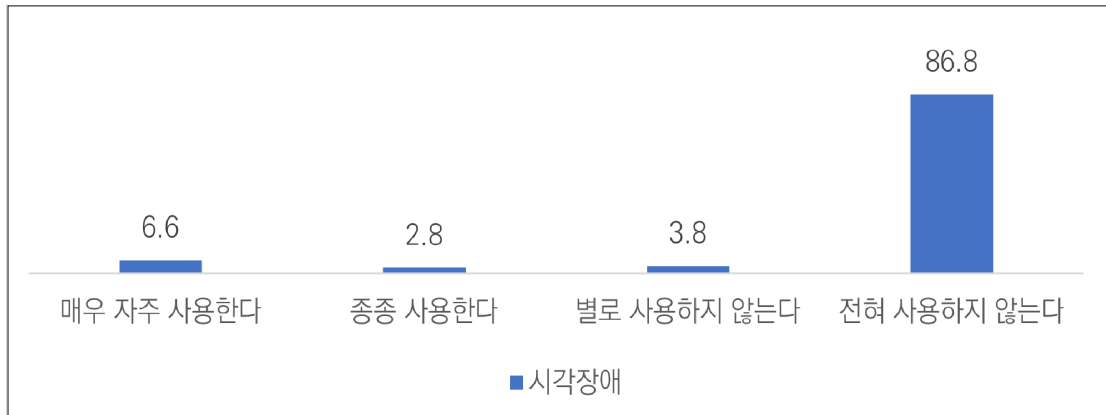
점자 학습 경험이 없는 이유		점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어서		점자를 학습할 계기,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점자 학습매체·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점자는 학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39	28.3	247	50.2	67	13.6	38	7.7	1	0.20	492	100	6.161
	여성	106	22.4	257	54.2	67	14.1	40	8.4	4	0.80	474	100	
연령	20대	48	32.0	81	54.0	15	10.0	5	3.3	1	0.70	150	100	31.102*
	30대	39	21.8	108	60.3	15	8.4	15	8.4	2	1.10	179	100	
	40대	38	19.0	113	56.5	30	15.0	19	9.5	0	0.00	200	100	
	50대	58	25.4	106	46.5	41	18.0	22	9.6	1	0.40	228	100	
	60대	62	29.7	96	45.9	33	15.8	17	8.1	1	0.50	209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0	27.8	17	47.2	6	16.7	3	8.3	0	0.0	36	100	14.579
	중소도시(동)	87	19.9	240	54.9	70	16.0	37	8.5	3	0.7	437	100	
	대도시(동)	148	30.0	247	50.1	58	11.8	38	7.7	2	0.4	493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3	21.4	7	50.0	3	21.4	1	7.1	0	0.0	14	100	38.530*
	중학교 졸업	17	44.7	15	39.5	1	2.6	5	13.2	0	0.0	38	100	
	고등학교 졸업	97	29.7	146	44.6	44	13.5	38	11.6	2	0.6	327	100	
	대학 재학, 졸업	123	22.1	322	57.8	79	14.2	30	5.4	3	0.5	557	100	
	대학원 재학 이상	5	16.7	14	46.7	7	23.3	4	13.3	0	0.0	30	100	
직업	유	180	25.0	390	54.1	92	12.8	56	7.8	3	0.4	721	100	5.611
	무	65	26.5	114	46.5	42	17.1	22	9.0	2	0.8	245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11	16.4	20	29.9	20	29.9	15	22.4	1	1.5	67	100	41.988*
	없다	234	26.0	484	53.8	114	12.7	63	7.0	4	0.4	899	100	
전체		245	25.4	504	52.2	134	13.9	78	8.1	5	0.5	966	100	

* $p < .05$

(4)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시각장애인)

문5(시각)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사용합니까?



[그림 I-16]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시각장애인)(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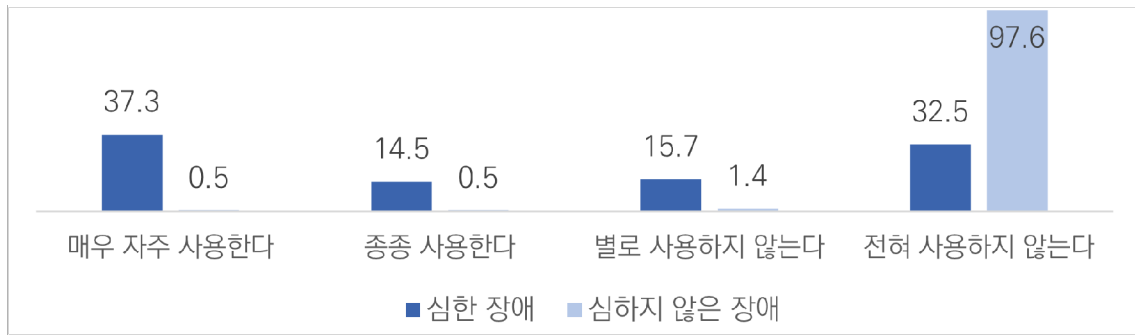
- 설문에 응한 시각장애인 500명 중 ‘매우 자주 사용한다’ 33명(6.6%), ‘종종 사용한다’ 14명(2.8%),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19명(3.8%), ‘사용하지 않는다’ 434명(86.8%)이었다. 500명 중 47명(9.4%)만이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매우 자주 사용’+‘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거주 지역별로 점자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점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읍면 지역(98.9%), 중소도시(88.1%), 대도시(80.7%)의 비율은 다소 달랐다.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읍면 지역 0%, 중소도시 21%, 대도시 26%로 나타나 소도시와 대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chi^2=23.118$, $p<.05$).
 - 학력별로 점자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학력에서 ‘점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 96.3%, 중학교 졸업 95.6%, 고등학교 졸업 92.5%, 대학 재학, 졸업 82.5%, 대학원 재학 이상 65.9%로 그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에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대학원 재학 이상 31.7%, 대학교 재학/졸업 13%, 고등학교 졸업 4.3%, 중학교 졸업 이하 0%로 학력이 높을수록 점자 사용자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chi^2=61.875$, $p<.05$).

- 직업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모두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직업이 있는 경우 81.3%, 직업이 없는 경우 95.4%로 그 비율은 다소 달랐다.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직업이 있는 경우(14.4%)가 직업이 없는 경우(1.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chi^2=24.695$, $p< .05$).
- 장애 정도에 따라 점자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점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심한 장애인(51.8%)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1.0%)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심한 장애인은 ‘매우 자주 사용’(37.3%), ‘전혀 사용하지 않음’(3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97.6%)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chi^2=261.502$, $p< .05$).

〈표 I -30〉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시각장애인)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		매우 자주 사용한다		종종 사용한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1	6.2	11	3.2	12	3.5	295	87.0	339	100	1.200
	여성	12	7.5	3	1.9	7	4.3	139	86.3	161	100	
연령	20대	4	7.1	1	1.8	1	1.8	50	89.3	56	100	16.449
	30대	5	13.5	2	5.4	4	10.8	26	70.3	37	100	
	40대	5	11.4	1	2.3	1	2.3	37	84.1	44	100	
	50대	11	6.4	7	4.1	6	3.5	147	86.0	171	100	
	60대	8	4.2	3	1.6	7	3.6	174	90.6	192	100	
	70대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0	0.0	0	0.0	1	1.1	86	98.9	87	100	23.118*
	중소도시(동)	15	7.5	6	3.0	3	1.5	177	88.1	201	100	
	대도시(동)	18	8.5	8	3.8	15	7.1	171	80.7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0	0.0	1	3.7	26	96.3	27	100	61.875*
	중학교 졸업	0	0.0	0	0.0	2	4.4	43	95.6	45	100	
	고등학교 졸업	3	1.6	5	2.7	6	3.2	173	92.5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17	8.5	9	4.5	9	4.5	165	82.5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3	31.7	0	0.0	1	2.4	27	65.9	41	100	
직업	유	32	10.5	12	3.9	13	4.3	248	81.3	305	100	24.695*
	무	1	0.5	2	1.0	6	3.1	186	95.4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31	37.3	12	14.5	13	15.7	27	32.5	83	100	261.502*
	심하지 않은 장애	2	0.5	2	0.5	6	1.4	407	97.6	417	100	
전체		33	6.6	14	2.8	19	3.8	434	86.8	500	100	

*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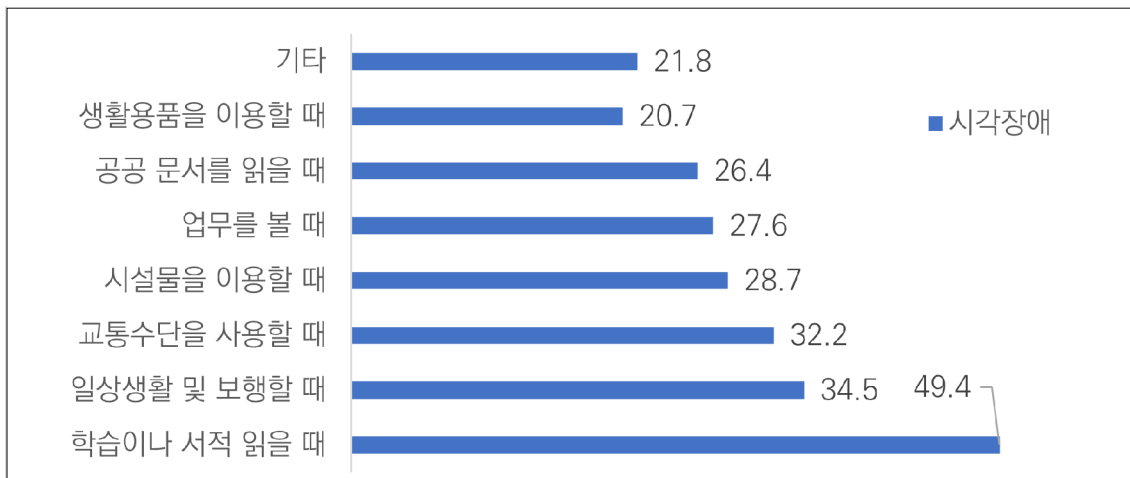


[그림 I-17]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일상생활의 점자 사용 정도(단위: %)

(5)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시각장애인)

문6(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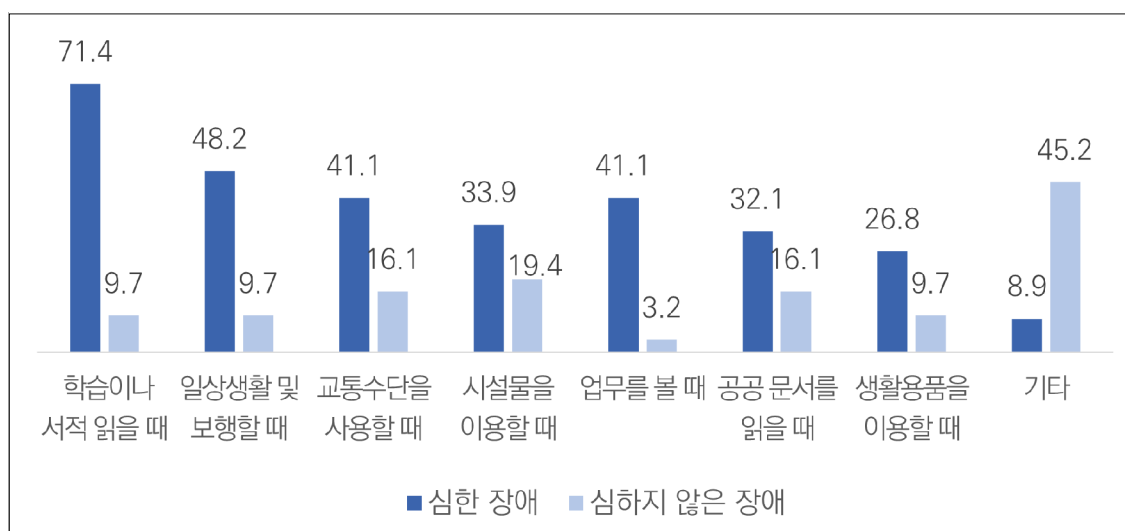
귀하가 점자를 사용할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복수 응답)



[그림 I-18] 점자 사용 시기(시각장애인)(단위: %)

- 시각장애인 응답자 87명 중 ‘학습이나 서적 읽을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43명 (49.4%)으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30명(34.5%),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28명(32.2%), ‘시설물을 이용할 때’ 25명(28.7%), ‘업무를 볼 때’ 24명(27.6%), ‘공공 문서를 읽을 때’ 23명(26.4%), ‘생활용품을 이용할 때’ 18명(20.7%)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19명(21.8%)이었다.
- 이러한 결과로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그림 I-19]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사용 시기(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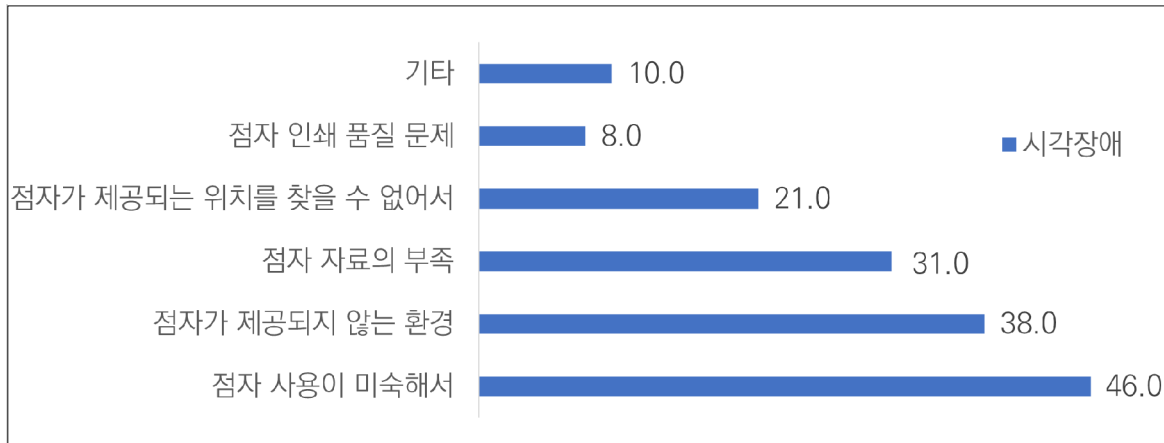
〈표 I-31〉 점자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		학습, 서적 읽기		공공 문서 읽기		교통수단 사용 시		시설물 이용 시		일상생활 및 보행		생활용품 이용 시		업무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30	50.8	14	23.7	19	32.2	15	25.4	19	32.2	9	15.3	16	27.1	10	16.9	59	100
	여성	13	46.4	9	32.1	9	32.1	10	35.7	11	39.3	9	32.1	8	28.6	9	32.1	28	100
연령	20대	6	60.0	0	0.0	3	30.0	3	30.0	2	20.0	2	20.0	1	10.0	2	20.0	10	100
	30대	7	58.3	5	41.7	7	58.3	5	41.7	4	33.3	3	25.0	6	50.0	2	16.7	12	100
	40대	5	50.0	5	50.0	2	20.0	3	30.0	2	20.0	3	30.0	5	50.0	3	30.0	10	100
	50대	16	44.4	9	25.0	11	30.6	11	30.6	13	36.1	9	25.0	7	19.4	11	30.6	36	100
	60대	9	47.4	4	21.1	5	26.3	3	15.8	9	47.4	1	5.3	5	26.3	1	5.3	19	100
	60대 이상	9	47.4	4	21.1	5	26.3	3	15.8	9	47.4	1	5.3	5	26.3	1	5.3	19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0	0.0	0	0.0	0	0.0	1	25.0	1	25.0	0	0.0	0	0.0	3	75.0	4	100
	중소도시(동)	20	66.7	11	36.7	11	36.7	11	36.7	9	30.0	9	30.0	11	36.7	8	26.7	30	100
	대도시(동)	23	43.4	12	22.6	17	32.1	13	24.5	20	37.7	9	17.0	13	24.5	8	15.1	53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중학교 졸업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2	66.7	3	100
	고등학교 졸업	9	40.9	3	13.6	5	22.7	4	18.2	8	36.4	5	22.7	2	9.1	7	31.8	22	100
	대학 재학, 졸업	22	47.8	9	19.6	16	34.8	12	26.1	13	28.3	6	13.0	10	21.7	8	17.4	4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2	80.0	10	66.7	7	46.7	9	60.0	8	53.3	7	46.7	12	80.0	2	13.3	15	100
직업	유	40	52.6	21	27.6	26	34.2	24	31.6	27	35.5	17	22.4	24	31.6	17	22.4	76	100
	무	3	27.3	2	18.2	2	18.2	1	9.1	3	27.3	1	9.1	0	0.0	2	18.2	11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40	71.4	18	32.1	23	41.1	19	33.9	27	48.2	15	26.8	23	41.1	5	8.9	56	100
	심하지 않은 장애	3	9.7	5	16.1	5	16.1	6	19.4	3	9.7	3	9.7	1	3.2	14	45.2	31	100
전체		43	49.4	23	26.4	28	32.2	25	28.7	30	34.5	18	20.7	24	27.6	19	21.8	87	100

(6)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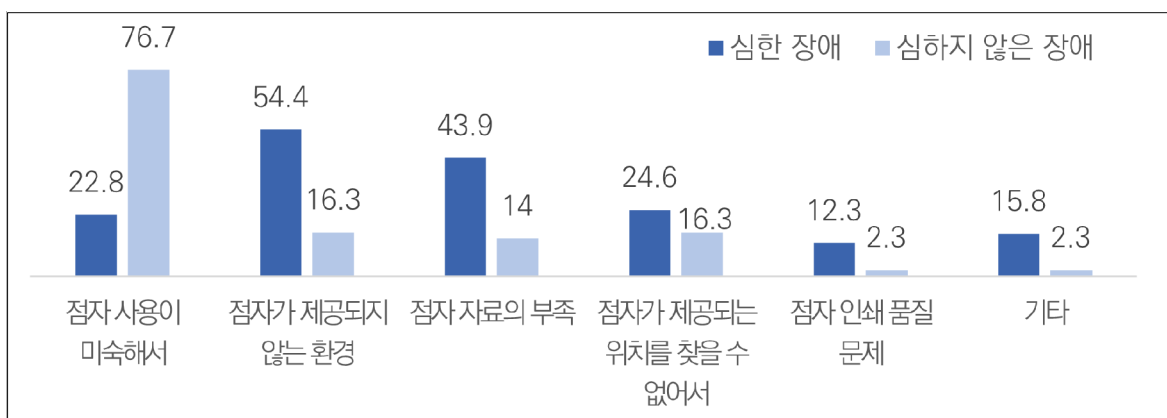
문7(시각)

귀하가 점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그림 I-20]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시각장애인)(단위: %)

- 시각장애인 응답자 100명 중 ‘점자 사용이 미숙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6명(46%)으로 가장 많았고,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38명(38%), ‘점자 자료의 부족’ 31명(31%), ‘점자가 제공되는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21명(21%), ‘점자 인쇄 품질 문제’ 8명(8%)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10명(10%)이었다.
- 이러한 결과로 점자 사용에서 어려운 점은 개인적으로 점자 사용이 미숙한 측면도 있으나 그 외 환경적 요인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21]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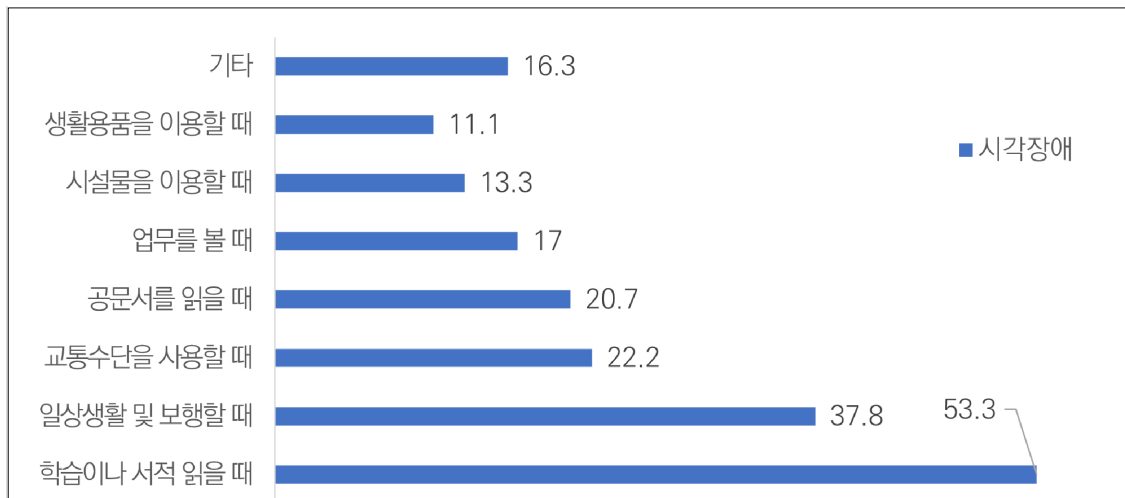
〈표 I -32〉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시각장애인)

점자 사용의 어려운 점		점자 자료의 부족		점자 인쇄 품질 문제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점자가 제공되는 곳 찾기 어려움		점자 사용 미숙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0	28.2	3	4.2	25	35.2	15	21.1	36	50.7	6	8.5	71	100
	여성	11	37.9	5	17.2	13	44.8	6	20.7	10	34.5	4	13.8	29	100
연령	20대	3	16.7	1	5.6	7	38.9	3	16.7	10	55.6	2	11.1	18	100
	30대	7	38.9	3	16.7	8	44.4	5	27.8	9	50.0	1	5.6	18	100
	40대	5	71.4	1	14.3	4	57.1	1	14.3	1	14.3	0	0.0	7	100
	50대	13	37.1	2	5.7	10	28.6	6	17.1	17	48.6	6	17.1	35	100
	60대	3	13.6	1	4.5	9	40.9	6	27.3	9	40.9	1	4.5	2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16.7	0	0.0	2	33.3	0	0.0	3	50.0	0	0.0	6	100
	중소도시(동)	13	41.9	4	12.9	12	38.7	8	25.8	14	45.2	7	22.6	31	100
	대도시(동)	17	27.0	4	6.3	24	38.1	13	20.6	29	46.0	3	4.8	63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0	0.0	0	0.0	0	0.0	2	100	0	0.0	2	100
	중학교 졸업	0	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
	고등학교 졸업	7	25.0	1	3.6	4	14.3	6	21.4	17	60.7	5	17.9	28	100
	대학 재학, 졸업	15	28.8	7	13.5	23	44.2	10	19.2	24	46.2	3	5.8	52	100
	대학원 재학 이상	9	56.3	0	0.0	10	62.5	5	31.3	2	12.5	2	12.5	16	100
직업	유	30	38.0	8	10.1	33	41.8	19	24.1	30	38.0	8	10.1	79	100
	무	1	4.8	0	0.0	5	23.8	2	9.5	16	76.2	2	9.5	21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25	43.9	7	12.3	31	54.4	14	24.6	13	22.8	9	15.8	57	100
	심하지 않은 장애	6	14.0	1	2.3	7	16.3	7	16.3	33	76.7	1	2.3	43	100
전체		31	31.0	8	8.0	38	38.0	21	21.0	46	46.0	10	10.0	100	100

(7)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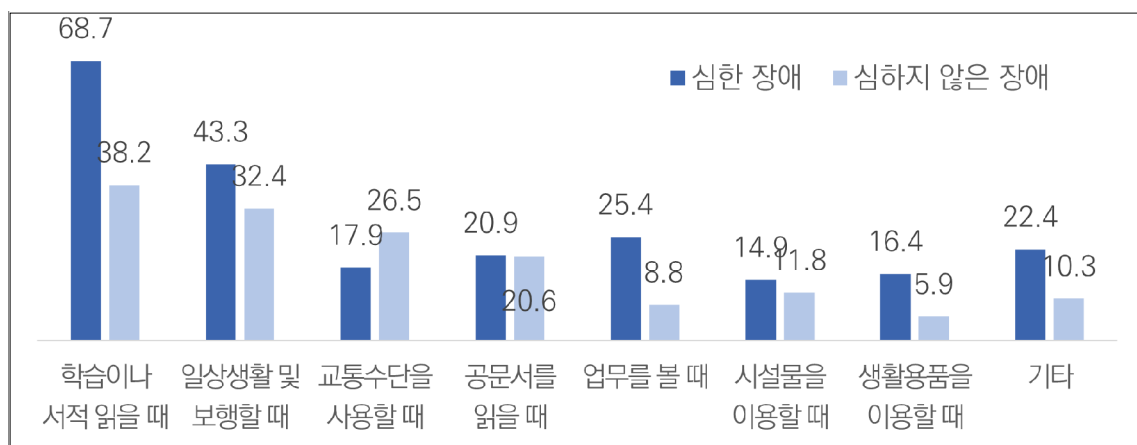
문9(시각)

귀하가 점자 대신 음성 서비스를 주로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복수 응답)



[그림 I-22]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시각장애인)(단위: %)

- 시각장애인 응답자 135명 중 ‘학습이나 서적 읽을 때’라고 답한 응답자가 72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51명(37.8%),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30명(22.2%), ‘공문서를 읽을 때’ 28명(20.7%), ‘업무를 볼 때’ 23명(17%), ‘시설물을 이용할 때’ 18명(13.3%), ‘생활용품을 이용할 때’ 15명(11.1%) 순이었고 ‘기타’ 22명(16.3%)이었다.
- 이러한 결과로 점자 대신 음성 서비스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23]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시각장애인)(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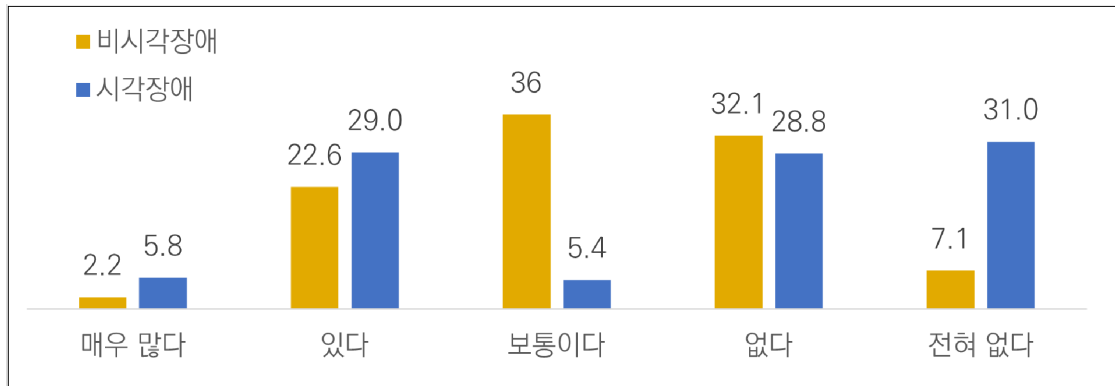
〈표 I -33〉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시각장애인)

음성 서비스 사용 시기		학습이나 서적 읽을 때		공문서 읽을 때		교통수단 사용할 때		시설물 이용할 때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생활용품 이용할 때		업무를 볼 때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51	54.8	19	20.4	18	19.4	6	6.5	36	38.7	7	7.5	17	18.3	10	10.8	93	100
	여성	21	50.0	9	21.4	12	28.6	12	28.6	15	35.7	8	19.0	6	14.3	12	28.6	42	100
연령	20대	10	58.8	6	35.3	6	35.3	3	17.6	5	29.4	1	5.9	6	35.3	1	5.9	17	100
	30대	10	62.5	8	50.0	5	31.3	7	43.8	8	50.0	6	37.5	8	50.0	1	6.3	16	100
	40대	7	63.6	2	18.2	1	9.1	0	0.0	1	9.1	0	0.0	1	9.1	3	27.3	11	100
	50대	27	50.0	8	14.8	9	16.7	7	13.0	19	35.2	6	11.1	4	7.4	15	27.8	54	100
	60대	18	48.6	4	10.8	9	24.3	1	2.7	18	48.6	2	5.4	4	10.8	2	5.4	37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14.3	2	28.6	1	14.3	1	14.3	3	42.9	0	0.0	0	0.0	2	28.6	7	100
	중소도시(동)	27	56.3	9	18.8	9	18.8	6	12.5	15	31.3	6	12.5	12	25.0	16	33.3	48	100
	대도시(동)	44	55.0	17	21.3	20	25.0	11	13.8	33	41.3	9	11.3	11	13.8	4	5.0	8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1	25.0	2	50.0	2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
	중학교 졸업	2	50.0	0	0.0	0	0.0	0	0.0	3	75.0	0	0.0	0	0.0	0	0.0	4	100
	고등학교 졸업	15	35.7	10	23.8	10	23.8	5	11.9	18	42.9	9	21.4	6	14.3	11	26.2	42	100
	대학 재학, 졸업	38	59.4	10	15.6	12	18.8	9	14.1	24	37.5	5	7.8	9	14.1	7	10.9	64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6	76.2	6	28.6	6	28.6	4	19.0	6	28.6	1	4.8	8	38.1	4	19.0	21	100
직업	유	60	62.5	22	22.9	24	25.0	18	18.8	35	36.5	14	14.6	22	22.9	11	11.5	96	100
	무	12	30.8	6	15.4	6	15.4	0	0.0	16	41.0	1	2.6	1	2.6	11	28.2	39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46	68.7	14	20.9	12	17.9	10	14.9	29	43.3	11	16.4	17	25.4	15	22.4	67	100
	심하지 않은 장애	26	38.2	14	20.6	18	26.5	8	11.8	22	32.4	4	5.9	6	8.8	7	10.3	68	100
전체		72	53.3	28	20.7	30	22.2	18	13.3	51	37.8	15	11.1	23	17.0	22	16.3	135	100

(8) 점자 학습 의향(공통)

문8(비시각)
문8(시각)

기회가 주어진다면 점자를 학습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림 I-24] 점자 학습 의향(단위: %)

〈표 I-34〉 점자 학습 의향 조사 결과

점자 학습 의향		매우 많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22	226	360	321	71	1000	266.748*
	%	2.2	22.6	36.0	32.1	7.1	100.0	
시각장애	n	29	145	27	144	155	500	
	%	5.8	29.0	5.4	28.8	31.0	100.0	
전체	n	51	371	387	465	226	1500	
	%	3.4	24.7	25.8	31.0	15.1	100.0	

* $p < .05$

〈표 I-35〉 점자 학습 의향 조사 결과(평균 비교)

점자 학습 의향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장애	1000	2.81	0.939	5.174*	2.81
시각장애	500	2.50	1.342		2.50
전체	1500	2.70	1.100		2.70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기회가 주어진다면 점자를 학습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많다’ 51명(3.4%), ‘있다’ 371명(24.7%), ‘보통이다’ 387명(25.8%), ‘없다’ 465명(31.0%), ‘전혀 없다’ 226명(15.1%)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28.1%가 긍정 응답(‘매우 많다’ + ‘있다’)하였으며, 46.1%가 부정 응답(‘없다’ + ‘전혀 없다’)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빈도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266.748$, $p<.05$), 긍정 응답 비율은 비시각장애인(24.8%)에 비하여 시각장애인(34.8%)이 더 높았으며, 부정 응답 비율 역시 비시각장애인(39.2%)에 비하여 시각장애인(59.8%)이 더 높았다.
 - 비시각장애인은 긍정 응답 24.8%, 부정 응답 39.2%, ‘보통이다’ 36.0%로 응답하여 학습 의향에 대한 반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은 긍정 응답 34.8%, 부정 응답 59.8%, ‘보통이다’ 5.4%로 응답하여 학습 의향에 대한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을 합하면 95% 정도를 차지해 긍정이나 부정으로 분명한 의사를 드러낸 비율이 매우 높았다.
- 학습 의향의 차이는 집단 간 평균 차에서도 드러나는데, 점자 학습 의향에 대한 평균을 보면 시각장애인 평균은 2.50(표준 편차 1.342), 비시각장애인 평균은 2.81(표준 편차 0.939)로 비시각장애인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5.174$, $p<.05$).
 -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의 비율 모두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시각장애인이 더 높았으나 ‘보통이다’ 응답 비율은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시각장애인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결과적으로 평균 비교에서는 비시각장애인의 학습 의향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 학습 의향에 대한 비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 ‘매우 많다’ 22명(2.2%), ‘있다’ 226명(22.6%), ‘보통이다’ 360명(36.0%), ‘없다’ 321명(32.1%), ‘전혀 없다’ 71명(7.1%)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24.8%, 부정 응답 39.2%로 부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 학력에 따른 학습 의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직업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성별로 보면 긍정 응답 비율은 남성 22.8%, 여성 26.8%로 여성이 높았으며, 부정 응답 비율은 남성 45.3%, 여성 32.8%로 남성이 높았다. ‘보통이다’의 비율은 남성 31.8%, 여성 40.3%로 여성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학습 의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chi^2=18.663$, $p<.05$).
-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20대 18.1%, 30대 22.6%, 40대 29%, 60대 24.8%, 50대 30.5%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chi^2=34.930$, $p<.05$).
- 거주 지역별로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읍면 지역 37.8%, 소도시 25.3%, 대도시 23.4%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chi^2=15.543$, $p<.05$).
- 직업 유무에 따른 긍정 응답을 보면 직업이 있는 응답자(24.1%)에 비하여 직업이 없는 응답자(27.0%)의 비율이 더 높았다($\chi^2=7.515$, $p<.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의 긍정 응답(56.3%)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긍정 응답(22%)에 비하여 더 높았다($\chi^2=58.152$, $p<.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 학습 의향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 ‘매우 많다’ 29명(5.8%), ‘있다’ 145명(29%), ‘보통이다’ 27명(5.4%), ‘없다’ 144명(28.8%), ‘전혀 없다’ 155명(31.0%)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34.8%, 부정 응답 59.8%로 부정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 성별,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령대별로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20대 39.2%, 30대 43.2%, 40대 36.3%, 50대 39.7%였으나 60대는 27.1%로 차이를 나타냈다($\chi^2=50.333$, $p<.05$).
 - 거주 지역별로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대도시 34.4%, 중소도시 41.3%, 읍면 지역 20.6%로 차이를 보였다($\chi^2=21.601$, $p<.05$).
 - 학력에 따른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8%, 중학교 졸업 20%, 고등학교 졸업 32.1%, 대학교 재학/졸업 42%, 대학원 재학 이상 41.5%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chi^2=30.083$, $p<.05$).

- 장애 정도에 따른 긍정 응답의 비율을 보면 심한 장애 51.8%, 심하지 않은 장애 31.4%로 심한 장애인의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chi^2=32.287$,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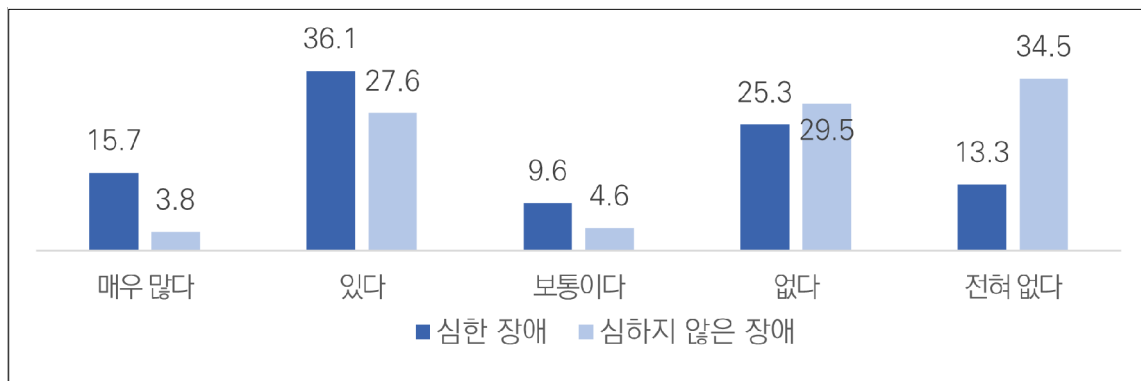
〈표 I -36〉 점자 학습 의향(비시각장애인)

점자 학습 의향		매우 많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0	2.0	106	20.8	162	31.8	184	36.1	47	9.2	509	100	18.663*
	여성	12	2.4	120	24.4	198	40.3	137	27.9	24	4.9	491	100	
연령	20대	5	3.1	24	15.0	66	41.3	62	38.8	3	1.9	160	100	34.930*
	30대	2	1.1	39	21.5	62	34.3	58	32.0	20	11.0	181	100	
	40대	7	3.3	46	22.0	87	41.6	55	26.3	14	6.7	209	100	
	50대	2	0.8	70	29.7	73	30.9	73	30.9	18	7.6	236	100	
	60대	6	2.8	47	22.0	72	33.6	73	34.1	16	7.5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2.7	13	35.1	13	35.1	5	13.5	5	13.5	37	100	15.543*
	중소도시(동)	12	2.6	103	22.7	176	38.9	136	30.0	26	5.7	453	100	
	대도시(동)	9	1.8	110	21.6	171	33.5	180	35.3	40	7.8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1	6.3	6	37.5	4	25.0	4	25.0	1	6.3	16	100	19.394
	중학교 졸업	1	2.6	8	21.1	5	13.2	20	52.6	4	10.5	38	100	
	고등학교 졸업	5	1.5	73	21.7	123	36.5	113	33.5	23	6.8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4	2.4	130	22.6	218	37.8	175	30.4	39	6.8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	3.0	9	27.3	10	30.3	9	27.3	4	12.1	33	100	
직업	유	12	1.6	168	22.5	275	36.8	235	31.4	58	7.8	748	100	7.515*
	무	10	4.0	58	23.0	85	33.7	86	34.1	13	5.2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8	10.0	37	46.3	20	25.0	11	13.8	4	5.0	80	100	58.152*
	없다	14	1.5	189	20.5	340	37.0	310	33.7	67	7.3	920	100	
전체		22	2.2	226	22.6	360	36.0	321	32.1	71	7.1	1,000	100	

* $p < .05$

〈표 I -37〉 점자 학습 의향(시각장애인)

점자 학습 의향		매우 많다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전혀 없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1	6.2	91	26.8	13	3.8	94	27.7	120	35.4	339	100	13.736
	여성	8	5.0	54	33.5	14	8.7	50	31.1	35	21.7	161	100	
연령	20대	4	7.1	18	32.1	7	12.5	7	12.5	20	35.7	56	100	50.333*
	30대	4	10.8	12	32.4	7	18.9	7	18.9	7	18.9	37	100	
	40대	2	4.5	14	31.8	1	2.3	14	31.8	13	29.5	44	100	
	50대	10	5.8	58	33.9	9	5.3	39	22.8	55	32.2	171	100	
	60대	9	4.7	43	22.4	3	1.6	77	40.1	60	31.3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1.1	17	19.5	3	3.4	31	35.6	35	40.2	87	100	21.601*
	중소도시(동)	17	8.5	66	32.8	9	4.5	44	21.9	65	32.3	201	100	
	대도시(동)	11	5.2	62	29.2	15	7.1	69	32.5	55	25.9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4	14.8	1	3.7	12	44.4	10	37.0	27	100	30.083*
	중학교 졸업	1	2.2	8	17.8	1	2.2	16	35.6	19	42.2	45	100	
	고등학교 졸업	9	4.8	51	27.3	11	5.9	54	28.9	62	33.2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12	6.0	72	36.0	11	5.5	49	24.5	56	28.0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7	17.1	10	24.4	3	7.3	13	31.7	8	19.5	41	100	
직업	유	24	7.9	91	29.8	16	5.2	89	29.2	85	27.9	305	100	8.507
	무	5	2.6	54	27.7	11	5.6	55	28.2	70	35.9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3	15.7	30	36.1	8	9.6	21	25.3	11	13.3	83	100	32.287*
	심하지 않은 장애	16	3.8	115	27.6	19	4.6	123	29.5	144	34.5	417	100	
전체		29	5.8	145	29.0	27	5.4	144	28.8	155	31.0	500	1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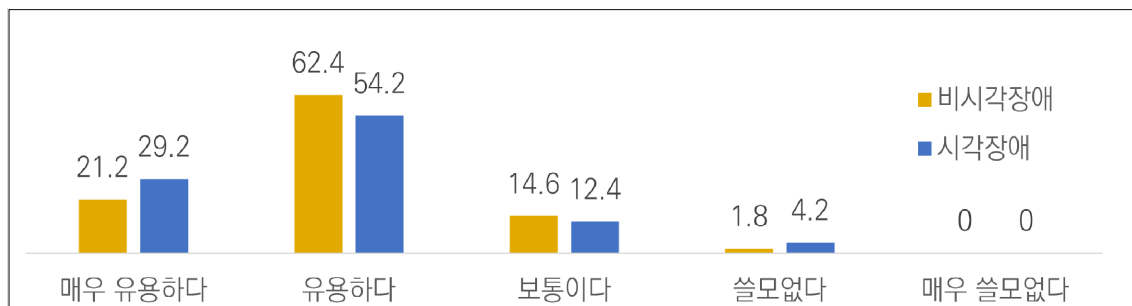
[그림 I-25]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학습 의향(단위: %)

4) 점자에 대한 느낌

(1) 점자의 유용성(공통)

문9-1(비시각)
문10-1(시각)

점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I-26] 점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단위: %)

〈표 I-38〉 점자 유용성 조사 결과

점자 유용성		매우 유용하다	유용하다	보통이다	쓸모없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212	624	146	18	1000	21.243*
	%	21.2	62.4	14.6	1.8	100.0	
시각장애	n	146	271	62	21	500	
	%	29.2	54.2	12.4	4.2	100.0	
전체	n	358	895	208	39	1500	
	%	23.9	59.7	13.9	2.6	100.0	

* $p < .05$

〈표 I-39〉 점자 유용성 조사 결과(평균 비교)

점자 유용성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1000	4.03	0.655	-1.356	
시각	500	4.08	0.760		
전체	1500	4.05	0.692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358명(23.9%), ‘유용하다’ 895명(59.7%), ‘보통이다’ 208명(13.9%), ‘쓸모없다’ 39명(2.6%)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83.6%가 긍정적 응답(‘매우 유용’+‘유용’)을 하였으며, 2.6%만이 부정적 응답(‘쓸모없다’)을 하였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빈도 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21.243$, $p<.05$), 긍정 응답 비율은 비시각장애인(83.6%)과 시각장애인(83.4%)이 유사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유용하다’는 응답 비율은 시각장애인(29.2%)이 비시각장애인(21.2%)보다 더 높았고, ‘유용하다’는 응답 비율은 비시각장애인(62.4%)이 시각장애인(54.2%)보다 높았다. 부정 응답은 비시각장애인(1.8%)에 비하여 시각장애인(4.2%)이 더 높았으며, ‘보통이다’ 비율은 비시각장애인(14.6%)이 시각장애인(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인식의 차이는 집단 간 평균 비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t=-1.356$, $p>.05$). 점자 유용성에 대한 비시각장애인의 평균은 4.03(표준 편차 0.655)이었으며, 시각장애인의 평균은 4.08(표준 편차 0.760)이었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유용성에 대하여 ‘매우 유용하다’는 응답자는 212명(21.2%)이었고, ‘유용하다’ 624명(62.4%), ‘보통이다’ 146명(14.6%), ‘쓸모없다’ 18명(1.8%)이었다. 긍정 응답 836명(83.6%)으로 비시각장애인 대다수가 점자는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연령,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 거주 지역, 학력,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17.5%, ‘유용하다’ 65.4%였으며 여성의 경우 각각 25.1%, 59.3%를 보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유용하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chi^2=9.094$, $p<.05$).
 - 거주 지역별로 ‘매우 유용하다’의 비율을 보면 읍면 지역 37.8%, 중소도시 27.4%, 대도시 14.5%를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chi^2=33.084$, $p<.05$).
 - 학력에 따라 ‘매우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중학교 졸업 2.6%, 고등학교 졸업 17.5%, 대학교 재학/졸업 24.1%, 대학원 재학 이상 27.3%를

보여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24.382$, $p<.05$).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매우 유용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 중 ‘매우 유용하다’ 25%, ‘유용하다’ 50%였으며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20.9%, ‘유용하다’ 63.5%로 차이를 보였다($\chi^2=9.419$, $p<.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유용성에 대하여 ‘매우 유용하다’ 146명(29.2%), ‘유용하다’ 271명(54.2%), ‘보통이다’ 62명(12.4%), ‘쓸모없다’ 21명(4.2%)이었다. 긍정 응답이 417명(83.4%)으로 대다수가 점자는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령대별로 ‘매우 유용하다’는 반응의 비율을 보면 20대 28.6%, 30대 43.2%, 40대 36.4%, 50대 38%, 60대 17.2%로 차이를 보였는데, 60대에 비하여 다른 연령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chi^2=36.477$, $p<.05$).
 - 거주 지역별로 ‘매우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면 읍면 지역 13.8%, 중소도시 43.3%, 대도시 22.2%로 차이를 보였다($\chi^2=40.611$, $p<.05$).
 - 학력에 따라 ‘매우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18.5%, 중학교 졸업 22.2%, 고등학교 졸업 26.7%, 대학교 재학/졸업 30.5%, 대학원 재학 이상 48.8%를 보여 학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매우 유용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chi^2=28.463$, $p<.05$).
 - 직업 유무에 따라 ‘매우 유용하다’의 비율을 보면 직업이 있는 응답자(34.4%)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21%)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chi^2=11.953$, $p<.05$).
 - 장애 정도에 따라 ‘매우 유용하다’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장애가 심한 응답자(45.8%)가 심하지 않은 응답자(25.9%)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chi^2=16.333$, $p<.05$).

〈표 I -40〉 점자 유용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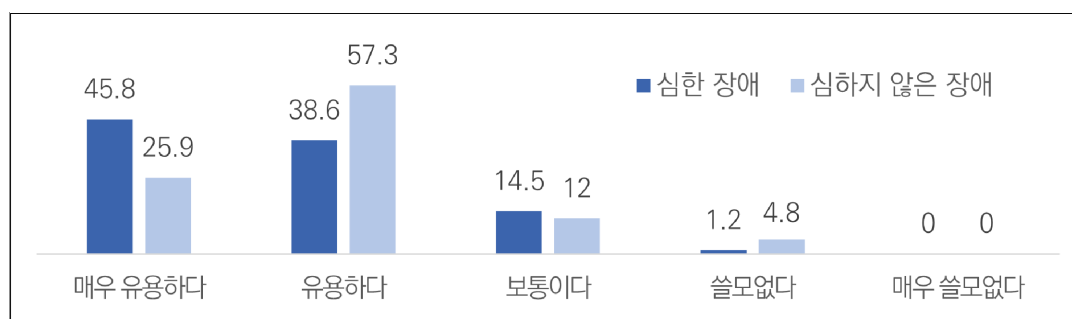
점자 유용성		매우 유용하다		유용하다		보통이다		쓸모없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89	17.5	333	65.4	76	14.9	11	2.2	509	100	9.094*
	여성	123	25.1	291	59.3	70	14.3	7	1.4	491	100	
연령	20대	36	22.5	100	62.5	24	15.0	0	0.0	160	100	14.632
	30대	38	21.0	114	63.0	26	14.4	3	1.7	181	100	
	40대	43	20.6	129	61.7	34	16.3	3	1.4	209	100	
	50대	61	25.8	139	58.9	32	13.6	4	1.7	236	100	
	60대	34	15.9	142	66.4	30	14.0	8	3.7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4	37.8	21	56.8	2	5.4	0	0.0	37	100	33.084*
	중소도시(동)	124	27.4	257	56.7	62	13.7	10	2.2	453	100	
	대도시(동)	74	14.5	346	67.8	82	16.1	8	1.6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25.0	8	50.0	4	25.0	0	0.0	16	100	24.382*
	중학교 졸업	1	2.6	29	76.3	6	15.8	2	5.3	38	100	
	고등학교 졸업	59	17.5	222	65.9	47	13.9	9	2.7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39	24.1	349	60.6	81	14.1	7	1.2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9	27.3	16	48.5	8	24.2	0	0.0	33	100	
직업	유	163	21.8	470	62.8	104	13.9	11	1.5	748	100	3.354
	무	49	19.4	154	61.1	42	16.7	7	2.8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20	25.0	40	50.0	16	20.0	4	5.0	80	100	9.419*
	없다	192	20.9	584	63.5	130	14.1	14	1.5	920	100	
전체		212	21.2	624	62.4	146	14.6	18	1.8	1,000	100	

* $p < .05$

〈표 I -41〉 점자 유용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점자 유용성		매우 유용하다		유용하다		보통이다		쓸모없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93	27.4	188	55.5	46	13.6	12	3.5	339	100	3.685
	여성	53	32.9	83	51.6	16	9.9	9	5.6	161	100	
연령	20대	16	28.6	35	62.5	4	7.1	1	1.8	56	100	36.477*
	30대	16	43.2	15	40.5	4	10.8	2	5.4	37	100	
	40대	16	36.4	21	47.7	5	11.4	2	4.5	44	100	
	50대	65	38.0	86	50.3	19	11.1	1	0.6	171	100	
	60대	33	17.2	114	59.4	30	15.6	15	7.8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13.8	58	66.7	13	14.9	4	4.6	87	100	40.611*
	중소도시(동)	87	43.3	95	47.3	12	6.0	7	3.5	201	100	
	대도시(동)	47	22.2	118	55.7	37	17.5	10	4.7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5	18.5	14	51.9	4	14.8	4	14.8	27	100	28.463*
	중학교 졸업	10	22.2	22	48.9	9	20.0	4	8.9	45	100	
	고등학교 졸업	50	26.7	108	57.8	22	11.8	7	3.7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61	30.5	111	55.5	25	12.5	3	1.5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20	48.8	16	39.0	2	4.9	3	7.3	41	100	
직업	유	105	34.4	158	51.8	31	10.2	11	3.6	305	100	11.953*
	무	41	21.0	113	57.9	31	15.9	10	5.1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38	45.8	32	38.6	12	14.5	1	1.2	83	100	16.333*
	심하지 않은 장애	108	25.9	239	57.3	50	12.0	20	4.8	417	100	
전체		146	29.2	271	54.2	62	12.4	21	4.2	500	1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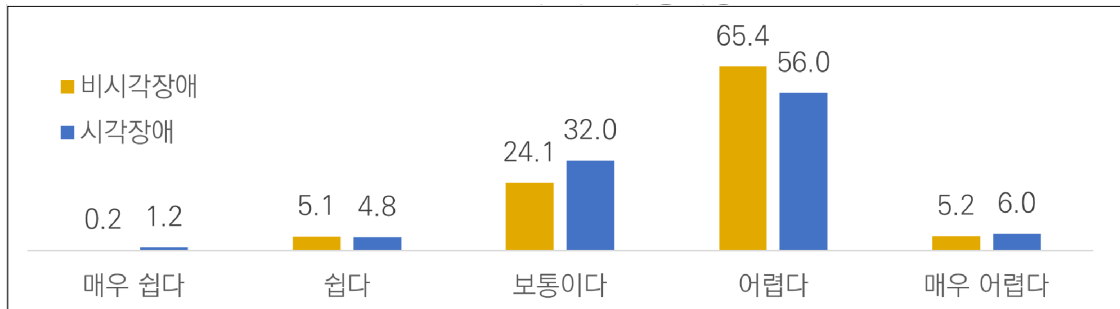


[그림 I -27]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단위: %)

(2) 점자 배움의 용이성(공통)

문9-2(비시각)
문10-2(시각)

점자는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I-28]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단위: %)

〈표 I-42〉 점자 배움의 용이성 조사 결과

점자 배움의 용이성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2	51	241	654	52	1000	19.212*
	%	0.2	5.1	24.1	65.4	5.2	100.0	
시각장애	n	6	24	160	280	30	500	
	%	1.2	4.8	32.0	56.0	6.0	100.0	
전체	n	8	75	401	934	82	1500	
	%	0.5	5.0	26.7	62.3	5.5	100.0	

* $p < .05$

〈표 I-43〉 점자 배움의 용이성 조사 결과

점자 배움의 용이성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1000	2.30	0.654	-2.468*	
시각	500	2.39	0.726		
전체	1500	2.33	0.680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쉽다’ 8명(0.5%), ‘쉽다’ 75명(5.0%), ‘보통이다’ 401명(26.7%), ‘어렵다’ 934명(62.3%), ‘매우 어렵다’ 82명(5.5%)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5.5%만이 긍정 응답(‘매우 쉽다’+‘쉽다’)하였으며, 부정 응답(‘어렵다’+‘매우 어렵다’)이 67.8%를 차지하여 점자 학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빈도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19.212$, $p<.05$) 긍정 응답 비율은 비시각장애인(5.3%)과 시각장애인(6.0%)이 유사하였으나, 부정 응답의 경우 비시각장애인(70.6%)이 시각장애인(62.0%)보다 더 높았다.
- 인식의 차이는 집단 간 평균 차에서도 드러나는데,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평균은 2.39(표준 편차 0.726), 비시각장애인의 평균은 2.30(표준 편차 0.65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68$, $p<.05$).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해 점자 배움의 용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해 ‘매우 쉽다’ 2명(0.2%), ‘쉽다’ 51명(5.1%), ‘보통이다’ 241명(24.1%), ‘어렵다’ 654명(65.4%), ‘매우 어렵다’ 52명(5.2%)이었다. 비시각장애인 중 긍정 응답 5.3%, 부정 응답 70.6%로 점자 학습에 대한 부정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성별로 보면, 긍정 응답의 비율은 남성 6.7%, 여성 3.9%였으며 부정 응답의 비율은 남성 66.4%, 여성 75.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14.077$, $p<.05$).
 - 거주 지역별로 보면, 긍정 응답의 비율은 읍면 지역 16.2%, 중소도시 4.0%, 대도시 5.7%였으며 부정 응답을 보면 읍면 지역 59.5%, 중소도시 70.6%, 대도시 71.4%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chi^2=21.224$, $p<.05$).
 -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비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5%, 중학교

졸업 7.9%, 고등학교 졸업 3.3%, 대학교 재학/졸업 5.8%, 대학원 재학 이상 12.1%였으며 부정 응답의 비율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75.1%, 중학교 졸업 65.8%, 고등학교 졸업 74.7%, 대학교 재학/졸업 67.4%, 대학원 재학 이상 57.6%를 보여 학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chi^2=32.823$, $p<.05$).

- 직업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비율은 직업이 있는 응답자 5.5%, 직업이 없는 응답자 4.8%로 조사되었으며 부정 응답의 비율은 직업이 있는 응답자 69.3%, 직업이 없는 응답자 74.6%로 조사되어, 직업이 있는 응답자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chi^2=9.974$, $p<.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비율은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8.8%, 그렇지 않은 경우 5.0%로 조사되었으며 부정 응답의 비율은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81.3%, 그렇지 않은 경우 69.7%로 조사되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없는 경우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chi^2=11.430$, $p<.05$).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점자를 직접 경험하거나 학습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점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해 ‘매우 쉽다’ 6명(1.2%), ‘쉽다’ 24명(4.8%), ‘보통이다’ 160명(32%), ‘어렵다’ 280명(56%), ‘매우 어렵다’ 30명(6%)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 중 긍정 응답 6.0%, 부정 응답 62.0%로 부정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성별로 보면 긍정 응답 비율은 남성 3.9%, 여성 10.5%였으며 부정 응답 비율은 남성 61.1% 여성 64.0%로 조사되어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13.414$, $p<.05$).
 -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비율은 심한 장애 21.7%, 심하지 않은 장애 2.9%였으며 부정 응답 비율은 심한 장애 48.2%, 심하지 않은 장애 64.8%로 조사되어,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i^2=58.075$,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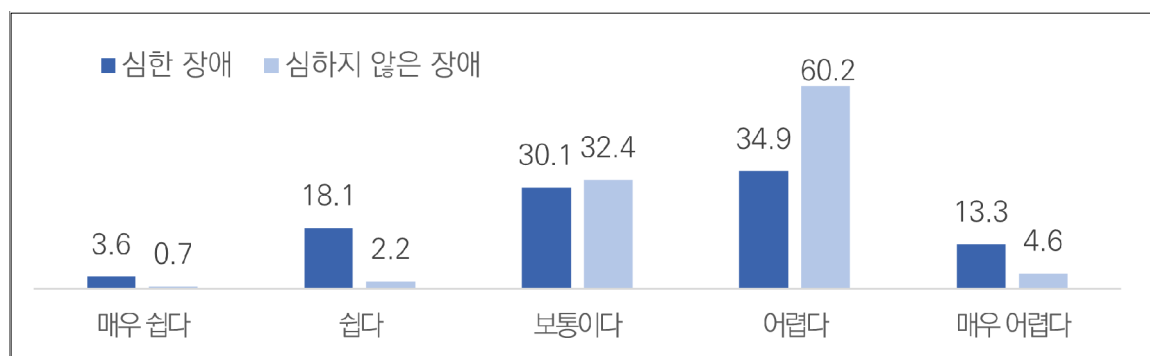
〈표 I -44〉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점자 배움의 용이성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	0.2	33	6.5	137	26.9	306	60.1	32	6.3	509	100	14.077*
	여성	1	0.2	18	3.7	104	21.2	348	70.9	20	4.1	491	100	
연령	20대	1	0.6	9	5.6	42	26.3	100	62.5	8	5.0	160	100	23.082
	30대	0	0.0	15	8.3	44	24.3	110	60.8	12	6.6	181	100	
	40대	1	0.5	8	3.8	64	30.6	127	60.8	9	4.3	209	100	
	50대	0	0.0	10	4.2	53	22.5	158	66.9	15	6.4	236	100	
	60대	0	0.0	9	4.2	38	17.8	159	74.3	8	3.7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2.7	5	13.5	9	24.3	21	56.8	1	2.7	37	100	21.224*
	중소도시(동)	1	0.2	17	3.8	115	25.4	296	65.3	24	5.3	453	100	
	대도시(동)	0	0.0	29	5.7	117	22.9	337	66.1	27	5.3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2	12.5	2	12.5	11	68.8	1	6.3	16	100	32.823*
	중학교 졸업	0	0.0	3	7.9	10	26.3	24	63.2	1	2.6	38	100	
	고등학교 졸업	0	0.0	11	3.3	64	19.0	246	73.0	16	4.7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	0.2	32	5.6	155	26.9	356	61.8	32	5.6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	3.0	3	9.1	10	30.3	17	51.5	2	6.1	33	100	
직업	유	2	0.3	39	5.2	189	25.3	472	63.1	46	6.15	748	100	9.974*
	무	0	0.0	12	4.8	52	20.6	182	72.2	6	2.38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0	0.0	7	8.8	8	10.0	59	73.8	6	7.5	80	100	11.430*
	없다	2	0.2	44	4.8	233	25.3	595	64.7	46	5.0	920	100	
전체		2	0.2	51	5.1	241	24.1	654	65.4	52	5.2	1,000	100	

* $p < .05$

〈표 I-45〉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점자 배움의 용이성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4	1.2	9	2.7	119	35.1	187	55.2	20	5.9	339	100	13.414*
	여성	2	1.2	15	9.3	41	25.5	93	57.8	10	6.2	161	100	
연령	20대	1	1.8	2	3.6	20	35.7	29	51.8	4	7.1	56	100	14.035
	30대	0	0.0	3	8.1	11	29.7	18	48.6	5	13.5	37	100	
	40대	2	4.5	0	0.0	17	38.6	24	54.5	1	2.3	44	100	
	50대	2	1.2	13	7.6	47	27.5	94	55.0	15	8.8	171	100	
	60대	1	0.5	6	3.1	65	33.9	115	59.9	5	2.6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0	0.0	2	2.3	28	32.2	49	56.3	8	9.2	87	100	8.113
	중소도시(동)	5	2.5	11	5.5	62	30.8	112	55.7	11	5.5	201	100	
	대도시(동)	1	0.5	11	5.2	70	33.0	119	56.1	11	5.2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0	0.0	11	40.7	15	55.6	1	3.7	27	100	17.218
	중학교 졸업	0	0.0	0	0.0	16	35.6	28	62.2	1	2.2	45	100	
	고등학교 졸업	2	1.1	11	5.9	50	26.7	110	58.8	14	7.5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2	1.0	12	6.0	71	35.5	104	52.0	11	5.5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2	4.9	1	2.4	12	29.3	23	56.1	3	7.3	41	100	
직업	유	6	2.0	18	5.9	97	31.8	166	54.4	18	5.9	305	100	6.181
	무	0	0.0	6	3.1	63	32.3	114	58.5	12	6.2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3	3.6	15	18.1	25	30.1	29	34.9	11	13.3	83	100	58.075*
	심하지 않은 장애	3	0.7	9	2.2	135	32.4	251	60.2	19	4.6	417	100	
전체		6	1.2	24	4.8	160	32.0	280	56.0	30	6.0	5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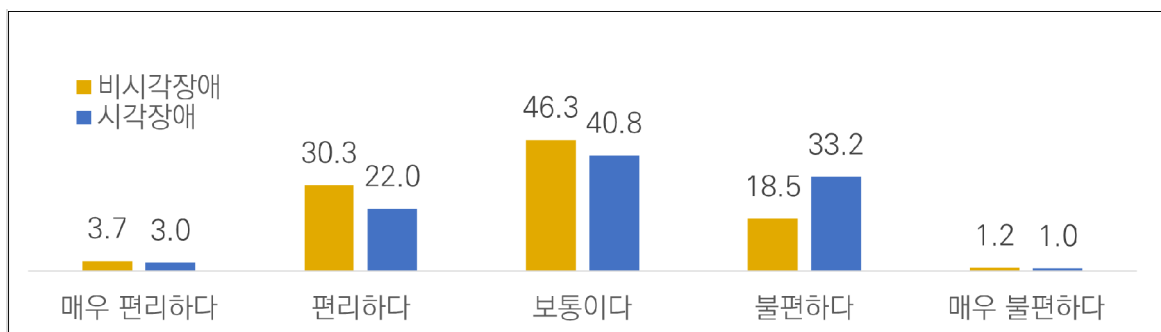
* $p < .05$ 

[그림 I-29]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단위: %)

(3) 점자의 사용 편리성(공통)

문9-3(비시각)
문10-3(시각)

점자는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I-30]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단위: %)

〈표 I-46〉 점자 사용 편리성 조사 결과

점자 사용 편리성		매우 편리하다	편리하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37	303	463	185	12	1000	41.979*
	%	3.7	30.3	46.3	18.5	1.2	100.0	
시각장애	n	15	110	204	166	5	500	
	%	3.0	22.0	40.8	33.2	1.0	100.0	
전체	n	52	413	667	351	17	1500	
	%	3.5	27.5	44.5	23.4	1.1	100.0	

* $p < .05$

〈표 I-47〉 점자 사용 편리성 조사 결과

점자 사용 편리성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1000	3.17	0.810	5.339*	
시각	500	2.93	0.842		
전체	1500	3.09	0.828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편리하다’ 3.5%, ‘편리하다’ 27.5%, ‘보통이다’ 44.5%, ‘불편하다’ 23.4%, ‘매우 불편하다’ 1.1%로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매우 편리’+‘편리’) 31.0%, 부정 응답(‘불편’+‘매우 불편’) 24.5%, 보통 44.5%로 나타났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빈도 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41.979$, $p<.05$), 긍정 응답 비율은 비시각장애인(34.0%)이 시각장애인(25.0%)보다 더 높았으며, 부정 응답 비율은 시각장애인(34.3%)이 비시각장애인(19.7%)보다 더 높았다. 즉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 인식의 차이는 집단 간 평균 차에서도 드러나는데, 점자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평균은 2.93(표준 편차 ± 0.842), 비시각장애인의 평균은 3.17(표준 편차 ± 0.81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339$, $p<.05$).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점자 사용의 편리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 ‘매우 편리하다’ 37명(3.7%), ‘편리하다’ 303명(30.3%), ‘보통이다’ 463명(46.3%), ‘불편하다’ 185명(18.5%), ‘매우 불편하다’ 12명(1.2%)이었다. 따라서 긍정 응답 34.0%, 부정 응답 19.7%, 보통 46.3%로 나타났다.
-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남성 29.1%, 여성 38.1%를 보였으며 부정 응답의 경우 남성 23.4%, 여성 15.9%로 조사되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었다($\chi^2=16.488$, $p<.05$).
 - 연령대별로 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20대 29.4%, 30대 30.9%, 40대 40.2%, 50대 33%, 60대 35.1%였으며 부정 응답의 경우 20대 16.9%, 30대 24.8%, 40대 19.6%, 50대 19%, 60대 18.3%로 조사되어 긍정 응답은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부정 응답은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chi^2=32.027$, $p<.05$).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읍면 지역 45.9%, 중소도시 36.9%, 대도시 30.6% 순이었고, 부정 응답은 대도시 23.9%, 읍면 지역 16.2%, 중소도시 15.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읍면 지역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17.200$, $p<.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35.1%, 그렇지 않은 경우 34.0%로 조사되었고 부정 응답은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 그렇지 않은 경우 18.8%로 조사되어,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16.122$, $p<.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 ‘매우 편리하다’ 15명(3.0%), ‘편리하다’ 110명(22.0%), ‘보통이다’ 204명(40.8%), ‘불편하다’ 166명(33.2%), ‘매우 불편하다’ 5명(1.0%)으로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25.0%, 부정 응답 34.2%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대학원 재학 이상 39.1%, 대학교 재학/졸업 26.5%, 고등학교 졸업 25.1%, 초등학교 졸업 이하 14.8%, 중학교 졸업 11.1% 순으로 조사되었고 부정 응답은 중학교 졸업 37.8%, 초등학교 졸업 이하 37.0%, 고등학교 졸업 35.3%, 대학교 재학/졸업 33.0%, 대학원 재학 이상 29.3% 순으로 조사되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39.965$, $p<.05$). 학력이 높을수록 편리하다는 긍정 반응의 비율이 더 높았다.
 - 직업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반응은 직업이 있는 응답자(29.2%)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18.5%)보다 높았으며 부정 반응은 직업이 없는 응답자(36.4%)가 직업이 있는 응답자(32.8%)보다 높았다($\chi^2=14.337$, $p<.05$). 직업이 있는 응답자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반응은 심한 장애(37.4%)가 심하지 않은 장애(22.5%)보다 높았으며 부정 반응은 심하지 않은 장애(35.5%)가 심한 장애(27.7%)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45.809$, $p<.05$).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점자 사용의 편리성에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표 I -48〉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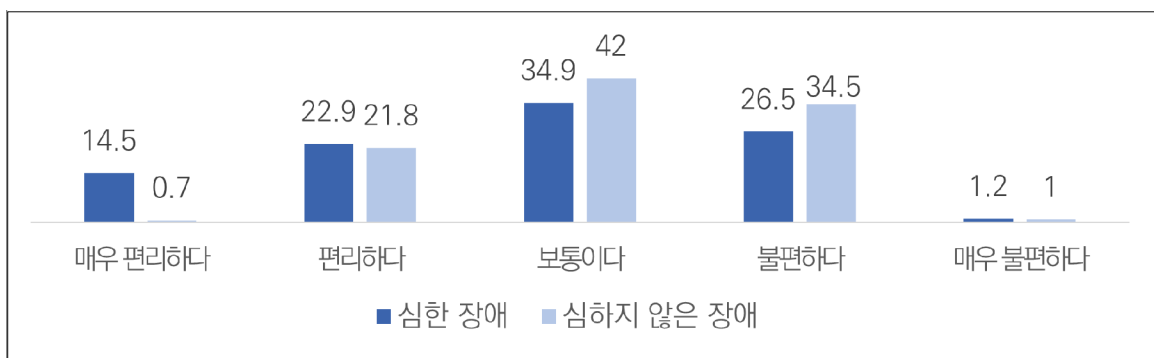
점자 사용 편리성		매우 편리하다		편리하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4	2.8	134	26.3	242	47.5	110	21.6	9	1.8	509	100	16.488*
	여성	23	4.7	169	34.4	221	45.0	75	15.3	3	0.6	491	100	
연령	20대	9	5.6	38	23.8	86	53.8	26	16.3	1	0.6	160	100	32.027*
	30대	6	3.3	50	27.6	80	44.2	39	21.5	6	3.3	181	100	
	40대	5	2.4	79	37.8	84	40.2	41	19.6	0	0.0	209	100	
	50대	13	5.5	65	27.5	113	47.9	44	18.6	1	0.4	236	100	
	60대	4	1.9	71	33.2	100	46.7	35	16.4	4	1.9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3	8.1	14	37.8	14	37.8	6	16.2	0	0.0	37	100	17.200*
	중소도시(동)	15	3.3	152	33.6	217	47.9	64	14.1	5	1.1	453	100	
	대도시(동)	19	3.7	137	26.9	232	45.5	115	22.5	7	1.4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1	6.3	4	25.0	7	43.8	4	25.0	0	0.0	16	100	10.036
	중학교 졸업	0	0.0	15	39.5	14	36.8	9	23.7	0	0.0	38	100	
	고등학교 졸업	14	4.2	104	30.9	155	46.0	59	17.5	5	1.5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20	3.5	171	29.7	275	47.7	104	18.1	6	1.0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2	6.1	9	27.3	12	36.4	9	27.3	1	3.0	33	100	
직업	유	26	3.5	218	29.1	357	47.7	138	18.4	9	1.2	748	100	3.021
	무	11	4.4	85	33.7	106	42.1	47	18.7	3	1.2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7	8.8	21	26.3	28	35.0	24	30.0	0	0.0	80	100	16.122*
	없다	30	3.3	282	30.7	435	47.3	161	17.5	12	1.3	920	100	
전체		37	3.7	303	30.3	463	46.3	185	18.5	12	1.2	1,000	100	

* $p < .05$

〈표 I -49〉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편리성		매우 편리하다		편리하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9	2.7	82	24.2	133	39.2	111	32.7	4	1.2	339	100	3.751
	여성	6	3.7	28	17.4	71	44.1	55	34.2	1	0.6	161	100	
연령	20대	1	1.8	16	28.6	20	35.7	17	30.4	2	3.6	56	100	14.035
	30대	2	5.4	8	21.6	15	40.5	12	32.4	0	0.0	37	100	
	40대	2	4.5	7	15.9	21	47.7	14	31.8	0	0.0	44	100	
	50대	7	4.1	43	25.1	63	36.8	57	33.3	1	0.6	171	100	
	60대	3	1.6	36	18.8	85	44.3	66	34.4	2	1.0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1.1	9	10.3	40	46.0	35	40.2	2	2.3	87	100	14.579
	중소도시(동)	9	4.5	53	26.4	76	37.8	62	30.8	1	0.5	201	100	
	대도시(동)	5	2.4	48	22.6	88	41.5	69	32.5	2	0.9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4	14.8	13	48.1	9	33.3	1	3.7	27	100	39.965*
	중학교 졸업	0	0.0	5	11.1	23	51.1	17	37.8	0	0.0	45	100	
	고등학교 졸업	4	2.1	43	23.0	74	39.6	64	34.2	2	1.1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4	2.0	49	24.5	81	40.5	64	32.0	2	1.0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7	17.1	9	22.0	13	31.7	12	29.3	0	0.0	41	100	
직업	유	15	4.9	74	24.3	116	38.0	96	31.5	4	1.3	305	100	14.337*
	무	0	0.0	36	18.5	88	45.1	70	35.9	1	0.5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2	14.5	19	22.9	29	34.9	22	26.5	1	1.2	83	100	45.809*
	심하지 않은 장애	3	0.7	91	21.8	175	42.0	144	34.5	4	1.0	417	100	
전체		15	3.0	110	22.0	204	40.8	166	33.2	5	1.0	500	1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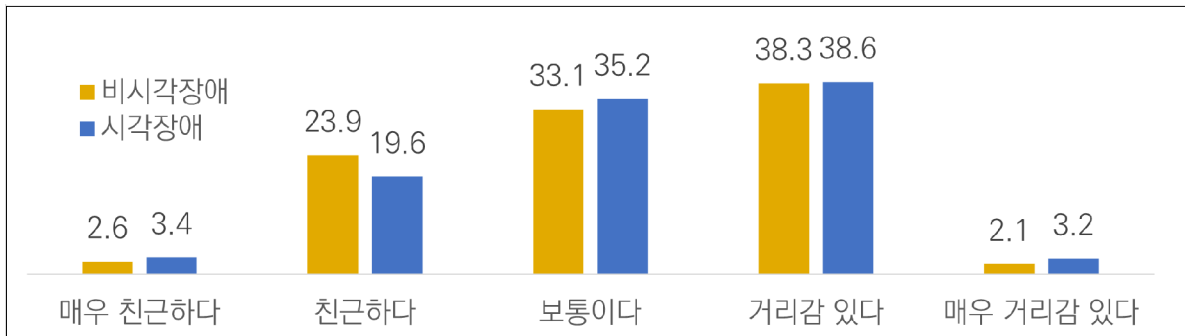


[그림 I -31]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 사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단위: %)

(4) 점자의 친근감(공통)

문9-4(비시각)
문10-4(시각)

점자는 친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I-32] 점자의 친근감(단위: %)

〈표 I-50〉 점자 친근감 조사 결과

점자 친근감		매우 친근하다	친근하다	보통이다	거리감 있다	매우 거리감 있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26	239	331	383	21	1000	5.565
	%	2.6	23.9	33.1	38.3	2.1	100.0	
시각장애	n	17	98	176	193	16	500	
	%	3.4	19.6	35.2	38.6	3.2	100.0	
전체	n	43	337	507	576	37	1500	
	%	2.9	22.5	33.8	38.4	2.5	100.0	

〈표 I-51〉 점자 친근감 조사 결과

점자 친근감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1000	2.87	0.890	1.062	
시각	500	2.81	0.902		
전체	1500	2.85	0.894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 친근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친근하다’ 43명(2.9%), ‘친근하다’ 337명(22.5%), ‘보통이다’ 507명(33.8%), ‘거리감 있다’ 576명(38.4%), ‘매우 거리감 있다’ 37명(2.5%)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매우 친근’+‘친근’) 25.4%, 부정 응답(‘거리감 있다’+‘매우 거리감 있다’) 40.9%로 부정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빈도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5.565$, $p>.05$). 긍정 응답 비율을 보면 비시각장애인(26.5%)과 시각장애인(23.0%)이 유사하였으며, 부정 응답 역시 비시각장애인(40.4%)과 시각장애인(41.8%)이 유사하였다.
-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위해 집단 간 평균 차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1.062$, $p>.05$). 점자 친근감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평균은 2.81(표준 편차 0.902), 비시각장애인의 평균은 2.87(표준 편차 0.890)로 두 집단의 점자 친근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친근감에 대해 ‘매우 친근하다’ 26명(2.6%), ‘친근하다’ 239명(23.9%), ‘보통이다’ 331명(33.1%), ‘거리감 있다’ 383명(38.3%), ‘매우 거리감 있다’ 21명(2.1%)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26.2%, 부정 응답 40.4%로 긍정 응답보다 부정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 성별,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거주 지역,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50대 29.6%, 60대 27.1%, 30대 25.9%, 40대 25.3%, 20대 23.2%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정 응답은 30대 45.8%, 20대 43.8%, 60대 42.5%, 40대 42.1%, 50대 30.5% 순으로 조사되어 연령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33.188$, $p<.05$).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긍정 응답 비율이 높고 부정 응답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대도시 28.5%, 읍면 지역 27.0%, 중소도시 24.2% 순으로 조사되었고 부정 응답은 대도시 44.2%, 중소도시 37.1%, 읍면 지역 29.7% 순으로 조사되어, 거주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22.002$, $p<.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긍정 응답은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40.0%,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없는 경우 25.3%였으며 부정 응답은 각각 33.8%, 41.0%로 나타나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점자의 친근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9.938$, $p< .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친근감에 대해 ‘매우 친근하다’는 응답자는 17명(3.4%)이었고, ‘친근하다’ 98명(19.6%), ‘보통이다’ 176명(35.2%), ‘거리감 있다’ 193명(38.6%), ‘매우 거리감 있다’ 16명(3.2%)이었다.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23.0%, 부정 응답 41.8%로 부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남성 24.8%, 여성 19.3%였으며 부정 응답은 남성 38.7%, 여성 48.5%를 보여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063$, $p< .05$).
 -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심한 장애(50.6%)가 심하지 않은 장애(17.5%)보다 높았으며 부정 응답은 심하지 않은 장애(45.8%)가 심한 장애(21.7%)보다 높게 나타나,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하여 점자 친근감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7.250$,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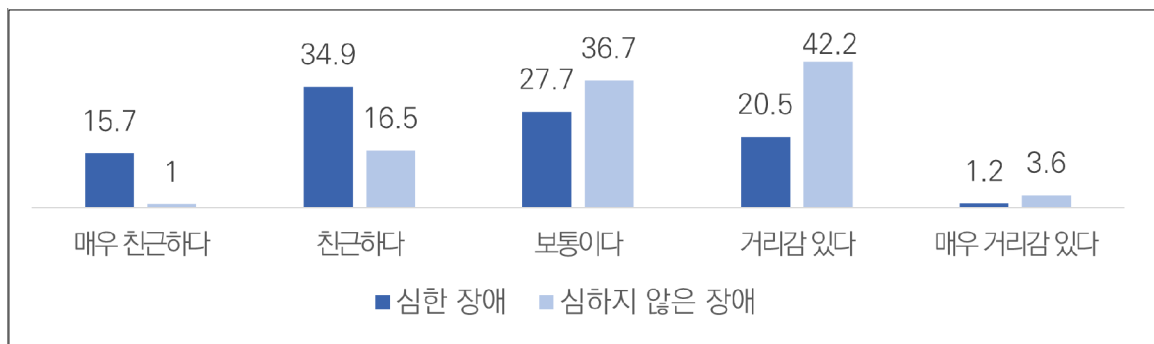
〈표 I -52〉 점자 친근감(비시각장애인)

점자 친근감		매우 친근하다		친근하다		보통이다		거리감 있다		매우 거리감 있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3	2.6	120	23.6	166	32.6	198	38.9	12	2.4	509	100	0.553
	여성	13	2.6	119	24.2	165	33.6	185	37.7	9	1.8	491	100	
연령	20대	6	3.8	31	19.4	53	33.1	64	40.0	6	3.8	160	100	33.188*
	30대	8	4.4	39	21.5	51	28.2	75	41.4	8	4.4	181	100	
	40대	4	1.9	49	23.4	68	32.5	87	41.6	1	0.5	209	100	
	50대	5	2.1	65	27.5	94	39.8	72	30.5	0	0.0	236	100	
	60대	3	1.4	55	25.7	65	30.4	85	39.7	6	2.8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3	8.1	7	18.9	16	43.2	11	29.7	0	0.0	37	100	22.002*
	중소도시(동)	12	2.6	98	21.6	175	38.6	159	35.1	9	2.0	453	100	
	대도시(동)	11	2.2	134	26.3	140	27.5	213	41.8	12	2.4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1	6.3	5	31.3	3	18.8	6	37.5	1	6.3	16	100	12.898
	중학교 졸업	0	0.0	13	34.2	8	21.1	17	44.7	0	0.0	38	100	
	고등학교 졸업	8	2.4	79	23.4	118	35.0	127	37.7	5	1.5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5	2.6	134	23.3	190	33.0	223	38.7	14	2.4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2	6.1	8	24.2	12	36.4	10	30.3	1	3.0	33	100	
직업	유	18	2.4	173	23.1	250	33.4	291	38.9	16	2.1	748	100	1.565
	무	8	3.2	66	26.2	81	32.1	92	36.5	5	2.0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4	5.0	28	35.0	21	26.3	27	33.8	0	0.0	80	100	9.938*
	없다	22	2.4	211	22.9	310	33.7	356	38.7	21	2.3	920	100	
전체		26	2.6	239	23.9	331	33.1	383	38.3	21	2.1	1,000	100	

* $p < .05$

〈표 I -53〉 점자 친근감(시각장애인)

점자 친근감		매우 친근하다		친근하다		보통이다		거리감 있다		매우 거리감 있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9	2.7	75	22.1	124	36.6	124	36.6	7	2.1	339	100	11.063*
	여성	8	5.0	23	14.3	52	32.3	69	42.9	9	5.6	161	100	
연령	20대	2	3.6	9	16.1	16	28.6	26	46.4	3	5.4	56	100	12.983
	30대	1	2.7	9	24.3	12	32.4	14	37.8	1	2.7	37	100	
	40대	2	4.5	13	29.5	15	34.1	12	27.3	2	4.5	44	100	
	50대	9	5.3	29	17.0	60	35.1	67	39.2	6	3.5	171	100	
	60대	3	1.6	38	19.8	73	38.0	74	38.5	4	2.1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0	0.0	13	14.9	28	32.2	41	47.1	5	5.7	87	100	10.702
	중소도시(동)	10	5.0	42	20.9	70	34.8	75	37.3	4	2.0	201	100	
	대도시(동)	7	3.3	43	20.3	78	36.8	77	36.3	7	3.3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5	18.5	11	40.7	10	37.0	1	3.7	27	100	21.904
	중학교 졸업	0	0.0	6	13.3	23	51.1	15	33.3	1	2.2	45	100	
	고등학교 졸업	3	1.6	32	17.1	63	33.7	80	42.8	9	4.8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11	5.5	44	22.0	69	34.5	71	35.5	5	2.5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3	7.3	11	26.8	10	24.4	17	41.5	0	0.0	41	100	
직업	유	15	4.9	71	23.3	94	30.8	115	37.7	10	3.3	305	100	15.141
	무	2	1.0	27	13.8	82	42.1	78	40.0	6	3.1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3	15.7	29	34.9	23	27.7	17	20.5	1	1.2	83	100	67.250*
	심하지 않은 장애	4	1.0	69	16.5	153	36.7	176	42.2	15	3.6	417	100	
전체		17	3.4	98	19.6	176	35.2	193	38.6	16	3.2	5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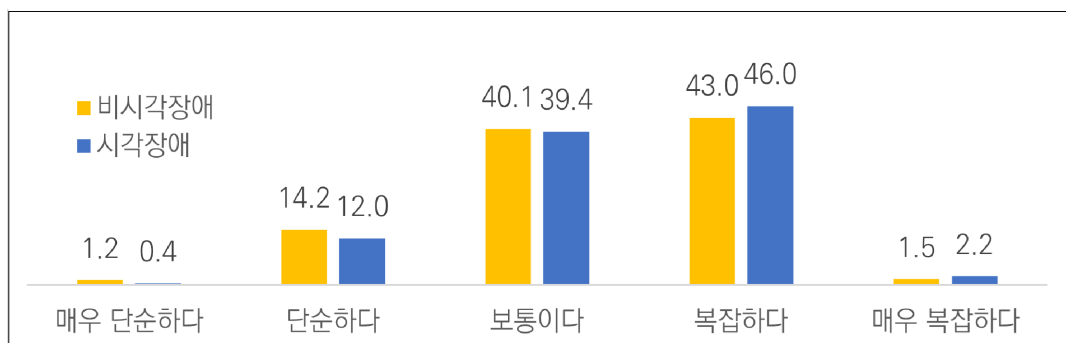
* $p < .05$ 

[그림 I -33]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의 친근감(단위: %)

(5) 점자의 복잡성(공통)

문9-5(비시각)
문10-5(시각)

점자는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I-34] 점자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단위: %)

〈표 I-54〉 점자 복잡성 조사 결과

점자 복잡성		매우 단순하다	단순하다	보통이다	복잡하다	매우 복잡하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12	142	401	430	15	1000	5.149
	%	1.2	14.2	40.1	43.0	1.5	100.0	
시각장애	n	2	60	197	230	11	500	
	%	0.4	12.0	39.4	46.0	2.2	100.0	
전체	n	14	202	598	660	26	1500	
	%	0.9	13.5	39.9	44.0	1.7	100.0	

〈표 I-55〉 점자 복잡성 조사 결과(평균 비교)

점자 복잡성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1000	2.71	0.771	1.970*	
시각	500	2.62	0.737		
전체	1500	2.68	0.761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매우 단순하다’ 14명(0.9%), ‘단순하다’ 202명(13.5%), ‘보통이다’ 598명(39.9%), ‘복잡하다’ 660명(44.0%), ‘매우 복잡하다’ 26명(1.7%)으로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매우 단순’+‘단순’) 14.5%, 부정 응답(‘복잡’+‘매우 복잡’) 45.7%로 부정 응답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빈도 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5.149$, $p> .05$). 긍정 응답 비율은 비시각장애인 15.4%, 시각장애인 12.4%였으며, 부정 응답의 비율은 비시각장애인 44.5%, 시각장애인 48.2%로 조사되었다.
- 인식의 차이를 집단 간 평균 차로 확인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평균은 2.62(표준 편차 0.737), 비시각장애인의 평균은 2.71(표준 편차 0.771)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1.970$, $p< .05$).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점자 복잡성에 대하여 점자가 더 단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복잡성에 대해 ‘매우 단순하다’ 12명(1.2%), ‘단순하다’ 142명(14.2%), ‘보통이다’ 401명(40.1%), ‘복잡하다’ 430명(43.0%), ‘매우 복잡하다’ 15명(1.5%)이었다.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15.4%, 부정 응답 44.5%로 부정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거주 지역, 직업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반응은 대도시 15.7%, 중소도시 15.2%, 읍면 지역 13.5% 순이었으며 부정 반응은 대도시 49.0%, 읍면 지역 45.9%, 중소도시 39.3% 순으로 조사되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chi^2=19.660$, $p< .05$).
 - 직업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직업이 있는 경우 14.7%, 직업이 없는 경우 17.5%였으며 부정 응답은 각각 42.1%, 51.6%로 조사되어, 직업이 있는 응답자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chi^2=13.439$, $p< .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 여부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21.3%, 그렇지 않은 경우 14.9%로 조사되었으며 부정 응답은 각각 56.3%, 43.4%로 나타났다.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chi^2=13.634$, $p < .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점자의 복잡성에 대해 ‘매우 단순하다’는 응답자는 2명(0.4%)이었고, ‘단순하다’ 60명(12.0%), ‘보통이다’ 197명(39.4%), ‘복잡하다’ 230명(46.0%), ‘매우 복잡하다’ 11명(2.2%)이었다.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12.4%, 부정 응답 48.2%로 부정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장애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응답은 심한 장애 19.3%, 심하지 않은 장애 11.0%였으며 부정 응답은 각각 38.5%, 50.1%를 보여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962$,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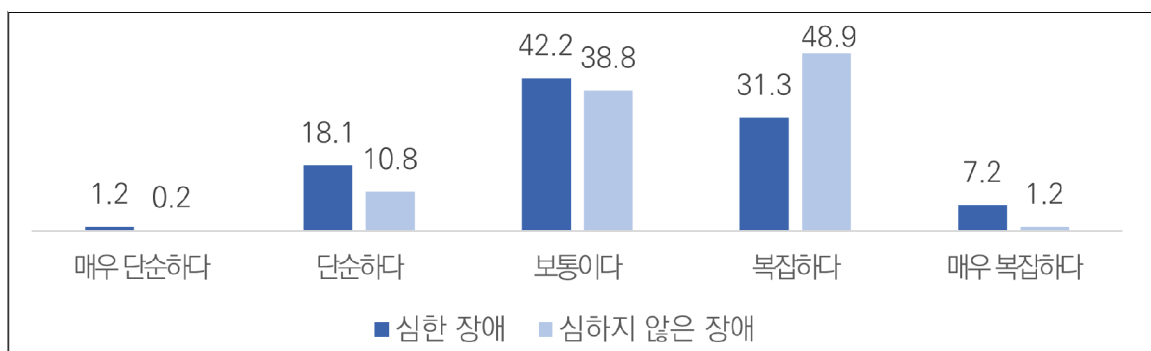
〈표 I -56〉 점자 복잡성에 대한 인식(비시각장애인)

점자 복잡성		매우 단순하다		단순하다		보통이다		복잡하다		매우 복잡하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5	1.0	75	14.7	211	41.5	211	41.5	7	1.4	509	1000	1.776
	여성	7	1.4	67	13.6	190	38.7	219	44.6	8	1.6	491	100	
연령	20대	3	1.9	21	13.1	70	43.8	64	40.0	2	1.3	160	100	21.527
	30대	3	1.7	27	14.9	79	43.6	69	38.1	3	1.7	181	100	
	40대	3	1.4	31	14.8	83	39.7	90	43.1	2	1.0	209	100	
	50대	2	0.8	39	16.5	102	43.2	90	38.1	3	1.3	236	100	
	60대	1	0.5	24	11.2	67	31.3	117	54.7	5	2.3	214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2	5.4	3	8.1	15	40.5	17	45.9	0	0.0	37	100	19.660*
	중소도시(동)	4	0.9	65	14.3	206	45.5	170	37.5	8	1.8	453	100	
	대도시(동)	6	1.2	74	14.5	180	35.3	243	47.6	7	1.4	510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4	25.0	1	6.3	11	68.8	0	0.0	16	100	27.957
	중학교 졸업	0	0.0	5	13.2	11	28.9	21	55.3	1	2.6	38	100	
	고등학교 졸업	1	0.3	39	11.6	126	37.4	165	49.0	6	1.8	337	100	
	대학 재학, 졸업	10	1.7	88	15.3	249	43.2	221	38.4	8	1.4	576	100	
	대학원 재학 이상	1	3.0	6	18.2	14	42.4	12	36.4	0	0.0	33	100	
직업	유	10	1.3	100	13.4	323	43.2	303	40.5	12	1.6	748	100	13.439*
	무	2	0.8	42	16.7	78	31.0	127	50.4	3	1.2	252	100	
가족·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1	1.3	16	20.0	18	22.5	45	56.3	0	0.0	80	100	13.634*
	없다	11	1.2	126	13.7	383	41.6	385	41.8	15	1.6	920	100	
전체		12	1.2	142	14.2	401	40.1	430	43.0	15	1.5	1,000	100	

* $p < .05$

〈표 I -57〉 점자 복잡성에 대한 인식(시각장애인)

점자 복잡성		매우 단순하다		단순하다		보통이다		복잡하다		매우 복잡하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	0.3	43	12.7	126	37.2	161	47.5	8	2.4	339	100	2.664
	여성	1	0.6	17	10.6	71	44.1	69	42.9	3	1.9	161	100	
연령	20대	0	0.0	8	14.3	19	33.9	28	50.0	1	1.8	56	100	19.626
	30대	0	0.0	3	8.1	15	40.5	17	45.9	2	5.4	37	100	
	40대	0	0.0	6	13.6	16	36.4	21	47.7	1	2.3	44	100	
	50대	1	0.6	30	17.5	74	43.3	62	36.3	4	2.3	171	100	
	60대	1	0.5	13	6.8	73	38.0	102	53.1	3	1.6	192	1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0	0.0	5	5.7	37	42.5	43	49.4	2	2.3	87	100	7.650
	중소도시(동)	1	0.5	32	15.9	77	38.3	88	43.8	3	1.5	201	100	
	대도시(동)	1	0.5	23	10.8	83	39.2	99	46.7	6	2.8	212	1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0	0.0	2	7.4	9	33.3	15	55.6	1	3.7	27	100	15.457
	중학교 졸업	0	0.0	1	2.2	22	48.9	21	46.7	1	2.2	45	100	
	고등학교 졸업	2	1.1	21	11.2	72	38.5	90	48.1	2	1.1	187	100	
	대학 재학, 졸업	0	0.0	29	14.5	81	40.5	85	42.5	5	2.5	20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0	0.0	7	17.1	13	31.7	19	46.3	2	4.9	41	100	
직업	유	1	0.3	47	15.4	113	37.0	137	44.9	7	2.3	305	100	9.007
	무	1	0.5	13	6.7	84	43.1	93	47.7	4	2.1	195	1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	1.2	15	18.1	35	42.2	26	31.3	6	7.2	83	100	20.962*
	심하지 않은 장애	1	0.2	45	10.8	162	38.8	204	48.9	5	1.2	417	100	
전체		2	0.4	60	12.0	197	39.4	230	46.0	11	2.2	500	1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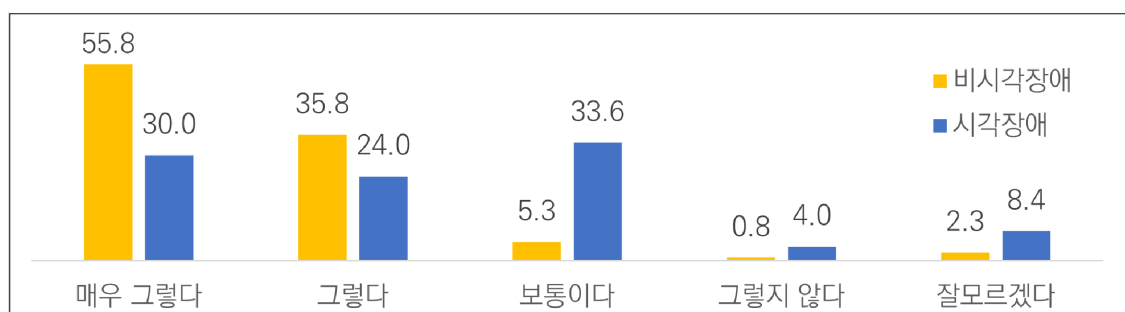
[그림 I -35]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점자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단위: %)

5)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1)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공통)

문10(비시각)
문11(시각)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학업, 직업, 자립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림 I-36]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인식(단위: %)

〈표 I-58〉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558	358	53	8	0	23	1000	289.679*
	%	55.8	35.8	5.3	0.8	0	2.3	100.0	
시각장애	n	150	120	168	20	0	42	500	
	%	30.0	24.0	33.6	4.0	0	8.4	100.0	
전체	n	708	478	221	28	0	65	1500	
	%	47.2	31.9	14.7	1.9	0	4.3	100.0	

* $p < .05$

〈표 I-59〉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조사 결과(평균 비교)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장애	977	4.50	0.639	14.926*	4.50
시각장애	458	3.87	0.925		3.87
전체	1435	4.30	0.797		4.30

* $p < .05$

가. 전체 대상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업,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의 80.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시각장애인의 91.6%, 시각장애인의 54.0%가 긍정 응답을 보여,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9.679$, $p<.05$).
-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을 보면, 비시각장애인의 55.8%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반면 시각장애인의 33.6%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점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역시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시각장애인의 응답에서 확연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차 비교에서도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학업과 직업, 자립 생활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14.926$, $p<.05$).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의 학업, 직업, 자립 생활에서 점자가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5.8%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이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연령과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라 집단 간 인식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30대의 60.2%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는 48.1%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28.213$, $p<.05$)
 - 거주 지역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중소도시’(64.0%)와 ‘읍면 지역’(62.2%)에 비해 ‘대도시’(48%)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chi^2=36.997$, $p<.05$).
 -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 집단의 인식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졸업 집단은 응답자 분포가 가장 많은 집단이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비율도 60.1%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학력 수준에 따른 중요성의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28.666$, $p<.05$).
 - 가족이나 지인의 시각장애인 여부 또는 성별,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학업과 직업, 자립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비시각장애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 20대이거나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타 집단과 유사하나 ‘매우 중요하다’에 대한 인식은 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이 항목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4%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0%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업, 자립에서 점자가 중요한’지에 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보면, 연령과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각장애인 자립에 점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긍정 응답 비율이 20대는 80.4%이며, 60대는 33.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요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chi^2=72.214$, $p<.05$).
 -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응답자의 긍정 응답 비율이 68.7%로 가장 높으며, 대도시(47.2%)와 읍면 지역(36.7%) 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45.439$, $p<.05$).
 -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의 긍정 응답 비율(73.2%)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에서 점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4.646$, $p<.05$).
 -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직업이 있는 집단(62.0%)이 직업이 없는 집단(41.5%)에 비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에 점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22.572$, $p<.05$).
 -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심한 장애’(63.9%) 집단이 ‘심하지 않은 장애’(52.1%) 집단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 -60〉 시각장애인 학업 및 직업, 자립에서 점자 중요성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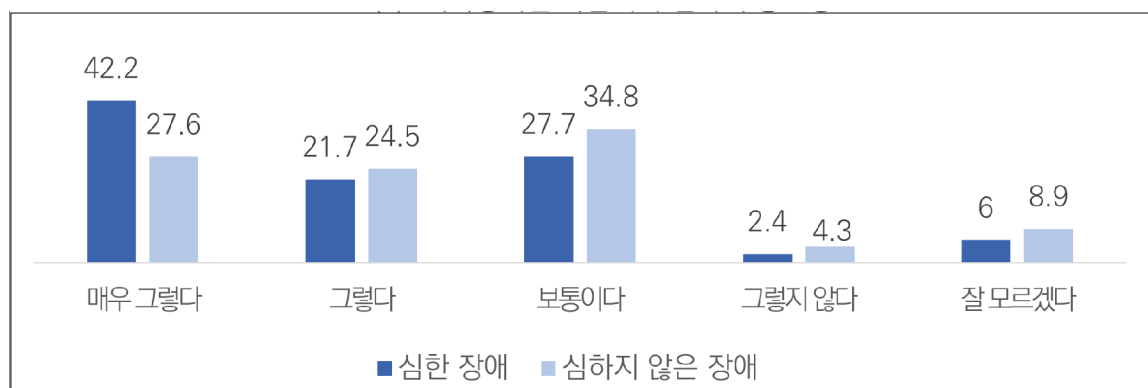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71	53.2	196	38.5	27	5.3	5	1.0	10	2.0	509	100.0	4.275
	여성	287	58.5	162	33.0	26	5.3	3	0.6	13	2.6	491	100.0	
연령	20대	77	48.1	69	43.1	12	7.5	1	0.6	1	0.6	160	100.0	28.213*
	30대	109	60.2	54	29.8	13	7.2	4	2.2	1	0.6	181	100.0	
	40대	120	57.4	74	35.4	8	3.8	1	0.5	6	2.9	209	100.0	
	50대	137	58.1	75	31.8	13	5.5	2	0.8	9	3.8	236	100.0	
	60대	115	53.7	86	40.2	7	3.3	0	0.00	6	2.8	21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23	62.2	11	29.7	1	2.7	1	2.7	1	2.7	37	100.0	36.997*
	중소도시(동)	290	64.0	124	27.4	24	5.3	1	0.2	14	3.1	453	100.0	
	대도시(동)	245	48.0	223	43.7	28	5.5	6	1.2	8	1.6	510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11	68.8	4	25.0	0	0.0	0	0.0	1	6.3	16	100.0	28.666*
	중학교 졸업	18	47.4	16	42.1	2	5.3	0	0.0	2	5.3	38	100.0	
	고등학교 졸업	164	48.7	133	39.5	23	6.8	3	0.9	14	4.2	337	100.0	
	대학 재학, 졸업	346	60.1	193	33.5	28	4.9	4	0.7	5	0.9	576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19	57.6	12	36.4	0	0.0	1	3.0	1	3.0	33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412	55.1	270	36.1	45	6.0	7	0.9	14	1.9	748	100.0	6.272
	직업 무	146	57.9	88	34.9	8	3.2	1	0.4	9	3.6	252	100.0	
가족, 지인 시각 장애 여부	있다	45	56.3	28	35.0	3	3.8	0	0.0	4	5.0	80	100.0	3.865
	없다	513	55.8	330	35.9	50	5.4	8	0.9	19	2.1	920	100.0	
전체		558	55.8	358	35.8	53	5.3	8	0.8	23	2.3	1,000	100.0	

* p < .05

〈표 I -61〉 시각장애인 학업 및 직업, 자립에서 점자 중요성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03	30.4	89	26.3	103	30.4	12	3.5	32	9.4	339	100.0	7.433
	여성	47	29.2	31	19.3	65	40.4	8	5.0	10	6.2	161	100.0	
연령	20대	17	30.4	28	50.0	8	14.3	1	1.8	2	3.6	56	100.0	72.214*
	30대	13	35.1	11	29.7	8	21.6	2	5.4	3	8.1	37	100.0	
	40대	14	31.8	11	25.0	15	34.1	0	0.0	4	9.1	44	100.0	
	50대	68	39.8	43	25.1	40	23.4	7	4.1	13	7.6	171	100.0	
	60대	38	19.8	27	14.1	97	50.5	10	5.2	20	10.4	19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3	14.9	19	21.8	39	44.8	5	5.7	11	12.6	87	100.0	45.439*
	중소도시(동)	83	41.3	55	27.4	37	18.4	8	4.0	18	9.0	201	100.0	
	대도시(동)	54	25.5	46	21.7	92	43.4	7	3.3	13	6.1	212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5	18.5	4	14.8	13	48.1	2	7.4	3	11.1	27	100.0	34.646*
	중학교 졸업	10	22.2	6	13.3	22	48.9	1	2.2	6	13.3	45	100.0	
	고등학교 졸업	53	28.3	42	22.5	64	34.2	9	4.8	19	10.2	187	100.0	
	대학교 재학, 졸업	59	29.5	61	30.5	60	30.0	6	3.0	14	7.0	2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23	56.1	7	17.1	9	22.0	2	4.9	0	0.0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111	36.4	78	25.6	85	27.9	11	3.6	20	6.6	305	100.0	22.572*
	직업 무	39	20.0	42	21.5	83	42.6	9	4.6	22	11.3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35	42.2	18	21.7	23	27.7	2	2.4	5	6.0	83	100.0	7.459
	심하지 않은 장애	115	27.6	102	24.5	145	34.8	18	4.3	37	8.9	417	100.0	
전체		150	30.0	120	24.0	168	33.6	20	4.0	42	8.4	500	10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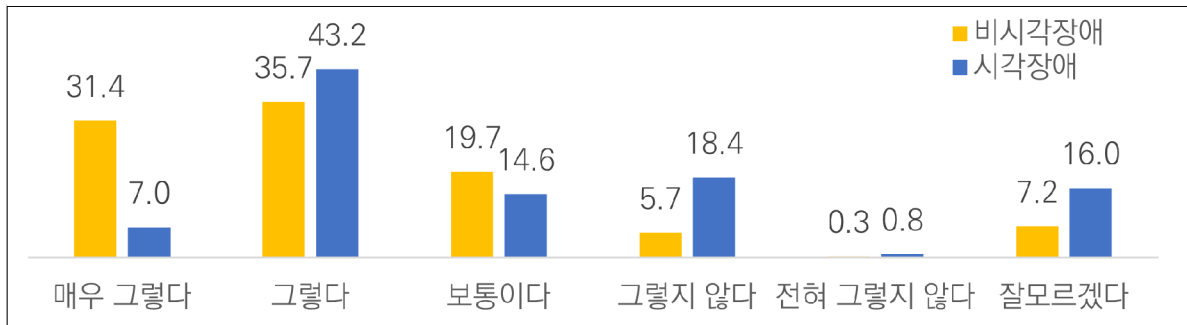


[그림 I -37] 장애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 인식(단위: %)

(2)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공통)

문11(비시각)
문12(시각)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림 I-38]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인식(단위: %)

〈표 I-62〉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314	357	197	57	3	72	1000	176.404*
	%	31.4	35.7	19.7	5.7	0.3	7.2	100.0	
시각장애	n	35	216	73	92	4	80	500	
	%	7.0	43.2	14.6	18.4	0.8	16.0	100.0	
전체	n	349	573	270	149	7	152	1500	
	%	23.3	38.2	18.0	9.9	0.5	10.1	100.0	

* $p < .05$

〈표 I-63〉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조사 결과(평균 비교)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928	3.99	0.909	10.141*	3.99
시각	420	3.44	0.954		3.44
전체	1348	3.82	0.958		3.82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61.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10.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시각장애인의 67.1%와 시각장애인의 50.2%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chi^2=176.404$, $p<.05$).
 - 그중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비시각장애인은 31.4%인 반면, 시각장애인은 7.0%로 나타나 비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인식이 시각장애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수준은 집단 간 평균차에서도 드러나는데($t=10.141$, $p<.05$),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인식 평균은 3.44임에 비해 비시각장애인은 3.99로 나타났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매우 그렇다’는 인식은 31.4%, ‘그렇다’는 인식은 35.7%로 조사되었다.
- 이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가족이나 지인의 시각장애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인식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점자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응답이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여성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13.610$, $p<.05$).
 -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20대의 27.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0대는 36.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50대와 40대의 긍정 인식이 높고 20대와 30대의 긍정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39.510$, $p<.05$).
 -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 비율이 대학교 재학/졸업(34.9%)과 고등학교 졸업(29.4%)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12.5%)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가족이나 지인의 시각장애인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51.3%)가 그렇지 않은 경우(68.5)보다 긍정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 인식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17.5%)가 그렇지 않은 경우(5.0%)보다 높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31.535$, $p < .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5% 이상이 중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직업 유무와 장애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인식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직업 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긍정 인식이 직업이 없는 응답자보다 높지만, 부정 인식 역시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직업이 있는 집단(12.8%) 보다 직업이 없는 집단(21.0%)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11.407$, $p < .05$).
 - 장애 정도에 따른 조사 결과, '심한 장애'의 3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심하지 않은 장애'는 53.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심한 장애'의 37.3%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심하지 않은 장애'는 15.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장애 정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심한 시각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보다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한다는 인식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26.066$, $p < .05$).
-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보다,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심한 시각장애인보다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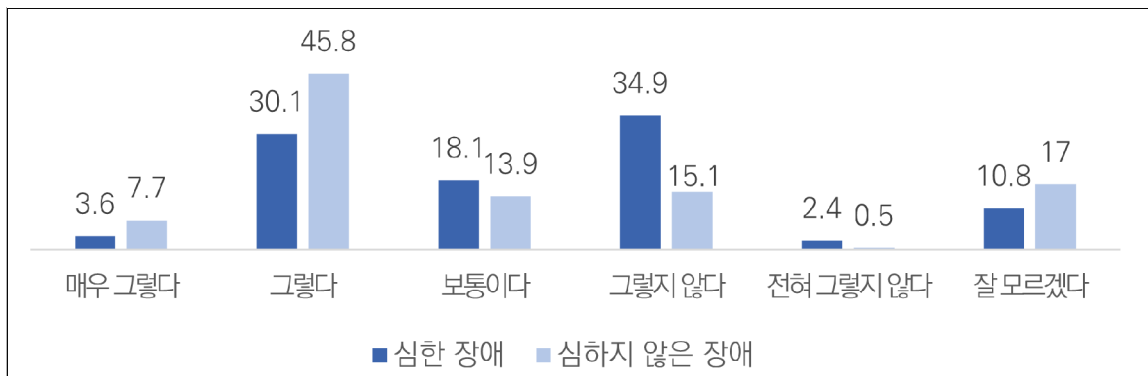
〈표 I -64〉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점자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54	30.3	182	35.8	89	17.5	34	6.7	1	0.2	49	9.6	509	100.0	13.610*
	여성	160	32.6	175	35.6	108	22.0	23	4.7	2	0.4	23	4.7	491	100.0	
연령	20대	44	27.5	56	35.0	46	28.8	6	3.8	0	0.0	8	5.0	160	100.0	39.510*
	30대	55	30.4	60	33.1	37	20.4	17	9.4	2	1.1	10	5.5	181	100.0	
	40대	71	34.0	69	33.0	42	20.1	14	6.7	1	0.5	12	5.7	209	100.0	
	50대	86	36.4	83	35.2	37	15.7	13	5.5	0	0.0	17	7.2	236	100.0	
	60대	58	27.1	89	41.6	35	16.4	7	3.3	0	0.0	25	11.7	21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6	43.2	12	32.4	5	13.5	3	8.1	0	0.0	1	2.7	37	100.0	13.037
	중소도시(동)	156	34.4	152	33.6	80	17.7	25	5.5	1	0.2	39	8.6	453	100.0	
	대도시(동)	142	27.8	193	37.8	112	22.0	29	5.7	2	0.4	32	6.3	510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12.5	5	31.3	5	31.3	1	6.3	0	0.0	3	18.8	16	100.0	28.928
	중학교 졸업	7	18.4	15	39.5	8	21.1	3	7.9	0	0.0	5	13.2	38	100.0	
	고등학교 졸업	99	29.4	127	37.7	65	19.3	20	5.9	0	0.0	26	7.7	337	100.0	
	대학 재학, 졸업	201	34.9	193	33.5	116	20.1	29	5.0	3	0.5	34	5.9	576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5	15.2	17	51.5	3	9.1	4	12.1	0	0.0	4	12.1	33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239	32.0	268	35.8	144	19.3	45	6.0	3	0.4	49	6.6	748	100.0	3.873
	직업 무	75	29.8	89	35.3	53	21.0	12	4.8	0	0.0	23	9.1	252	100.0	
가족 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19	23.8	22	27.5	17	21.3	12	15.0	2	2.5	8	10	80	100.0	31.535*
	없다	295	32.1	335	36.4	180	19.6	45	4.9	1	0.1	64	6.96	920	100.0	
전체		314	31.4	357	35.7	197	19.7	57	5.7	3	0.3	72	7.2	1,000	100.0	

* $p < .05$

〈표 I -65〉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4	7.1	151	44.5	44	13.0	60	17.7	4	1.2	56	16.5	339	100.0	4.701
	여성	11	6.8	65	40.4	29	18.0	32	19.9	0	0.0	24	14.9	161	100.0	
연령	20대	4	7.1	28	50.0	3	5.4	11	19.6	2	3.6	8	14.3	56	100.0	21.396
	30대	2	5.4	13	35.1	4	10.8	11	29.7	0	0.0	7	18.9	37	100.0	
	40대	3	6.8	19	43.2	5	11.4	8	18.2	1	2.3	8	18.2	44	100.0	
	50대	12	7.0	68	39.8	27	15.8	34	19.9	0	0.0	30	17.5	171	100.0	
	60대	14	7.3	88	45.8	34	17.7	28	14.6	1	0.5	27	14.1	19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4	4.6	39	44.8	15	17.2	14	16.1	0	0.0	15	17.2	87	100.0	9.498
	중소도시(동)	21	10.4	79	39.3	26	12.9	41	20.4	2	1.0	32	15.9	201	100.0	
	대도시(동)	10	4.7	98	46.2	32	15.1	37	17.5	2	0.9	33	15.6	212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3.7	16	59.3	5	18.5	1	3.7	0	0.0	4	14.8	27	100.0	23.453
	중학교 졸업	5	11.1	23	51.1	3	6.7	5	11.1	0	0.0	9	20.0	45	100.0	
	고등학교 졸업	12	6.4	72	38.5	33	17.6	39	20.9	0	0.0	31	16.6	187	100.0	
	대학 재학, 졸업	15	7.5	87	43.5	29	14.5	35	17.5	3	1.5	31	15.5	2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2	4.9	18	43.9	3	7.3	12	29.3	1	2.4	5	12.2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27	8.9	129	42.3	45	14.8	63	20.7	2	0.7	39	12.8	305	100.0	11.407*
	직업 무	8	4.1	87	44.6	28	14.4	29	14.9	2	1.0	41	21.0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3	3.6	25	30.1	15	18.1	29	34.9	2	2.4	9	10.8	83	100.0	26.066*
	심하지 않은 장애	32	7.7	191	45.8	58	13.9	63	15.1	2	0.5	71	17.0	417	100.0	
전체		35	7	216	43.2	73	14.6	92	4	4	0.8	80	16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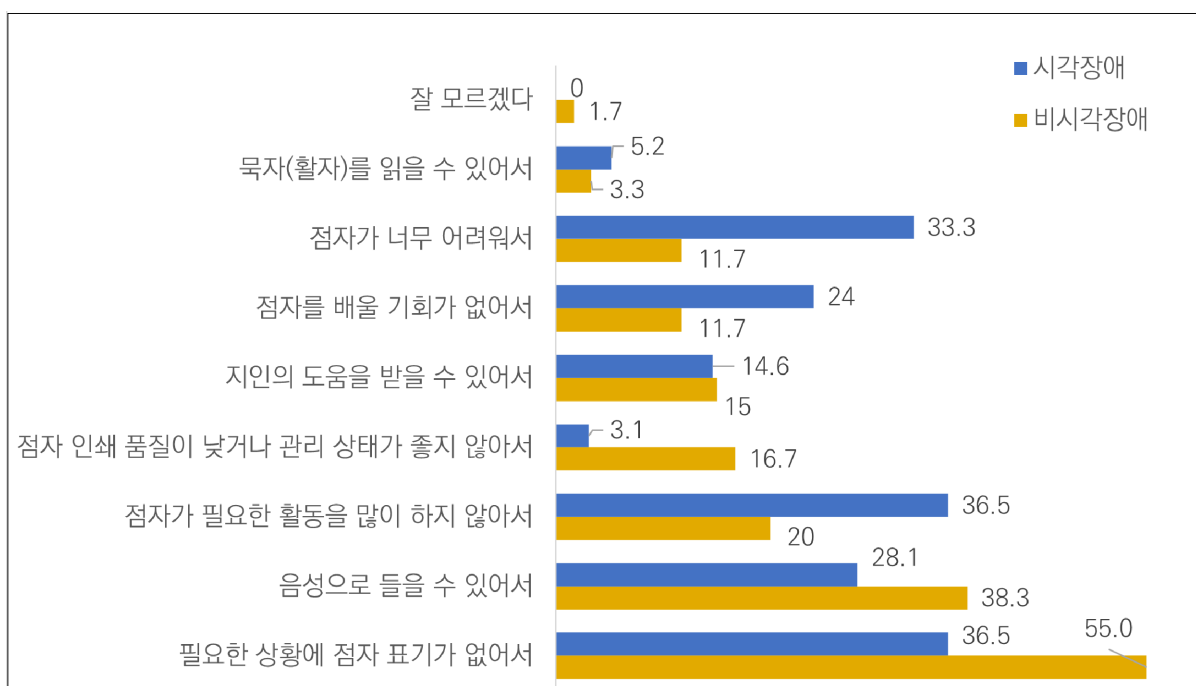
* $p < .05$ 

[그림 I -39] 장애 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정도 인식(단위: %)

(3)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공통)

문11-1(비시각)
문12-1(시각)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그림 I-40]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단위: %, 복수 응답)

〈표 I-66〉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

구분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목자 (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비시각	33	55.0	10	16.7	7	11.7	7	11.7	23	38.3	9	15	2	3.3	12	20	1	1.7	60	100
시각	35	36.5	3	3.1	23	24	32	33.3	27	28.1	14	14.6	5	5.2	35	36.5	0	0	96	100
전체	68	43.6	13	8.3	30	19.2	39	25.0	50	32.1	23	14.7	7	4.5	47	30.1	1	0.6	156	100

가. 전체 조사 결과

- 앞의 문항에서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부정 응답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질문을 하였다.
-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전체 응답 결과를 보면,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가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32.1%),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25.0%),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30.1%),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19.2%) 순으로 나타났다.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응답 분포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비시각장애인은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55.0%)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시각장애인은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36.5%)와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36.5%)를 비슷하게 꼽았다.
- 시각장애인 응답자 중에서도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33.3%)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28.1%)라는 응답이 높아, 점자 학습 및 접근성의 어려움과 디지털 음성 매체의 보급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14.6%)와 ‘묵자를 읽을 수 있어서’(5.2%)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 비시각장애인은 ‘점자 환경 부족’을, 시각장애인은 ‘점자 필요성 감소’와 ‘학습·활용의 어려움’을 점자 사용이 낮은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음성 기술 확산과 점자 접근성 미흡이 공통된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었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비시각장애인 응답자 60명 가운데 55.0%가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38.3%),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11.7%),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11.7%) 순으로 응답하였다.
- 비시각장애인의 집단별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72.0%)이 남성(42.9%)보다 ‘점자 표기 부족’을 주요 이유로 더 많이 꼽았으며,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도 여성(28.0%)이 남성(8.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8.4%)와 40대(66.7%)

에서 점자 표기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60대에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28.6%)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48.4%)와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51.6%)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읍면 지역은 ‘점자 표기가 없어서’(100%)를 압도적으로 지적하였다.
-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졸업 집단(62.5%)과 대학원 이상(100%)에서 점자 표기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58.3%)가 없는 경우(52.4%)보다 점자 비사용 이유로 ‘점자 표기 부족’을 더 자주 언급하였다.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시각장애인 응답자 96명 가운데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36.5%)와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36.5%)가 동일하게 가장 높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33.3%),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28.1%),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24.0%)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나 묵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3.1%, 5.2%로 낮게 나타났다.
-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집단별 인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남성은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39.1%)와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35.9%)를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50.0%)와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37.5%),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34.4%)의 비율이 높았다. 즉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남성은 사용 필요성과 접근성을 든 반면 응답한 반면, 여성은 학습의 어려움과 학습 기회 부족, 그리고 음성 접근성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았다.
 - 연령대별로는 50대(47.1%)가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60대(41.4%)는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63.6%)의 비율이 높아 디지털 접근성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46.2%)에서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읍면 지역은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64.3%)가

가장 많아, 지역에 따른 응답자의 점자 활용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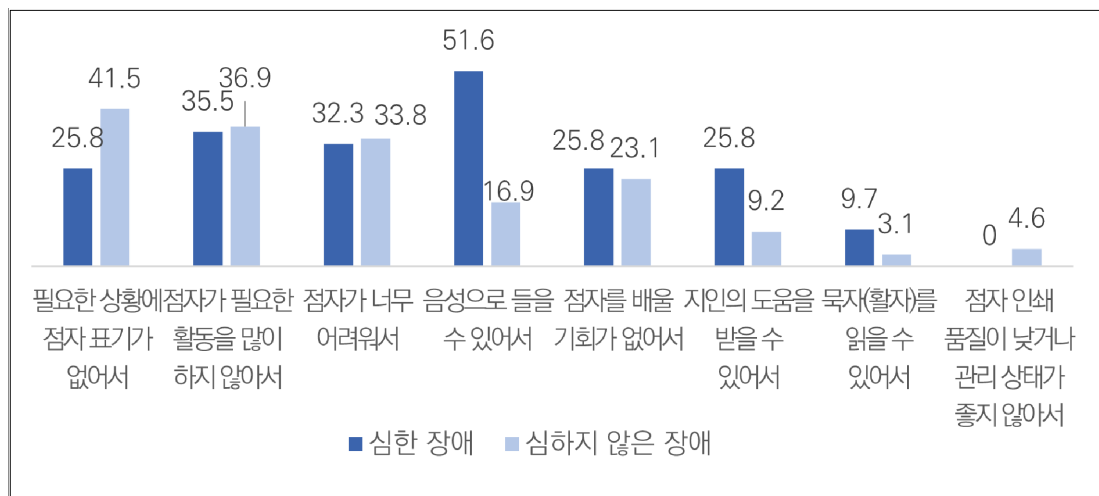
-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46.2%)과 대학 재학, 졸업(36.8%) 집단에서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점자 학습 기회 부족’보다는 ‘활용 필요성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 집단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51.6%)와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32.3%)를 이유로 든 비율이 높았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 집단은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41.5%)와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36.9%)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표 I -67〉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목자 (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5	42.9	3	8.6	4	11.4	4	11.4	14	40.0	6	17.1	0	0.0	11	31.4	0	0.0	35	100.0
	여성	18	72.0	7	28.0	3	12.0	3	12.0	9	36.0	3	12.0	2	8.0	1	4.0	1	4.0	25	100.0
연령	20대	2	33.3	1	16.7	0	0.0	0	0.0	4	66.7	1	16.7	0	0.0	2	33.3	0	0.0	6	100.0
	30대	13	68.4	2	10.5	3	15.8	2	10.5	10	52.6	5	26.3	1	5.3	3	15.8	0	0.0	19	100.0
	40대	10	66.7	2	13.3	2	13.3	5	33.3	4	26.7	0	0.0	0	0.0	3	20.0	0	0.0	15	100.0
	50대	7	53.8	4	30.8	2	15.4	0	0.0	3	23.1	1	7.7	1	7.7	3	23.1	0	0.0	13	100.0
	60대	1	14.3	1	14.3	0	0.0	0	0.0	2	28.6	2	28.6	0	0.0	1	14.3	1	14.3	7	100.0
	전체	33	55.0	10	16.7	7	11.7	7	11.7	23	38.3	9	15.0	2	3.3	12	20.0	1	1.7	60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3	100.0	1	33.3	0	0.0	0	0.0	2	66.7	1	33.3	0	0.0	0	0.0	0	0.0	3	100.0
	중소도시(동)	14	53.8	3	11.5	3	11.5	3	11.5	6	23.1	1	3.8	0	0.0	4	15.4	1	3.8	26	100.0
	대도시(동)	16	51.6	6	19.4	4	12.9	4	12.9	15	48.4	7	22.6	2	6.5	8	25.8	0	0.0	31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중학교 졸업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3	100.0
	고등학교 졸업	8	40.0	2	10.0	3	15.0	4	20.0	9	45.0	3	15.0	2	10.0	2	10.0	1	5.0	20	100.0
	대학 재학, 졸업	20	62.5	7	21.9	4	12.5	3	9.4	14	43.8	6	18.8	0	0.0	8	25.0	0	0.0	32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28	58.3	9	18.8	5	10.4	5	10.4	16	33.3	8	16.7	2	4.2	11	22.9	0	0.0	48	100.0
	직업 무	132	52.4	47	18.7	28	11.1	18	7.1	41	16.3	5	2.0	0	0.0	1	8.3	1	8.3	12	100.0
가족 지인 시각 장애	있다	7	50.0	4	28.6	2	14.3	2	14.3	7	50.0	2	14.3	0	0.0	2	14.3	0	0.0	14	100.0
	없다	26	56.5	6	13.0	5	10.9	5	10.9	16	34.8	7	15.2	2	4.3	10	21.7	1	2.2	46	100.0
전체		33	55.0	10	16.7	7	11.7	7	11.7	23	38.3	9	15.0	2	3.3	12	20.0	1	1.7	60	100.0

〈표 I -68〉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목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3	35.9	2	3.1	11	17.2	16	25.0	16	25.0	10	15.6	4	6.3	25	39.1	64	100.0
	여성	12	37.5	1	3.1	12	37.5	16	50.0	11	34.4	4	12.5	1	3.1	10	31.3	32	100.0
연령	20대	5	38.5	0	0.0	3	23.1	3	23.1	3	23.1	4	30.8	2	15.4	5	38.5	13	100.0
	30대	5	45.5	0	0.0	3	27.3	2	18.2	7	63.6	0	0.0	0	0.0	4	36.4	11	100.0
	40대	4	44.4	1	11.1	4	44.4	4	44.4	4	44.4	3	33.3	2	22.2	4	44.4	9	100.0
	50대	13	38.2	1	2.9	7	20.6	16	47.1	6	17.6	3	8.8	0	0.0	10	29.4	34	100.0
	60대	8	27.6	1	3.4	6	20.7	7	24.1	7	24.1	4	13.8	1	3.4	12	41.4	29	100.0
	70대	4	44.4	1	11.1	4	44.4	4	44.4	4	44.4	3	33.3	2	22.2	4	44.4	9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6	42.9	1	7.1	3	21.4	6	42.9	3	21.4	2	14.3	1	7.1	9	64.3	14	100.0
	중소도시(동)	11	25.6	0	0.0	13	30.2	18	41.9	11	25.6	7	16.3	2	4.7	10	23.3	43	100.0
	대도시(동)	18	46.2	2	5.1	7	17.9	8	20.5	13	33.3	5	12.8	2	5.1	16	41.0	39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중학교 졸업	1	20.0	0	0.0	1	20.0	2	40.0	1	20.0	0	0.0	1	20.0	3	60.0	5	100.0
	고등학교 졸업	13	33.3	2	5.1	6	15.4	16	41.0	8	20.5	6	15.4	1	2.6	14	35.9	39	100.0
	대학 재학, 졸업	14	36.8	1	2.6	11	28.9	10	26.3	10	26.3	4	10.5	2	5.3	15	39.5	38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6	46.2	0	0.0	5	38.5	4	30.8	7	53.8	4	30.8	1	7.7	3	23.1	13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27	41.5	3	4.6	14	21.5	21	32.3	21	32.3	9	13.8	4	6.2	21	32.3	65	100.0
	직업 무	8	25.8	0	0.0	9	29.0	11	35.5	6	19.4	5	16.1	1	3.2	14	45.2	31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8	25.8	0	0.0	8	25.8	10	32.3	16	51.6	8	25.8	3	9.7	11	35.5	31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27	41.5	3	4.6	15	23.1	22	33.8	11	16.9	6	9.2	2	3.1	24	36.9	65	100.0
전체		35	36.5	3	3.1	23	24.0	32	33.3	27	28.1	14	14.6	5	5.2	35	36.5	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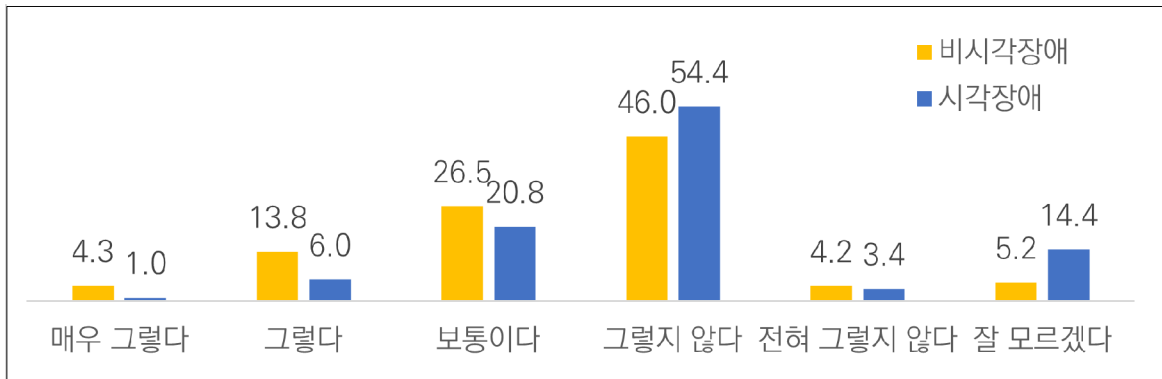


[그림 I -41]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응답 결과(단위: %, 복수 응답)

(4)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공통)

문12(비시각)
문14(시각)

점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림 I-42]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단위: %)

〈표 I-69〉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43	138	265	460	42	52	1000	73.344*
	%	4.3	13.8	26.5	46.0	4.2	5.2	100.0	
시각장애	n	5	30	104	272	17	72	500	
	%	1.0	6.0	20.8	54.4	3.4	14.4	100.0	
전체	n	48	168	369	732	59	124	1500	
	%	3.2	11.2	24.6	48.8	3.9	8.3	100.0	

* $p < .05$

〈표 I-70〉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평균 비교)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948	2.66	0.936	5.565*	2.66
시각	428	2.38	0.725		2.38
전체	1376	2.57	0.886		2.57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국민 전체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 인식 비율은 전체의 14.4%에 불과하고, 부정적 인식(‘그렇지 않다’(48.8%), ‘전혀 그렇지 않다’(11.2%))은 52.7%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8.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 사회가 점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점자 필요성 인식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이 확인되었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3.344$, $p<.05$).
 - 시각장애인의 부정 인식(57.8%)이 비시각장애인의 부정 인식(50.2%)보다 높았으며, 평균 비교에서도 시각장애인(2.38)이 비시각장애인(2.66) 보다 낮아, 비시각장애인이 점자 필요성 인식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보면, 점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 스스로도 그 부족함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46.0%)와 ‘보통이다’(26.5%)가 가장 높았으며,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은 18.1%로 낮았다. 즉, 비시각장애인 10명 중 8명은 점자 필요성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비시각장애인 응답자의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라 집단 간 인식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40대의 52.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60대는 36.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50.369$, $p<.05$).
 - 거주 지역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 비율이 중소도시(4.4%)와 대도시(3.3%)에 비해 읍면 지역(16.2%)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규모와 관계 없이 점자 필요성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chi^2=20.088$, $p<.05$).

-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비율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37.5%)와 대학원 재학 이상(54.5%) 집단의 인식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졸업 집단은 응답자 분포가 가장 많은 집단이면서 그렇지 않다는 인식 비율도 49.1%로 높게 나타나는 등, 학력 수준에 따른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39.704$, $p<.05$).
- 성별이나 가족이나 지인의 시각장애인 여부 또는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54.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20.8%), ‘잘 모르겠다’(14.4%)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은 7.0%에 그쳐, 시각장애인 스스로도 점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라 집단 간 인식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연령과 최종 학력, 직업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인식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20대의 69.6%와 40대의 6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다소 높은 부정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30대는 45.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2.381$, $p<.05$). 특히 20~30대에서는 ‘보통이다’(12~16%)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8~16%)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점자 관련 경험 및 사회적 접촉 빈도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 최종 학력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39.595$, $p<.05$),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비율이 대학 재학, 졸업(62.5%)과 대학원 재학 이상(65.9%)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25.9%)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와 ‘잘 모르겠다’의 응답도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직업 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도 직업이 있는 집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직업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14.749$, $p<.05$).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점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 점자 사용 환경뿐 아니라 점자 자체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 점자의 필요성에 대해 학력이 낮거나 직업이 없을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정 인식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점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시적으로 노출되지 않거나, 접근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점자 사용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는데도 사회적 공감대 부재와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따라서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면 캠페인이나 전 국민 대상 점자 공감·체험 프로그램의 확충 등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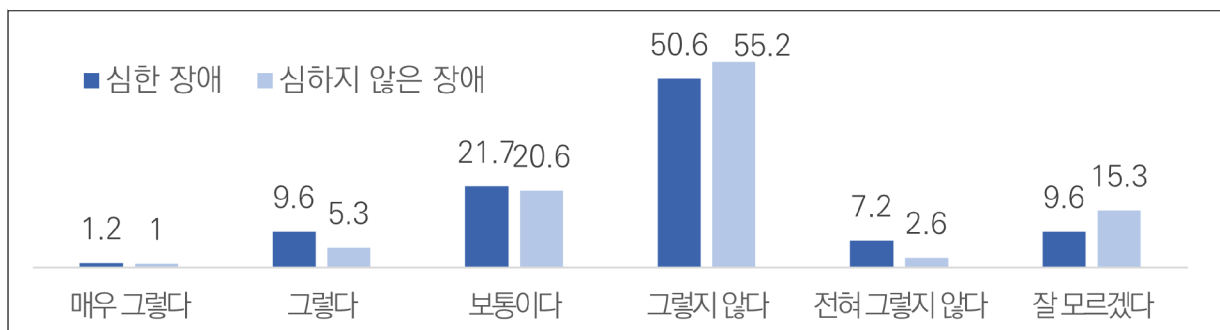
〈표 I-71〉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8	5.0	70	13.8	137	26.9	223	43.8	22	4.3	29	5.7	509	100.0	5.156
	여성	15	3.0	68	13.8	128	26.1	237	48.3	20	4.1	23	4.7	491	100.0	
연령	20대	6	3.0	22	13.8	57	35.6	63	39.4	7	4.4	5	3.1	160	100.0	50.369*
	30대	4	2.0	18	9.9	47	26.0	93	51.4	11	6.1	8	4.4	181	100.0	
	40대	11	5.0	20	9.6	54	25.8	109	52.2	9	4.3	6	2.9	209	100.0	
	50대	10	4.0	31	13.1	55	23.3	118	50.0	10	4.2	12	5.1	236	100.0	
	60대	12	5.0	47	22.0	52	24.3	77	36.0	5	2.3	21	9.8	214	100.0	
	70대 이상	12	5.0	47	22.0	52	24.3	77	36.0	5	2.3	21	9.8	21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6	16.2	3	8.1	6	16.2	18	48.6	2	5.4	2	5.4	37	100.0	20.088*
	중소도시(동)	20	4.4	57	12.6	133	29.4	199	43.9	20	4.4	24	5.3	453	100.0	
	대도시(동)	17	3.3	78	15.3	126	24.7	243	47.6	20	3.9	26	5.1	510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6.3	4	25.0	1	6.3	6	37.5	1	6.3	3	18.8	16	100.0	39.704*
	중학교 졸업	3	7.9	11	28.9	6	15.8	14	36.8	0	0.0	4	10.5	38	100.0	
	고등학교 졸업	12	3.6	55	16.3	93	27.6	139	41.2	15	4.5	23	6.8	337	100.0	
	대학 재학, 졸업	24	4.2	66	11.5	157	27.3	283	49.1	25	4.3	21	3.6	576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3	9.1	2	6.1	8	24.2	18	54.5	1	3.0	1	3.0	33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34	4.5	91	12.2	207	27.7	346	46.3	33	4.4	37	4.9	748	100.0	8.430
	직업 무	9	3.6	47	18.7	58	23.0	114	45.2	9	3.6	15	6.0	252	100.0	
가족이나 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3	3.8	9	11.3	18	22.5	40	50.0	8	10.0	2	2.5	80	100.0	9.482
	없다	40	4.3	129	14.0	247	26.8	420	45.7	34	3.7	50	5.43	920	100.0	
전체		43	4.3	138	13.8	265	26.5	460	46	42	4.2	52	5.2	1,000	100.0	

* $p < .05$

〈표 I-72〉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	0.6	22	6.5	75	22.1	178	52.5	9	2.7	53	15.6	339	100.0	6.604
	여성	3	1.9	8	5.0	29	18.0	94	58.4	8	5.0	19	11.8	161	100.0	
연령	20대	1	1.8	3	5.4	7	12.5	39	69.6	1	1.8	5	8.9	56	100.0	32.381*
	30대	1	2.7	2	5.4	6	16.2	17	45.9	5	13.5	6	16.2	37	100.0	
	40대	0	0.0	2	4.5	8	18.2	27	61.4	2	4.5	5	11.4	44	100.0	
	50대	2	1.2	15	8.8	31	18.1	96	56.1	4	2.3	23	13.5	171	100.0	
	60대	1	0.5	8	4.2	52	27.1	93	48.4	5	2.6	33	17.2	19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	1.1	3	3.4	21	24.1	44	50.6	3	3.4	15	17.2	87	100.0	16.626
	중소도시(동)	4	2.0	16	8.0	31	15.4	110	54.7	5	2.5	35	17.4	201	100.0	
	대도시(동)	0	0.0	11	5.2	52	24.5	118	55.7	9	4.2	22	10.4	212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4	14.8	9	33.3	7	25.9	0	0.0	7	25.9	27	100.0	39.595*
	중학교 졸업	0	0.0	2	4.4	10	22.2	20	44.4	0	0.0	13	28.9	45	100.0	
	고등학교 졸업	4	2.1	14	7.5	44	23.5	93	49.7	6	3.2	26	13.9	187	100.0	
	대학 재학, 졸업	1	0.5	8	4.0	35	17.5	125	62.5	8	4.0	23	11.5	2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0	0.0	2	4.9	6	14.6	27	65.9	3	7.3	3	7.3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5	1.6	17	5.6	64	21.0	170	55.7	15	4.9	34	11.1	305	100.0	14.749*
	직업 무	0	0.0	13	6.7	40	20.5	102	52.3	2	1.0	38	19.5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	1.2	8	9.6	18	21.7	42	50.6	6	7.2	8	9.6	83	100.0	8.397
	심하지 않은 장애	4	1.0	22	5.3	86	20.6	230	55.2	11	2.6	64	15.3	417	100.0	
전체		5	1	30	6	104	20.8	272	54.4	17	3.4	72	14.4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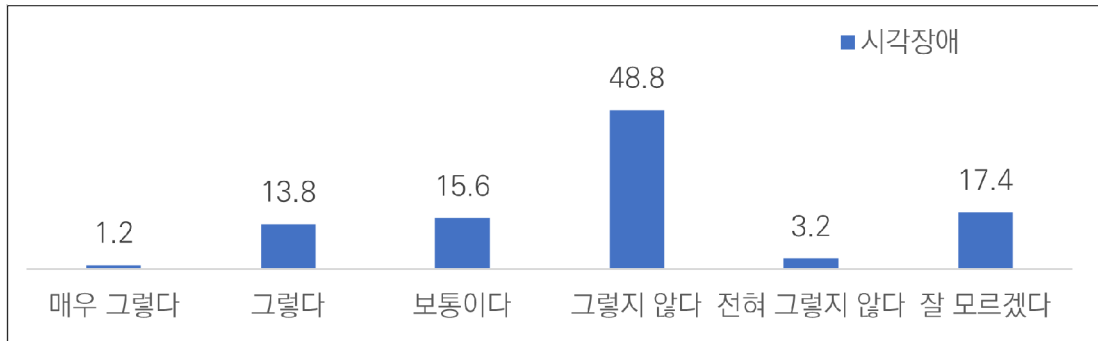
* $p < .05$ 

[그림 I-43]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에 관한 장애 정도별 인식(단위: %)

(5)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시각)

문14(시각)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점자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림 I-44]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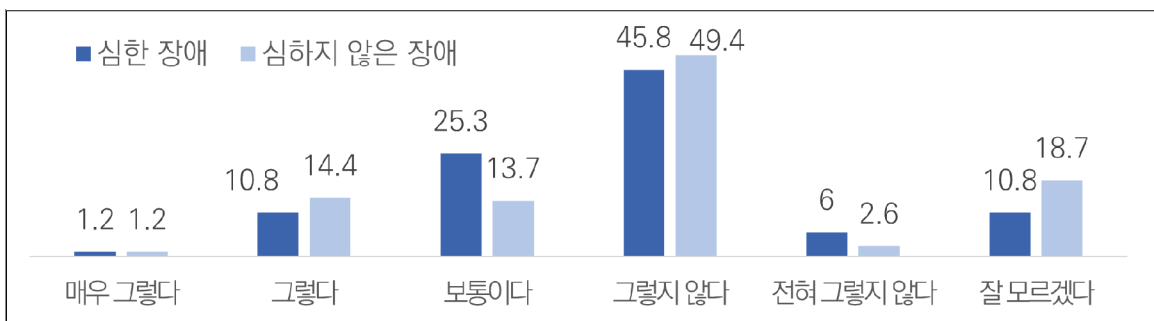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점자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시각장애인의 응답 결과를 보면, 부정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48.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15.6%), ‘잘 모르겠다’(17.4%), ‘그렇다’(13.8%), ‘매우 그렇다’(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 절반 가량이 현재 점자 서비스가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응답 결과는 최종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종 학력에 따른 인식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25.9%)와 중학교 졸업(35.6%)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50.3%), 대학 재학, 졸업(52.0%), 대학원 이상(56.1%) 등 학력이 높을수록 점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점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점자 서비스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chi^2=46.300$, $p<.05$).
 - 직업 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11.430$, $p<.05$),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50.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직업이 없는 응답자(46.7%)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직업이 없는 집단(21.5%)이 직업이 있는 집단(14.8%)보다 많아,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점자 서비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장애 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49.4%와 심한 장애인의 45.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부정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심하지

많은 장애인에서 ‘잘 모르겠다’의 응답(18.7%)이 더 높아, 점자 서비스 접근성의 경험적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chi^2=11.759$, $p < .05$).

〈표 I -73〉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4	1.2	52	15.3	51	15.0	159	46.9	12	3.5	61	18.0	339	100.0	3.390
	여성	2	1.2	17	10.6	27	16.8	85	52.8	4	2.5	26	16.1	161	100.0	
연령	20대	1	1.8	9	16.1	10	17.9	28	50.0	2	3.6	6	10.7	56	100.0	29.910
	30대	0	0.0	3	8.1	6	16.2	17	45.9	4	10.8	7	18.9	37	100.0	
	40대	0	0.0	1	2.3	8	18.2	25	56.8	3	6.8	7	15.9	44	100.0	
	50대	3	1.8	22	12.9	19	11.1	86	50.3	2	1.2	39	22.8	171	100.0	
	60대	2	1.0	34	17.7	35	18.2	88	45.8	5	2.6	28	14.6	19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6	16.2	3	8.1	6	16.2	18	48.6	2	5.4	2	5.4	37	100.0	15.389
	중소도시(동)	20	4.4	57	12.5	132	29.0	201	44.2	21	4.6	24	5.3	455	100.0	
	대도시(동)	17	3.3	78	15.4	127	25.0	241	47.4	20	3.9	25	4.9	508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8	29.6	4	14.8	7	25.9	0	0.0	8	29.6	27	100.0	46.300*
	중학교 졸업	0	0.0	9	20.0	7	15.6	16	35.6	1	2.2	12	26.7	45	100.0	
	고등학교 졸업	4	2.1	31	16.6	17	9.1	94	50.3	3	1.6	38	20.3	187	100.0	
	대학 재학, 졸업	2	1.0	20	10.0	40	20.0	104	52.0	9	4.5	25	12.5	2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0	0.0	1	2.4	10	24.4	23	56.1	3	7.3	4	9.8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4	1.3	39	12.8	49	16.1	153	50.2	15	4.9	45	14.8	305	100.0	11.430*
	직업 무	2	1.0	30	15.4	29	14.9	91	46.7	1	0.5	42	21.5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	1.2	9	10.8	21	25.3	38	45.8	5	6.0	9	10.8	83	100.0	11.759*
	심하지 않은 장애	5	1.2	60	14.4	57	13.7	206	49.4	11	2.6	78	18.7	417	100.0	
전체		6	1.2	69	13.8	78	15.6	244	48.8	16	3.2	87	17.4	500	10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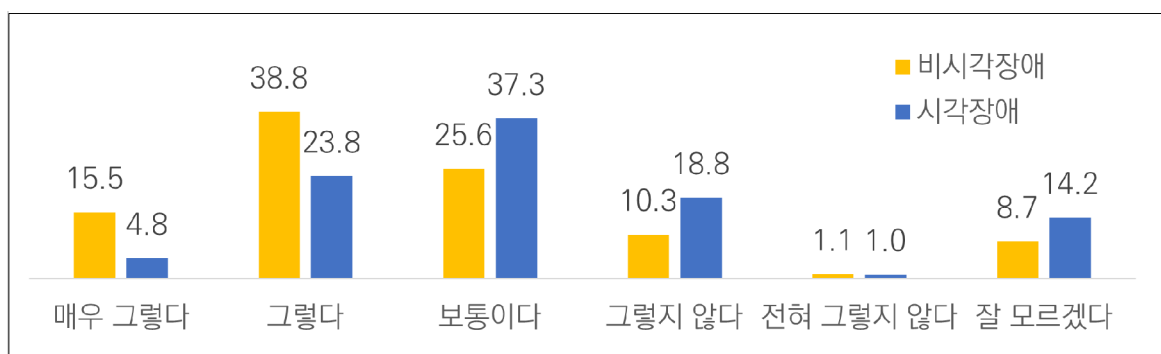
[그림 I -45] 점자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단위: %)

6)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공통)

문13(비시각)
문15(시각)

점자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림 I-46]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단위: %)

〈표 I-74〉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155	388	256	103	11	87	1000	97.397*
	%	15.5	38.8	25.6	10.3	1.1	8.7	100.0	
시각장애	n	24	119	186	94	5	71	499	
	%	4.8	23.8	37.3	18.8	1.0	14.2	100.0	
전체	n	179	507	442	197	16	158	1499	
	%	11.9	33.8	29.5	13.1	1.1	10.5	100.0	

* $p < .05$

〈표 I-75〉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평균 비교)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	
비시각	913	3.63	0.934	8.986*	3.63
시각	428	3.15	0.865		3.15
전체	1341	3.47	0.939		3.47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4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4.2%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 분포를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다’가 33.8%, ‘매우 그렇다’가 11.9%, ‘보통이다’가 29.5%, ‘그렇지 않다’가 13.1%,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도 10.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간 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시각장애인의 54.3%가 점자의 사회적 소통과 통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시각장애인은 28.6%만 긍정 응답을 보였다 ($\chi^2=97.397$, $p<.05$).
 -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비시각장애인은 15.5%인 반면, 시각장애인은 4.8%로 나타나 비시각장애인의 긍정적 인식이 시각장애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평균차에서도 드러나는데($t=8.986$, $p<.05$), 점자가 사회적 소통에 기여한다고 보는 인식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비시각장애인(3.63)이 시각장애인(3.15) 보다 긍정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사회적 소통과 통합에 점자가 기여하는지에 관한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3%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매우 그렇다’는 15.5%, ‘그렇다’는 38.8%로 조사되었다. 반면 ‘보통이다’는 25.6%, ‘그렇지 않다’는 10.3%, ‘전혀 그렇지 않다’는 1.1%였다.
 - 즉, 비시각장애인 다수는 점자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이 항목에서의 응답 결과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 여부 등 대부분의 배경 특성에서 집단 간 인식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 여성의 긍정 응답은 58.1%로, 남성(5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그렇다’ 응답(42.8%)이 남성(35.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chi^2=11.937$, $p < .05$).
- 연령에 따른 조사 결과, 60대(59.8%)와 50대(58.9%)에서 긍정 인식 비율이 높았으며, 20대(49.4%)와 30대(46.3%)는 상대적으로 낮아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3.937$, $p < .05$).
-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60.6%)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57.5%), 중학교 졸업(60.6%) 집단에서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50.0%)에서도 대체로 긍정 인식이 우세하였으나 집단 간 인식 차이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i^2=39.454$, $p < .05$).
- 직업 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 직업이 있는 응답자(51.5%)보다 직업이 없는 응답자(62.7%)가 긍정 인식이 높아,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528$, $p < .05$).
-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62.6%)가 없는 경우(53.6%)보다 긍정 인식이 높았으나, 부정 인식은 반대로 가족·지인이 있는 경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 관계 경험에 따른 인식의 복합성이 확인되었다($\chi^2=12.156$, $p < .05$).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를 보면, ‘보통이다’(37.3%)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긍정 응답은 28.6%, 부정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점자가 사회적 소통에 기여한다고 느끼는 체감 정도가 비시각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 이 항목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직업 유무, 장애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로는 60대(49.7%)에서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30.4%)와 30대(27.0%)에서도 ‘그렇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50대(26.9%)는 ‘그렇다’ 응답이 높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24.6%)도 높아 인식이 양분되어 있는 등 연령에 따른 인식차가 있었다($\chi^2=36.332$, $p < .05$).
 -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46.4%)와 읍면 지역(48.3%) 모두 ‘보통이다’ 비율이 가장 높아,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중소도시의 긍정응답

- (39.3%) 비율이 대도시(25.1%)와 읍면 지역(11.5) 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45.164$, $p< .05$).
-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 인식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44.0%)과 대학 재학, 졸업(33.5%) 집단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반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18.5%)는 ‘그렇다’보다 ‘보통이다’(48.1%)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chi^2=48.085$, $p< .05$).
 - 직업 유무에 따라, 직업이 있는 응답자는 긍정 인식(33.2%)이 직업이 없는 응답자(21.5%)보다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직업이 없는 집단(17.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chi^2=17.722$, $p< .05$).
 - 장애 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의 긍정 응답(28.0%)이 ‘심한 장애’(17.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응답도 심하지 않은 장애(38.8%)가 심한 장애(29.3%)보다 높았다($\chi^2=42.715$, $p< .05$).
- 따라서 점자가 사회 소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낮으며, 특히 심한 장애인·고령층·직업이 없는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고학력·경제활동 참여 집단일수록 긍정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점자 활용 경험이나 사회적 참여 기회가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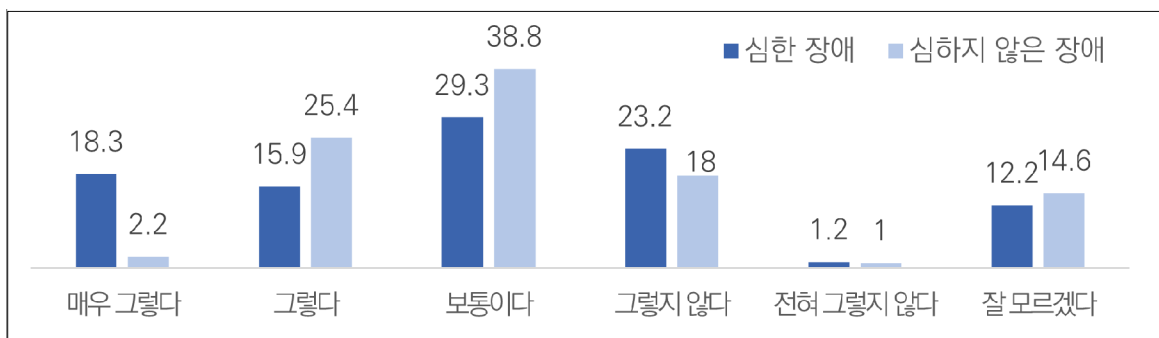
〈표 I -76〉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사회적 소통과 통합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80	15.7	178	35.0	129	25.3	62	12.2	6	1.2	54	10.6	509	100.0	11.937*
	여성	75	15.3	210	42.8	127	25.9	41	8.4	5	1.0	33	6.7	491	100.0	
연령	20대	16	10.0	63	39.4	58	36.3	9	5.6	3	1.9	11	6.9	160	100.0	43.937*
	30대	160	100.0	62	34.3	57	31.5	30	16.6	2	1.1	11	6.1	181	100.0	
	40대	36	17.2	80	38.3	51	24.4	20	9.6	3	1.4	19	9.1	209	100.0	
	50대	42	17.8	97	41.1	52	22.0	23	9.7	1	0.4	21	8.9	236	100.0	
	60대	42	19.6	86	40.2	38	17.8	21	9.8	2	0.9	25	11.7	21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8	21.6	16	43.2	7	18.9	4	10.8	0	0.0	2	5.4	37	100.0	17.953
	중소도시(동)	90	19.9	169	37.3	105	23.2	43	9.5	6	1.3	40	8.8	453	100.0	
	대도시(동)	57	11.2	203	39.8	144	28.2	56	11.0	5	1.0	45	8.8	510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25.0	4	25.0	2	12.5	1	6.3	1	6.3	4	25.0	16	100.0	39.454*
	중학교 졸업	2	5.3	21	55.3	4	10.5	7	18.4	0	0.0	4	10.5	38	100.0	
	고등학교 졸업	51	15.1	143	42.4	73	21.7	32	9.5	3	0.9	35	10.4	337	100.0	
	대학 재학, 졸업	89	15.5	209	36.3	171	29.7	58	10.1	7	1.2	42	7.3	576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9	27.3	11	33.3	6	18.2	5	15.2	0	0.0	2	6.1	33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112	15.0	273	36.5	208	27.8	82	11.0	8	1.1	65	8.7	748	100.0	11.528*
	직업 무	43	17.1	115	45.6	48	19.0	21	8.3	3	1.2	22	8.7	252	100.0	
가족 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21	26.3	29	36.3	13	16.3	10	12.5	2	2.5	5	6.25	80	100.0	12.156*
	없다	134	14.6	359	39.0	243	26.4	93	10.1	9	1.0	82	8.91	920	100.0	
전체		155	15.5	388	38.8	256	25.6	103	10.3	11	1.1	87	8.7	1,000	100.0	

* $p < .05$

〈표 I -77〉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17	5.0	90	26.5	117	34.5	63	18.6	2	0.6	50	14.7	339	100.0	7.518
	여성	7	4.4	29	18.1	69	43.1	31	19.4	3	1.9	21	13.1	160	100.0	
연령	20대	3	5.4	17	30.4	13	23.2	11	19.6	1	1.8	11	19.6	56	100.0	36.332*
	30대	3	8.1	7	18.9	16	43.2	6	16.2	0	0.0	5	13.5	37	100.0	
	40대	3	6.8	13	29.5	17	38.6	5	11.4	1	2.3	5	11.4	44	100.0	
	50대	10	5.8	46	26.9	45	26.3	42	24.6	3	1.8	25	14.6	171	100.0	
	60대	5	2.6	36	18.8	95	49.7	30	15.7	0	0.0	25	13.1	191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0	0.0	10	11.5	42	48.3	19	21.8	2	2.3	14	16.1	87	100.0	45.164*
	중소도시(동)	13	6.5	67	33.3	46	22.9	45	22.4	1	0.5	29	14.4	201	100.0	
	대도시(동)	11	5.2	42	19.9	98	46.4	30	14.2	2	0.9	28	13.3	211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5	18.5	13	48.1	4	14.8	0	0.0	5	18.5	27	100.0	48.085*
	중학교 졸업	0	0.0	10	22.2	21	46.7	6	13.3	0	0.0	8	17.8	45	100.0	
	고등학교 졸업	3	1.6	40	21.5	67	36.0	44	23.7	4	2.2	28	15.1	186	100.0	
	대학 재학, 졸업	12	6.0	55	27.5	70	35.0	35	17.5	1	0.5	27	13.5	2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9	22.0	9	22.0	15	36.6	5	12.2	0	0.0	3	7.3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21	6.9	80	26.3	112	36.8	49	16.1	5	1.6	37	12.2	304	100.0	17.722*
	직업 무	3	1.5	39	20.0	74	37.9	45	23.1	0	0.0	34	17.4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5	18.3	13	15.9	24	29.3	19	23.2	1	1.2	10	12.2	82	100.0	42.715*
	심하지 않은 장애	9	2.2	106	25.4	162	38.8	75	18.0	4	1.0	61	14.6	417	100.0	
전체		24	4.8	119	23.8	186	37.3	94	18.8	5	1.0	71	14.2	4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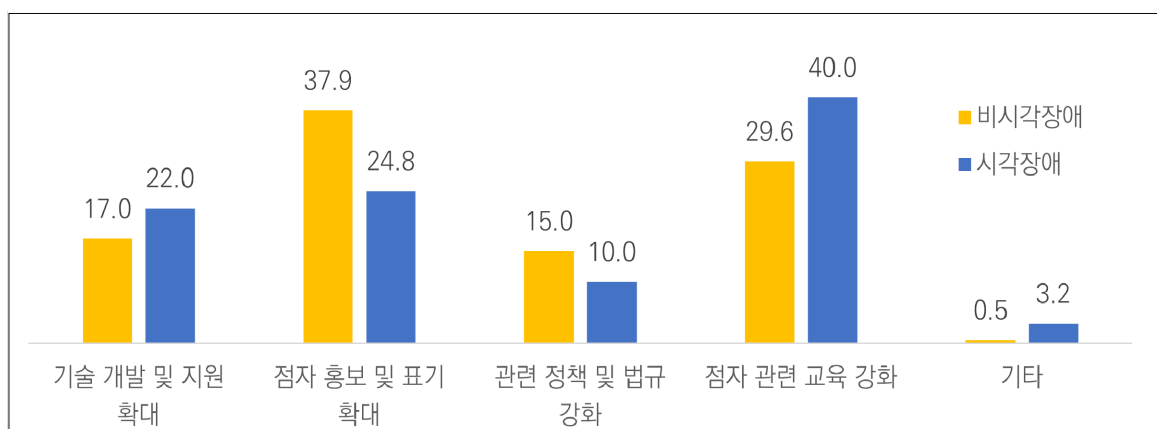
* $p < .05$ 

[그림 I -47] 사회적 소통에 점자가 기여하는지 여부에 관한 장애 정도별 인식(단위: %)

(2) 점자 인식 개선에서 정부의 역할(공통)

문14(비시각)
문18(시각)

점자 인식을 개선하려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I-4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

<표 I-7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점자 관련 교육 강화	기타	전체	χ^2
비시각장애	n	170	379	150	296	5	1000	56.033*
	%	17.0	37.9	15.0	29.6	0.5	100.0	
시각장애	n	110	124	50	200	16	500	
	%	22.0	24.8	10.0	40.0	3.2	100.0	

* $p < .05$

가. 전체 조사 결과

- ‘점자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36.2%)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점자 관련 교육 강화’(31.0%),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18.7%),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12.5%) 순으로 나타났다.

- 시각장애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보면, 비시각장애인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37.9%)와 ‘점자 관련 교육 강화’(29.6%)를 중점 과제로 인식한 반면, 시각장애인은 ‘점자 관련 교육 강화’(40.0%)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24.8%),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22.0%) 순으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chi^2=56.033$, $p<.05$).
- 시각장애인은 실질적인 점자 활용 역량 제고와 접근성 강화를 중시하고, 비시각장애인은 사회 전반의 인식 확산과 표기 확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집단 간 인식 방향 차이가 확인된다.
- 종합적으로, 전체 국민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점자 표기 확산·교육 강화·기술 지원·정책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 비시각장애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7.9%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29.6%가 ‘점자 관련 교육 강화’를 선택하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인식 개선에 필요한 홍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는 17.0%,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는 15.0%로 나타났다.
- 비시각장애인의 집단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에서는 유의한 인식 차이가 없었다.
 - 성별로는 여성(38.3%)이 남성(37.5%)보다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를 다소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43.6%)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60대(36.0%)와 20대(38.8%)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48.6%)과 중소도시(40.6%)에서 점자 홍보·표기 확대 응답이 높게 나타나, 지방 거주자일수록 점자 인식과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졸업 집단(41.8%)에서 가장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점자 인식 개선에서 홍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직업이 있는 응답자(40.0%)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31.7%)보다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를 더 높게 선택하였으며, 가족이나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는 응답자는 ‘점자 관련 교육 강화’(32.5%)의 비율이 높았다.

다.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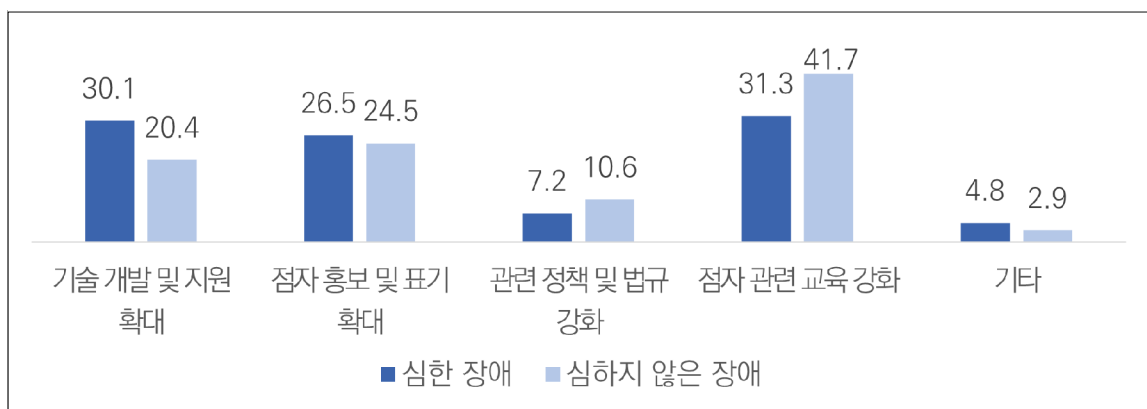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0.0%가 ‘점자 관련 교육 강화’를, 24.8%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22.0%가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라고 응답하여, 점자 활용 역량 향상과 기술 접근성 개선을 정부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는 10.0%에 그쳤다.
- 시각장애인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에서 집단 간 유의한 인식 차이는 없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해서, 남성(39.8%)과 여성(40.4%) 모두 ‘점자 교육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47.9%)와 50대(36.8%), 40대(43.2%)에서 ‘점자 관련 교육 강화’를 우선순위로 꼽았고, 30대(32.4%)와 20대(33.9%)는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를 꼽아서, 고연령층일수록 점자 학습 및 활용 기회 확대를 원하였으며, 젊은 층일수록 정부의 점자 홍보와 표기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대도시(36.8%)와 읍면 지역(43.7%) 모두 ‘점자 관련 교육 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점자 교육의 접근성 확대가 시각장애인 공통의 요구로 나타났다.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응답자에서 ‘점자 교육 강화’(42~66%)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에서는 ‘점자 홍보·표기 확대’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는 점자 학습 경험과 활용 역량에 따라 정부의 역할 인식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직업이 있는 응답자(38.0%)보다 직업이 없는 응답자(43.1%)가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였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응답자(31.3%)보다 심하지 않은 응답자(41.7%)가 교육 강화 요구를 더 강하게 제기하였다.
- 따라서 비시각장애인은 점자 홍보와 표기의 확대로 점자 인식 확산에 대한 요구를 보인 반면, 시각장애인은 점자 교육 및 기술 개발 등 정부가 실질적 학습 기회 제공, 점자 기술·매체 접근성 개선, 생활 속 점자 표기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 -79〉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비시각장애인)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점자 관련 교육 강화		기타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89	17.5	191	37.5	80	15.7	146	28.7	3	0.6	509	100.0	0.997
	여성	81	16.5	188	38.3	70	14.3	150	30.5	2	0.4	491	100.0	
연령	20대	31	19.4	62	38.8	27	16.9	38	23.8	2	1.3	160	100.0	17.718
	30대	29	16.0	72	39.8	29	16.0	50	27.6	1	0.6	181	100.0	
	40대	37	17.7	71	34.0	38	18.2	62	29.7	1	0.5	209	100.0	
	50대	35	14.8	103	43.6	28	11.9	69	29.2	1	0.4	236	100.0	
	60대	38	17.8	71	33.2	28	13.1	77	36.0	0	0.0	21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7	18.9	18	48.6	1	2.7	11	29.7	0	0.0	37	100.0	15.485
	중소도시(동)	69	15.2	184	40.6	56	12.4	142	31.3	2	0.4	453	100.0	
	대도시(동)	94	18.4	177	34.7	93	18.2	143	28.0	3	0.6	510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25.0	1	6.3	4	25.0	7	43.8	0	0.0	16	100.0	28.780
	중학교 졸업	4	10.5	11	28.9	2	5.3	21	55.3	0	0.0	38	100.0	
	고등학교 졸업	62	18.4	115	34.1	55	16.3	104	30.9	1	0.3	337	100.0	
	대학 재학, 졸업	92	16.0	241	41.8	83	14.4	156	27.1	4	0.7	576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8	24.2	11	33.3	6	18.2	8	24.2	0	0.0	33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127	17.0	299	40.0	106	14.2	214	28.6	2	0.3	748	100.0	8.923
	직업 무	43	17.1	80	31.7	44	17.5	82	32.5	3	1.2	252	100.0	
가족 지인 시각장애 여부	있다	10	12.5	28	35.0	16	20.0	26	32.5	0	0.0	80	100.0	3.360
	없다	160	17.4	351	38.2	134	14.6	270	29.3	5	0.5	920	100.0	
전체		170	17.0	379	37.9	150	15.0	296	29.6	5	0.5	1,000	100.0	

〈표 I -80〉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점자 관련 교육 강화		기타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72	21.2	82	24.2	40	11.8	135	39.8	10	2.9	339	100.0	4.059
	여성	38	23.6	42	26.1	10	6.2	65	40.4	6	3.7	161	100.0	
연령	20대	11	19.6	19	33.9	9	16.1	15	26.8	2	3.6	56	100.0	29.452
	30대	4	10.8	12	32.4	7	18.9	11	29.7	3	8.1	37	100.0	
	40대	13	29.5	8	18.2	4	9.1	19	43.2	0	0.0	44	100.0	
	50대	47	27.5	41	24.0	13	7.6	63	36.8	7	4.1	171	100.0	
	60대	35	18.2	44	22.9	17	8.9	92	47.9	4	2.1	19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9	21.8	22	25.3	6	6.9	38	43.7	2	2.3	87	100.0	7.680
	중소도시(동)	45	22.4	43	21.4	19	9.5	84	41.8	10	5.0	201	100.0	
	대도시(동)	46	21.7	59	27.8	25	11.8	78	36.8	4	1.9	212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22.2	1	3.7	2	7.4	18	66.7	0	0.0	27	100.0	22.303
	중학교 졸업	11	24.4	10	22.2	2	4.4	20	44.4	2	4.4	45	100.0	
	고등학교 졸업	41	21.9	46	24.6	16	8.6	79	42.2	5	2.7	187	100.0	
	대학 재학, 졸업	43	21.5	55	27.5	23	11.5	73	36.5	6	3.0	2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9	22.0	12	29.3	7	17.1	10	24.4	3	7.3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72	23.6	75	24.6	31	10.2	116	38.0	11	3.6	305	100.0	2.113
	직업 무	38	19.5	49	25.1	19	9.7	84	43.1	5	2.6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25	30.1	22	26.5	6	7.2	26	31.3	4	4.8	83	100.0	6.552
	심하지 않은 장애	85	20.4	102	24.5	44	10.6	174	41.7	12	2.9	417	100.0	
전체		110	22.0	124	24.8	50	10.0	200	40.0	16	3.2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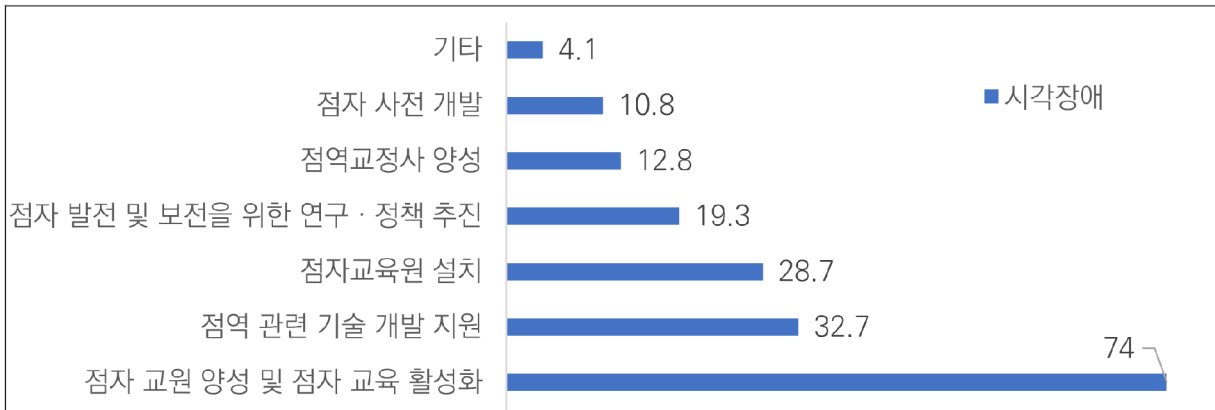


[그림 I -49]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장애 정도별 인식

(3)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시각)

문16(시각)

점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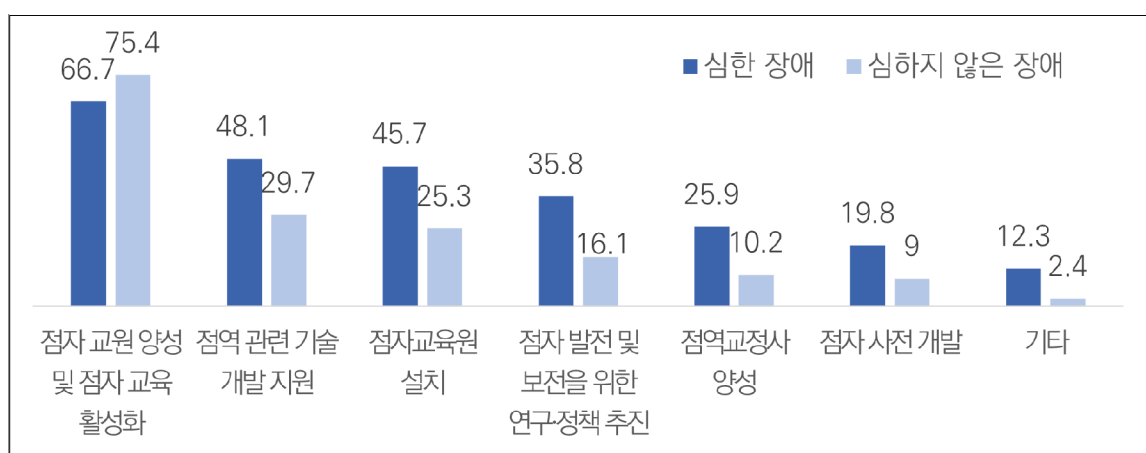


[그림 I -50]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단위: %)

-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인의 74%는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점역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32.7%)과 ‘점자교육원 설치’(28.7%)로 응답하였다.
- 시각장애인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없었다.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높은 60대와 50대에서 점자 교원 양성과 점자 교육 활성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50대(34.5%)와 30대(37.8%)에서는 ‘기술 개발 및 지원’ 비율이 다소 높았다.
 - 최종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직업이 있을 수록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기술 개발과 연구 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직업이 있는 집단일수록 점자 교육원 설치와 점역 교정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보면, 점자 교원 양성과 점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점자 교육원의 설치와 점역 교정사 양성 등 전반적인 점자 역량의 강화와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 -81〉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중복)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점자 사전 개발		점자교육원 설치		점역·교정사 양성		점역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정책 추진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		기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37	11.1	94	28.3	41	12.3	106	31.9	68	20.5	244	73.5	14	4.2	332	100.0
	여성	16	10.0	47	29.4	22	13.8	55	34.4	27	16.9	120	75.0	6	3.8	160	100.0
연령	20대	10	18.2	15	27.3	7	12.7	23	41.8	10	18.2	34	61.8	5	9.1	55	100.0
	30대	5	13.5	16	43.2	11	29.7	14	37.8	9	24.3	27	73.0	1	2.7	37	100.0
	40대	7	15.9	14	31.8	4	9.1	9	20.5	11	25.0	28	63.6	0	0.0	44	100.0
	50대	21	12.5	56	33.3	28	16.7	58	34.5	37	22.0	119	70.8	8	4.8	168	100.0
	60대	10	5.3	40	21.3	13	6.9	57	30.3	28	14.9	156	83.0	6	3.2	188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4	4.7	17	19.8	6	7.0	28	32.6	13	15.1	68	79.1	3	3.5	86	100.0
	중소도시(동)	26	13.1	68	34.3	33	16.7	55	27.8	52	26.3	143	72.2	16	8.1	198	100.0
	대도시(동)	23	11.1	56	26.9	24	11.5	78	37.5	30	14.4	153	73.6	1	0.5	208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0	0.0	4	16.0	0	0.0	7	28.0	2	8.0	22	88.0	1	4.0	25	100.0
	중학교 졸업	2	4.4	7	15.6	1	2.2	14	31.1	6	13.3	32	71.1	0	0.0	45	100.0
	고등학교 졸업	21	11.5	43	23.5	18	9.8	51	27.9	28	15.3	146	79.8	6	3.3	183	100.0
	대학 재학, 졸업	27	13.6	69	34.8	35	17.7	66	33.3	44	22.2	133	67.2	8	4.0	198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3	7.3	18	43.9	9	22.0	23	56.1	15	36.6	31	75.6	5	12.2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35	11.7	93	31.1	47	15.7	102	34.1	63	21.1	217	72.6	12	4.0	299	100.0
	직업 무	18	9.3	48	24.9	16	8.3	59	30.6	32	16.6	147	76.2	8	4.1	193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6	19.8	37	45.7	21	25.9	39	48.1	29	35.8	54	66.7	10	12.3	81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7	9.0	104	25.3	42	10.2	122	29.7	66	16.1	310	75.4	10	2.4	411	100.0
전체		53	10.8	141	28.7	63	12.8	161	32.7	95	19.3	364	74.0	20	4.1	4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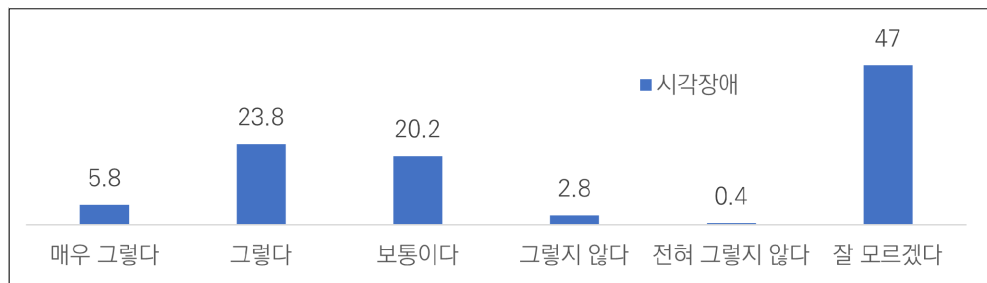


[그림 I -51]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단위: %)

(4)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여부(시각)

문17(시각)

최근 디지털 점자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점자 기기가 문자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림 I-52]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단위: %)

- 디지털 점자 기기가 문자 사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시각장애인 조사 결과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으며 ‘그렇다’ 23.8%, ‘매우 그렇다’ 5.8%, ‘보통이다’ 20.2%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은 매우 낮으나, 긍정 응답 역시 29.6% 수준으로, 절반 가량이 아직 체감적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단계임을 보여준다.
-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연령·거주 지역·학력·직업·장애 유형 등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31.6%)이 여성(25.5%)보다 긍정 응답이 높았으며, 여성의 절반 이상(57.1%)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디지털 점자 활용 경험의 성별 격차가 확인되었다($\chi^2=17.444$, $p<.05$).
 - 연령별로는 20대(44.7%)와 30대(35.1%)의 긍정 인식이 높고, 60대는 ‘보통이다’(25.5%)와 ‘잘 모르겠다’(52.1%)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 기술 활용 격차가 존재하였다($\chi^2=39.329$, $p<.05$).
 -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77.0%)의 ‘잘 모르겠다’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아, 농촌 지역의 디지털 점자 접근성이 낮음을 시사하였다. 중소도시(43.8%)와 대도시(37.7%)에서는 ‘잘 모르겠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디지털 기기 이용 경험이 많은 지역일수록 긍정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chi^2=75.494$, $p<.05$).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48.8%) 집단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긍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36.67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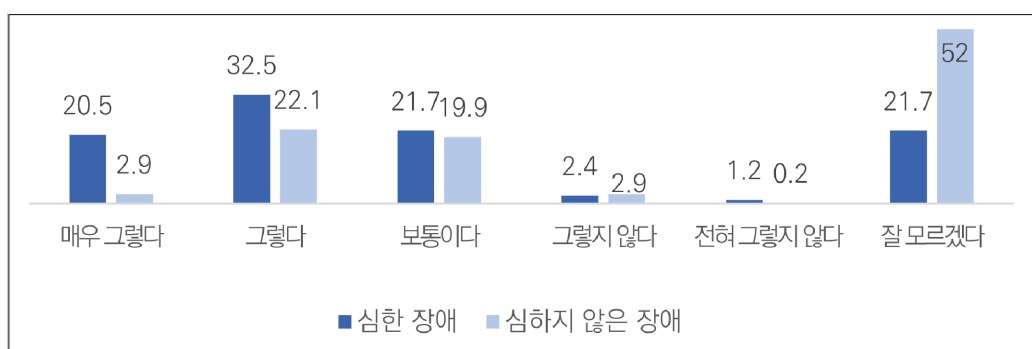
- 직업이 있는 응답자(35.1%)가 직업이 없는 응답자(21.1%)보다 긍정 인식이 높았고 ($\chi^2=16.583$, $p < .05$), 심한 장애인(53.0%)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25%) 보다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을 높이 평가하였다($\chi^2=55.516$, $p < .05$).

○ 즉, 디지털 점자 기기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은 확산 단계에 있으며, 연령·거주 지역·교육 수준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82〉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성	24	7.1	83	24.5	78	23.0	11	3.2	0	0.0	143	42.2	339	100.0	17.444*
	여성	5	3.1	36	22.4	23	14.3	3	1.9	2	1.2	92	57.1	161	100.0	
연령	20대	2	3.6	23	41.1	11	19.6	4	7.1	0	0.0	16	28.6	56	100.0	39.329*
	30대	4	10.8	9	24.3	7	18.9	2	5.4	0	0.0	15	40.5	37	100.0	
	40대	3	6.8	10	22.7	10	22.7	0	0.0	1	2.3	20	45.5	44	100.0	
	50대	11	6.4	47	27.5	24	14.0	4	2.3	1	0.6	84	49.1	171	100.0	
	60대	9	4.7	30	15.6	49	25.5	4	2.1	0	0.0	100	52.1	192	100.0	
	70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0	0.0	8	9.2	11	12.6	1	1.1	0	0.0	67	77.0	87	100.0	75.494*
	중소도시(동)	18	9.0	61	30.3	22	10.9	10	5.0	2	1.0	88	43.8	201	100.0	
	대도시(동)	11	5.2	50	23.6	68	32.1	3	1.4	0	0.0	80	37.7	212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	3.7	3	11.1	5	18.5	1	3.7	0	0.0	17	63.0	27	100.0	36.673*
	중학교 졸업	0	0.0	6	13.3	12	26.7	1	2.2	0	0.0	26	57.8	45	100.0	
	고등학교 졸업	8	4.3	41	21.9	32	17.1	7	3.7	1	0.5	98	52.4	187	100.0	
	대학 재학, 졸업	13	6.5	56	28.0	45	22.5	4	2.0	0	0.0	82	41.0	2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7	17.1	13	31.7	7	17.1	1	2.4	1	2.4	12	29.3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24	7.9	83	27.2	59	19.3	10	3.3	2	0.7	127	41.6	305	100.0	16.583*
	직업 무	5	2.6	36	18.5	42	21.5	4	2.1	0	0.0	108	55.4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7	20.5	27	32.5	18	21.7	2	2.4	1	1.2	18	21.7	83	100.0	55.516*
	심하지 않은 장애	12	2.9	92	22.1	83	19.9	12	2.9	1	0.2	217	52.0	417	100.0	
전체		29	5.8	119	23.8	101	20.2	14	2.8	2	0.4	235	47.0	500	100.0	

* $p < .05$



[그림 I-53]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단위: %)

7) 점자 문해 여부에 따른 인식 분석

- 시각장애인 조사의 문항 1번 응답을 기준으로 점자 문해 집단(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집단)과 비문해 집단(점자를 읽고 쓸 수 없는 집단)으로 구분한 뒤, 두 집단의 점자 인식 수준과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 -83〉 점자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에 따른 응답자 분포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여부			예		아니요		전체		χ^2
			n	%	n	%	n	%	
성별	남성		48	14.2	290	85.8	338	100.0	0.044
	여성		24	14.9	137	85.1	161	100.0	
연령	20대		8	14.3	48	85.7	56	100.0	11.122*
	30대		12	32.4	25	67.6	37	100.0	
	40대		6	13.6	38	86.4	44	100.0	
	50대		24	14.1	146	85.9	170	100.0	
	60대		22	11.5	170	88.5	19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2	2.3	85	97.7	87	100.0	19.145*
	중소도시(동)		25	12.4	176	87.6	201	100.0	
	대도시(동)		45	21.3	166	78.7	211	10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7.4	25	92.6	27	100.0	31.544*
	중학교 졸업		1	2.2	44	97.8	45	100.0	
	고등학교 졸업		16	8.6	171	91.4	187	100.0	
	대학교졸업(재학)		38	19.1	161	80.9	199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15	36.6	26	63.4	41	100.0	
직업 유무	직업 유		59	19.4	245	80.6	304	100.0	15.620*
	직업 무		13	6.7	182	93.3	195	100.0	
장애 정도	심한 장애	활자 못 읽음	40	80.0	10	20.0	50	100.0	247.936*
		확대 활자 읽음	18	54.5	15	45.5	33	100.0	
		계	58	69.9	25	30.1	83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읽는 것 불편함	8	5.8	129	94.2	137	100.0	
		읽을 수 있음	6	2.2	273	97.8	279	100.0	
		계	14	3.4	402	96.6	416	100.0	

* $p < .05$

-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 직업 여부, 장애 정도에서 점자 문해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30대(32.4%)에서 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60대(11.5%)에서 가장 낮으며, 대도시일수록 점자 문해율이 높고, 읍·면 지역(2.3%)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에 따른 점자 문해의 차이는 점자 교육의 접근성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점자 문해율이 증가(대학원 36.6%)하며, 직업이 있는 경우 문해율이 높다(19.4% & 6.7%). 즉 점자 문해가 사회참여, 경제활동과 연계됨을 시사한다.
- 점자 문해 여부는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수준, 직업 여부, 장애 정도 등 다양한 배경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직업 보유자의 점자 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점자 교육 접근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차이가 점자 문해 수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 특히 심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점자가 이들에게 필수적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활자를 읽지 못하는 심한 시각장애인의 20%는 점자를 읽고 쓸 수 없어, 이들 집단에 대한 점자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 -84〉 점자인지에 대한 점자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의 응답

2. 점자 형식에 대한 인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점자 문해 집단	72	100.0	0	0.0	72	100.0	271.7*
점자 비문해 집단	46	10.8	381	89.2	427	100.0	
전체	118	23.6	381	76.4	499	100.0	

* $p < .05$

- 점자 문해 집단에서는 모든 응답자(100.0%)가 점자 형식을 ‘안다’고 응답하여, 점자 형식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점자 비문해 집단에서는 ‘안다’ 응답이 10.8%에 불과하고, 89.2%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점자 형식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점자 문해 여부가 점자 형식에 대한 인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I-85〉 점자가 국가에서 정한 문자라는 사실 인지에 대한 응답

3. 점자가 국가에서 정한 문자 인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점자 문해 집단	65	90.3	7	9.7	72	100.0	31.1*
점자 비문해 집단	237	55.5	190	44.5	427	100.0	
전체	302	60.5	197	39.5	499	100.0	

* $p < .05$

- 점자 문해 집단의 경우, 90.3%가 점자가 국가에서 정한 문자임을 ‘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점자 비문해 집단은 55.5%만이 ‘안다’고 응답해 문해 집단에 비해 인지율이 낮았으며, 44.5%는 이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인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86〉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점자법에 대한 인지 여부

4. 공공 기관 등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점자 문서 제공에 관한 점자법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전체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점자 문해 집단	59	81.9	13	18.1	72	100.0	82.1*
점자 비문해 집단	115	26.9	312	73.1	427	100.0	
전체	174	34.9	325	65.1	499	100.0	

* $p < .05$

- 점자 문해 집단에서는 81.9%가 해당 점자법 내용을 ‘안다’고 응답해 법적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18.1%만이 ‘모른다’고 응답해 문해 집단은 대체로 법 조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점자 비문해 집단에서는 26.9%만이 ‘안다’고 응답했으며, 73.1%가 ‘모른다’고 답해 법적 권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교차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인지 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며, 이는 점자 문해 여부가 점자법 인지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 -87〉 점자를 주로 사용할 때에 관한 집단 비교(복수 응답)

6. 점자를 주로 사용할 때	점자 문해 집단		점자 비문해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학습을 하거나 서적을 읽을 때	42	67.7	1	4.0	43	49.4
공공 문서를 읽을 때	23	37.1	0	0.0	23	26.4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23	37.1	5	20.0	28	32.2
시설물을 이용할 때	21	33.9	4	16.0	25	28.7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29	46.8	1	4.0	30	34.5
생활용품을 이용할 때	16	25.8	2	8.0	18	20.7
업무를 볼 때	23	37.1	1	4.0	24	27.6
기타	5	8.1	14	56.0	19	21.8
전체	62	100.0	25	100.0	87	100.0

- 점자 문해 집단은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점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학습·서적 읽기(67.7%), 일상생활·보행(46.8%), 공공 문서와 업무를 볼 때(37.1%) 등으로 나타났다.
- 학습이나 일상생활과 보행, 공공 문서 등 반복적인 학습과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영역에서 점자의 보급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 -88〉 점자 사용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집단 비교

7. 점자 사용에서 어려움	점자 문해 집단		점자 비문해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점자 자료의 부족	28	43.8	3	8.3	31	31.0
점자 인쇄 품질 문제	7	10.9	1	2.8	8	8.0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35	54.7	3	8.3	38	38.0
점자가 제공되는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17	26.6	4	11.1	21	21.0
점자 사용이 미숙해서	15	23.4	31	86.1	46	46.0
기타	7	10.9	3	8.3	10	10.0
전체	64	100.0	36	100.0	100	100.0

- 점자 문해 집단에서는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54.7%)과 “점자 자료의 부족”(43.8%)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점자 인프라 자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환경 문제가 주요 장애 요인임을 보여준다. 반면 점자 비문해 집단에서는 “점자 사용이 미숙해서”(86.1%)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자를 읽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자 자체를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경 문제나 자료 부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89〉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 및 학습 의향에 관한 집단 비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t
5.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	점자 문해 집단	72	2.94	1.14	14.390*
	점자 비문해 집단	427	1.01	0.14	
8. 점자 학습 의향	점자 문해 집단	72	3.44	1.232	6.730*
	점자 비문해 집단	427	2.34	1.295	

* $p < .05$

** 5.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에 관한 문항은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 4. 매우 자주 사용한다는 4점 척도로 조사함

- 일상 생활에서 점자를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점자 문해 집단은 대체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비문해 집단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점자 문해 집단은 실제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점자 학습 의향을 보면, 점자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있지만, 실제 집단 내에서도 표준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하면 집단 간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다.
 - 즉 문해 집단은 점자를 알고 있음에도 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점자 활용 경험이 긍정적 효능감에 기여함을 의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가 필요함을 더욱 부각해 준다.
 - 비문해 집단은 점자가 어렵거나 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점자 느낌에 관한 조사 결과인 점자 친근감 또는 학습 용이성 평가에서도 낮게 나타나, 심리적 인지적 장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 -90〉 점자 대신 음성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응답 비교

9. 점자 대신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점자 문해 집단		점자 비문해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학습이나 서적을 읽을 때	42	66.7	30	41.7	72	53.3
공공 문서를 읽을 때	20	31.7	8	11.1	28	20.7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15	23.8	15	20.8	30	22.2
시설물을 이용할 때	12	19.0	6	8.3	18	13.3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29	46.0	22	30.6	51	37.8
생활용품을 이용할 때	11	17.5	4	5.6	15	11.1
업무를 볼 때	18	28.6	5	6.9	23	17.0
기타	6	9.5	16	22.2	22	16.3
전체	63	100.0	72	100.0	135	100.0

- 일상에서 점자 대신 음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해 집단의 음성 서비스 사용이 많으며, 특히 ‘학습하거나 서적을 읽을 때’가 문해 집단 66.7%, 비문해 집단 41.7%이고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문해 집단 46.0%, 비문해 집단 30.6%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문해 집단과 비문해 집단 모두 음성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 즉, 점자 문해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 서비스는 정보 접근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며, 점자 문해 집단은 점자와 음성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점자 문해 집단은 점자에 더해 음성서비스도 높은 비율로 병행 사용해 점자와 음성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 한편으로는 점자 사용의 필요성이 높은 환경과 음성 서비스 활용이 보다 유용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점자 접근성 확대를 비롯한 시각장애인 언어 생활 지원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표 I -91〉 점자의 느낌에 관한 집단 비교

10. 점자에 대한 느낌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t
Q10_1. 점자 유용성	점자 문해 집단	72	4.32	0.747	2.882*
	점자 비문해 집단	427	4.04	0.757	
Q10_2. 점자 배움의 용이성	점자 문해 집단	72	2.92	0.975	5.166*
	점자 비문해 집단	427	2.30	0.635	
Q10_3. 점자 사용 편리성	점자 문해 집단	72	3.47	1.021	5.051*
	점자 비문해 집단	427	2.84	0.773	
Q10_4. 점자 친근감	점자 문해 집단	72	3.64	0.997	7.768*
	점자 비문해 집단	427	2.68	0.807	
Q10_5. 점자 단순성	점자 문해 집단	72	2.81	0.866	2.276*
	점자 비문해 집단	427	2.59	0.711	

* $p < .05$

- 점자 문해 집단은 점자의 유용성, 친근감, 편리성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문해 집단보다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비문해 집단은 점자를 어렵고 복잡하며 낯선 체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 점자 문해가 점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의 요인이기도 하므로 점자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과 쉬운 점자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점자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점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자 학습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도 영향을 미치므로 점자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점자에 좀 더 친숙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표 I -92〉 점자의 중요성 및 영향에 관한 집단 비교

구분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t
11. 자립생활에서 점자의 중요성	점자 문해 집단	70	4.17	0.884	2.955*
	점자 비문해 집단	387	3.82	0.924	
12. 일상에서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점자 문해 집단	70	3.10	0.995	-3.317*
	점자 비문해 집단	349	3.51	0.933	
13. 일상에서 점자가 충분한지 여부	점자 문해 집단	71	2.48	0.892	-0.537
	점자 비문해 집단	341	2.54	0.862	
14.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충분한지 여부	점자 문해 집단	70	2.40	0.891	0.219
	점자 비문해 집단	357	2.38	0.690	
15. 점자가 소통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	점자 문해 집단	64	3.55	1.097	3.294*
	점자 비문해 집단	363	3.07	0.799	
17. 디지털 점자 기기가 문자 사용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점자 문해 집단	66	3.86	0.839	3.231*
	점자 비문해 집단	198	3.51	0.745	

* $p < .05$

- 점자 문해 집단은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적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비문해 집단은 문해 집단보다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또 일상에서 점자가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과 점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한지에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 인식이 있다.
- 두 집단 모두 점자 환경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점자 문해 집단에서 점자가 자립생활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더 강하게 인식하는 점은 점자가 단순한 문자 도구가 아니라 사회 참여, 이동, 교육, 공공 정보 접근 등 포괄적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임을 말해준다.
- 디지털 점자 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 현대적 디지털 점자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 필요성이 확인된다.

〈표 I-93〉 점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 응답 비교

16. 점자 발전에 필요한 일	점자 문해 집단		점자 비문해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점자 사전 개발	13	18.3%	40	9.5%	53	10.8%
점자교육원 설치	32	45.1%	109	26.0%	141	28.7%
점역·교정사 양성	21	29.6%	42	10.0%	63	12.8%
점역 관련 기술 개발 지원	37	52.1%	124	29.5%	161	32.8%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정책 추진	24	33.8%	71	16.9%	95	19.3%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	46	64.8%	317	75.5%	363	73.9%
기타	7	9.9%	13	3.1%	20	4.1%
전체	71	100.0%	420	100.0%	491	100.0%

- 점자 문해 집단은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64.8%), ‘점역 관련 기술 개발 지원’(52.1%), ‘점자교육원 설치’(45.1%)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이는 점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전문 교육기관 확대와 기술·환경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점자 비문해 집단에서도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75.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이어 점역 기술 개발 지원(29.5%), 점자교육원 설치(26.0%) 등이 뒤를 이었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집단 역시 교육 접근성 확대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94〉 18_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응답 비교

18_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점자 문해 집단		점자 비문해 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18	25.0%	92	21.5%	110	22.0%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17	23.6%	107	25.1%	124	24.8%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10	13.9%	40	9.4%	50	10.0%
점자 관련 교육 강화	23	31.9%	176	41.2%	199	39.9%
기타	4	5.6%	12	2.8%	16	3.2%
전체	72	100.0%	427	100.0%	499	100.0%

- 점자 문해 집단은 ‘점자 관련 교육 강화’(31.9%)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25.0%),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교육과 기술적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점자 비문해 집단 역시 ‘점자 관련 교육 강화’(41.2%)를 가장 중요하게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 교육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보았다. 이어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25.1%),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21.5%) 순으로 나타나, 비문해 집단도 홍보와 표기 확대를 바탕으로 한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 이번 조사는 국민 1,500명(비시각장애인 1,000명, 시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점자 인지도, 사용 현황, 국가 지정 문자로서 인식, 공공서비스 인지, 점자 학습 및 경험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정도와 정보 접근성, 포용적 소통 환경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1) 점자 인지도

- 비시각장애인 응답자 100%가 점자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구체적인 점자 형태(6점 구성)를 알고 있는 사람은 22.8%에 불과했다.
-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은 14.4%로 나타났다. 특히 고연령층(60대 이하 11.5%)과 읍면 지역 거주자, 저학력층, 무직자, 그리고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를 읽고 쓰는 빈도가 낮았다. 점자 활용 능력은 도시 거주, 고학력, 직업 유무, 심한 시각장애 여부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식률은 전체 50.0%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60.4%)이 비시각장애인(44.8%)보다 높았다. 여성과 ‘시각장애인 가족·지인을 둔 사람’의 인식률이 높았으며, 특히 20~30대 시각장애인 층에서 점자를 공식 문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전체 28%로 매우 낮아, 점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점자 경험

- 비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승강기 버튼(93.6%)이었으며, 이어 계단 손잡이(33.1%), 화장실 입구(31.6%) 등이었다. 점자 사용 환경은 물리적 표식에 한정되어 있으며, 점자 도서·명함 등 지식 정보 접근형 경험은 10% 이하로 매우 낮았다.
- 점자 학습 경험은 비시각장애인의 3.4%에 불과하며, 주요 학습 동기는 ‘봉사활동 목적(26.4%)’과 ‘가족·지인 중 시각장애인 존재(20.5%)’였다. 점자를 학습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52.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로 학습·직장·공공 서비스 환경에서 경험했으며, 점자 서비스 부족(약 70%)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사용하는 비율은 9.4%에 불과하며, 점자를 주로 학습·직장·공공 서비스 환경에서 경험했으며, 점자 서비스 부족(약 70%)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 시각장애인 중 점자 대신 음성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는 학습(53.3%)이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및 보행(37.8%), 교통수단(22.2%), 공문서(20.7%) 등으로 생활 전반에서 음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점자 학습 의향은 비시각장애인(24.8%)에 비하여 시각장애인(34.8%)이 더 높았으며, 부정 응답 비율 역시 비시각장애인(39.2%)에 비하여 시각장애인(59.8%)이 더 높았다.
- 점자 학습 의향 결과는 두 집단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비시각장애인은 긍정 응답 24.8%, 부정 응답 39.2%, ‘보통이다’ 36.0%로 응답하여 반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은 긍정 응답 34.8%, 부정 응답 59.8%로 응답하여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을 합하면 95% 정도를 차지해 분명한 의사를 드러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비시각장애인은 점자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나 경험의 부재로 명확한 의사를 갖기 어려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에 대한 경험과 학습 기회가 더 많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점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점자 학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점자 사용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점자 사용의 미숙’이 46%로 매우 높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긍정이나 부정의 명

확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학습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점자에 대한 느낌

- 점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의 83.6%, 시각장애인의 83.4%가 긍정 응답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점자를 유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 점자 배움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의 5.3%, 시각장애인의 6.0%만이 쉬울 것이라 응답하였다. 비시각장애인의 70.6%, 시각장애인의 88.0%는 점자 학습이 어려울 것이라 응답하였다.
- 점자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의 34.0%, 시각장애인의 25.0%는 편리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점자 사용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은 비시각장애인의 19.7%, 시각장애인의 34.2%를 차지하였다.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점자의 친근감에 대한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의 26.5%, 시각장애인의 23.0%는 친근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자를 거리감 있다고 답한 응답은 비시각장애인의 40.4%, 시각장애인의 41.7%를 차지하여 두 집단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 점자의 복잡성에 대한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의 15.4%, 시각장애인의 12.4%만이 점자를 단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비시각장애인의 44.5%, 시각장애인의 48.2%는 점자가 복잡하다고 인식하였다. 두 집단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점자를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 점자에 대한 느낌을 요약하면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점자를 유용하지만 학습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점자 사용은 불편하며 점자는 친근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유용성에 공감하면서도, 배움의 어려움과 실생활 사용 불편을 함께 지적하였다. 따라서 점자 학습 기회의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업, 자립에서 점자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전체 조사 대상의 80.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시각장애인의 91.6%, 시각장애인의 54.0%가 긍정 응답을 보여, 비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시각장애인의 61.5%가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시각장애인의 사용률(14.4%)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 시각장애인은 점자 사용이 학업·자립에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디지털 음성서비스의 대체 확산으로 점자 학습 동기가 약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점자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미만이었다.
- 사회 일반의 점자 활용 인식과 실제 사용 간 괴리가 크며, 점자·음성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5)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 전체의 70% 이상이 점자가 사회적 소통에 기여한다고 보았으나, 점자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65%)고 응답했다.
-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역할로는 ‘교육 강화(48%)’, ‘공공 기관 표기 확대(31%)’, ‘디지털 점자 기기 보급(21%)’이 제시되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점자기기 보급과 표준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점자 표기 의무화, 공공 데이터 점자 변환 시스템 등 실질적 제도화 과제가 요구된다.

(6) 응답자 특성별 차이

-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장애 유형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 고학력·도시 거주·직업 보유층에서 점자 인지와 사용 인식이 높았으며, 고령층과 읍면 지역 응답자의 인식이 낮았다. 또한 시각장애인 내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점자 활용률이 높았다.
- 따라서 점자 인식과 활용을 개선하려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 대상 기초 점자 교육, 농어촌 지역 점자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2) 조사 결과 시사점

(1) 점자 접근성과 학습 기회의 불평등

- 점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14.4%에 머무른다는 점은 교육과 환경적 지원의 부족을 반영한다.
 - 고령층과 읍면 지역 거주자의 낮은 점자 활용률은 점자 학습과 디지털 기반 점자 교육 접근성에 불균형이 있음을 의미한다.
 - 점자 교육이 도시 중심, 학령기 청년 중심으로 집중되어 지역 격차와 세대 간 학습 기회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지역 사회 평생교육 체계를 활용한 ‘생활 속 점자 학습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과 지역의 점자 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2) 공공 기관 점자 서비스의 실효성 한계

- 점자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중 28%만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홍보·교육·실행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공공 기관의 문서나 안내판에 점자를 표기하더라도, 실제 접근 가능한 위치 선정과 촉각 가독성 기준보다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실질적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점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품질 인증 또는 점자 접근성 평가 지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인식의 이중 구조

- 비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사용 환경이나 학습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이는 점자를 타인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시혜적 관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또한 점자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문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점자 활용이 사회적 기능보다는 개인적 노력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점자를 ‘국가의 공용 문자’로 확장하려는 캠페인과 미디어 교육 등이 필요해 보인다.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자 환경의 연계 부족

- 디지털 점자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점자 기기가 문자 사용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 인식은 약 30% 수준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디지털 점자 기술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경험이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 거주 지역, 학력, 경제활동 여부 등에 따라 인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디지털 점자 기술 접근성에 있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층, 저학력 집단에서 디지털 점자 기기 활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디지털 점자 기술 보급 정책에서는 이러한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6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비시각장애인 대상 정책 제언

(1) 점자를 국가의 공용 문자로 인식하도록 대국민 교육 확대

-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의 100%가 점자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점자의 기본 구조인 6점 체계를 알고 있는 비율은 22.8%에 불과하였다. 이는 점자가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더라도 문자로서 이해되기보다는 단순한 시설 표식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점자가 국가 지정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도 전체의 50% 수준에 머물러, 점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점자 인식 개선 정책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점자를 국가의 공용 문자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서는 한글 교육과 연계하여 점자의 기본 원리와 역할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시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공공 기관 교육 과정에서도 점자 이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점자를 장애인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이해해야 하는 문자 체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일상생활 속 점자 체험 기회 확대

-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접하는 장소는 대부분 승강기 버튼(93.6%), 계단 손잡이(33.1%), 화장실 입구(31.6%) 등 물리적 안내 표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점자 도서, 점자 명함, 점자 안내 자료 등 정보 접근과 관련된 경험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점자 경험이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자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공간에서의 점자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공공 기관의 점자 서비스 홍보와 정보 제공 강화

- 조사 결과 공공 기관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시각장애인은 28%에 불과하였다. 이는 점자 관련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점자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하여 제도의 사회적 인식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공공 기관은 점자 서비스 제공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자 자료 제공 절차와 이용 방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 홈페이지, 민원 안내문, 홍보 자료 등에 점자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점자 안내판이나 점자 문서를 함께 전시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4) 미디어와 대중 캠페인을 활용한 점자 인식 개선 활동 강화

- 조사 결과 비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것 같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실제로 점자를 배우거나 이해하려는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점자를 타인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미디어와 대중 캠페인을 활용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 공익 광고,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점자의 역사와 기능, 사회적 의미를 소개하고, 점자를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점자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문자 체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점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시각장애인 대상 정책 제언

(1)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점자 교육 확대

-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 14.4%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점자의 사용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도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문자 경험과 학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자 정책은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시각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초 점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복지관이나 점자 도서관 등의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생활 중심 점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연령과 시각장애 정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자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습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점자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생활 중심 점자 환경 조성

-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점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점자 사용이 학업이나 일부 공공서비스 환경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점자 학습 동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점자 정책은 점자 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점자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안내문, 교통 정보, 생활 편의 시설 안내 등에 점자 표기를 확대하고, 점자 도서와 점자 안내 자료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 중심 점자 환경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실질적인 정보 접근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점자 활용 환경 강화

- 최근 음성 기반 정보 접근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부 시각장애인은 점자 학습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점자는 문자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교육과 문해력 향상 측면에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점자와 음성 기술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정보 접근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점자 단말기, 점자 디스플레이, 점자 변환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점자 기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와 음성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접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바일 기반 점자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점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각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점자를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점자 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환경 기반 강화

- 점자 교육의 질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 인력과 교육 환경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점자 교육은 일부 특수교육 기관이나 복지관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점자 교원과 점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점자 교육 거점 기관을 확대하여 누구나 점자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점자 교육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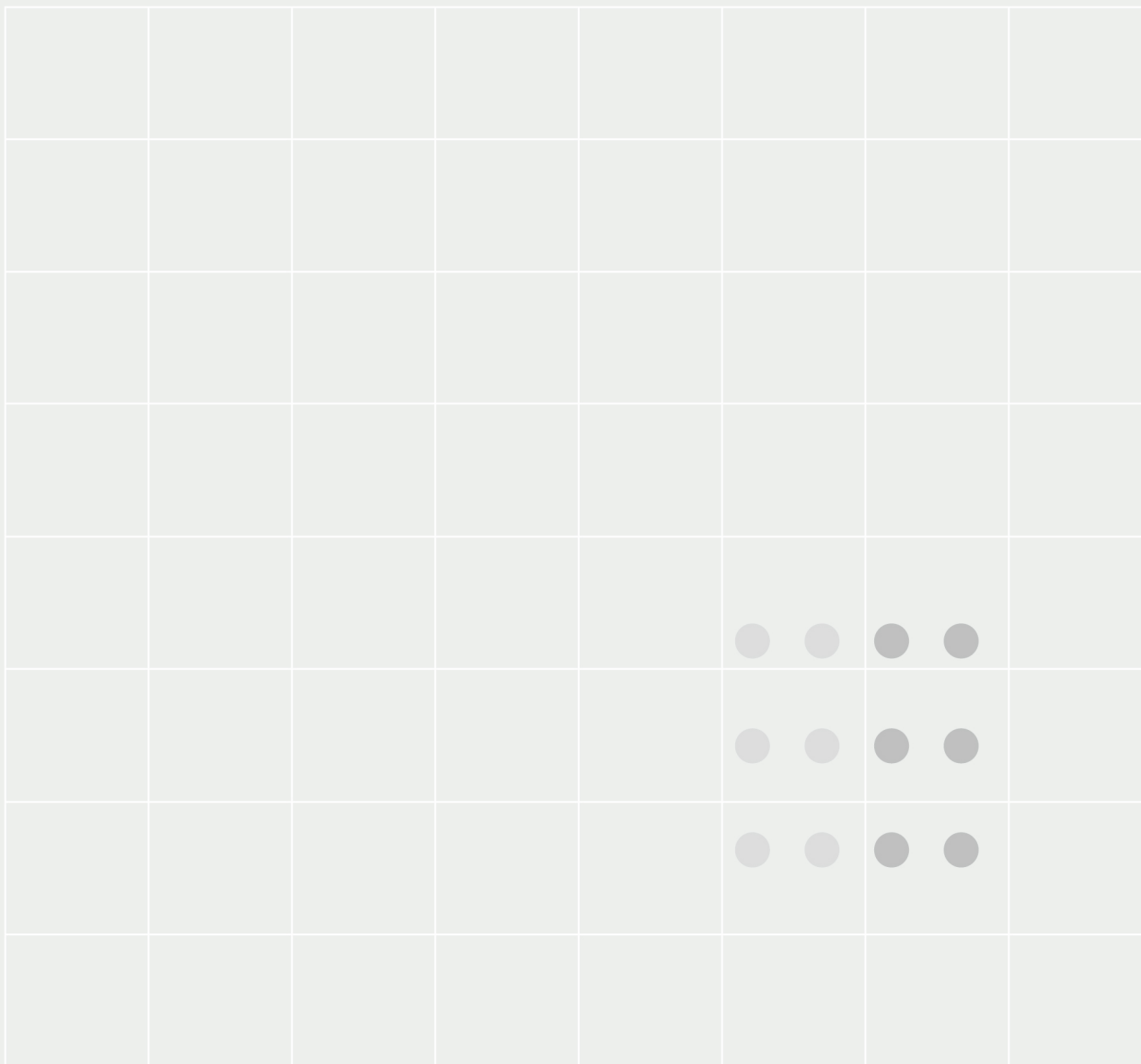
(5) 점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적 접근 필요

- 점자 정책은 단순한 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점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접근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점자 도서 전시, 점자 체험 프로그램, 점자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점자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점자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이자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점자 사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2016년 점자법이 제정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점자법에 따라 「제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19~2023)」이 진행되었고, 현재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이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 국립국어원은 점자 표기 실태 조사(2019~2020)에서 1차 연도(2019)에서는 점자 사용 환경 실태,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요구,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실태,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개선 방향(2019)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적정 설치율이 여전히 낮고, 부적정 설치율과 미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전철 및 경의중앙선의 역사, 고속철도 기차역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철도의 미설치율이 높았고(41.4%), 설치되었으나 부적정 설치율이 30% 이상이었으며, 특히 설치 위치의 부적정(80% 이상), 점자 규격에서 점 간 거리 및 자간 거리 미준수(최대 97.7%)가 주요 문제점으로 보고되었다(김영일, 이진원, 2020). 이에 법제도 개선, 점자 표기 기술 개선, 민간 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점자 표기 표준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2차 연도(2020)에는 전국 시각장애인 400명의 대한 점자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별 이용 빈도, 점자 표기의 중요도 및 만족도, 편의 시설 종류별 점자 표기 이용 빈도, 중요도 및 만족도, 점자 표기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 학교, 공공 업무 시설, 병원, 공연장 등에 점자 표기 요구와 중요도가 높았다. 가장 자주 이용하거나 점자 표기가 중요한 시설은 승강기,

화장실,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 계단 손잡이 등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설은 점자 안내판, 수도꼭지, 자동판매기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필요성이 높은 시설은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대피소, 공공도서관이며, 점자 표기가 시급한 사례는 현관문 잠금장치 키패드, 건물 층별 숫자 표시, 공공건물 주요실 위치 정보로 응답하였다(김영일, 박송이, 2021).

- 이 연구는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의 2차 연도 실태 조사 사업으로 계획된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라 진행되었다.
- 선행 연구인 ‘점자 표기 실태 조사의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요구 조사(2019)’와 ‘점자 표기 실태 조사의 공공 시설 점자 표기 요구 조사(2020)’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를 보완하여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도구를 확정함으로써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점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점자 사용 환경 조사의 조사 도구 확정 및 실행 계획 수립
 - 2019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의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요구 조사와 2020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의 공공 시설 점자 표기 요구조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를 보완하였다.
 - 조사 도구 보완 및 조사 도구 확정에 필요한 전문가와 초점 집단 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시각장애인 및 관련 단체 종사자, 점자 전문가, 실태 조사 전문가, 편의 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 조사 방법의 타당성, 조사 대상자의 조사 접근성, 조사 피로도 등을 고려한 조사 실행 계획 수립하고 국립국어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5년 본조사를 위한 실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실시
 - 조사 대상은 심한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성인 남녀 20세에서 69세까지 300명이며, 전국 단위로 일대일 개별 대면 조사, 전화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며, 조사 표본 설계 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였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요구 및 만족도, 공공 시설 점자 표기 요구 및 만족도 등으로 하였다.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 분석 및 홍보 자료 제작
 - 조사 결과 통계 처리 및 연구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에는 2019년, 2020년 점자 표기 조사 동일 항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포함하였다.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및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려는 정책 제언 전문가는 시각장애인 및 관련 단체 종사자, 점자 전문가, 실태 조사 전문가, 편의 시설 전문가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자료를 제작(인포그래픽)하였다. 이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3) 연구의 특징

-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내용의 범위를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요구 및 만족도, 공공 시설 점자 표기 요구 및 만족도 등으로 설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였다.
- 연구의 방법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방법은 2019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의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요구 조사’와 2020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의 공공 시설 점자 표기 요구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를 전문가 초점 면담을 거쳐 수정 보완하였으며, 조사원 선발해 교육을 실시하여 전화 조사의 검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결과 분석에서는 2019년, 2020년 점자 표기 조사 동일 항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포함하였다.
- 연구진 구성 측면에서 시각장애 학교에서 다년간 점자를 지도한 경험이 있고 대학에서 시각장애 관련 연구와 점자 분야를 연구해 온 연구자가 연구 책임을 총괄하였다. 또한 점자 사용 실태 조사 도구 개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실태 조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 및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 점자 연구 전문가 및 조사 통계 전문가, 편의 시설 전문가를 공동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조사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노력하였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 분석으로 유용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의 기대 효과

- 이 연구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한 조사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점자 사용 환경 실태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는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 연구

1) 점자 사용 환경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연구

- 「점자법」 제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제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19-2023)’을 진행하였다.
- 2019년 의약품 점자 표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2019)에서는 58개 의약품 중 16개에만 점자 표시가 되어 있어 국내 의약품 점자 표시 실태가 미흡하고, 세부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2개 조사대상 의약품 중 11개는 비교적 가독성이 높았으나 21개는 규격 등의 문제로 가독성이 떨어졌으며, 심각한 경우 점자 해석이 불가능했다고 보고하면서 ‘의약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국립국어원의 점자 표기 실태 조사(2019~2020) 1차 연도(2019)에서는 점자 사용 환경 실태,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요구,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실태,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 개선 방향(2019)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적정 설치율은 여전히 낮았고, 부적정 설치율과 미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철 및 경의중앙선의 역사, 고속철도 기차역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철도의 미설치율이 높았고(41.4%), 설치되었으나 부적정 설치율이 30% 이상이었으며, 특히 설치 위치의 부적정(80%) 이상, 점자 규격에서는 점 간 거리 및 자간 거리 미준수(최대 97.7%)가 주요 문제점으로 보고되었다(김영일, 김호연, 이진원, 2019). 이에 법제도 개선, 점자 표기 기술 개선, 민간 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점자 표기 표준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국립국어원의 점자 표기 실태 조사 2차 연도(2020)에는 전국 시각장애인 400명의 점자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조사에서 대상 시설별 이용 빈도, 점자 표기의 중요도 및 만족도, 편의 시설 종류별 점자 표기 이용 빈도, 중요도 및 만족도, 점자 표기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 학교, 공공업무 시설, 병원, 공연장 등에 점자 표기 요구와 중요도가 높았다. 가장 자주 이용하거나 점자 표기가 중요한 시설은 승강기, 화장실,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 계단 손잡이 등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설은 점자 안내판, 수도꼭지, 자동판매기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필요성이 높은 시설은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대피소, 공공도서관이며, 또한 점자 표기가 시급한 사례는 현관문 잠금장치 키패드, 건물 층별 숫자 표시, 공공 건물 주요실 위치 정보로 응답하였다(김영일, 이진원, 이소연, 김홍진, 2020).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 교통수단, 여객 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 편의 시설의 2021년(전국기준) 기준 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77.3%로 나타나 국립국어원의 조사(2019-2020)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조사방법과 대상자 등 연구방법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79.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점자 관련 편의 시설 세부 항목의 적정 설치율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손잡이 점자 표지판 25.8%, 일반출입문 점자 표지판 21.8%, 계단 손잡이 점자 표지판 22.4% 등으로 평균 적정 설치율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조사한 ‘2024년 전국 257개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건소의 점자 표지판 적정 설치율이 33.9%, 부적정 설치율이 20.5%, 미설치율이 45.6%로 조사되었다. 법적 의무 대상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올바르게 설치된 점자 편의 시설이 많아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점자 표지판의 부적정 설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설치는 되어있으나 내용표기가 부적정한 것이 60.9%로 조사되었고, 실내 출입문의 경우 해당 실명과 다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단, 경사로 등 손잡이 점자 표지판의 경우 올라감, 내려감 등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자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 편의 시설의 올바른 설치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항목		매개시설 미설치(부적정) 사례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외부 경사로 손잡이 점자 표지판		
	외부계단 손잡이 점자 표지판		
항목		내부시설 미설치(부적정) 사례	
출입구 (문)	실내 출입문 점자 표지판		
계단	손잡이 점자 표지판		

승강기	모든 버튼 점자 표기		
화장실	남·여 구별 점자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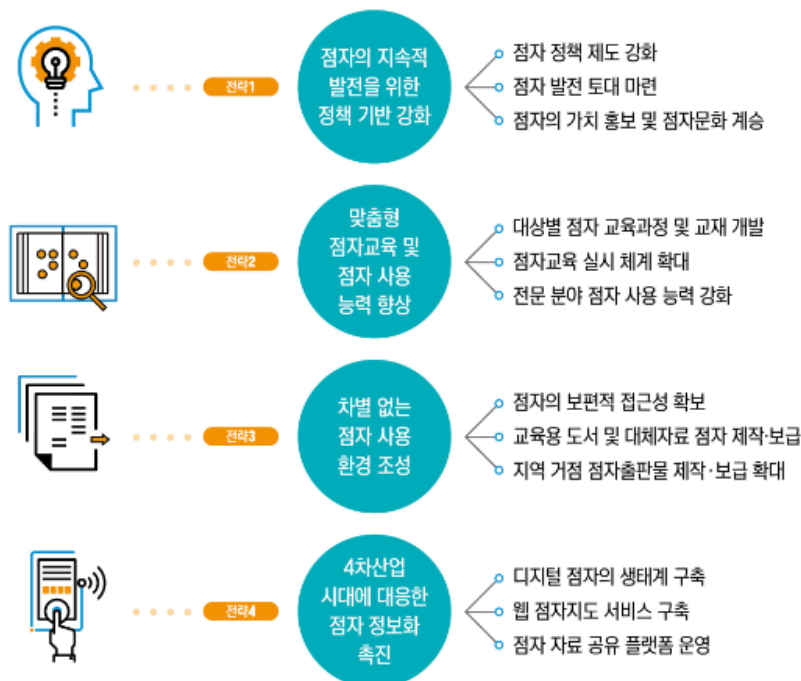
[그림 II-1] 항목별 점자편의 시설 미설치(부적정) 사례
(출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4)

- 식품과 관련한 점자 표시에 대해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내 14개 식품 생산 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있어 표시율이 저조했고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 용기 재질에 따라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 차이가 컸다. 특히,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49.2%)에 비해 표시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표기가 있어도 정확하지 않아 음료는 제품명 대신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거나 실제 가독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페트병 음료 (칠성사이다 표시)	캔 음료 (음료 표시)	컵라면 (진라면 매운 표시)	우유 3,000ml
			

[그림 II-2] 식품의 점자 표시 예(출처: 한국소비자원, 2019)

- 선행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3.12.14. 시행),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2024.7.21. 시행) 등이 이루어졌다.
-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에서는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및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이라는 전략과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II-3]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 추진전략(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28품목)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의무 시행 (2024.7~)
 -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일상생활 전반에 점자 표기 의무화 및 권고 규정 도입 확대
 - * 이동 편의 시설 및 공공 시설,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점자 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권고
 - * 시각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공보물 등의 점자 자료 제작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보완

- 점자 사용 환경을 저해하는 법령 검토 및 정비 추진
 -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와 같이 점자 사용 현장에 맞지 않거나 점자 사용 환경 저해 요소들을 찾아 법과 제도 정비 검토
- ‘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에서는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고 공공 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활성화, 일상생활 점자 환경 개선 체계 마련을 추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에 대한 홍보 및 시각장애인 요청 창구 마련과 일상생활 관련 점자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편의 시설, 식품, 의약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 불편 사항 신고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하려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을 조사하여 그 실제와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점자 사용 환경 관련 국외 연구 및 사례

(1) 점자 사용 환경 관련 국외 연구

- 미국의 엘리베이터 점자 표지 시스템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대만의 요구사항과 비교한 연구(Tseng 등, 2013)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촉각 읽기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전맹과 저시력이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단어의 의미를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구성해 가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 설계나 국제 표준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준화된 점자 표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시설에 우선 적용하여 점자 표지의 보편화 및 국제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장애인법(ADA) 및 국제 코드 위원회(ICC)에서 제정한 접근성 기준이 저시력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연구(Arditi, 2017)에서는 ADA 및 ICC 기준은 전맹(완전한 실명)인 사람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지만, 저시력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현재 기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였다. 글자 크기 확대나 높은 명암 대비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저시력인의 가독성을 충분히 개선할 수 없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가독성 기반 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방향 표지판을 일정한 위치에 배치하여 저시력인이 가까이 다가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일관된 표지판 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공공 공간(public space) 설계에 필요한 공유 공간(shared space)이 시각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연구(Havik, 2015)에서는 공유 공간 두 곳과 기존의 일상적인 공간 두 곳에 대해 시각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특정한 길 찾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때 수행 과정에 걸린 시간, 독립성 여부 등을 관찰하고 이후 참가자들 인터뷰를 진행하여 경험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공유 공간에서 기존 공간보다 경로 완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전맹인의 경우 독립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공유 공간이 기존 공간보다 더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으로 평가되었으며 방향 감각 유지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공유 공간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게 느끼는 등 개인차와 장소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 공간 설계 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명확한 길 찾기 시스템(예: 점자 표지, 촉지 가능한 경계선, 음성 안내 등)이 필요하며, 공유 공간의 개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유 공간이 시각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입증하고 좀 더 포괄적인 공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바칼라 외(Bacalla et a., 2024)는 필리핀 세부 지역의 대학에서 점자 표지 길 찾기 시스템 도입 전후의 경험에 대해 시각장애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과 주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강의실 식별, 장애물 충돌, 길 찾기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점자 표지를 활용하면서 촉감이나 배치, 길 찾기 등에 효과를 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점자 표지가 자율성 증진, 불안 감소, 공간의 익숙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2) 교통 및 편의 시설 점자 표시 사례

가. 미국

- 1973년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독립적 연방기관으로 설립된 미국 접근성위원회(U.S. Access Board)에서 건물 환경, 대중교통수단, 통신장비, 전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설계 기준을 개발하고 관리하였다.
- 1990년 접근 가능한 설계를 위한 미국 장애인법 표준(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을 발표하여 민간 부문과 주, 지방 정부 부문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설, 교통, 고용 및 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하였다.

접근성위원회에서는 ADA가 적용되는 시설의 건설 및 변경에 대한 접근성 지침과 운송 차량 설계에 대한 지침을 개발 및 관리하였다. 2012년 3월 15일 이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모든 주 정부·지역 정부 시설, 대중교통 시설, 공공 병원과 진료소, 개인 병원과 공립·사립 학교, 상업 시설 건물은 이를 준수해야 해야 한다. 편의 시설에서의 점자가 이에 준하여 표기되고 있다.

○ 접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 진행 중인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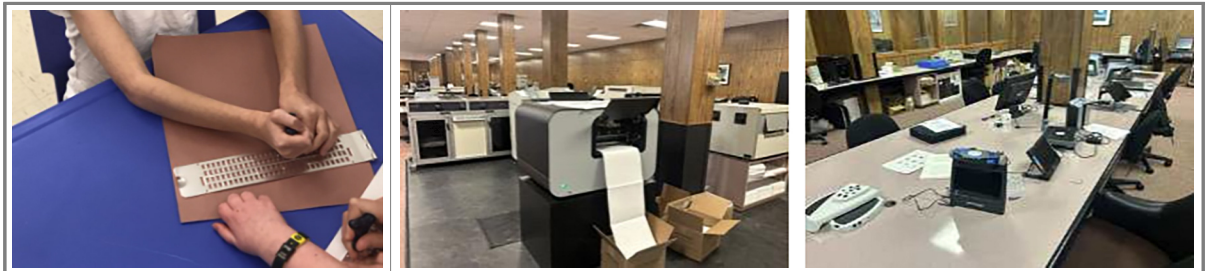
- 공공 통행권(the Public Rights of Way): 보도 및 거리, 횡단보도, 연석 경사로, 보행자 신호, 노상 주차 및 기타 공공 통행권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성 지침 마련
- 셀프서비스 거래 기기(Self-service Transaction Machines, SSTMs): 키오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SSTM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지침 마련
- 전기차 충전소: 전기 자동차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지침 마련
- 의료 진단 장비: 휠체어 사용자가 의료 진단 장비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이동을 보장하려고 접근성 지침 마련
- 철도 차량: 오래전에 만들어진 철도 차량 접근성 지침의 업데이트

○ 미국의 건축과 안전 규정을 개발하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국제 기준과 규격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1994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국제코드 협의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가 있다. 국제건축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은 건물 설계와 건축 기준을 포함한 국제적인 건축 기준으로 건물의 설계,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였다. 그중 ‘ICC A117.1’은 장애인과 노인 등 다양한 사람이 건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건물 입구, 접근로,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설계와 건설 기준을 제시하였다.

○ 1940년 조직된 미국 시각장애인 연맹(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NFB)에서는 조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소음 전기 자동차가 초래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차량 규제의 조화를 위한 제네바 세계 포럼(the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in Geneva)’에서 국제규정에 전기차가 인공적인 소음을 내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전맹인, 저시력인, 기타 독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의 책과 기타 저작물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예외를 두는 국제 협약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미국 시각장애인 연맹(NFB)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흰 지팡이, 의료기기, 주방 도구, 문헌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문헌 판매 (Independence Market)
- 흰 지팡이 무료 배포 프로그램(Free White Cane Program)
- 비시각적 접근성 기술 지원(Center of Excellence in Nonvisual Access)
-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청각장애인 등 모든 사람을 위한 무료 오디오 뉴스 서비스 (NFB-NEWSLINE®)
- 텍스트 음성/점자 변환 모바일 앱(KNFB Reader)
- 무료 점자 쓰기 장치(Free Slate and Stylus Program)



[그림 II-4] 국제 점자 및 점자 기술 센터(IBTC)(출처: 장애인개발원, 2023)

-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서는 미디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여 오디오 설명 및 캡션 보드를 제공하며, 캡션 보드에는 캡션을 표시하는 엘이디(LED) 화면이 있다. 프로젝션 스크린 또는 비디오 모니터의 아래, 위 또는 옆에 배치되는 장비는 별도로 있다. 오디오 설명은 일반적으로 전맹이거나 저시력인 방문자가 사용하지만 일부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오디오 설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2010년 이후 공원 브로슈어에 점자 표기를 제공하였다. 점자를 사용하는 방문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30개의 점자판 소책자, 관련 디지털 파일과 지침이 있다. 또한 점자를 사용하는 방문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나. 유럽 연합

- 유럽 연합 국가들의 장애인을 위한 건축물과 교통 시설 접근에 필요한 편의 시설 수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유럽 위원회 산하 관련 기관(Academic Network of European Disability Experts, ANED))에서는 2012년 유럽 여러 국가의 건축물과 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과 TV, 라디오와 같은 대중 매체, 누리집 접근권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현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각각의 나라마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법을 근거로 공공 건물, 편의 시설에 점자 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06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건물 승강기, 1층 로비, 복도,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열차 승차권 판매 기계에서 기계 버튼의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였다.

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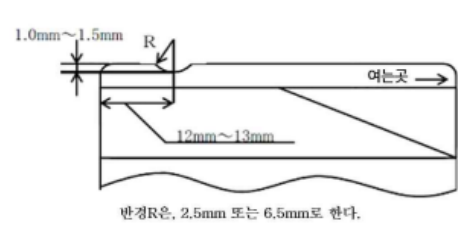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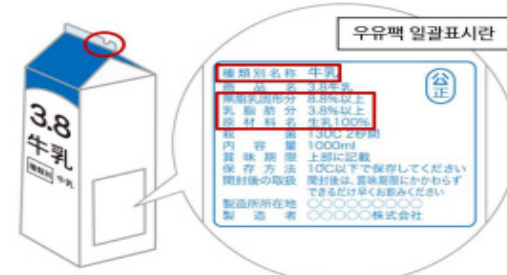
- 일본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와 환자 등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법)을 마련하여 대중 교통 기관과 건축물, 도시 공원, 외부 주차장, 보행 공간을 신설할 경우, 기준의 적합성 의무를 부여하여 장벽 없는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 특히 이 법을 근거로 한 ‘공공 교통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엘리베이터 조작판 혹은 승하차 로비에 설치하는 조작판 중 하나 이상은 점자를 표기해야 한다. 둘째, 정류장이나 개표구 등 공용 통로 출입구 부근에는 시각장애인이 조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의 주요 설비를 배치하고, 점자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셋째, 공용 통로와 차량의 승하차구 사이의 경로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 유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출입구, 자동 발매기 사이의 통로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고,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근처에도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승차권 자동 발매기	화장실 안내판	엘리베이터 바깥쪽
		
승강장 손잡이	카드 CD기	우편함
		

[그림 II-5] 일본의 점자 표기 예시(출처: 국립국어원, 2019)

(3) 식품 점자 표시 사례

-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국 연방 법전(USC), 연방 규정집(CFR), 산업 지침(Guidance for Industry 등을 살펴본 결과, 식품 표시 중 점자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커피, 주류 등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점자 표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유럽 연합의 경우, 유럽 의회에서 2011년 6월 23일 ‘공산품(industrial products) 포장의 자발적 점자 표시 제도’를 선언하였으나 관련하여 추진된 협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럽 시각장애인 연합 스페인 점자 위원회가 발행한 기술 문서 ‘B12 소비자 제품 점자 표시’에서 다른 점자 표시 방법과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동 연합은 또한 ‘점자 읽기 및 사용에 대한 성명서(2022)’에서 모든 종류의 제품 포장에 점자가 표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예시) 신기술 라벨링
 - 큐알(QR) 코드는 저시력인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올바르게 찾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큐알 코드의 위치가 양각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 일본의 경우, 2007년 일본 공업 표준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만들어진 ‘JIS 고령인·장애인 고려 설계 지침-포장·용기-양각 식별 표시 기준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일상생활에서 제품 구입에서 분별·배출까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용기에 양각 식별 표시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설계 지침 사항이다. 양각 식별 표시에는 점자, 엠보싱 글자(알파벳, 숫자 등 양각 식별 표시의 일부), 기호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적합한 양각 식별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위치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21	종이 용기 시판품의 예
<p>다음 그림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p>  <p>반경R은, 2.5mm 또는 6.5mm로 한다.</p>	

[그림 II-6] 일본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우유 용기 포장(출처: 식품안전정보원, 2022)

(4) 의약품 점자 표시 사례

- 미국의 처방 의약품 점자 표시는 2012년 7월 9일 시행된 「식품의약품 안전 및 혁신법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afety and Innovation Act)」 제904조에 규정되어 있고 2013년 7월 「처방약의 용기 표기에 관한 안내서(Guidance on Prescription Drug Container Labels)」를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가독성 및 확대 문자 사용 여부, 인터넷 접근 및 보조 기기 사용 여부, 시각장애 이외의 다른 장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처방 약의 용기에 표시된 정보를 점자로 표시할 때 환자의 이름, 제품명, 약 사용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점자는 약자를 사용해야 한다.
 - 처방 약의 용기에 표시된 정보를 점자로 제작해 주는 약국 이름과 체인점의 위치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럽 연합은 2001년 지침(DIRECTIVE 2001/83/EC)을 제정하여 의약품 점자 표시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2004년 이를 개정(DIRECTIVE 2004/27/EC)하면서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 회원국들은 2005년 10월 30일까지 유럽연합의 지침 내용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당 일자 이후에 허가된 의약품은 바로 점자 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이전에 허가된 의약품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점자를 표시해야 한다.
 - 이에 유럽 각국은 관계 법령과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의약품의 점자 표기를 명시하였다.
- 일본은 의약품 점자 표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점자 표시 의무도 없었다(한국소비자원, 2019). 다만, 일본 공업 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이 책정한 표준 규격 중 ‘고령자, 장애인 배려 설계 지침-포장 용기-촉각 식별 표시’(JIS S0022-3)에 명시된 점자 표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한 곳에만 표시하면 못 읽을 우려가 있거나 구입 및 사용 시 표시 장소가 바뀔 경우에는 여러 곳에 표시한다.
 - 점자 주위에는 엠보싱 마크, 용기 자체의 테두리 등 만져서 읽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자극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 점자 표시 내용은 제품의 내용물과 종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점자 규격(가로, 세로, 글자 간격, 점 지름, 점 높이 등)도 명시하였다.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ISO는 여러 나라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로, 유럽연합의 의약품 점자 표시 관련 지침에 따라 유럽표준화위원회(CEN)가 만든 유럽 표준(EN 15823)을 참고하여 국제 표준(ISO 17351, 2013)을 제정하였다.
 - ISO의 국제 표준에 따르면 점자 내용에는 제품을 공급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점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점자 때문에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내용의 가독성이 저하되면 안 된다.
 - 점자 규격은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한, 마버그 미디엄 점자 표준이 권장되는데, 점 높이(0.2mm), 표시 위치(0.8mm) 등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수행 절차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과정은 [그림 II-7]과 같다.

과업명	과업 내용	진행 방법
선행 연구 고찰 및 조사 도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관련 연구 검토 • 관련 선행 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영역 및 내용 검토 - 하위 영역별 조사 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고찰 • 선행 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2019-2020) 점자 사용 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 수정·보완 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협의 • 전문가 협의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그림 II-7]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진행 절차

2) 조사 도구의 개발

(1) 조사 도구 보완

가. 초점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① 연구 참여자

- 이 연구에서는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초점 집단 면담(FGI) 대상은 시각장애 및 점자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2025년 4월에 6명이 전문가가 각각 1회씩, 총 2회의 회의에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비대면 줌(zoom) 회의로 진행하였다.
- 1차 면담에는 시각장애인 점자 전문가 5인, 편의 시설 전문가 1인, 2차 면담에는 실태 조사 전문가 3인, 시각장애인 점자 전문가 2인, 편의 시설 전문가 1인이 참여하였다.
-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초점 집단 면담(FGI) 참여자 명단

참여자		소속	직위	비고
1차 FGI	참여자1	○○맹학교	교사	
	참여자2	○○도서관협의회	회장	
	참여자3	○○점자도서관	부장	
	참여자4	○○시각장애인복지관	센터장	
	참여자5	○○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	회장	
	참여자6	○○편의시설지원센터	선임연구원	
2차 FGI	참여자7	○○대학교	교수	
	참여자8	○○장애인개발원	선임연구원	
	참여자9	○○장애인고용공단	부장	
	참여자10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팀장	
	참여자11	○○대학교	교수	
	참여자12	○○편의시설지원센터	연구원	

② 주요 질문 항목

-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FGI 질문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 초점 집단 면담(FGI) 질문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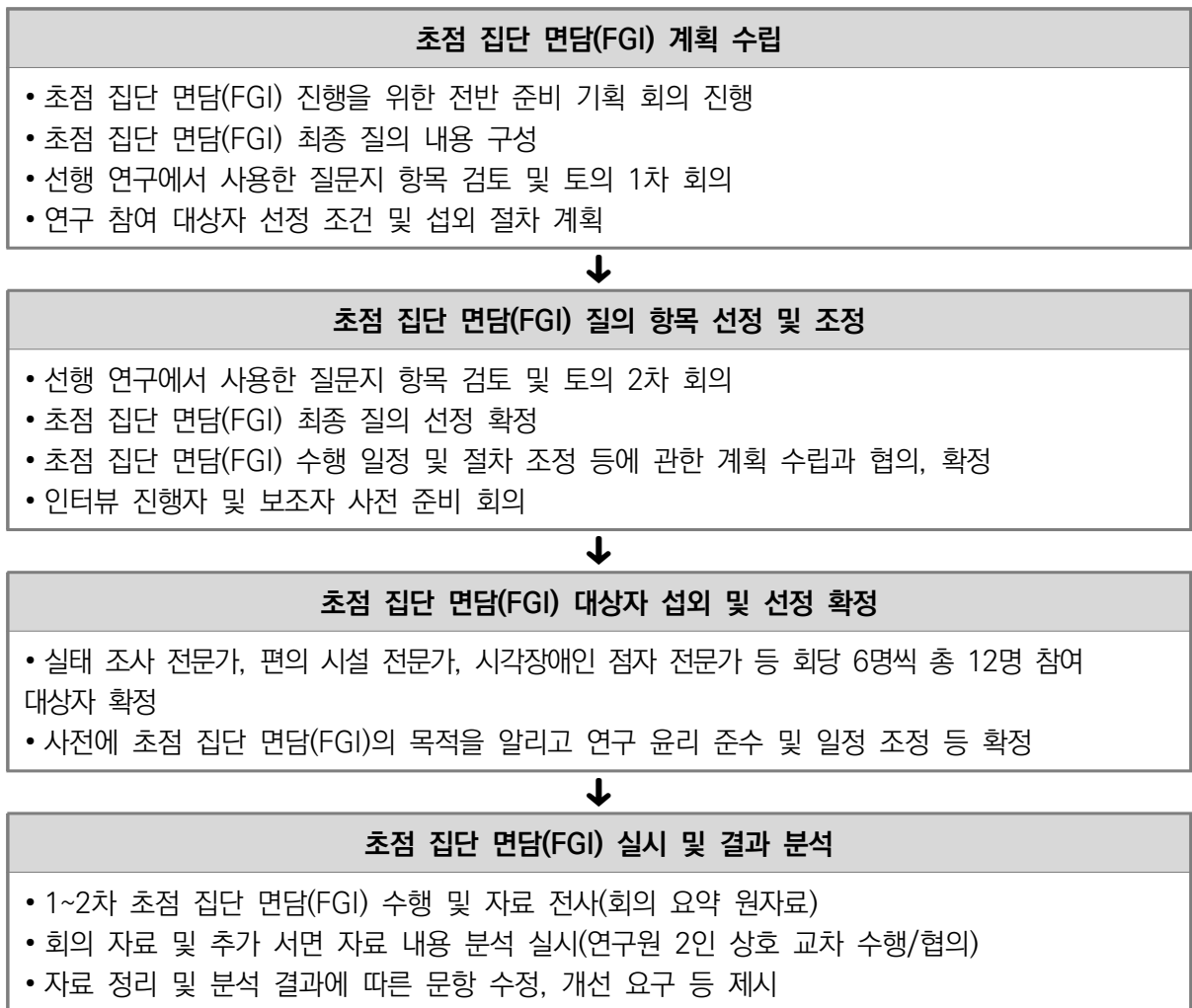
영역	질문 내용
이해도	전체적으로 질문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용어가 있었나요?
응답 편의성	7점 척도(리커트 척도)가 답변하기 어떠셨는지, 선택이 너무 많거나 애매하진 않았나요?
중복/누락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고 느낀 문항이 있었나요?
	추후 연구에서 삭제하는 좋겠다는 문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건 왜 안 물어보지’라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었나요?
	향후 설문지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나 문항을 말씀해 주세요.
문항 전반 구성	전체 설문 분량이나 구조에 대한 인상(피로감, 문항 수, 흐름 등)은 어떠했나요?
	설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셨나요? 먼저 혹은 나중에 나왔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나요?
총평	전체적으로 이 설문이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타	자유로운 의견 제시

③ 연구 윤리 준수

- 사전에 서면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 및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따른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 진행 당일에도 초점 집단 면담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이 잘 이해했음을 확인한 후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권리와 인터뷰 내용의 녹취 및 전사,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확약하였다.
- 인터뷰 분위기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④ 초점 집단 면담(FGI) 절차

- 점자 표기 실태 조사(2019, 2020) 설문지 문항을 분석하고 2025년 조사에서 사용할 도구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도출하고자 아래 절차에 따라 초점 집단 면담(FGI)을 진행하였다.
- 면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줌(zoom)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1~2차에 걸쳐 선행 연구의 질문지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II-8] 초점 집단 면담(FGI) 절차

⑤ 자료 분석

-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초점 집단 면담 결과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첫째, 1~2차 회의에서 수집된 면담 내용의 원자료를 전사하였다.
 - 둘째, 전사 자료를 FGI 면담지 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편집, 정리하였다.
 - 셋째, FGI 면담 항목별로 질문지의 내용을 직접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넷째, 면담 항목에 따른 정리 내용을 연구자 2명이 상호 교차 방식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최종 자료로 정리하였다.

⑥ 초점 집단 면담(FGI) 결과 주요 내용

- 초점 집단 면담(FGI) 결과의 주요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 초점 집단 면담(FGI) 결과 주요 내용

영역	질문 내용	주요 답변
이해도	전체적으로 질문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응답자가 설문 문항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 법적 용어나 전문용어에 대한 보완 필요 • 일부 문항은 구성이 복잡하거나 장황하여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 있음 • 일부 시설명이나 표현은 현실 반영이 부족하거나 낯설다는 의견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용어가 있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용어는 쉽게 풀어서야 함(예: 승강기 조작반, 격리병동 등). •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설명(예: 서커스장, 연예장 등)은 수정 필요. • 불필요하게 나뉘어 있는 항목은 합쳐도 무방함(격리병원, 병원 등) • 불필요한 문구는 수정 보완 필요, 같은 의미의 용어는 통일하여 사용하도록.(‘설치해야 한다’, ‘부착해야 한다’ 등 표현의 통일)
응답 편의성	7점 척도(리커트 척도)가 답변하기 어려웠는지, 선택하기 어렵거나 애매하지 않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점 척도는 과도하며, 5점 척도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 5점 응답이 용이하고, 직관적이며, 응답자 부담이 적음. • 7점 척도는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혼란 초래 가능성 높음.
중복/누락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고 느낀 문항이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와 중요도 문항이 혼동될 수 있다는 지적 • 문항별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 조사 시 조사원의 만족도/중요도 구분 설명을 강조 필요 • 일부 중복되는 문항은 통합 또는 삭제 제안
	추후 연구에서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문항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표기가 실효성이 낮거나 사용성이 떨어지는 기기 관련 문항(예: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 현실 반영이 낮은 시설 문항(예: 경찰서, 법원, 서커스장 등). •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중요성이 낮은 문항 • 중복 응답 유발 문항(예: 공공 시설의 8번, 11번 등) • 조건부 유지 의견도 존재: 중요도-만족도 분석 등 분석 목적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
	‘이런 건 왜 안 물어보지’라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공원, 버스 정류장, 화장실 내 표기 등) • 안내인 없이 독립적인 시설 사용 여부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습관, 빈도, 활용의 어려움 • 점자 외 보조수단(음성 안내, 촉지도 등) 병행 사용 여부

영역	질문 내용	주요 답변
	향후 설문지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나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뿐 아니라 점자 매체(팸플릿, 순서지, 업무 안내 책자 등) • 개인의 점자 사용 능력 • 점자 편의 시설의 불만족 사유, 개선 사항 • 공원, 숙박 시설, 박물관 등 시설 추가 의견 • 키오스크, 월패드 등
문항 전반 구성	전체 설문 분량이나 구조에 대한 인상(피로감, 문항 수, 흐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긍정적 • 문항 수가 많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음. • 구조가 복잡하거나 반복적이라는 의견. • 일부 문항은 순서나 연결성이 어색하다는 지적
	설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셨나요? 먼저 혹은 나중에 나왔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가 흐름 자연스럽다고 느낌. • 일부 유사한 주제 문항은 묶는 등 재배치 필요. • 시설별/주제별 분류 정리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 중요도 → 만족도 순보다 만족도 → 중요도 순이 자연스럽다는 의견
총평	전체적으로 이 설문이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긍정적: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환경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 • 일부 현실 반영이 부족하거나 생소한 시설 포함되어 있어 수정 필요 • 단순 설치 여부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과 접근성 고려 필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와 문장 표현의 간결성 및 명확성 • 중복 문항 정리, 응답 방식 단순화 • 5점 척도 통일, 문항 흐름 조정.
기타	자유로운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은 잘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가 감수 필요 • 문항 수가 많아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IPA 분석 등 통계 목적에 맞는 문항 설계 제안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개선: 문어체 정비, 현실성 없는 단어(용어) 제거 • 척도 단순화: 5점 척도로 정리 • 문항 구성 정비: 실효성 낮은 문항 삭제, 중복 통합 • 새 항목 추가: 점자의 질, 독립적 이용 여부 반영 • 흐름 조정: 만족도 → 중요도 순서 권장

나. 자문위원 의견 수렴

-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연구진 협의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위한 조사지를 개발하여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 전문가 자문은 전체 영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전체 조사 항목의 구성에 대한 타당도 검토, 조사 영역별 조사 문항의 기술과 보기 등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하고, 일상의 점자 사용 환경 영역에서는 조사 항목에서 우선순위 등을 자문하였다.

- 설문 조사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은 학계와 교육계, 시각장애인 단체, 점자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문위원 명단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 타당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자문위원	소속	직위	비고
자문위원1	○○맹학교	교사	
자문위원2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3	○○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4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5	○○개발원	선임연구원	
자문위원6	○○고용공단	부장	
자문위원7	○○도서관협의회	회장	
자문위원8	○○점자도서관	부장	
자문위원9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자문위원10	○○시각장애인복지관	센터장	
자문위원11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팀장	
자문위원12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13	○○편의시설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자문위원14	○○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장	
자문위원15	○○편의시설지원센터	연구원	

- 설문 조사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전자우편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서는 모두 15부로 이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 협의 회의와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쳤다(<표 II-5> 참조).

<표 II-5>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 검토 진행 과정

진행 절차	일정	형식
자문위원 선정	4.21~4.25.	전화
조사 도구(안) 검토 조사지 발송	4. 28.	이메일 자료 발송
조사 도구(안) 검토 의견서 회신	4.28~5.9	이메일 자료 회신
검토 의견 반영 조사지 수정 협의	5.10~5.20	연구진 회의 및 국립국어원 협의
설문 조사지 최종 확정	5.20	조사 방법 반영하여 확정

-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대한 타당도 판단 기준은 페어링(Fehring, 1987)이 제시한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s Validation Index, CVI)를 근거로 하였으며, .79 초과(타당함), .50 초과~.79 이하(수정 후 선택 가능), .50 이하(타당하지 않음)를 활용하였다.
 - 전체적으로 타당도 지수를 보면, 8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타당도가 다소 낮게 (0.775) 나타났으나, 그 외 모든 항목에서는 타당도 지수가 수정이 필요 없는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 타당도 지수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점자 사용 목적과 사용 정도 영역 문항으로, 코로나 19 시기 점자 사용의 불편한 점을 묻는 문항은 코로나가 끝난 시기라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하루 평균 점자 읽기 시간과 점자 쓰기 시간을 묻는 문항은 읽기와 쓰기를 구분하여 점자를 사용하는 시간을 답하는 것이 정확도가 떨어져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그 외 전문가 자문 결과 타당도는 문제없지만 개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개선에 대한 연구진 협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10명의 검토 내용 중 개선 요청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6>과 같다[(점수별 가중치(1점 = 0; 2점 = .25; 3점 = .50; 4점 = .75; 5점 = 1.00)를 두고).

<표 II-6>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2. 연령	4.8	0.95	
3. 거주 지역	5.0	1.00	
4. 교육 수준	4.8	0.95	• 조사 항목 하단에 보기 문항 들의 예를 제시해 주면 더욱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을 듯, 특히 관리자의 경우 필요할 듯
5. 직업	4.2	0.80	• 관리자이면서 사무 종사자일 수도 있고, 서비스 종사자일 수도 있음. 중복되는 보기가 있음
1. 여객 시설 및 교통 수단 점자 편의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	3.8	0.70	• 여객 시설의 범주가 너무 넓어서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봄. 지하철 역사만 하더라도 노선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상황임.
2.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인식	3.8	0.70	• 이동 편의 시설의 범주가 너무 넓어서 응답의 유의미성이 너무 떨어짐
3.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에 대한 의견	3.8	0.70	• 질문이 모호하다고 판단됨(예) 점자 표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등) • 자유 의견인만큼 응답 표기 칸을 좀 더 크게 해 주세요.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4. 이동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선점	4.4	0.85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	4.2	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며 의원은 제외)에서 동네 개인 병원(내과, 피부과 등)도 제외인지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주민센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괄호 안에 명시해 주세요.
2.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 ~	4.2	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며 의원은 제외)에서 동네 개인 병원(내과, 피부과 등)도 제외인지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1 및 3-2와 일관된 문구 양식으로 하기 위해 “개선사항” 문구 삭제 필요 • 동주민센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함. 괄호 안에 명시해주세요.
3. 편의 시설(공원,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 이용 빈도	4.0	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대로’의 의미라면 우선순위 순서대로라는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필요. 그러나 순위와 상관없다면 현재 그대로 하면 될 듯함. • 이 문항도 대상 시설 범주가 너무 넓어서 응답의 유의미성이 떨어짐. 더군다나 1, 2번 문항에 없는 공원까지 포함되어 있음. 대상 영역별로 물어보아야 함.
4. 편의 시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4.0	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대로’의 의미라면 우선순위 순서대로라는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필요. 그러나 순위와 상관없다면 현재 그대로 하면 될 듯함. • 이 문항도 대상 시설 범주가 너무 넓어서 응답의 유의미성이 떨어짐. 더군다나 1, 2번 문항에 없는 공원까지 포함되어 있음. 대상 영역별로 물어보아야 함.
5. 공공 시설 중 점자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4.2	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대로’의 의미라면 우선순위 순서대로라는 의미를 명확히 제시 필요. 그러나 순위와 상관없다면 현재 그대로 하면 될 듯함. • 지자체센터는 동주민센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지역 아동 센터는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 2, 3, 4, 5는 이미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BF인증 대상이기 때문.
6. 점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4.0	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보기 문항 이외의 사례도 파악하고자 한다면 ‘기타()’를 포함할 지에 대한 검토 •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에 일반 편의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숙박 시설, 생활 숙박 시설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아파트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7.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던 사례	4.0	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저기 복잡한 화장실에서 세면대나 대변기의 위치를 찾기 어려움.은 점자 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0번 기타를 만들고 본인이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세요.

검토 항목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타당도와 개선 요청 사항		
	평균	CVI	개선 요청 내용
8.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4.2	0.80	
그 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설문이 이전 설문(2019, 2020)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항의 개선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내주신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 초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성상 공공 시설의 5번과 6번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음. 5번에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으로 명기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자 기본사항에 점자를 얼마나 본인이 잘 사용하는 사람인지, 점자 활용 정도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 질문에 응답이 적절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 연구진 협의

- FGI 및 전문가 자문 의견과 국립국어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한 항목씩 연구진의 검토를 받아 수정과 보완, 삭제와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일부 7점 척도 문항을 5점 척도로 통일하였으며, 질문이 중복되는 문장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2019-2020년 문항 중 현재 상황과 다르거나 실제 이용 가능성이 작아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를 표 형태로 수정하여 기존의 복잡한 질문지 구성을 단순화하였다.

(2) 최종 설문 조사 도구

- 조사 도구의 타당도는 초점 집단 면담(FGI)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선행 연구인 국립국어원(2019, 2020) 점자 표기 실태 조사에서 개발된 조사 도구를 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 2019년, 2020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의 동일 항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해 계속 사용해야 할 항목과 추가해야 할 설문지 문항을 보완하여 전문가 자문 의견과 연구진 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 도구를 확정하였다.

가.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도구 신규 대조표

- 선행 연구인 2019, 2020년 조사 문항과 2025년 수정 문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7〉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문항의 수정 내용 및 수정 사유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	-----------------	-------------	----

I 응답자 기본사항

3	3. 거주 지역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⑨ 경기도 □ ⑩ 강원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⑬ 전라북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⑯ 경상남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3. 거주 시도는?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경기도 ④ 대전광역시 ⑤ 세종특별자치시 ⑥ 충청북도 ⑦ 충청남도 ⑧ 광주광역시 ⑨ 전북특별자치도 ⑩ 전라남도 ⑪ 대구광역시 ⑫ 경상북도 ⑬ 부산광역시 ⑭ 울산광역시 ⑮ 경상남도 ⑯ 강원특별자치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3-1. 거주 지역은? ① 읍면 지역 ② 중소도시(동) ③ 대도시(동)	2019년 대비 거주 지역 추가 2020년 대비 거주 범위를 단순하게 수정
4	4.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이상	4. 최종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재학) ⑤ 대학원 재학 이상	2019년, 2020년 대비 학력을 교육 수준으로 변경하고,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와 같은 형태로 수정
5	5.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① 버스 ② 지하철 ③ 기차(고속철도)	삭제	아래의 여객 시설 및 교통 수단 이용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대체

II 이동 편의 시설

* 문항 1~9의 여객 시설이란 버스 정류장, 버스터미널,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선터미널 등입니다.	※ 이동 편의 시설 용어 설명 - 여객 시설: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 이동 편의 시설 - 교통수단: 버스, 기차,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 아래의 여객 시설 및 교통 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객 시설 및 교통 수단입니다.	설문 조사 전 이해하기 쉽게 용어 설명에 교통 수단을 추가함
--	--	-----------------------------------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다음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관한 기준입니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원하시면 수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난 1년간(2024. 1. 1.~2024. 12. 31.)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2.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찬성과 반대, 수정 척도에서 5점 척도로 변경 의견이 많아 수정 하였으며 항목별로 빈도,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 하도록 항목 수정함
2-1 ~13	1. 여객 시설에서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역무실, 고객지원실 등) 옆 벽면에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여객 시설의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의 양 끝 부분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여객 시설의 승강기(엘리베이터) 조작반 통화 장치 등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4. 여객 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충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5. 여객 시설에 설치된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충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6.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별하는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7. 여객 시설 화장실의 세면대 수도꼭지에 찬물과 따뜻한 물을 구분하도록 점자를 표기해야 한다. 8. 여객 시설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9. 여객 시설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 10.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1. 기차의 호차 번호와 좌석 번호를 점자로 표기해야 한다. 13. 지하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 2)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3) 승강기의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 4)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5)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6)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 7)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 8)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 9)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 10)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 11)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좌석의 점자 표기 12)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 13)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의 점자 표기	조사 전 용어 설명으로 질문을 단순화(여객 시설 문구 삭제) 하고 편의 시설을 잘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 화장실 출입구 점자 표기와 성별 표기를 각각 묻고 있어서 중복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합침 실제로 표기 자체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형태로 표시 되는 상황임
2-14	14.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삭제	2020년 조사와 다르게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삭제 함
2-15	15. 배의 출입구 통로 손잡이의 끝부분에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삭제	교통 수단 중 배는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아 조사 필요성 없다는 의견으로 삭제함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3-1 ~5	점자는 적절한 위치에 표기되어 있는가? 점자 표기의 내용은 충분한가? 점자 표기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점자는 적절한 재질로 표기되어 있는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	1) 점자는 적절한 위치에 표기되어 있는가? 2) 점자 점 간격, 점 높이는 적정한가? 3) 점자 표기의 내용이 정확한가? 4) 점자 표기는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4. 재질에 대한 항목은 점자 규정 제정 전이라 삭제 2,3,5. 질문 내용의 모호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함
4-1 ~3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배 등 교통수단의 점자 표기 버스 정류장, 버스터미널,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선터미널 등 여객 시설의 점자 표기 2-1 노선, 요금, 운행 시간 및 운행 교통수단에 관한 정보 2-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나가는 곳 등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2-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2-4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재질 3. 기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4.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점자 표기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4-1. 교통수단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 4-2. 여객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 4-3. 기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	조사 전 용어 설명으로 질문을 단순화함. 주제를 주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

Ⅲ 공공 시설

8

8. 귀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대상 시설을 각각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매일 1회 2 매주 1회 3 매월 1회 4 3개월마다 1회
5 6개월마다 1회 6 연 1회 7 이용한 적 없음

※ 아래 8-1~8-8까지의 각 질문에 대해 위의 보기 1~7
중 하나를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

8-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

8-2.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8-3. 병원(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및 요양 병원):

8-4. 격리 병원(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8-5. 학교(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등, 유치원 제외):

8-6.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8-7. 공공 업무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
사:

8-8. 일반 업무 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5. 귀하는 지난 1년간(2024. 1. 1.~2024. 12. 31.)
공중이용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빈도
	① 매일 1회 ② 매주 1회 ③ 매월 1회 ④ 3개월마다 1회 ⑤ 6개월마다 1회 ⑥ 연 1회 ⑦ 이용한 적 없음
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는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상 시설의 선정 이유
를 설명함(점자 안내
판, 점자 표지판 의무
대상)

빈도 조사를 표 형태로
수정함
공연장과 관람장, 병
원과 격리병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같으므로
합침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9	<p>귀하는 다음 각각의 대상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에 대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보통이다 5 약간 중요하다 6 중요하다 7 매우 중요하다</p>	<p>6.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p> <p>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p>	5점 척도로 변경함																							
9~10	<p>9. 귀하는 다음 각각의 대상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보통이다 5 약간 중요하다 6 중요하다 7 매우 중요하다</p> <p>※ 아래 9-1~9-8까지의 각 질문에 대해 위의 보기 1~7 중 하나를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p> <p>9-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 9-2.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9-3. 병원(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및 요양 병원): 9-4. 격리 병원(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9-5. 학교(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등, 유치원 제외): 9-6.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9-7. 공공 업무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9-8. 일반 업무 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p> <p>10. 귀하는 다음 각각의 대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p> <p>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 보통이다 5 약간 만족한다 6 만족한다 7 매우 만족한다</p> <p>※ 아래 10-1~10-8까지의 각 질문에 대해 위의 보기 1~7 중 하나를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p> <p>10-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 10-2.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10-3. 병원(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및 요양 병원): 10-4. 격리 병원(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10-5. 학교(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등, 유치원 제외): 10-6.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10-7. 공공 업무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10-8. 일반 업무 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p>	<p>6.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p> <table><tr><th rowspan="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th><th>(1) 중요도</th><th>(2) 만족도</th></tr><tr><td>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td><td></td></tr><tr><td>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의원은 제외)</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는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4)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able>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는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요도 만족도 조사를 표 형태로 수정함 공연장과 관람장, 병원과 격리병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같으므로 합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는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11	<p>귀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각의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1 매일 1회 2 매주 1회 3 매월 1회 4 3개월마다 1회 5 6개월마다 1회 6 연 1회 7 이용한 적 없음</p> <p>※ 아래 11-1~11-9까지의 각 질문에 대해 위의 보기 1~7 중 하나를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p> <p>11-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11-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11-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11-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11-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11-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11-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11-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1-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p>	<p>7. 편의 시설 종류별 점자 표기에 대한 요구 조사입니다. 귀하는 지난 1년간(2024. 1. 1.~2024. 12. 3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각의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다?(점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이용했다면 '⑦ 이용한 적 없음'으로 표시)</p> <table><tr><th rowspan="2">편의 시설</th><th>빈도</th></tr><tr><td>① 매일 1회 ② 매주 1회 ③ 매월 1회 ④ 3개월마다 1회 ⑤ 6개월마다 1회 ⑥ 연 1회 ⑦ 이용한 적 없음</td></tr><tr><td>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r><td>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td><td>① ② ③ ④ ⑤ ⑥ ⑦</td></tr></table>	편의 시설	빈도	① 매일 1회 ② 매주 1회 ③ 매월 1회 ④ 3개월마다 1회 ⑤ 6개월마다 1회 ⑥ 연 1회 ⑦ 이용한 적 없음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기간을 조사 시점에 맞게 최근 1년으로 설정함 빈도 조사를 표 형태로 수정함</p> <p>이용한 시설에 점자가 없었다면 '이용한 적 없음으로 표시'라는 문구 추가</p>
		편의 시설		빈도																				
			① 매일 1회 ② 매주 1회 ③ 매월 1회 ④ 3개월마다 1회 ⑤ 6개월마다 1회 ⑥ 연 1회 ⑦ 이용한 적 없음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12~13	<p>12. 귀하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다음 각각의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보통이다 5 약간 중요하다 6 중요하다 7 매우 중요하다</p> <p>※ 아래 12-1~12-9까지의 각 질문에 대해 위의 보기 1~7 중 하나를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p> <p>12-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p> <p>12-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p> <p>12-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p> <p>12-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p> <p>12-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p> <p>12-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p> <p>12-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p> <p>12-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p> <p>12-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p> <p>13. 귀하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각의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p> <p>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 보통이다 5 약간 만족한다 6 만족한다 7 매우 만족한다</p> <p>※ 아래 13-1~13-9까지의 각 질문에 대해 위의 보기 1~7 중 하나를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p> <p>13-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p> <p>13-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p> <p>13-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p> <p>13-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p> <p>13-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p> <p>13-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p> <p>13-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p>	<p>8. 편의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p> <table><tr><th rowspan="2">편의 시설</th><th colspan="2">(1) 중요도 (2) 만족도</th></tr><tr><th>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th><th></th></tr><tr><td>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r><td>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td><td>① ② ③ ④ ⑤</td><td>① ② ③ ④ ⑤</td></tr></table>	편의 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요도 만족도 조사를 표 형태로 수정함
편의 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p>13-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p> <p>13-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p>		
14	<p>14. 다음은 현재 점자 안내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점자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한다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p> <p>1순위: 2순위: 3순위: ※ 다음의 보기 1~13 중 3개를 선택하여 위의 해당하는 순위에 각각 번호를 써 주십시오. <다음> 1 지역자치센터 2 파출소, 지구대 3 우체국 4 보건소 5 공공도서관 6 대피소 7 지역 아동 센터 8 안마 시술소 9 전시장, 동·식물원 10 도매 시장·소매 시장·상점 11 교육원·직업 훈련소·학원 등 12 관광 숙박 시설 13 휴게소</p>	<p>9.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에 대한 문항입니다. 현재 점자 안내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점자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p> <div> <p>① 지역자치센터 ② 파출소, 지구대 ③ 우체국 ④ 보건소 ⑤ 공공도서관 ⑥ 대피소 ⑦ 지역 아동 센터 ⑧ 안마 시술소 ⑨ 전시장, 동·식물원 ⑩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⑪ 교육원·직업 훈련소·학원 등 ⑫ 관광 숙박 시설 ⑬ 휴게소 ⑭ 기타()</p> </div>	<p>대상시설의 순위까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순위 삭제함. 표 형태로 수정함</p>
15	<p>15. 다음은 현재 점자 표지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점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한다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p> <p>1순위: 2순위: 3순위: ※ 다음의 보기 1~8 중 3개를 선택하여 위의 해당하는 순위에 각각 번호를 써 주십시오. <다음> 1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 3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빵, 차, 음료 등을 판매) 4 종교 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 운동 시설 6 일반 숙박 시설, 생활 숙박 시설 7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8 기숙사</p>	<p>10. 다음은 현재 점자 표지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점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p> <div> <p>①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 ② 이용원·미용원·목욕장 ③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빵, 차, 음료 등을 판매) ④ 종교 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⑤ 운동 시설 ⑥ 일반 숙박 시설, 생활 숙박 시설 ⑦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⑧ 기숙사 ⑨ 기타()</p> </div>	<p>대상시설의 순위까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순위 삭제함. 표 형태로 수정함</p>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16	<p>16.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던 사례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선이 시급한 사례를 우선순위를 정해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p> <p>1순위: 2순위: 3순위:</p> <p>※ 다음의 보기 1~9 중 3개를 선택하여 위의 해당하는 순위에 각각 번호를 써 주십시오.</p> <p><다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하 버튼에 상하만 점자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층 숫자는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2 공중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누름 또는 센서인 경우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3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 키패드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4 누름 버튼식 자동문의 버튼에 ‘누름’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5 공공건물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근처에 주요시설 위치 정보와 층 안내 정보가 없어 위치를 찾기 어려움. 6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한 공간에 출입금지 점자 표지판이 없어 잘못 들어가 곤란한 적이 있음. 7 아파트나 연립 주택 호실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8 도서관이나 열람실 좌석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9 복잡한 구조의 화장실에서 세면대나 대변기의 위치를 찾기 어려움. 	<p>11.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던 사례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선이 시급한 사례를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p> <p>(,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하 버튼에 상하만 점자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층 숫자는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② 공중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누름 또는 센서인 경우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③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④ 누름 버튼식 자동문의 버튼에 ‘누름’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⑤ 공공건물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근처에 주요시설 위치 정보와 층 안내 정보가 없어 위치를 찾기 어려움. ⑥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한 공간에 출입금지 점자 표지판이 없어 잘못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음. ⑦ 아파트나 연립 주택 호실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⑧ 도서관이나 열람실 좌석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⑨ 기타() </div>	<p>사례의 순위까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순위 삭제함.</p> <p>⑨ 기타()를 추가하여 보기에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의 항목을 추가함</p>
17	<p>17. 시각장애인들이 공공 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 정책을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p> <p>1순위: 2순위: 3순위:</p> <p>※ 다음의 보기 1~7 중 3개를 선택하여 위의 해당하는 순위에 각각 번호를 써 주십시오.</p> <p><다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올바른 점자 크기 규정 확립 2 무분별한 점자 편의 시설 제작 및 납품 규제 3 점자 편의 시설 유지 관리 지침 마련 4 올바른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전문가 보유 의무화 5 정기적인 점자 편의 시설 실태 조사 실시 및 개선 방안 마련 6 점자 편의 시설을 검사하는 지역별 위원회/전문기관 설치 7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 제도 지침에 점자 편의 시설 규정 신설 	<p>12.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시설 이용을 위해 점자 표기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p> <p>()</p>	<p>2020년 조사의 보기 문항은 한국점자규정 제정 전 조사항목으로 8번 문항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p>

연번	2019년, 2020년 문항	2025년 수정 문항	비고
----	-----------------	-------------	----

IV 설문 참여자 의견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항만, 공항 대신에 교통약자 이동차량(장애인콜 택시) 등을 추가 하자는 의견 - 이용 빈도에 공백이 있다는 의견 	미반영	<p>법령에 근거하여 이전 조사와 동일한 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는 없음) 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미반영하기로 함</p> <p>리커트 척도 역시 동일함</p>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화면에 1-1, 1-2, 2-1, 2-2 등 너무 많은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다는 의견 	설문 문항별 섹션 분리하여 제시하기로 함 (매 문항마다 섹션을 분리하면 한 화면에 많은 양의 내용이 담기지 않음)	<p>시각장애인에게 표 형식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각각 물을 수 밖에 없다 보니 많게 느껴짐. 다만 화면에 많은 양이 담기지 않도록 섹션을 더 세분화하기로 함</p>
20	<p>리커트 척도가 '매우 그렇지 않음'부터 시작하는 바, 긍정적인 답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p>	미반영	<p>이전 설문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시</p> <p>또한 부정에서 긍정 순으로 제시하는 설문이 오히려 더 많음</p>

3) 표본 설계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을 조사할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점자를 아는 20~69세의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30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을 참고하였으며 모집단의 분포는 <표 II-8>과 같다.
- 우리나라 20~69세 심한 시각장애인 수는 총 2만 1,647명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성별, 연령에 따른 비례 층화 추출을 적용하여 표본 300명을 모집단 비율에 따라 <표 II-9>와 같이 배분하였다.

〈표 II-8〉 20~69세 심한 시각장애인 모집단 분포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연령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서울권	990	1,931	647	1,194	4,762
경기권	948	2,441	582	1,718	5,689
충청권	475	1,083	246	678	2,482
전라권	367	1,053	226	645	2,291
경상권	744	2,404	495	1,740	5,383
강원·제주권	144	489	101	306	1,040
합계	3,668	9,401	2,297	6,281	21,647

〈표 II-9〉 비례 층화 추출에 따른 심한 시각장애인 표본 설계

구분	남성		여성		합계
연령	20~40대	50~60대	20~40대	50~60대	
서울권	14	27	9	17	66
경기권	13	34	8	24	79
충청권	7	15	3	9	34
전라권	5	15	3	9	32
경상권	10	33	7	24	75
강원·제주권	2	7	1	4	14
합계	51	131	31	87	300

4)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조사원을 선정하였다. 조사원은 시각장애인 대상의 설문 조사 경험이 있는 비시각장애인 4명이며 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이었다. 조사원은 시각장애인 대상의 점자 인식 조사와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모두 실시하였다.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전화 조사용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전반 소개, 조사 도구 소개, 조사 방법의 구체적 절차와 전화 조사용 스크립트 소개, 전화 상담 연습 등을 포함하였다.

- 시각장애인 대상의 조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를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에 응할 의사를 확인하고, 조사에 동의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각장애인에게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음성 기반 설문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전화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화로 조사 문항을 읽어주고 시각장애인 참여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인 대상의 조사 현황은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시각장애인 조사 현황

권역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수	전화 조사(명)	온라인 조사(명)
서울권(1)	2025. 6/23~7/30	67	48	19
경기권(2)	2025. 6/23~8/3	79	68	11
충청권(3)	2025. 6/23~7/30	34	26	8
전라권(4)	2025. 6/23~7/31	32	30	2
경상권(5)	2025. 6/23~7/30	74	54	20
강원제주권(6)	2025. 6/21~7/28	14	6	8
전체	2025. 6/21~8/3	300	232	68

5) 분석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동시설 및 공공 시설 등의 점자 사용 환경의 문항에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응답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 또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집단 간 응답 차이를 확인하고자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인 경우에는 독립 표본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는 현재 만족 수준(만족도)과 바람직한 수준(필요성)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개선 요구 사항을 보리치(Borich) 요구도와 로커스 포 포커스(Locus for Focus)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 이 연구의 만족도 문항은 단순한 최근 이용 경험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용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라도, 사회적 인식, 주변을 통한 간접적 경험 등을 기반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 아울러 국립국어원(2020) 점자 표기 실태 조사 연구에서도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번 연구 역시 시계열적 비교와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동일한 분석 기준을 유지하였다.
-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대상 시설 및 편의 시설별 점자 표기의 이용 빈도, 중요도, 만족도에 대해 항목별 순위를 산출하였다. 특히 이용 빈도는 본래 등간척도가 아니므로, ‘이용한 적 없음(1)’, ‘연 1회(2)’, ‘반기 1회(3)’, ‘분기 1회(4)’, ‘월 1회(5)’, ‘주 1회(6)’, ‘일 1회(7)’로 재코딩하여 등간척도에 준하는 값으로 변환한 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이후 이전 조사와 2025년 조사 결과를 모두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였다.

4 조사 결과

1) 응답자 기본 정보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점자를 아는 20~69세의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남녀 300명이었다.
- 응답자의 지역권별, 성별, 연령, 지역, 최종 학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지역권별로 서울권 67명(22.3%), 경기권 79명(26.3%), 충청권 34명(11.3%), 전라권 32명(10.7%), 경상권 74명(24.7%), 강원·제주권 14명(4.7%)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은 182명(60.7%), 여성은 118명(39.3%)이고, 연령별 구성은 20대 17명(18.0%), 30대 37명(12.3%), 40대 28명(9.3%), 50대 131명(43.7%), 60대 87명(29.0%)이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 12명(4.0%), 중소도시(동) 지역 96명(32.0%), 대도시(동) 지역 192명(64.0%)이다. 학력 현황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4명(1.3%), 중학교 졸업 12명(4.0%), 고등학교 졸업 125명(41.7%), 대학교 재학/졸업 120명(40.0%), 대학원 재학 이상 39명(13.0%)이다. 응답자 기본 정보는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응답자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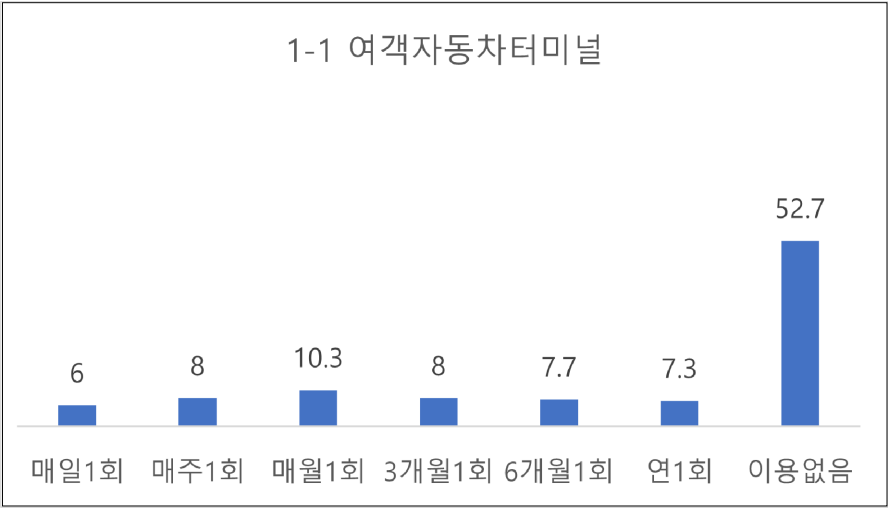
응답자 기본 정보		전체	
		n	%
지역 권역	서울권	67	22.3
	경기권	79	26.3
	충청권	34	11.3
	전라권	32	10.7
	경상권	74	24.7
	강원·제주권	14	4.7
성별	남성	182	60.7
	여성	118	39.3
연령	20대	17	5.7
	30대	37	12.3
	40대	28	9.3
	50대	131	43.7
	60대	87	29.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0
	중소도시(동)	96	32.0
	대도시(동)	192	64.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	1.3
	중학교 졸업	12	4.0
	고등학교 졸업	125	41.7
	대학 재학, 졸업	120	40.0
	대학원 재학 이상	39	13.0
합계		300	100.0

2)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사용 빈도

(1) 1년간 이용 빈도

문1-1	1년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 빈도
------	--------------------

- 설문에 응답한 시각장애인 중 158명(약 52.7%)이 최근 1년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매월 1회 정도 31명(10.3%), 매주 1회 정도와 3개월마다 1회 정도가 각각 24명(8%), 6개월마다 1회 정도는 23명(7.7%), 연 1회 정도가 22명(7.3%), 매일 1회가 18명(6%)으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II-9]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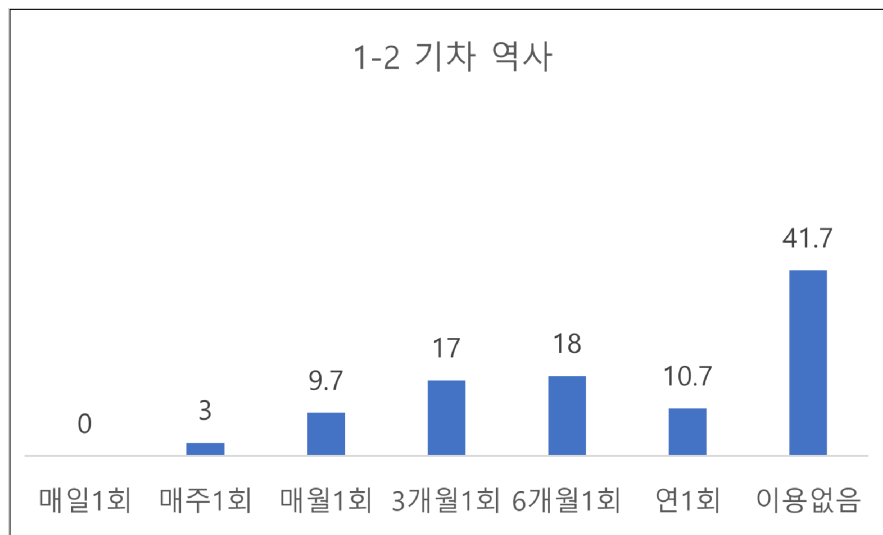
〈표 II-12〉 1년간 시각장애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 빈도

1-1 여객자동차터미널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0	16	22	12	17	13	92	182	5.190
		%	5.5	8.8	12.1	6.6	9.3	7.1	50.5	100.0	
	여성	n	8	8	9	12	6	9	66	118	
		%	6.8	6.8	7.6	10.2	5.1	7.6	55.9	100.0	
연령	20대	n	1	1	2	0	1	4	8	17	34.765
		%	5.9	5.9	11.8	0.0	5.9	23.5	47.1	100.0	
	30대	n	4	5	3	3	1	5	16	37	
		%	10.8	13.5	8.1	8.1	2.7	13.5	43.2	100.0	
	40대	n	5	3	2	3	3	0	12	28	
		%	17.9	10.7	7.1	10.7	10.7	0.0	42.9	100.0	
	50대	n	5	6	17	11	11	11	70	131	
		%	3.8	4.6	13.0	8.4	8.4	8.4	53.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1	3	0	0	8	12	10.277
		%	0.0	0.0	8.3	25.0	0.0	0.0	66.7	100.0	
	중소도시 (동)	n	4	8	10	8	9	7	50	96	
		%	4.2	8.3	10.4	8.3	9.4	7.3	52.1	100.0	
	대도시(동)	n	14	16	20	13	14	15	100	192	
		%	7.3	8.3	10.4	6.8	7.3	7.8	52.1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1	0	0	3	4	17.677
		%	0.0	0.0	0.0	25.0	0.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1	1	0	1	0	9	12	
		%	0.0	8.3	8.3	0.0	8.3	0.0	75.0	100.0	
	고등학교 졸업	n	5	11	14	7	10	6	72	125	
		%	4.0	8.8	11.2	5.6	8.0	4.8	57.6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0	8	11	11	9	12	59	120	
		%	8.3	6.7	9.2	9.2	7.5	10.0	49.2	100.0	
전체		n	18	24	31	24	23	22	158	300	
		%	6.0	8.0	10.3	8.0	7.7	7.3	52.7	100.0	

문1-2

1년간 기차 역사 이용 빈도

- 설문에 응답한 시각장애인 중 125명(약 41.7%)이 최근 1년간 기차 역사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6개월마다 1회(17%), 3개월마다 1회(16%), 매월 1회(10.3%), 연 1회 33명(11.0%)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즉, ‘이용한 적 없음’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정기적(3~6개월 간격) 이용 응답이 많았고, 정기적 이용(매일·매주)은 낮은 편이었다.
- 연령과 최종 학력에 따른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60대(58.6%)와 50대(40.5%)에서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특히 높았으며, 20~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 즉, 고연령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차역사 이용 경험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II-10] 기차 역사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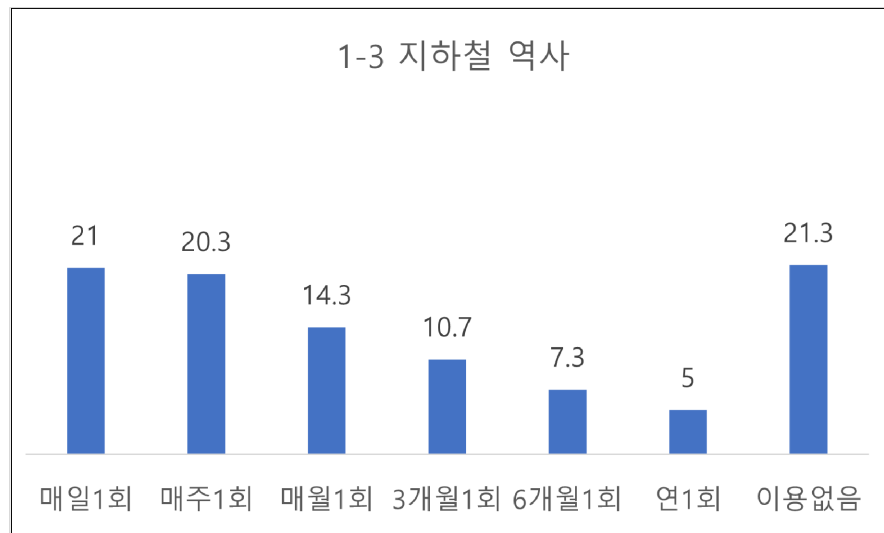
〈표 II-13〉 1년간 시각장애인의 기차역사 이용 빈도

1-2 기차 역사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0	3	20	32	35	17	75	182	4.923
		%	0	1.6	11.0	17.6	19.2	9.3	41.2	100.0	
	여성	n	0	6	9	19	19	15	50	118	
		%	0	5.1	7.6	16.1	16.1	12.7	42.4	100.0	
연령	20대	n	0	4	2	5	1	0	5	17	63.205*
		%	0	23.5	11.8	29.4	5.9	0.0	29.4	100.0	
	30대	n	0	3	5	7	6	8	8	37	
		%	0	8.1	13.5	18.9	16.2	21.6	21.6	100.0	
	40대	n	0	1	4	7	3	5	8	28	
		%	0	3.6	14.3	25.0	10.7	17.9	28.6	100.0	
	50대	n	0	1	13	21	28	15	53	131	
		%	0	0.8	9.9	16.0	21.4	11.5	40.5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3	0	2	0	7	12	16.927
		%	0	0.0	25.0	0.0	16.7	0.0	58.3	100.0	
	중소도시 (동)	n	0	6	9	13	21	13	34	96	
		%	0	6.3	9.4	13.5	21.9	13.5	35.4	100.0	
	대도시(동)	n	0	3	17	38	31	19	84	192	
		%	0	1.6	8.9	19.8	16.1	9.9	43.8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53.433*
		%	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0	11	12	
		%	0	0.0	0.0	0.0	8.3	0.0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1	7	19	22	11	65	125	
		%	0	0.8	5.6	15.2	17.6	8.8	52.0	100.0	
	대학 재학, 졸업	n	0	6	15	18	27	15	39	120	
		%	0	5.0	12.5	15.0	22.5	12.5	32.5	100.0	
전체		n	0	9	29	51	54	32	125	300	
		%	0	3.0	9.7	17.0	18.0	10.7	41.7	100.0	

문1-3

1년간 지하철 역사 이용 빈도

-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300명 중 64명(21.3%)이 최근 1년간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매일 1회 정도가 63명(21.0%), 매주 1회 정도가 61명(20.3%)으로 거의 유사한 응답 수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매월 1회 정도 43명(14.3%), 3개월마다 1회 정도 32명(10.7%), 6개월마다 1회 정도 22명(7.3%), 연 1회 정도 15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기적인 이용(매일 혹은 매주)이 높은 편이지만, 이용하지 않는 집단도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60대(27.6%)와 50대(26.0%)에서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높았던 반면 20대(23.5%)와 30대(16.2%)에서는 비교적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50.0%)와 고등학교 졸업 이하(20.8%)에서 ‘이용한 적 없음’ 비율이 높았고, 대학 이상(15.0% 내외)에서는 이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즉, 젊은 층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지하철 역사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림 II-11] 지하철 역사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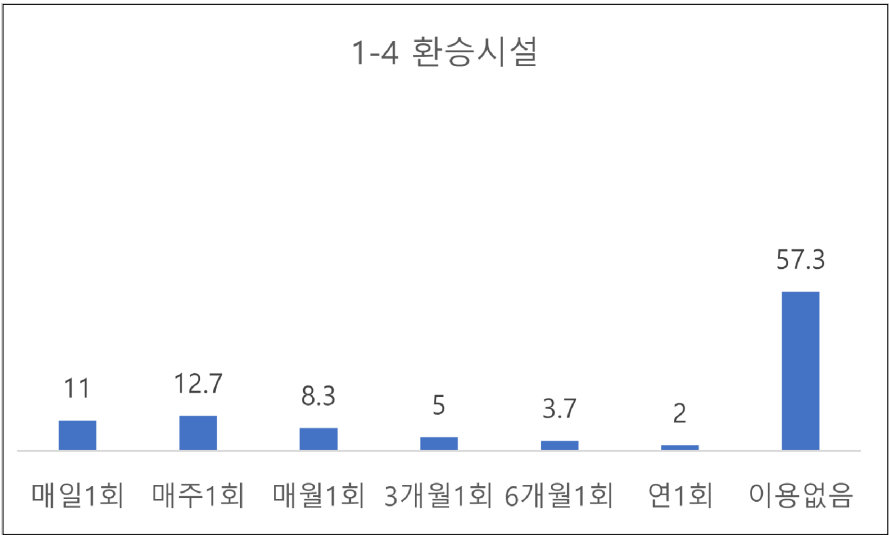
〈표 II-14〉 1년간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역사 이용 빈도

1-3 지하철 역사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41	42	29	14	10	8	38	182	9.408
		%	22.5	23.1	15.9	7.7	5.5	4.4	20.9	100.0	
	여성	n	22	19	14	18	12	7	26	118	
		%	18.6	16.1	11.9	15.3	10.2	5.9	22.0	100.0	
연령	20대	n	3	3	2	3	2	0	4	17	34.359
		%	17.6	17.6	11.8	17.6	11.8	0.0	23.5	100.0	
	30대	n	10	5	9	5	1	1	6	37	
		%	27.0	13.5	24.3	13.5	2.7	2.7	16.2	100.0	
	40대	n	10	9	1	3	1	1	3	28	
		%	35.7	32.1	3.6	10.7	3.6	3.6	10.7	100.0	
	50대	n	28	23	13	16	14	10	27	131	
		%	21.4	17.6	9.9	12.2	10.7	7.6	20.6	100.0	
60대	n	12	21	18	5	4	3	24	87		
	%	13.8	24.1	20.7	5.7	4.6	3.4	27.6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2	2	1	1	6	12	36.575*
		%	0.0	0.0	16.7	16.7	8.3	8.3	50.0	100.0	
	중소도시 (동)	n	10	19	10	10	7	8	32	96	
		%	10.4	19.8	10.4	10.4	7.3	8.3	33.3	100.0	
	대도시(동)	n	53	42	31	20	14	6	26	192	
		%	27.6	21.9	16.1	10.4	7.3	3.1	13.5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42.206*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1	1	2	1	1	0	6	12	
		%	8.3	8.3	16.7	8.3	8.3	0.0	50.0	100.0	
	고등학교 졸업	n	22	26	18	10	13	10	26	125	
		%	17.6	20.8	14.4	8.0	10.4	8.0	20.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29	23	14	17	6	5	26	120	
		%	24.2	19.2	11.7	14.2	5.0	4.2	21.7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11	11	9	4	2	0	2	39	
		%	28.2	28.2	23.1	10.3	5.1	0.0	5.1	100.0	
전체		n	63	61	43	32	22	15	64	300	
		%	21.0	20.3	14.3	10.7	7.3	5.0	21.3	100.0	

문1-4

1년간 환승시설 이용 빈도

-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300명 중 172명(57.3%)이 최근 1년간 환승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매월 1회 정도 25명(8.3%), 매주 1회 정도 38명(12.7%), 매일 1회 정도 33명(11.0%), 3개월마다 1회 정도 15명(5.0%), 6개월마다 1회 정도 11명(3.7%), 연 1회 정도 6명(2.0%) 순이었다. 즉, 절반 이상이 환승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정기적 이용(매일·매주)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 수록, 읍면 지역 거주자,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환승 시설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그림 II-12] 환승시설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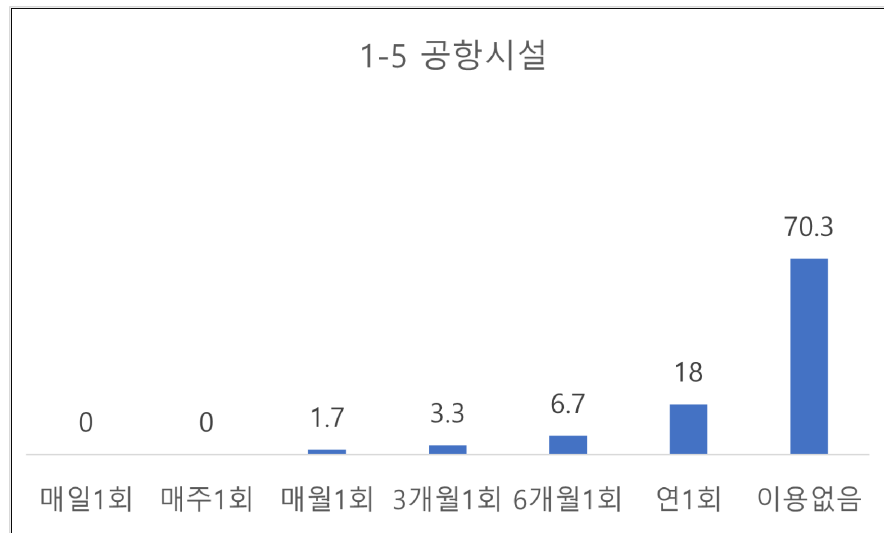
〈표 Ⅱ-15〉 1년간 시각장애인의 환승시설 이용 빈도

1-4 환승시설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9	26	20	8	5	2	102	182	8.423
		%	10.4	14.3	11.0	4.4	2.7	1.1	56.0	100.0	
	여성	n	14	12	5	7	6	4	70	118	
		%	11.9	10.2	4.2	5.9	5.1	3.4	59.3	100.0	
연령	20대	n	3	2	3	3	1	0	5	17	51.506*
		%	17.6	11.8	17.6	17.6	5.9	0.0	29.4	100.0	
	30대	n	8	5	6	3	2	0	13	37	
		%	21.6	13.5	16.2	8.1	5.4	0.0	35.1	100.0	
	40대	n	4	9	2	1	1	1	10	28	
		%	14.3	32.1	7.1	3.6	3.6	3.6	35.7	100.0	
	50대	n	15	13	9	4	7	4	79	131	
		%	11.5	9.9	6.9	3.1	5.3	3.1	60.3	100.0	
60대	n	3	9	5	4	0	1	65	87		
	%	3.4	10.3	5.7	4.6	0.0	1.1	74.7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0	0	0	0	12	12	28.394*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소도시 (동)	n	8	15	6	6	8	5	48	96	
		%	8.3	15.6	6.3	6.3	8.3	5.2	50.0	100.0	
	대도시(동)	n	25	23	19	9	3	1	112	192	
		%	13.0	12.0	9.9	4.7	1.6	0.5	58.3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43.235*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0	11	12	
		%	0.0	0.0	0.0	0.0	8.3	0.0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7	12	8	5	2	3	88	125	
		%	5.6	9.6	6.4	4.0	1.6	2.4	70.4	100.0	
	대학 재학, 졸업	n	20	18	9	8	6	2	57	120	
		%	16.7	15.0	7.5	6.7	5.0	1.7	47.5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6	8	8	2	2	1	12	39	
		%	15.4	20.5	20.5	5.1	5.1	2.6	30.8	100.0	
전체		n	33	38	25	15	11	6	172	300	
		%	11.0	12.7	8.3	5.0	3.7	2.0	57.3	100.0	

문1-5

1년간 공항시설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211명(70.3%)이 최근 1년간 ‘공항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 1회 정도 54명(18.0%), 6개월마다 1회 정도 20명(6.7%), 3개월마다 1회 정도 10명(3.3%), 매월 1회 정도 5명(1.7%)으로 나타났다. 매일 또는 매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20대(76.5%)와 30대(51.9%)는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50대(72.5%)와 60대(81.6%)에서는 이용 경험이 현저히 낮았다. 또한 도시 거주자일수록 공항 이용 경험이 약간 더 높았으며, 고졸 이하보다 대학 재학,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 공항 이용 경험이 더 많았다. 특히, 대학원 이상에서는 ‘연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5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I-13] 공항시설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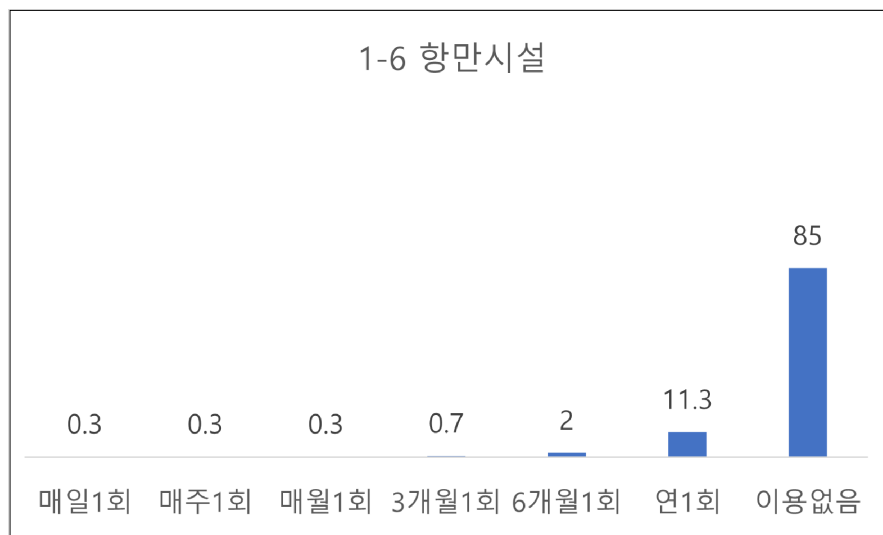
〈표 II-16〉 시각장애인의 공항시설 이용 빈도

1-5 공항시설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0	0	3	5	14	38	122	182	4.055
		%	0	0	1.6	2.7	7.7	20.9	67.0	100.0	
	여성	n	0	0	2	5	6	16	89	118	
		%	0	0	1.7	4.2	5.1	13.6	75.4	100.0	
연령	20대	n	0	0	0	1	0	3	13	17	42.207*
		%	0	0	0.0	5.9	0.0	17.6	76.5	100.0	
	30대	n	0	0	3	1	3	10	20	37	
		%	0	0	8.1	2.7	8.1	27.0	54.1	100.0	
	40대	n	0	0	1	4	1	10	12	28	
		%	0	0	3.6	14.3	3.6	35.7	42.9	100.0	
	50대	n	0	0	1	2	11	22	95	131	
		%	0	0	0.8	1.5	8.4	16.8	72.5	100.0	
거주 지역	60대	n	0	0	0	2	5	9	71	87	6.053
		%	0	0	0.0	2.3	5.7	10.3	81.6	100.0	
	읍면 지역	n	0	0	0	0	1	0	11	12	
		%	0	0	0.0	0.0	8.3	0.0	91.7	100.0	
	중소도시 (동)	n	0	0	2	3	8	14	69	96	
		%	0	0	2.1	3.1	8.3	14.6	71.9	100.0	
	대도시(동)	n	0	0	3	7	11	40	131	192	
		%	0	0	1.6	3.6	5.7	20.8	68.2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50.724*
		%	0	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2	0	10	12	
		%	0	0	0.0	0.0	16.7	0.0	83.3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0	0	0	3	18	104	125	
		%	0	0	0.0	0.0	2.4	14.4	83.2	100.0	
	대학 재학, 졸업	n	0	0	2	5	9	28	76	120	
		%	0	0	1.7	4.2	7.5	23.3	63.3	100.0	
전체		n	0	0	5	10	20	54	211	300	
		%	0	0	1.7	3.3	6.7	18.0	70.3	100.0	

문1-6

1년간 항만 시설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255명(85.0%)이 최근 1년간 ‘항만 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 1회 정도 34명(11.3%), 6개월마다 1회 정도 6명(2.0%), 3개월마다 1회 정도 2명(0.7%), 매월 1회 정도 2명(0.7%), 매주 1회 정도 1명(0.3%), 매일 1회 정도 1명(0.3%)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시각장애인은 항만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정기적인 이용자는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 성별과 거주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별과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0.6%)와 30대(75.7%)는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50대(81.0%)와 60대(92.0%)에서는 이용 경험이 매우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항만 시설 이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에서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경우 ‘연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30% 수준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편이었다.



[그림 II-14] 항만시설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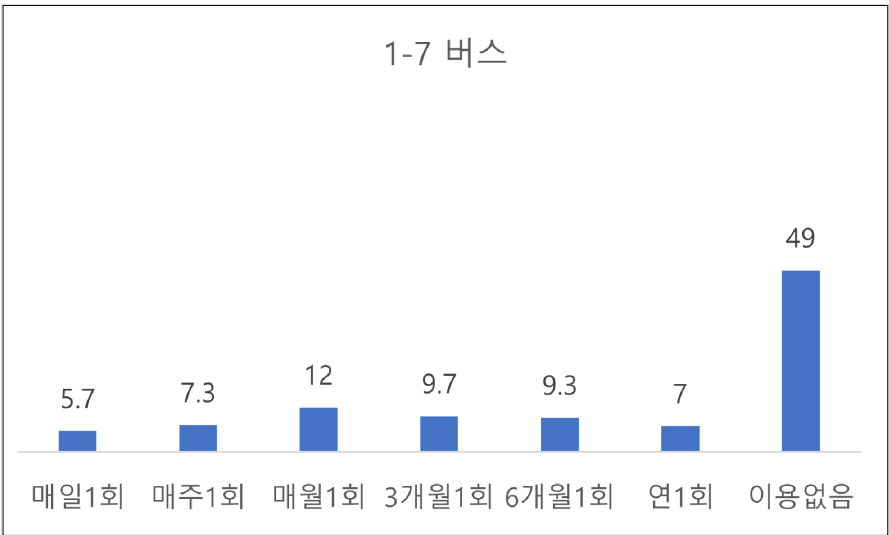
〈표 II-17〉 1년 간 시각장애인의 향만 시설 이용 빈도

1-6 향만시설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0	1	1	1	5	15	159	182	8.432
		%	0.0	0.5	0.5	0.5	2.7	8.2	87.4	100.0	
	여성	n	1	0	0	1	1	19	96	118	
		%	0.8	0.0	0.0	0.8	0.8	16.1	81.4	100.0	
연령	20대	n	0	0	0	0	0	0	17	17	30.861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30대	n	1	0	1	0	2	5	28	37	
		%	2.7	0.0	2.7	0.0	5.4	13.5	75.7	100.0	
	40대	n	0	0	0	0	0	4	24	28	
		%	0.0	0.0	0.0	0.0	0.0	14.3	85.7	100.0	
	50대	n	0	0	0	1	3	21	106	131	
		%	0.0	0.0	0.0	0.8	2.3	16.0	80.9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0	0	0	0	12	12	7.426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소도시 (동)	n	0	0	1	0	2	14	79	96	
		%	0.0	0.0	1.0	0.0	2.1	14.6	82.3	100.0	
	대도시(동)	n	1	1	0	2	4	20	164	192	
		%	0.5	0.5	0.0	1.0	2.1	10.4	85.4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24.726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0	11	12	
		%	0.0	0.0	0.0	0.0	8.3	0.0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1	0	0	1	12	111	125	
		%	0.0	0.8	0.0	0.0	0.8	9.6	88.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0	0	1	1	3	13	102	120	
		%	0.0	0.0	0.8	0.8	2.5	10.8	85.0	100.0	
전체		n	1	1	1	2	6	34	255	300	
		%	0.3	0.3	0.3	0.7	2.0	11.3	85.0	100.0	

문1-7

1년간 버스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47명(49.0%)이 최근 1년간 ‘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다른 교통수단(공항, 항만 등)에 비해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매월 1회 정도 36명(12.0%), 3개월마다 1회 정도 29명(9.7%), 6개월마다 1회 정도 23명(7.3%), 매주 1회 정도 22명(7.3%), 연 1회 정도 21명(7.0%), 매일 1회 정도 17명(5.7%)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 성별, 연령대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낮고,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버스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II-15] 버스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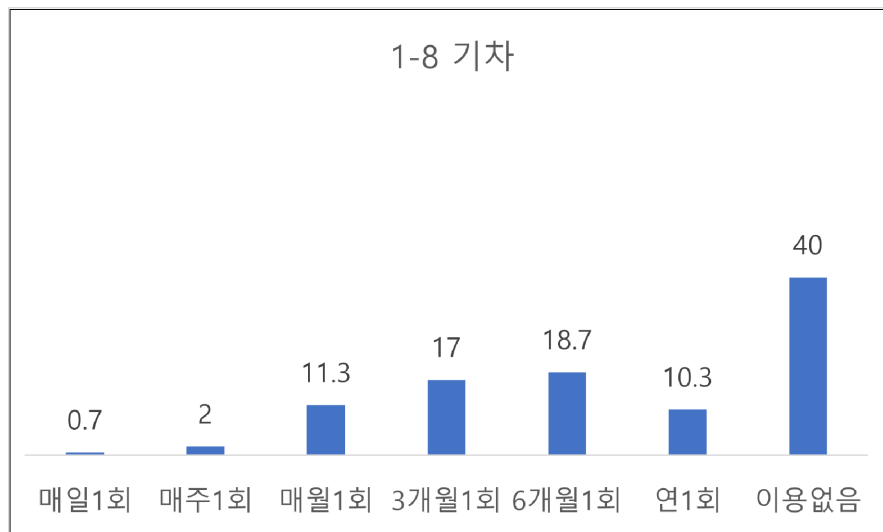
〈표 II-18〉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빈도

1-7 버스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1	15	24	11	19	15	87	182	9.224
		%	6.0	8.2	13.2	6.0	10.4	8.2	47.8	100.0	
	여성	n	6	7	12	18	9	6	60	118	
		%	5.1	5.9	10.2	15.3	7.6	5.1	50.8	100.0	
연령	20대	n	1	2	1	2	3	3	5	17	19.349
		%	5.9	11.8	5.9	11.8	17.6	17.6	29.4	100.0	
	30대	n	4	4	4	5	3	3	14	37	
		%	10.8	10.8	10.8	13.5	8.1	8.1	37.8	100.0	
	40대	n	2	2	6	1	2	2	13	28	
		%	7.1	7.1	21.4	3.6	7.1	7.1	46.4	100.0	
	50대	n	7	10	15	15	13	8	63	131	
		%	5.3	7.6	11.5	11.5	9.9	6.1	48.1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1	2	2	0	0	7	12	17.851
		%	0.0	8.3	16.7	16.7	0.0	0.0	58.3	100.0	
	중소도시 (동)	n	1	8	7	12	14	8	46	96	
		%	1.0	8.3	7.3	12.5	14.6	8.3	47.9	100.0	
	대도시(동)	n	16	13	27	15	14	13	94	192	
		%	8.3	6.8	14.1	7.8	7.3	6.8	49.0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1	0	0	0	3	4	18.310
		%	0.0	0.0	25.0	0.0	0.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1	1	0	1	0	9	12	
		%	0.0	8.3	8.3	0.0	8.3	0.0	75.0	100.0	
	고등학교 졸업	n	5	11	13	12	11	6	67	125	
		%	4.0	8.8	10.4	9.6	8.8	4.8	53.6	100.0	
	대학 재학, 졸업	n	7	9	16	12	13	11	52	120	
		%	5.8	7.5	13.3	10.0	10.8	9.2	43.3	100.0	
전체		n	17	22	36	29	28	21	147	300	
		%	5.7	7.3	12.0	9.7	9.3	7.0	49.0	100.0	

문1-8

1년간 기차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20명(40.0%)이 최근 1년간 ‘기차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공항이나 항만보다는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6개월마다 1회 정도 56명(18.7%), 3개월마다 1회 정도 47명(15.7%), 매월 1회 정도 34명(11.3%), 연 1회 정도 31명(10.3%), 매주 1회 정도 6명(2.0%), 매일 1회 정도 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 다수가 기차를 비정기적 또는 연 1회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적(매주 이상) 이용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 성별과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감소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많았다.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도시 거주자일수록 정기적(3-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6] 기차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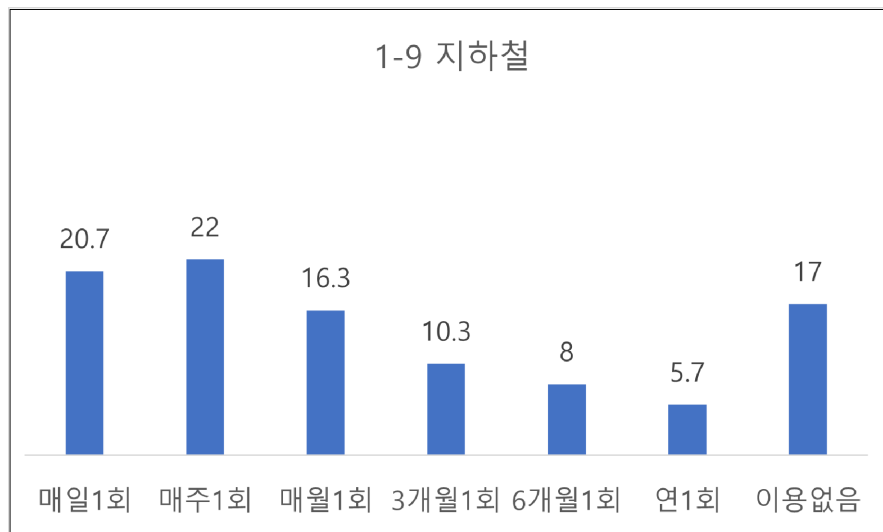
〈표 II-19〉 1년간 시각장애인의 기차 이용 빈도

1-8 기차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2	2	20	35	34	19	70	182	4.857
		%	1.1	1.1	11.0	19.2	18.7	10.4	38.5	100.0	
	여성	n	0	4	14	16	22	12	50	118	
		%	0.0	3.4	11.9	13.6	18.6	10.2	42.4	100.0	
연령	20대	n	0	4	2	5	1	3	2	17	77.377*
		%	0.0	23.5	11.8	29.4	5.9	17.6	11.8	100.0	
	30대	n	0	0	8	6	7	6	10	37	
		%	0.0	0.0	21.6	16.2	18.9	16.2	27.0	100.0	
	40대	n	0	1	4	7	3	6	7	28	
		%	0.0	3.6	14.3	25.0	10.7	21.4	25.0	100.0	
	50대	n	1	1	15	21	29	12	52	131	
		%	0.8	0.8	11.5	16.0	22.1	9.2	39.7	100.0	
60대	n	1	0	5	12	16	4	49	87		
	%	1.1	0.0	5.7	13.8	18.4	4.6	56.3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3	1	2	0	6	12	12.945
		%	0.0	0.0	25.0	8.3	16.7	0.0	50.0	100.0	
	중소도시 (동)	n	0	4	12	14	22	12	32	96	
		%	0.0	4.2	12.5	14.6	22.9	12.5	33.3	100.0	
	대도시(동)	n	2	2	19	36	32	19	82	192	
		%	1.0	1.0	9.9	18.8	16.7	9.9	42.7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1	3	4	52.481*
		%	0.0	0.0	0.0	0.0	0.0	25.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0	11	12	
		%	0.0	0.0	0.0	0.0	8.3	0.0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2	1	10	19	20	12	61	125	
		%	1.6	0.8	8.0	15.2	16.0	9.6	48.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0	5	15	18	29	15	38	120	
		%	0.0	4.2	12.5	15.0	24.2	12.5	31.7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0	0	9	14	6	3	7	39	
		%	0.0	0.0	23.1	35.9	15.4	7.7	17.9	100.0	
전체		n	2	6	34	51	56	31	120	300	
		%	0.7	2.0	11.3	17.0	18.7	10.3	40.0	100.0	

문1-9

1년간 지하철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51명(17.0%)이 최근 1년간 ‘지하철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매주 1회 정도 66명(22.0%), 매일 1회 정도 62명(20.7%), 매월 1회 정도 49명(16.3%), 3개월마다 1회 정도 31명(10.3%), 6개월마다 1회 정도 24명(8.0%), 연 1회 정도 17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 상당수가 지하철을 정기적으로 이용(매일 또는 매주 단위)하고 있으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생활 기반 이동 수단으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성별, 연령대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없었으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읍면 지역은 이용한 적 없음이 41.7%였으나, 대도시는 8.3%에 그쳤다. 연령에서는 30대(86.5%)와 40대(92.9%)뿐 아니라, 50대(81.7%)와 60대(80.5%)도 지하철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7] 지하철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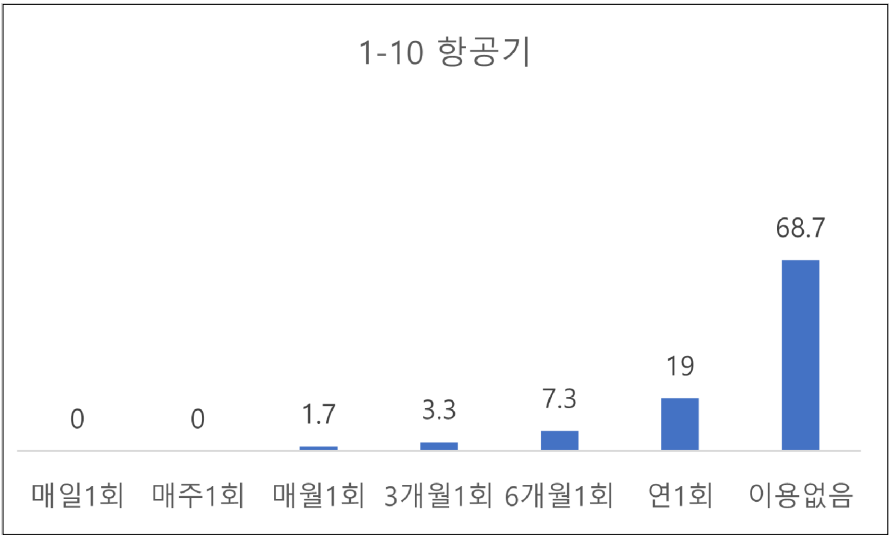
〈표 II-20〉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빈도

1-9 지하철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42	45	32	12	13	10	28	182	10.727
		%	23.1	24.7	17.6	6.6	7.1	5.5	15.4	100.0	
	여성	n	20	21	17	19	11	7	23	118	
		%	16.9	17.8	14.4	16.1	9.3	5.9	19.5	100.0	
연령	20대	n	2	4	3	4	1	0	3	17	31.544
		%	11.8	23.5	17.6	23.5	5.9	0.0	17.6	100.0	
	30대	n	11	6	8	5	1	1	5	37	
		%	29.7	16.2	21.6	13.5	2.7	2.7	13.5	100.0	
	40대	n	10	9	4	1	1	1	2	28	
		%	35.7	32.1	14.3	3.6	3.6	3.6	7.1	100.0	
	50대	n	26	24	15	16	16	10	24	131	
		%	19.8	18.3	11.5	12.2	12.2	7.6	18.3	100.0	
60대	n	13	23	19	5	5	5	17	87		
	%	14.9	26.4	21.8	5.7	5.7	5.7	19.5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2	2	2	1	5	12	45.438*
		%	0.0	0.0	16.7	16.7	16.7	8.3	41.7	100.0	
	중소도시 (동)	n	10	19	13	9	6	9	30	96	
		%	10.4	19.8	13.5	9.4	6.3	9.4	31.3	100.0	
	대도시(동)	n	52	47	34	20	16	7	16	192	
		%	27.1	24.5	17.7	10.4	8.3	3.6	8.3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1	3	4	35.284
		%	0.0	0.0	0.0	0.0	0.0	25.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2	2	2	1	1	0	4	12	
		%	16.7	16.7	16.7	8.3	8.3	0.0	33.3	100.0	
	고등학교 졸업	n	20	26	20	12	14	10	23	125	
		%	16.0	20.8	16.0	9.6	11.2	8.0	18.4	100.0	
	대학 재학, 졸업	n	29	25	18	15	7	6	20	120	
		%	24.2	20.8	15.0	12.5	5.8	5.0	16.7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11	13	9	3	2	0	1	39	
		%	28.2	33.3	23.1	7.7	5.1	0.0	2.6	100.0	
전체		n	62	66	49	31	24	17	51	300	
		%	20.7	22.0	16.3	10.3	8.0	5.7	17.0	100.0	

문1-10

1년간 항공기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206명(68.7%)이 최근 1년간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공항시설 이용률(70.3%)과 유사하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연 1회 정도 57명(19.0%), 6개월마다 1회 정도 22명(7.3%), 3개월마다 1회 정도 10명(3.3%), 매월 1회 정도 5명(1.7%), 매주 1회 정도 0명(0%), 매일 1회 정도 0명(0%)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과 거주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20대(35.3%)와 30대(48.6%)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71.8%)와 60대(80.5%)에서는 이용 경험이 매우 낮았다. 고졸 이하의 응답자의 82.4%가 이용한 적이 없었던 반면, 대학 재학, 졸업자의 이용률(61.7%)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I-18] 항공기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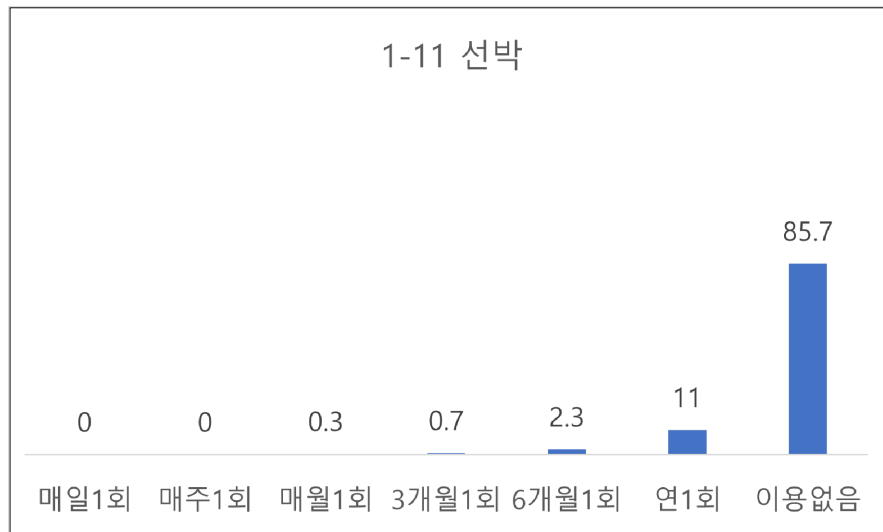
〈표 II-21〉 1년간 시각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빈도

1-10 항공기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0	0	4	4	16	39	119	182	6.076
		%	0	0	2.2	2.2	8.8	21.4	65.4	100.0	
	여성	n	0	0	1	6	6	18	87	118	
		%	0	0	0.8	5.1	5.1	15.3	73.7	100.0	
연령	20대	n	0	0	0	1	1	4	11	17	33.949*
		%	0	0	0.0	5.9	5.9	23.5	64.7	100.0	
	30대	n	0	0	3	1	3	12	18	37	
		%	0	0	8.1	2.7	8.1	32.4	48.6	100.0	
	40대	n	0	0	1	3	2	9	13	28	
		%	0	0	3.6	10.7	7.1	32.1	46.4	100.0	
	50대	n	0	0	1	3	10	23	94	131	
		%	0	0	0.8	2.3	7.6	17.6	71.8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0	0	1	0	11	12	8.160
		%	0	0	0.0	0.0	8.3	0.0	91.7	100.0	
	중소도시 (동)	n	0	0	3	2	7	15	69	96	
		%	0	0	3.1	2.1	7.3	15.6	71.9	100.0	
	대도시(동)	n	0	0	2	8	14	42	126	192	
		%	0	0	1.0	4.2	7.3	21.9	65.6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43.741*
		%	0	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2	1	9	12	
		%	0	0	0.0	0.0	16.7	8.3	75.0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0	0	1	3	18	103	125	
		%	0	0	0.0	0.8	2.4	14.4	82.4	100.0	
	대학 재학, 졸업	n	0	0	2	5	11	28	74	120	
		%	0	0	1.7	4.2	9.2	23.3	61.7	100.0	
전체		n	0	0	5	10	22	57	206	300	
		%	0	0	1.7	3.3	7.3	19.0	68.7	100.0	

문1-11

1년간 선박 이용 빈도

- 전체 300명 중 257명(85.7%)이 최근 1년간 ‘선박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수단 중에서도 이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연 1회 정도 33명(11.0%), 6개월마다 1회 정도 7명(2.3%), 3개월마다 1회 정도 2명(0.7%), 매월 1회, 매주 1회, 매일 1회 정도는 응답자가 없었다.
- 성별 및 거주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과 최종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94.1%)와 60대 이상(93.1%)은 이용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반면 30대(21.6%)와 40~50대(약 17~18%)에서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학원 재학 이상 응답자 중 28.2%가 선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면, 고졸 이하 집단에서는 90% 이상이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19] 선박 이용 빈도(단위: %)

〈표 II-22〉 1년간 시각장애인의 선박 이용 빈도

1-11 선박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0	0	1	1	6	15	159	182	5.940
		%	0	0	0.5	0.5	3.3	8.2	87.4	100.0	
	여성	n	0	0	0	1	1	18	98	118	
		%	0	0	0.0	0.8	0.8	15.3	83.1	100.0	
연령	20대	n	0	0	0	0	0	1	16	17	17.306
		%	0	0	0.0	0.0	0.0	5.9	94.1	100.0	
	30대	n	0	0	1	0	2	5	29	37	
		%	0	0	2.7	0.0	5.4	13.5	78.4	100.0	
	40대	n	0	0	0	0	1	4	23	28	
		%	0	0	0.0	0.0	3.6	14.3	82.1	100.0	
	50대	n	0	0	0	1	3	19	108	131	
		%	0	0	0.0	0.8	2.3	14.5	82.4	100.0	
60대	n	0	0	0	1	1	4	81	87		
	%	0	0	0.0	1.1	1.1	4.6	93.1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0	0	0	0	12	12	6.212
		%	0	0	0.0	0.0	0.0	0.0	100.0	100.0	
	중소도시 (동)	n	0	0	1	0	3	13	79	96	
		%	0	0	1.0	0.0	3.1	13.5	82.3	100.0	
	대도시(동)	n	0	0	0	2	4	20	166	192	
		%	0	0	0.0	1.0	2.1	10.4	86.5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17.189
		%	0	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0	11	12	
		%	0	0	0.0	0.0	8.3	0.0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0	0	0	1	11	113	125	
		%	0	0	0.0	0.0	0.8	8.8	90.4	100.0	
	대학 재학, 졸업	n	0	0	1	1	4	13	101	120	
		%	0	0	0.8	0.8	3.3	10.8	84.2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0	0	0	1	1	9	28	39	
		%	0	0	0.0	2.6	2.6	23.1	71.8	100.0	
전체		n	0	0	1	2	7	33	257	300	
		%	0	0	0.3	0.7	2.3	11.0	85.7	100.0	

(2) 여객 시설 및 교통 수단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문2-1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 및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20점(± 1.002), 평균 만족도는 2.75점(± 1.035)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를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즉, “중요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인식 격차가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연령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20대와 50대는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대학원 이상 학력층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즉,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23〉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1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15	1.005	-1.110	2.69	1.016	-1.200
	여성	118	4.28	0.995		2.84	1.062	
연령	20대	17	4.53	0.717	4.271	3.18	0.809	2.173
	30대	37	3.84	1.068		2.59	1.142	
	40대	28	3.82	1.362		3.14	1.113	
	50대	131	4.40	0.926		2.67	1.092	
	60대	87	4.11	0.920		2.72	0.872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669	0.313	2.83	0.577	0.870
	중소도시(동)	96	4.21	0.994		2.64	0.975	
	대도시(동)	192	4.18	1.025		2.80	1.084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1.759	3.00	0.000	2.191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83	0.577	
	고등학교 졸업	125	4.35	0.918		2.85	1.063	
	대학 재학, 졸업	120	4.16	1.045		2.78	1.025	
	대학원 재학 이상	39	3.90	1.165		2.31	1.055	
전체		300	4.20	1.002		2.75	1.035	

문2-2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36점(± 0.901)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평균 만족도는 3.08점(± 1.059)으로 중요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만족 수준은 그보다 낮은 편임을 의미한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거주 지역이나 최종 학력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만족도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4〉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2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9	0.903	-1.566	3.03	1.002	-0.887
	여성	118	4.46	0.893		3.14	1.142	
연령	20대	17	4.53	0.874	1.506	3.47	1.007	1.771
	30대	37	4.38	0.893		3.30	1.102	
	40대	28	4.32	1.056		3.21	1.134	
	50대	131	4.46	0.879		3.05	1.125	
	60대	87	4.17	0.879		2.90	0.89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0	0.522	0.225	3.17	0.937	1.620
	중소도시(동)	96	4.32	0.935		2.92	1.002	
	대도시(동)	192	4.36	0.905		3.15	1.089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687	2.75	0.500	0.227
	중학교 졸업	12	4.00	0.603		2.92	0.669	
	고등학교 졸업	125	4.38	0.869		3.08	1.052	
	대학 재학, 졸업	120	4.36	0.915		3.12	1.094	
	대학원 재학 이상	39	4.41	1.044		3.03	1.135	
전체		300	4.36	0.901		3.08	1.059	

문2-3

승강기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승강기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58점(± 0.715), 평균 만족도는 3.85점(± 1.004)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해당 교통수단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만족 수준 또한 비교적 높은 편임을 의미한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령이 많아질수록 중요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대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5〉 승강기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3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58	0.706	-0.027	3.80	1.011	-1.096
	여성	118	4.58	0.732		3.93	0.993	
연령	20대	17	4.82	0.393	3.491	3.88	0.697	1.360
	30대	37	4.70	0.702		3.81	1.101	
	40대	28	4.71	0.600		3.46	0.999	
	50대	131	4.64	0.691		3.95	1.047	
	60대	87	4.36	0.792		3.85	0.934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75	0.452	0.446	3.92	0.900	0.479
	중소도시(동)	96	4.60	0.703		3.77	1.119	
	대도시(동)	192	4.56	0.735		3.89	0.951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2.997	3.75	0.957	1.762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50	0.798	
	고등학교 졸업	125	4.54	0.778		4.00	0.959	
	대학 재학, 졸업	120	4.68	0.608		3.83	0.993	
	대학원 재학 이상	39	4.64	0.743		3.59	1.186	
전체		300	4.58	0.715		3.85	1.004	

문2-4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30점(± 0.96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61점(± 1.114)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교통수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 인식과 경험 사이의 격차가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령별로는 50대의 중요도(4.4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2.31점).

〈표 II-26〉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4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5	0.969	-1.175	2.63	1.098	0.357
	여성	118	4.38	0.960		2.58	1.142	
연령	20대	17	4.35	0.931	2.388	2.71	0.849	0.563
	30대	37	4.05	1.311		2.46	1.260	
	40대	28	4.21	1.067		2.79	1.287	
	50대	131	4.48	0.862		2.66	1.225	
	60대	87	4.15	0.883		2.53	0.833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669	0.150	2.58	0.996	0.061
	중소도시(동)	96	4.32	0.946		2.58	1.102	
	대도시(동)	192	4.28	0.994		2.63	1.132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556	3.00	0.000	1.269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00	0.853	
	고등학교 졸업	125	4.38	0.887		2.62	1.141	
	대학 재학, 졸업	120	4.26	1.000		2.66	1.081	
	대학원 재학 이상	39	4.26	1.186		2.31	1.217	
전체		300	4.30	0.966		2.61	1.114	

문2-5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에 대한 시각장애인 300명의 평균 중요도는 4.39점(± 0.89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3.08점(± 1.108)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교통수단을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중간 이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7〉 계단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5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4	0.931	-1.182	3.07	1.049	-0.337
	여성	118	4.47	0.844		3.11	1.197	
연령	20대	17	4.53	0.874	2.225	3.35	1.169	1.488
	30대	37	4.54	0.767		3.38	1.255	
	40대	28	4.29	1.272		3.14	1.239	
	50대	131	4.50	0.845		3.07	1.145	
	60대	87	4.17	0.865		2.91	0.897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669	0.315	2.92	0.793	1.334
	중소도시(동)	96	4.45	0.819		2.95	1.118	
	대도시(동)	192	4.36	0.950		3.16	1.116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565	3.00	0.000	0.201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00	0.853	
	고등학교 졸업	125	4.41	0.843		3.07	1.086	
	대학 재학, 졸업	120	4.41	0.921		3.14	1.079	
	대학원 재학 이상	39	4.41	1.069		2.97	1.386	
전체		300	4.39	0.898		3.08	1.108	

문2-6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40점(± 0.869)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65점(± 1.050)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항목을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젊은 연령 층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도는 높았지만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8〉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6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6	0.897	-1.061	2.64	1.008	-0.327
	여성	118	4.47	0.824		2.68	1.116	
연령	20대	17	4.71	0.686	2.948	3.12	1.111	1.288
	30대	37	4.38	0.924		2.73	1.217	
	40대	28	4.39	1.031		2.71	1.049	
	50대	131	4.53	0.816		2.54	1.069	
	60대	87	4.16	0.861		2.68	0.921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67	0.492	1.048	3.17	1.115	1.817
	중소도시(동)	96	4.46	0.832		2.56	0.982	
	대도시(동)	192	4.35	0.904		2.67	1.075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735	2.75	0.500	0.796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67	0.492	
	고등학교 졸업	125	4.38	0.840		2.63	1.028	
	대학 재학, 졸업	120	4.44	0.858		2.75	1.015	
	대학원 재학 이상	39	4.46	1.047		2.41	1.352	
전체		300	4.40	0.869		2.65	1.050	

문2-7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에 대한 전체 평균 중요도는 3.88점(± 1.153)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평균 만족도는 2.37점(± 0.933)으로 보통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항목을 다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연령별로는 50대가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4.05점), 20대(3.41점)가 가장 낮았다.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높았고(2.70점), 50대가 가장 낮았다(2.18점). 거주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만족도 면에서 읍면 지역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2.25점).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도와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29〉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7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3.83	1.151	-0.939	2.35	0.903	-0.499
	여성	118	3.96	1.158		2.41	0.980	
연령	20대	17	3.41	1.417	2.513	2.47	0.717	3.626
	30대	37	3.65	1.338		2.70	1.175	
	40대	28	3.54	1.170		2.71	1.013	
	50대	131	4.05	1.112		2.18	0.866	
	60대	87	3.92	1.025		2.39	0.867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08	1.084	0.194	2.25	0.452	0.172
	중소도시(동)	96	3.88	1.098		2.41	0.947	
	대도시(동)	192	3.87	1.188		2.36	0.95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907	2.75	0.500	1.317
	중학교 졸업	12	3.92	0.669		2.58	0.515	
	고등학교 졸업	125	4.01	1.103		2.24	0.893	
	대학 재학, 졸업	120	3.82	1.223		2.48	0.935	
	대학원 재학 이상	39	3.64	1.224		2.38	1.138	
전체		300	3.88	1.153		2.37	0.933	

문2-8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에 대한 전체 평균 중요도는 4.25점(± 0.958)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63점(± 1.018)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항목을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집단 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4.49점)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20대(3.88점)가 가장 낮았다. 만족도는 20대(2.88점)가 가장 높고, 50대(2.51점)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만족도는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30〉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2-8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3	0.963	-0.555	2.59	1.003	-0.773
	여성	118	4.29	0.953		2.69	1.043	
연령	20대	17	3.88	0.993	3.930	2.88	0.781	1.058
	30대	37	4.08	1.211		2.76	1.188	
	40대	28	4.07	1.152		2.57	1.200	
	50대	131	4.49	0.798		2.51	1.010	
	60대	87	4.09	0.923		2.72	0.924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0	0.674	0.501	3.00	0.853	0.893
	중소도시(동)	96	4.27	0.946		2.58	1.053	
	대도시(동)	192	4.22	0.980		2.63	1.01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444	2.75	0.500	2.091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00	0.853	
	고등학교 졸업	125	4.31	0.893		2.65	0.994	
	대학 재학, 졸업	120	4.25	0.998		2.70	1.042	
	대학원 재학 이상	39	4.13	1.128		2.23	1.038	
전체		300	4.25	0.958		2.63	1.018	

문2-9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27점(± 0.94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48점(± 0.980)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교통수단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연령별로 20대(3.06점)와 30대(2.65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40대(2.32점)와 50대(2.34점)는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졸(4.30점)과 대학 이상(4.25~4.33점) 집단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만족도는 대학원 이상(2.13점)이 가장 낮고, 중학교 졸업(2.83점)이 가장 높았다.
- 즉, 성별과 거주 지역 별로는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젊은 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중장년층은 낮은 경향,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31〉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9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5	0.957	-0.519	2.50	0.927	0.365
	여성	118	4.31	0.920		2.46	1.059	
연령	20대	17	4.41	0.712	1.127	3.06	1.088	2.799
	30대	37	4.16	1.236		2.65	1.160	
	40대	28	4.29	0.897		2.32	1.090	
	50대	131	4.37	0.939		2.34	0.991	
	60대	87	4.13	0.846		2.56	0.758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900	0.248	2.58	0.900	1.668
	중소도시(동)	96	4.23	1.000		2.33	0.970	
	대도시(동)	192	4.28	0.918		2.55	0.985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279	2.75	0.500	2.106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83	0.577	
	고등학교 졸업	125	4.30	0.889		2.46	0.946	
	대학 재학, 졸업	120	4.25	0.972		2.58	0.931	
	대학원 재학 이상	39	4.33	1.108		2.13	1.260	
전체		300	4.27	0.942		2.48	0.980	

문2-10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18점(± 1.01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07점(± 0.972)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승강장 안전문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4.28점)이 남성(4.11점)보다 중요도를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족도는 남성(2.07점)과 여성(2.08점) 모두 매우 낮고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도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경향적으로 보면 50대(4.31점)가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20대(2.29점)와 60대(2.22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1.92점)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거주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읍면 지역(4.33점) 응답자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2.13점) 거주자의 만족도가 중소도시(1.9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도심일수록 실제 이용 만족도는 약간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 최종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2.930, $p < .05$),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향적으로는 중학교 졸업(2.58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1.69점)이 가장 낮았다. 중요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약간 높아지는 양상이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 종합적으로 보면, 승강장 안전문 점자 표기에 대한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높고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과 지역,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과 고연령층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32〉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10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11	1.040	-1.419	2.07	0.938	-0.164
	여성	118	4.28	0.969		2.08	1.026	
연령	20대	17	4.18	0.951	0.985	2.29	1.359	1.646
	30대	37	4.08	1.090		2.05	1.026	
	40대	28	4.07	1.184		2.21	1.197	
	50대	131	4.31	1.014		1.92	0.908	
	60대	87	4.06	0.932		2.22	0.855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33	1.155	0.202	2.00	0.739	0.918
	중소도시(동)	96	4.20	1.053		1.97	0.989	
	대도시(동)	192	4.16	0.990		2.13	0.975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279	2.75	0.500	2.930* 사후 검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58	0.669	
	고등학교 졸업	125	4.23	0.968		2.09	0.967	
	대학 재학, 졸업	120	4.12	1.055		2.11	0.968	
	대학원 재학 이상	39	4.23	1.158		1.69	1.004	
전체		300	4.18	1.014		2.07	0.972	

문2-11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좌석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평균 중요도는 4.18점(± 0.99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10점(± 0.983)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최종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령 별로는 경향적으로 50대(4.33점)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40대(3.96점)는 가장 낮았다. 만족도는 40대(2.39점)가 가장 높았으며, 50대(1.92점)가 가장 낮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2.58점)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1.69점) 집단이 가장 낮았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장년층과 고학력층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과 지역별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3〉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좌석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11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15	0.994	-0.681	2.07	0.950	-0.745
	여성	118	4.23	1.008		2.15	1.035	
연령	20대	17	4.24	0.831	1.486	2.24	1.200	2.140
	30대	37	4.05	1.079		2.16	1.068	
	40대	28	3.96	1.261		2.39	1.315	
	50대	131	4.33	0.980		1.92	0.917	
	60대	87	4.07	0.912		2.22	0.841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17	1.193	0.171	1.92	0.793	0.777
	중소도시(동)	96	4.23	1.000		2.02	1.036	
	대도시(동)	192	4.16	0.990		2.15	0.967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370	2.75	0.500	2.999* 사후 검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58	0.669	
	고등학교 졸업	125	4.25	0.922		2.11	0.944	
	대학 재학, 졸업	120	4.17	1.048		2.15	1.010	
	대학원 재학 이상	39	4.05	1.191		1.69	1.030	
전체		300	4.18	0.999		2.10	0.983	

문2-12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33점(± 0.911)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49점(± 0.948)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승강장 안내 표지판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대(4.46점)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20대(4.53점)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20대(2.76점)가 가장 높고, 30대(2.65점)와 60대(2.59점)가 그 뒤를 이었으며, 50대(2.40점)가 가장 낮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소도시(4.41점)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대도시(2.53점)의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4.33점)과 대학 이상(4.34~4.38점)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만족도는 대학원 이상(2.21점)이 가장 낮고, 중학교 졸업(2.75점)이 가장 높았다.
- 종합적으로 보면,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 20대, 중소도시 거주자, 중·저학력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과 고학력층에서는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34〉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12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6	0.926	-1.489	2.43	0.912	-1.472
	여성	118	4.42	0.881		2.59	0.998	
연령	20대	17	4.53	0.800	2.323	2.76	1.348	1.564
	30대	37	4.38	0.924		2.65	1.060	
	40대	28	4.18	1.156		2.25	1.110	
	50대	131	4.46	0.879		2.40	0.951	
	60대	87	4.11	0.855		2.59	0.708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25	1.138	0.549	2.50	0.798	0.347
	중소도시(동)	96	4.41	0.841		2.43	0.960	
	대도시(동)	192	4.29	0.931		2.53	0.954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387	2.75	0.500	1.256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75	0.452	
	고등학교 졸업	125	4.33	0.905		2.52	0.903	
	대학 재학, 졸업	120	4.34	0.921		2.53	0.978	
	대학원 재학 이상	39	4.38	0.990		2.21	1.105	
전체		300	4.33	0.911		2.49	0.948	

문2-13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40점(± 0.90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3.12점(± 1.136)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열차 내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만족도는 이전 항목들(승강장·발매기 등)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평가하였다.
-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4.43점)이 남성(4.38점)보다 중요도를 약간 높게 인식하였다. 만족도는 남성(3.16점)이 여성(3.05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50대(4.51점)와 20대(4.59점)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60대(4.18점)는 다소 낮았다. 만족도는 20대(3.59점)가 가장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졸업(4.51점)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대학원 이상(4.28점)이 가장 낮았다. 만족도는 대학 재학, 졸업(3.17점)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2.97점)이 가장 낮았다.
- 종합적으로 보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의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요도는 전체적으로 높고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20대와 대학 재학, 졸업 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학력층과 여성 집단에서는 중요도 인식은 높지만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35〉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2-13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8	0.877	-0.445	3.16	1.085	0.849
	여성	118	4.43	0.947		3.05	1.211	
연령	20대	17	4.59	0.618	2.054	3.59	0.870	1.016
	30대	37	4.49	0.989		3.22	1.205	
	40대	28	4.36	1.096		3.21	1.397	
	50대	131	4.51	0.871		3.05	1.185	
	60대	87	4.18	0.870		3.06	0.969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33	0.778	0.047	3.17	0.718	0.013
	중소도시(동)	96	4.40	0.957		3.13	1.207	
	대도시(동)	192	4.41	0.888		3.11	1.124	

2-13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1.173	2.75	0.500	0.435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92	0.793	
	고등학교 졸업	125	4.38	0.905		3.15	1.164	
	대학 재학, 졸업	120	4.51	0.789		3.17	1.095	
	대학원 재학 이상	39	4.28	1.234		2.97	1.308	
전체		300	4.40	0.904		3.12	1.136	

문2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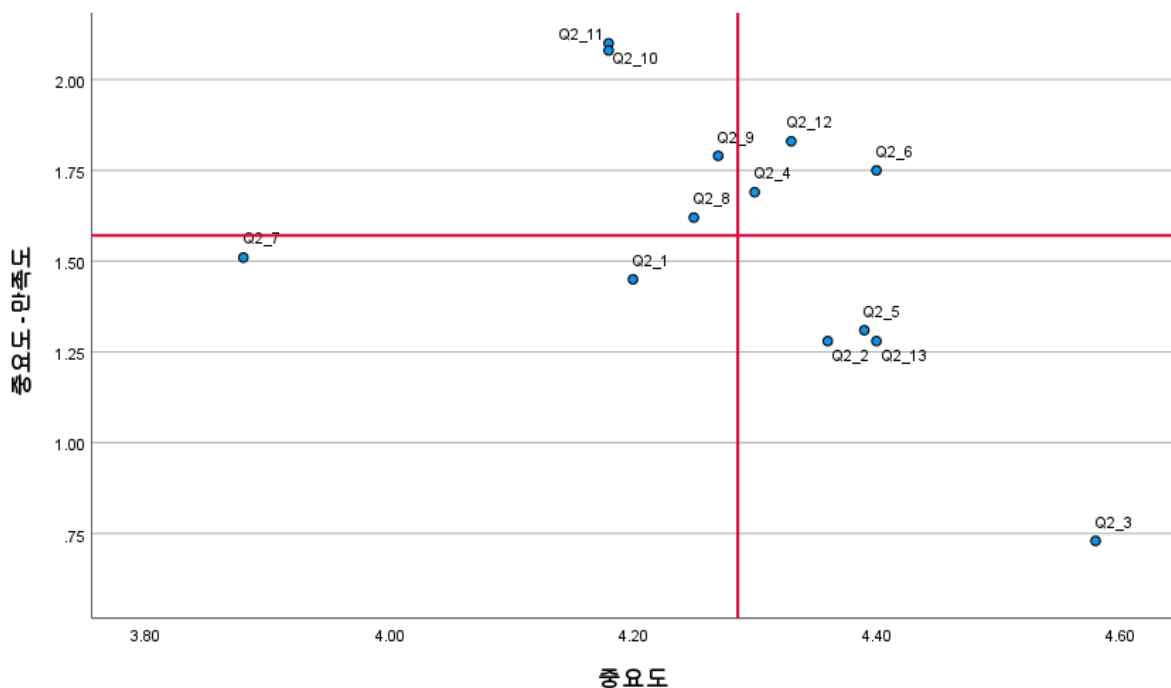
여객 시설 및 교통 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

- 여객 시설 및 교통 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항목은 <표 II-36>과 같이 ‘버스·기차·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좌석 위치나 번호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실제 좌석에 점자 표기가 거의 없거나 표기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다음으로 ‘버스·기차·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좌석의 점자 표기’, ‘기차·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 ‘여객 시설 화장실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교통수단 내 화장실 및 성별 구분 표기와 같은 이용자 편의 시설 영역의 점자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승강기 버튼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는 가장 낮은 보리치 지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승강기 내 점자 표기가 이미 일정 부분 표준화되어 있고 이용 경험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다음으로 요구도 우선순위를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하여 시각화 한 결과, [그림 II-20]과 같이 중요도의 평균보다 높고,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의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옆 점자 표기’,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로 나타났다.
- 보리치 요구도와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요구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기차, 선박 등 교통

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옆 점자 표기’,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로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점자 표기 영역이다.

〈표 II-36〉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문항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만족도	borich	Rank
2-1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	4.20	2.75	1.45	6.09	8
2-2.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4.36	3.08	1.28	5.58	12
2-3. 승강기의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	4.58	3.85	0.73	3.35	13
2-4.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4.30	2.61	1.69	7.25	6
2-5.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4.39	3.08	1.31	5.74	10
2-6.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	4.40	2.65	1.75	7.69	4
2-7.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	3.88	2.37	1.51	5.85	9
2-8.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	4.25	2.63	1.62	6.88	7
2-9.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	4.27	2.48	1.79	7.63	5
2-10.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	4.18	2.07	2.10	8.78	1
2-11.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좌석의 점자 표기	4.18	2.10	2.08	8.69	2
2-12.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옆 점자 표기	4.33	2.49	1.83	7.93	3
2-13.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의 점자 표지판	4.40	3.12	1.28	5.65	11



[그림 II-20]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에 대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3)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인식

문 3-1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의 위치 적절성

- 시각장애인 300명은 ‘점자는 적절한 위치에 표기되어 있는가’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 (43.3%)와 ‘그렇다’(26.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7.3%), ‘그렇지 않다’(18.3%), ‘전혀 그렇지 않다’(4.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다수는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위치 적절성에 대해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긍정 응답(‘그렇다’ 이상)은 전체의 약 34% 수준이었다.
-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0대(‘매우 그렇다’ 10.7%)와 60대(‘매우 그렇다’, 5.7%)의 긍정 응답이 높은 편이었고, 20대와 30대는 ‘보통이다’ 비율이 각각 52.9%, 48.6%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했다. 나머지 성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학력별로 고등학교 졸업(‘그렇다 이상’ 38.4%)과 대학 재학, 졸업(‘그렇다 이상’ 32.5%) 응답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학원 이상(‘그렇지 않다 이상’ 38.4%) 응답자들은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 응답자는 철도시설 내 점자 표기 상태를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평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37〉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위치의 적절성

3-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성별	남성	n	8	33	83	48	10	182	2.714
		%	4.4	18.1	45.6	26.4	5.5	100.0	
	여성	n	5	22	47	32	12	118	
		%	4.2	18.6	39.8	27.1	10.2	100.0	
연령	20대	n	0	1	9	6	1	17	26.778*
		%	0.0	5.9	52.9	35.3	5.9	100.0	
	30대	n	1	7	18	10	1	37	
		%	2.7	18.9	48.6	27.0	2.7	100.0	
	40대	n	5	6	8	8	1	28	
		%	17.9	21.4	28.6	28.6	3.6	100.0	
	50대	n	5	29	49	34	14	131	
		%	3.8	22.1	37.4	26.0	10.7	100.0	
60대	n	2	12	46	22	5	87		
	%	2.3	13.8	52.9	25.3	5.7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1	6	5	0	12	4.768
		%	0.0	8.3	50.0	41.7	0.0	100.0	
	중소도시 (동)	n	6	17	43	23	7	96	
		%	6.3	17.7	44.8	24.0	7.3	100.0	
	대도시(동)	n	7	37	81	52	15	192	
		%	3.6	19.3	42.2	27.1	7.8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1	3	0	0	4	22.962
		%	0.0	25.0	75.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10	1	1	12	
		%	0.0	0.0	83.3	8.3	8.3	100.0	
	고등학교 졸업	n	3	23	51	38	10	125	
		%	2.4	18.4	40.8	30.4	8.0	100.0	
	대학 재학, 졸업	n	8	18	55	30	9	120	
		%	6.7	15.0	45.8	25.0	7.5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2	13	11	11	2	39	
		%	5.1	33.3	28.2	28.2	5.1	100.0	
전체		n	13	55	130	80	22	300	
		%	4.3	18.3	43.3	26.7	7.3	100.0	

문 3-2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점 간격, 점 높이는 적정한가

- 시각장애인 300명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점 간격, 점 높이는 적정한가?’라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42.7%)와 ‘그렇다’(29.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9.0%), ‘그렇지 않다’(15.0%), ‘전혀 그렇지 않다’(3.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점 간격, 점 높이의 적절성을 중간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나, 긍정 응답은 전체의 약 39% 수준에 머물렀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대(‘그렇다 이상’ 42.9%)와 50대(‘매우 그렇다’ 13.0%)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60대(‘보통이다’ 55.2%)는 대체로 중립적인 평가를 보였다. 반면 20~30대(‘보통이다’ 29.4~45.9%)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고등학교 졸업(‘그렇다 이상’ 41.6%)과 대학 재학, 졸업(37.5%) 응답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대학원 이상(‘보통이다’ 35.9%)은 중립적 응답이 많았다.
- 종합적으로 보면,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점 간격, 점 높이의 적절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보통 수준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평가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가가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II-38〉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점 간격, 점 높이의 적정성

3-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성별	남성	n	7	25	81	55	14	182	1.827
		%	3.8	13.7	44.5	30.2	7.7	100.0	
	여성	n	4	20	47	34	13	118	
		%	3.4	16.9	39.8	28.8	11.0	100.0	
연령	20대	n	0	4	5	6	2	17	28.350*
		%	0.0	23.5	29.4	35.3	11.8	100.0	
	30대	n	2	3	17	11	4	37	
		%	5.4	8.1	45.9	29.7	10.8	100.0	
	40대	n	4	6	6	9	3	28	
		%	14.3	21.4	21.4	32.1	10.7	100.0	
	50대	n	3	26	52	37	13	131	
		%	2.3	19.8	39.7	28.2	9.9	100.0	
60대	n	2	6	48	26	5	87		
	%	2.3	6.9	55.2	29.9	5.7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2	6	4	0	12	4.288
		%	0.0	16.7	50.0	33.3	0.0	100.0	
	중소도시 (동)	n	5	11	41	31	8	96	
		%	5.2	11.5	42.7	32.3	8.3	100.0	
	대도시(동)	n	6	32	81	54	19	192	
		%	3.1	16.7	42.2	28.1	9.9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1	3	0	0	4	12.916
		%	0.0	25.0	75.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9	2	1	12	
		%	0.0	0.0	75.0	16.7	8.3	100.0	
	고등학교 졸업	n	3	16	54	41	11	125	
		%	2.4	12.8	43.2	32.8	8.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6	21	48	33	12	120	
		%	5.0	17.5	40.0	27.5	1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2	7	14	13	3	39	
		%	5.1	17.9	35.9	33.3	7.7	100.0	
전체		n	11	45	128	89	27	300	
		%	3.7	15.0	42.7	29.7	9.0	100.0	

문 3-3

점자 표기의 내용이 정확한가?

- 시각장애인 300명이 인식하는 ‘점자 표기의 내용이 정확한가’라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38.3%)와 ‘그렇다’(32.0%)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9.3%), ‘그렇지 않다’(18.0%), ‘전혀 그렇지 않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약 40%가 점자 표기 내용의 정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중간 이하로 평가한 비율도 상당했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0대(‘그렇다 이상’ 57.1%)와 50대(‘매우 그렇다’ 10.7%)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20대(‘그렇다 이상’ 58.8%) 역시 긍정적 경향을 보였다. 반면 60대(‘보통이다’ 56.3%)는 중립적 응답이 많아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신중한 평가를, 청·중년층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졸업(‘그렇다 이상’ 48.4%)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37.6%), 대학원 이상(4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이상(‘보통이다’ 17.9%) 응답자가 낮은 중립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평가가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 종합적으로 보면,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내용의 정확성은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완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연령과 학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0~50대와 대학 재학, 졸업이 가장 긍정적인 반면 고학력층과 고령층에서는 중립 또는 신중한 평가 경향이 두드러졌다. 성별과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39〉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내용의 정확성

3-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성별	남성	n	5	30	74	58	15	182	2.177
		%	2.7	16.5	40.7	31.9	8.2	100.0	
	여성	n	2	24	41	38	13	118	
		%	1.7	20.3	34.7	32.2	11.0	100.0	
연령	20대	n	1	2	4	8	2	17	37.021*
		%	5.9	11.8	23.5	47.1	11.8	100.0	
	30대	n	0	11	11	12	3	37	
		%	0.0	29.7	29.7	32.4	8.1	100.0	
	40대	n	3	5	4	14	2	28	
		%	10.7	17.9	14.3	50.0	7.1	100.0	
	50대	n	2	26	47	42	14	131	
		%	1.5	19.8	35.9	32.1	10.7	100.0	
	60대	n	1	10	49	20	7	87	
		%	1.1	11.5	56.3	23.0	8.0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7	5	0	12	12.318
		%	0.0	0.0	58.3	41.7	0.0	100.0	
	중소도시 (동)	n	5	16	31	33	11	96	
		%	5.2	16.7	32.3	34.4	11.5	100.0	
	대도시(동)	n	2	38	77	58	17	192	
		%	1.0	19.8	40.1	30.2	8.9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1	3	0	0	4	37.792*
		%	0.0	25.0	75.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10	1	1	12	
		%	0.0	0.0	83.3	8.3	8.3	100.0	
	고등학교 졸업	n	1	19	58	38	9	125	
		%	0.8	15.2	46.4	30.4	7.2	100.0	
	대학 재학, 졸업	n	4	21	37	41	17	120	
		%	3.3	17.5	30.8	34.2	14.2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2	13	7	16	1	39	
		%	5.1	33.3	17.9	41.0	2.6	100.0	
전체		n	7	54	115	96	28	300	
		%	2.3	18.0	38.3	32.0	9.3	100.0	

문 3-4

점자 표기는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 시각장애인 300명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는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41.7%)와 ‘그렇다’(21.3%) 응답이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8.0%), ‘그렇지 않다’(22.3%), ‘전혀 그렇지 않다’(6.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엘리베이터 점자 표기 수준을 중간 이하로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 응답(‘그렇다’ 이상)은 약 29% 수준에 그쳤다.
-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그렇다 이상’ 30.5%)와 40대(28.6%)는 중립 응답과 긍정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반면, 20대(‘전혀 그렇지 않다’ 17.6%)와 30대(‘그렇지 않다’ 24.3%)는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60대(‘보통이다’ 59.8%)는 전반적으로 중립적 인식이 많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 응답이 감소하고 보통 혹은 긍정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 거주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그렇다 이상’ 29.7%)보다 중소도시(‘그렇다 이상’ 27.1%)의 응답자들이 다소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읍면 지역(‘보통이다’ 66.7%)은 대체로 중립적이었다. 즉,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점자 표기 상태를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최종 학력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 재학, 졸업(‘그렇다 이상’ 34.8%)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보통이다’ 48.8%)은 중립 응답이 많았다. 반면 대학원 이상(‘전혀 그렇지 않다’ 12.8%) 응답자는 다소 비판적인 경향을 보였다.
- 종합적으로 보면,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의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중간 이하 수준으로, 많은 응답자가 ‘보통’ 또는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연령·지역·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였고, 중소도시 거주자와 대학 재학, 졸업 층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고학력 층은 다소 비판적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40〉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의 유지 관리

3-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성별	남성	n	12	39	81	38	12	182	2.257
		%	6.6	21.4	44.5	20.9	6.6	100.0	
	여성	n	8	28	44	26	12	118	
		%	6.8	23.7	37.3	22.0	10.2	100.0	
연령	20대	n	3	2	7	3	2	17	31.881*
		%	17.6	11.8	41.2	17.6	11.8	100.0	
	30대	n	5	9	11	8	4	37	
		%	13.5	24.3	29.7	21.6	10.8	100.0	
	40대	n	2	12	6	7	1	28	
		%	7.1	42.9	21.4	25.0	3.6	100.0	
	50대	n	8	32	49	30	12	131	
		%	6.1	24.4	37.4	22.9	9.2	100.0	
	60대	n	2	12	52	16	5	87	
		%	2.3	13.8	59.8	18.4	5.7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8	4	0	12	20.080*
		%	0.0	0.0	66.7	33.3	0.0	100.0	
	중소도시 (동)	n	12	28	29	19	8	96	
		%	12.5	29.2	30.2	19.8	8.3	100.0	
	대도시(동)	n	8	39	88	41	16	192	
		%	4.2	20.3	45.8	21.4	8.3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1	3	0	0	4	32.040*
		%	0.0	25.0	75.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10	1	1	12	
		%	0.0	0.0	83.3	8.3	8.3	100.0	
	고등학교 졸업	n	4	22	61	29	9	125	
		%	3.2	17.6	48.8	23.2	7.2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1	29	41	26	13	120	
		%	9.2	24.2	34.2	21.7	10.8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5	15	10	8	1	39	
		%	12.8	38.5	25.6	20.5	2.6	100.0	
전체		n	20	67	125	64	24	300	
		%	6.7	22.3	41.7	21.3	8.0	100.0	

문 4-1

교통수단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자유 응답)

- 점자 표기의 위치 및 표준화 필요: 응답자들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에서 점자의 부착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지하철 안전문과 객실 문, 좌석, 화장실, 승강장 안내판 등에서 점자 위치가 높거나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손이 닿기 쉬운 높이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좌석 번호, 호차 번호, 화장실 성별 표기, 열차 방향 등 이용에 직접 필요한 정보가 점자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가 다수 제기되었다.
- 점자 표기 확대 및 정보 다양화: 대부분 응답자는 교통수단 내 점자 표기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차와 케이티엑스(KTX)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점자 표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버스 정류장 번호, 노선 안내, 좌석 번호, 화장실 위치 등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에 필요한 정보가 점자로 확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일부는 승차권이나 자동판매기, 교통요금 단말기에도 점자 표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유지 관리 및 정확도 문제: 점자 안내판과 표식이 마모되거나 먼지가 쌓여 사용이 어렵고, 오탈자나 거꾸로 부착된 사례가 많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최신 점자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표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음성 안내 및 기술적 보완 필요: 점자를 찾거나 읽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려면 음성 안내 서비스나 스마트 기기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하철·버스에서 현재 위치나 다음 정차역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 제시되었다. 일부는 점자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이나 진동·촉각 신호를 병행하는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청결 관리 및 접근성 개선: 점자 안내판이 먼지나 오염 때문에 손으로 만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으며, 청결 유지와 주기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하철 측지도나 승강장 점자판의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는 구체적 의견도 포함되었다.
- 좌석과 열차 관련 표기 강화: 많은 응답자가 기차나 비행기의 좌석 번호를 점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좌석 찾기 어려움이나 호차·방향 구분 곤란 등의 불편이 컸으며, 좌석 위나 손잡이 근처에 점자 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부는 좌석 번호와 다음 정차역 정보를 점자와 음성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 홍보 및 인식 제고: 일부 응답자는 ‘점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점자 위치에 대한 홍보나 안내 표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점자 표기 위치를 미리 알리는 표식(예: 화살표나 음성 신호 등)이 있다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문 4-2

여객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자유 응답)

- 점자 위치 및 표준화 필요: 응답자들은 여객 시설 내 점자 표시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출입문, 게이트, 승강장, 화장실, 매표소, 에스컬레이터, 계단 손잡이 등 주요 동선에 표준화된 위치와 높이로 점자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또한 역마다 안전문의 높이가 다르거나, 출구 손잡이 방향이 뒤집혀 있는 등 비일관적인 부착 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 점자 표기 확대 및 접근성 향상: 대부분 응답자는 지하철 역사 외에는 점자 표기를 보기 어렵다며, 점자의 양적 확대를 요청하였다. 특히 매표소, 자동 발매기, 고객센터, 터미널, 버스 정류장, 항만 등 다양한 여객 시설에도 점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노선 방향·승강장 번호·탑승 위치·시간표 등 구체적 이동 정보를 점자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관리 및 유지 보수 강화: 여객 시설의 점자가 훼손, 마모, 오염, 오타자 등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다. 응답자들은 정기적인 청결 관리, 점검, 보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광고물(현수막 등) 때문에 점자 표시가 가려지는 문제를 방지할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신 점자 규정에 맞는 표기(간격, 돌출, 피어쓰기 등)로 개정하고, 거꾸로 부착된 점자나 오류 표기를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 음성 및 보조 기술 도입: 점자만으로는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음성 안내 서비스나 스마트 기기 연동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구·노선·

화장실 위치 안내를 음성으로 제공하거나, 점자 위치를 음성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에스컬레이터 발판 음성 안내, 지하철 정차역 알림 점자·음성 병행 시스템 등의 기술적 보완이 제안되었다.

- 안전 시설 연계 및 유도 블록 개선: 여객 시설 내 유도 블록이 단절되거나 설치 간격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에 유도 블록과 점자 안내판을 연계 설치하고, 통로·출입구·계단·승강장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점자·음성 신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특히 안전문 손 끼임 사고 방지, 계단 손잡이의 방향 점자 보완, 화장실 호출 벨·물 내림 버튼의 위치 점자화 등 안전 관련 세부 개선 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응답자들은 ‘점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점자 위치와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는 표지판, 안내 책자, 온라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점자 표기 위치를 화살표나 표식으로 미리 알리는 체계, 역사 내 축지도·점자 안내도 배포 등의 접근성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 제도적 지원 및 전문 관리 필요: 점자 표기를 개선하려면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점자 설치 시 전문가 자문·감수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 점검과 관리 인력 배치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수였다.

문 4-3

기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자유 응답)

- 점자 표기의 위치와 표준화 필요: 응답자들은 기타 이동 편의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건물 출입구 등)에서 점자 위치가 일정하지 않거나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손이 닿기 쉬운 일정한 높이와 위치에 점자를 표준화해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좌우 방향의 표기 일관성과 역방향·잘못된 부착 사례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점자를 부착하여 터치식 버튼의 오작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다.
- 점자 표기 확대 및 정보 다양화: 응답자들은 여객 시설뿐 아니라 모든 이동 편의 시설 전반에 점자 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버스 정류장 번호, 노선도, 방향 화살표,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위치 정보, 층수, 출입구 안내 등 이동 동선 전반에 점자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엘리베이터·화장실·계단 난간 등에서 점

자가 없거나 흐릿하여 시각장애인이 시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 유지 관리 및 품질 개선: 점자 안내판의 청결 유지, 마모 방지, 정기 점검의 필요성이 여러 응답에서 지적되었다. 먼지와 오염, 점자 마모, 오타자, 잘못된 방향 부착 등으로 점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유지 관리 체계와 전문가 검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설치 시 점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한국 점자 규정에 따른 정확한 규격과 돌출감, 간격, 방향 표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 음성 안내 및 보조 서비스 확대: 점자만으로는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성 안내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엘리베이터 층수·에스컬레이터 방향·출입구 위치 등 주요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스마트폰과 연동된 안내 기능을 제공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점자보다는 음성 기반 안내와 기술 지원 확대가 더 실질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홍보 및 인식 제고: “점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점자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화살표·촉지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점자 위치 홍보와 교육으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점자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설의 부대 정보를 간략히 안내하는 점자 책자나 소책자 제공도 제안되었다.
- 안전성 및 접근성 개선: 에스컬레이터 승·하강 방향 표기, 현재 층수 점자 안내, 화장실 성별·버튼 위치 표기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계단 난간 점자 간격이 부적절해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터치형 버튼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점자 위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우처 택시 손잡이에 점자 표시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차량을 구분할 수 있게 하자는 구체적 제안도 있었다.
- 제도적 보완 및 전문가 참여: 응답자들은 점자 표기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참여와 제도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엘리베이터 등 주요 편의 시설에는 점자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점자 설치와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오타자나 잘못된 부착을 즉시 수정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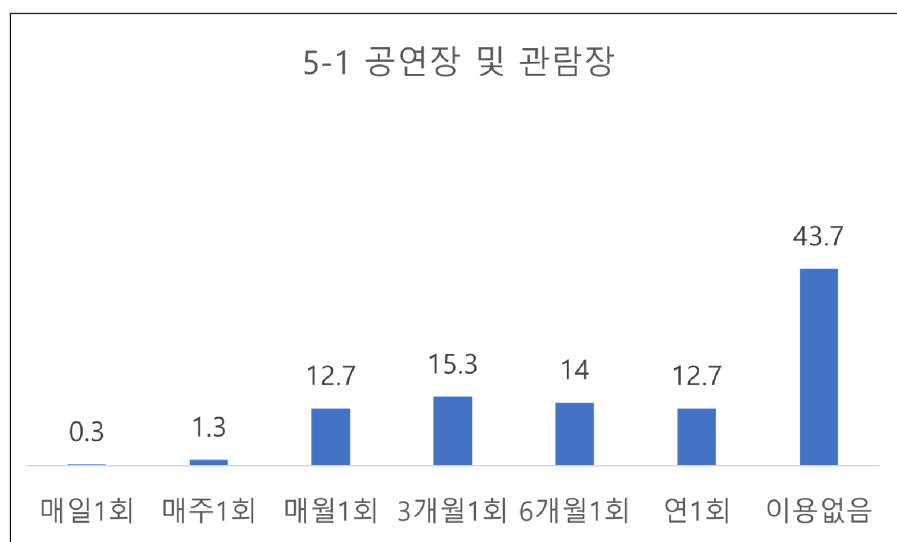
3) 공공 편의 시설의 점자 사용

(1) 1년간 이용 빈도

문 5-1

1년간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공연장과 관람장을 1년간 ‘이용한 적 없음’이 131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마다 1회 정도(15.3%)’, ‘매월 1회 정도(12.7%)’, ‘6개월마다 1회 정도(14.0%)’, ‘연 1회 정도(12.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의 상당수가 공연장과 관람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절반가량은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0대와 30대는 ‘3개월마다 1회(20대 29.4%, 30대 27.0%)’ 또는 ‘6개월마다 1회(20대 23.5%, 30대 13.5%)’ 등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50대(62.6%)와 60대(62.1%)는 이용 경험 없음이 과반이었고, 고령층일수록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 종합하면, 시각장애인은 공연장과 관람장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고령층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21] 공연장, 관람장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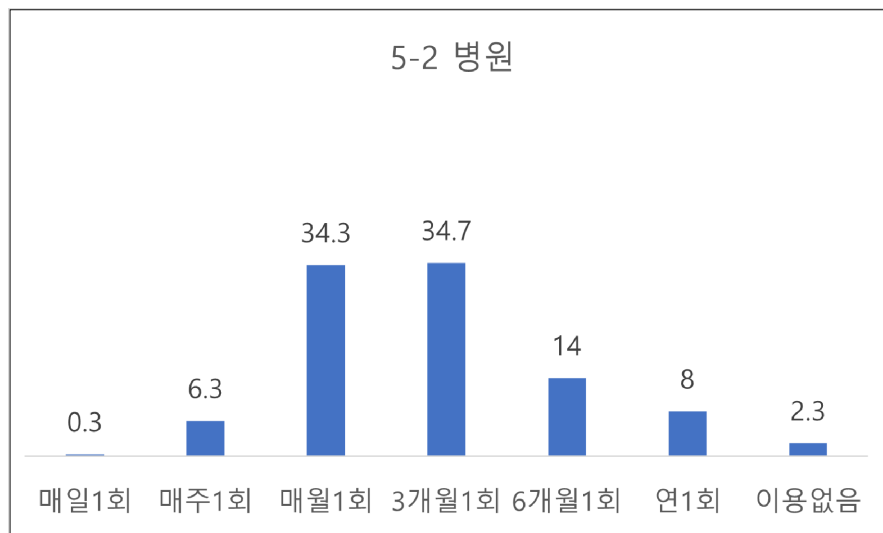
〈표 II-41〉 1년간 시각장애인의 공연장, 관람장 이용 빈도

5-1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	2	20	25	27	22	85	182	3.967
		%	0.5	1.1	11.0	13.7	14.8	12.1	46.7	100.0	
	여성	n	0	2	18	21	15	16	46	118	
		%	0.0	1.7	15.3	17.8	12.7	13.6	39.0	100.0	
연령	20대	n	0	0	2	3	5	4	3	17	52.716*
		%	0.0	0.0	11.8	17.6	29.4	23.5	17.6	100.0	
	30대	n	0	2	9	10	5	5	6	37	
		%	0.0	5.4	24.3	27.0	13.5	13.5	16.2	100.0	
	40대	n	0	1	6	4	4	7	6	28	
		%	0.0	3.6	21.4	14.3	14.3	25.0	21.4	100.0	
	50대	n	0	1	14	18	19	17	62	131	
		%	0.0	0.8	10.7	13.7	14.5	13.0	47.3	100.0	
	60대	n	1	0	7	11	9	5	54	87	
		%	1.1	0.0	8.0	12.6	10.3	5.7	62.1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1	3	0	0	8	12	13.762
		%	0.0	0.0	8.3	25.0	0.0	0.0	66.7	100.0	
	중소도시 (동)	n	0	1	15	14	17	17	32	96	
		%	0.0	1.0	15.6	14.6	17.7	17.7	33.3	100.0	
	대도시(동)	n	1	3	22	29	25	21	91	192	
		%	0.5	1.6	11.5	15.1	13.0	10.9	47.4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1	1	0	0	2	4	35.670
		%	0.0	0.0	25.0	25.0	0.0	0.0	5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1	0	1	1	9	12	
		%	0.0	0.0	8.3	0.0	8.3	8.3	75.0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2	9	18	16	9	71	125	
		%	0.0	1.6	7.2	14.4	12.8	7.2	56.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	2	21	18	20	19	39	120	
		%	0.8	1.7	17.5	15.0	16.7	15.8	32.5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0	0	6	9	5	9	10	39	
		%	0.0	0.0	15.4	23.1	12.8	23.1	25.6	100.0	
전체		n	1	4	38	46	42	38	131	300	
		%	0.3	1.3	12.7	15.3	14.0	12.7	43.7	100.0	

문 5-2

1년간 병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최근 1년간 병원 이용 빈도는 ‘3개월마다 1회 정도 104명 (34.7%)’과 ‘매월 1회 정도’ 103명(34.3%)으로 유사하게 높았고, 그다음은, ‘6개월마다 1회 정도(14.0%)’, ‘연 1회 정도(8.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병원을 비교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용한 적 없음’은 2.3%로 매우 낮았다. 이는 다른 편의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별로 ‘3개월마다 1회(20대 47.1%, 30대 37.8%, 50대 39.7%)’, ‘매월 1회 정도’(40대 32.1%, 60대 이상 41.4%) 또는 ‘3개월마다 1회 (33.3%)’가 많았다.
- 거주 지역별로 대도시 거주자는 ‘매월 1회(34.4%)’ 또는 ‘3개월마다 1회(31.8%)’ 수준으로 정기적 이용이 활발했으며,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1%로 가장 낮았다.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거주자는 ‘3개월마다 1회’ 비율이 높았으나 전반적 이용 빈도는 다소 낮았다.
- 종합하면, 시각장애인의 병원 이용 빈도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고 연령에 따라 이용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1~3개월 이내 정기 방문이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층에서 다양한 이용 주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2] 병원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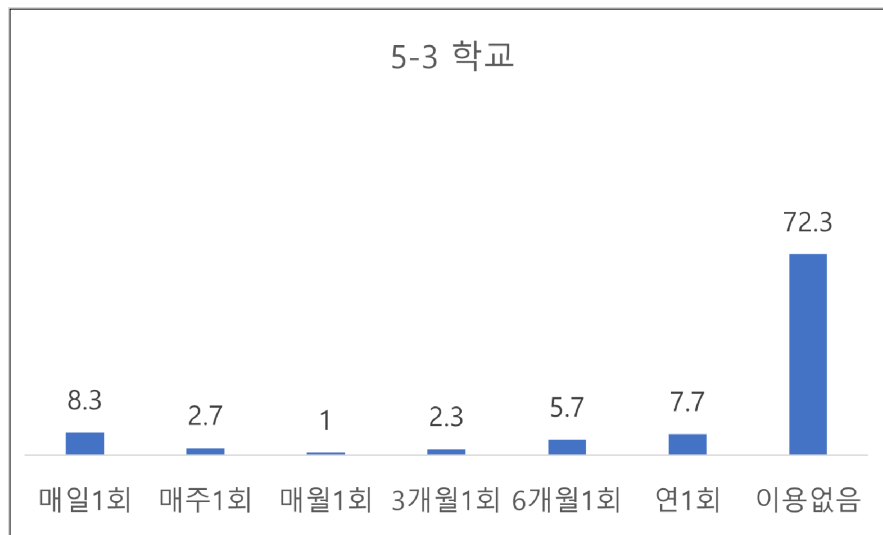
〈표 II-42〉 1년간 시각장애인의 병원 이용 빈도

5-2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	5	63	65	28	14	6	182	12.730*
		%	0.5	2.7	34.6	35.7	15.4	7.7	3.3	100.0	
	여성	n	0	14	40	39	14	10	1	118	
		%	0.0	11.9	33.9	33.1	11.9	8.5	0.8	100.0	
연령	20대	n	0	1	4	8	2	0	2	17	41.800*
		%	0.0	5.9	23.5	47.1	11.8	0.0	11.8	100.0	
	30대	n	0	1	14	8	10	1	3	37	
		%	0.0	2.7	37.8	21.6	27.0	2.7	8.1	100.0	
	40대	n	0	0	9	7	6	5	1	28	
		%	0.0	0.0	32.1	25.0	21.4	17.9	3.6	100.0	
	50대	n	1	9	40	52	17	12	0	131	
		%	0.8	6.9	30.5	39.7	13.0	9.2	0.0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1	1	4	5	1	0	0	12	29.238*
		%	8.3	8.3	33.3	41.7	8.3	0.0	0.0	100.0	
	중소도시 (동)	n	0	4	33	38	11	7	3	96	
		%	0.0	4.2	34.4	39.6	11.5	7.3	3.1	100.0	
	대도시(동)	n	0	14	66	61	30	17	4	192	
		%	0.0	7.3	34.4	31.8	15.6	8.9	2.1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1	3	0	0	0	0	4	19.844
		%	0.0	25.0	75.0	0.0	0.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0	2	4	5	1	0	0	12	
		%	0.0	16.7	33.3	41.7	8.3	0.0	0.0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7	43	44	19	11	1	125	
		%	0.0	5.6	34.4	35.2	15.2	8.8	0.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	6	44	37	17	11	4	120	
		%	0.8	5.0	36.7	30.8	14.2	9.2	3.3	100.0	
전체		n	1	19	103	104	42	24	7	300	
		%	0.3	6.3	34.3	34.7	14.0	8.0	2.3	100.0	

문 5-3

1년간 학교(초, 중, 고, 대학교, 특수학교 포함, 유치원 제외)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최근 1년간 학교를 ‘이용한 적 없음’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최근 학교나 교육기관(평생교육, 대안학교, 복지교육시설 포함)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매일 1회(8.3%)’, ‘매주 1회(2.7%)’, ‘매월 1회(1.0%)’, ‘3개월마다 1회(2.3%)’, ‘6개월마다 1회(5.7%)’, ‘연 1회(7.7%)’ 등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이용은 매우 빈도가 낮았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매일 1회 이용(29.4%)’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매일 1회 이용(9.4%)’,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이 ‘매일 1회 이용(25.6%)’이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젊을수록, 대도시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3] 학교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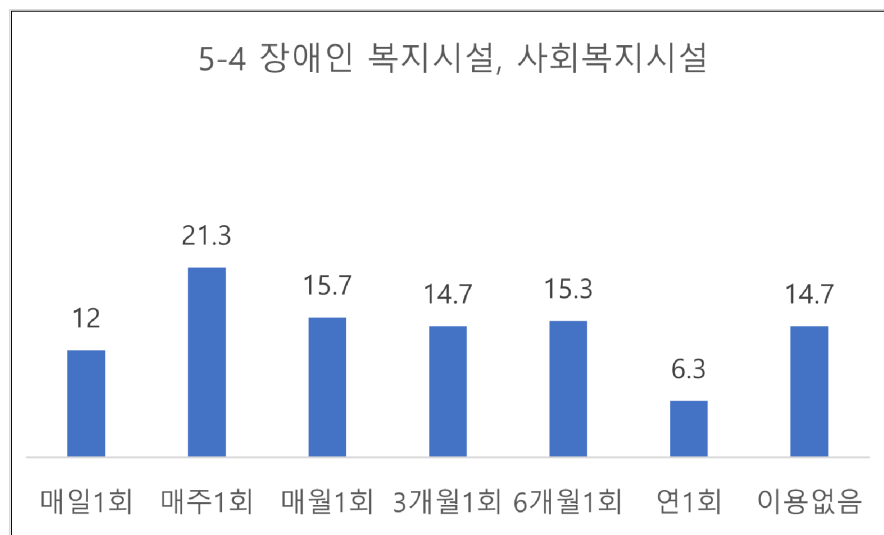
〈표 II-43〉 1년간 시각장애인의 학교 이용 빈도

5-3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5	5	0	2	13	13	134	182	9.717
		%	8.2	2.7	0.0	1.1	7.1	7.1	73.6	100.0	
	여성	n	10	3	3	5	4	10	83	118	
		%	8.5	2.5	2.5	4.2	3.4	8.5	70.3	100.0	
연령	20대	n	5	1	0	1	1	3	6	17	50.532*
		%	29.4	5.9	0.0	5.9	5.9	17.6	35.3	100.0	
	30대	n	6	2	1	0	4	2	22	37	
		%	16.2	5.4	2.7	0.0	10.8	5.4	59.5	100.0	
	40대	n	3	1	1	1	4	5	13	28	
		%	10.7	3.6	3.6	3.6	14.3	17.9	46.4	100.0	
	50대	n	6	4	1	4	5	10	101	131	
		%	4.6	3.1	0.8	3.1	3.8	7.6	77.1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1	0	0	0	0	11	12	23.315*
		%	0.0	8.3	0.0	0.0	0.0	0.0	91.7	100.0	
	중소도시 (동)	n	7	3	0	6	5	13	62	96	
		%	7.3	3.1	0.0	6.3	5.2	13.5	64.6	100.0	
	대도시(동)	n	18	4	3	1	12	10	144	192	
		%	9.4	2.1	1.6	0.5	6.3	5.2	75.0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51.047*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0	0	12	12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교 졸업	n	4	0	1	4	3	8	105	125	
		%	3.2	0.0	0.8	3.2	2.4	6.4	84.0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1	4	2	2	11	12	78	120	
		%	9.2	3.3	1.7	1.7	9.2	10.0	65.0	100.0	
전체		n	25	8	3	7	17	23	217	300	
		%	8.3	2.7	1.0	2.3	5.7	7.7	72.3	100.0	

문 5-4

1년간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이용의 가장 높은 빈도는 ‘매주 1회 정도(21.3%)’, 그다음이 ‘매일 1회 정도(12.0%)’, ‘3개월마다 1회(14.7%)’, ‘6개월마다 1회(15.7%)’, ‘매월 1회(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적 없음’이 14.7%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복지시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 앞선 문항들과 달리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은 ‘매월 1회(15.9%)’, ‘3개월마다 1회(15.9%)’, ‘매일 1회(11.5%)’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여성은 ‘매주 1회 이용(32.2%)’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매월 1회(15.3%)’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시설을 더 자주,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40~50대, 고졸~대졸에서 정기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24]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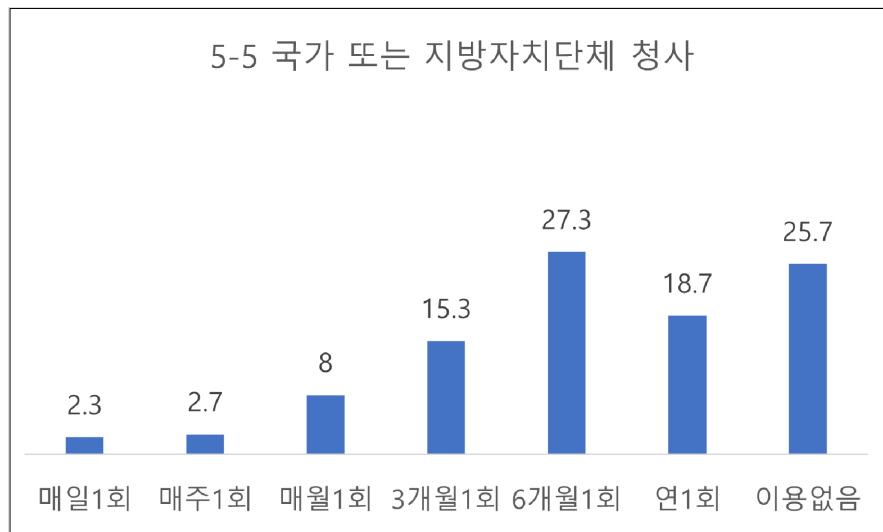
〈표 II-44〉 1년간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빈도

5-4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21	26	29	29	32	13	32	182	16.070*
		%	11.5	14.3	15.9	15.9	17.6	7.1	17.6	100.0	
	여성	n	15	38	18	15	14	6	12	118	
		%	12.7	32.2	15.3	12.7	11.9	5.1	10.2	100.0	
연령	20대	n	0	4	4	2	3	1	3	17	31.789
		%	0.0	23.5	23.5	11.8	17.6	5.9	17.6	100.0	
	30대	n	4	9	10	2	4	3	5	37	
		%	10.8	24.3	27.0	5.4	10.8	8.1	13.5	100.0	
	40대	n	8	5	3	2	8	2	0	28	
		%	28.6	17.9	10.7	7.1	28.6	7.1	0.0	100.0	
	50대	n	12	31	20	22	19	9	18	131	
		%	9.2	23.7	15.3	16.8	14.5	6.9	13.7	100.0	
60대	n	12	15	10	16	12	4	18	87		
	%	13.8	17.2	11.5	18.4	13.8	4.6	20.7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1	2	4	1	3	0	1	12	9.544
		%	8.3	16.7	33.3	8.3	25.0	0.0	8.3	100.0	
	중소도시 (동)	n	12	17	16	17	13	9	12	96	
		%	12.5	17.7	16.7	17.7	13.5	9.4	12.5	100.0	
	대도시(동)	n	23	45	27	26	30	10	31	192	
		%	12.0	23.4	14.1	13.5	15.6	5.2	16.1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1	0	0	1	0	0	2	4	29.375
		%	25.0	0.0	0.0	25.0	0.0	0.0	50.0	100.0	
	중학교 졸업	n	1	5	0	0	3	0	3	12	
		%	8.3	41.7	0.0	0.0	25.0	0.0	25.0	100.0	
	고등학교 졸업	n	10	31	23	22	14	6	19	125	
		%	8.0	24.8	18.4	17.6	11.2	4.8	15.2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8	23	18	15	24	10	12	120	
		%	15.0	19.2	15.0	12.5	20.0	8.3	1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6	5	6	6	5	3	8	39		
	%	15.4	12.8	15.4	15.4	12.8	7.7	20.5	100.0		
전체		n	36	64	47	44	46	19	44	300	
		%	12.0	21.3	15.7	14.7	15.3	6.3	14.7	100.0	

문 5-5

1년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에 대한 이용 빈도는 ‘6개월마다 1회 정도(27.3%)’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이용한 적 없음’이 25.7%, ‘3개월마다 1회 정도(15.3%)’, ‘연 1회 정도(18.7%)’, ‘매월 1회 정도(8.0%)’, ‘매주 1회 정도(2.7%)’, ‘매일 1회 정도(2.3%)’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50대(33.6%)와 60대(21.8%)에서 ‘이용한 적 없음’ 비율이 높고, 20대(23.5%)와 30대(29.7%)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50대(28.2%)와 60대(36.8%)에서는 ‘6개월마다 1회 정도’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정리하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를 6개월마다 1회 정도(27.3%)와 이용하지 않음(25.7%)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고연령층에서 6개월마다 한 번 빈도가 가장 높고 기타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I-2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청사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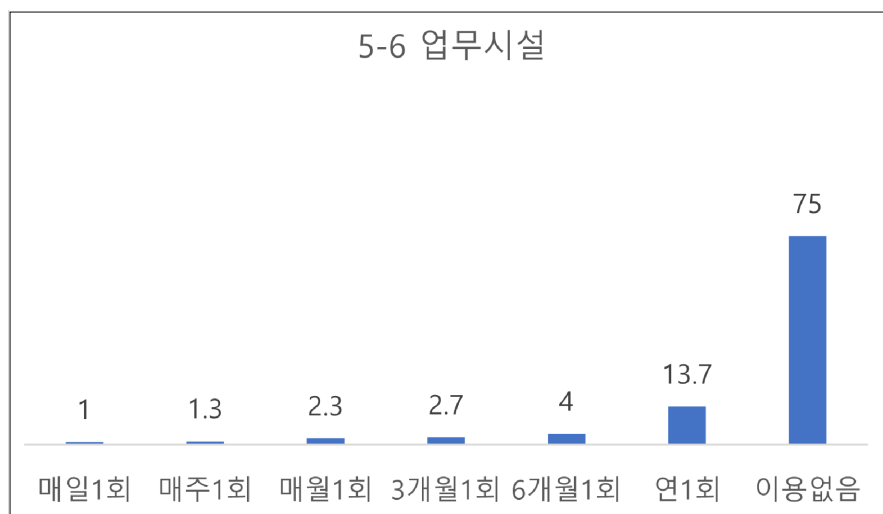
〈표 II-45〉 1년간 시각장애인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이용 빈도

5-5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4	6	18	31	52	31	40	182	7.037
		%	2.2	3.3	9.9	17.0	28.6	17.0	22.0	100.0	
	여성	n	3	2	6	15	30	25	37	118	
		%	2.5	1.7	5.1	12.7	25.4	21.2	31.4	100.0	
연령	20대	n	1	0	1	2	2	4	7	17	51.017*
		%	5.9	0.0	5.9	11.8	11.8	23.5	41.2	100.0	
	30대	n	5	2	6	4	5	4	11	37	
		%	13.5	5.4	16.2	10.8	13.5	10.8	29.7	100.0	
	40대	n	0	2	4	4	6	5	7	28	
		%	0.0	7.1	14.3	14.3	21.4	17.9	25.0	100.0	
	50대	n	0	1	10	25	37	25	33	131	
		%	0.0	0.8	7.6	19.1	28.2	19.1	25.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1	0	4	3	4	12	11.856
		%	0.0	0.0	8.3	0.0	33.3	25.0	33.3	100.0	
	중소도시 (동)	n	2	1	10	21	28	15	19	96	
		%	2.1	1.0	10.4	21.9	29.2	15.6	19.8	100.0	
	대도시(동)	n	5	7	13	25	50	38	54	192	
		%	2.6	3.6	6.8	13.0	26.0	19.8	28.1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2	1	1	4	15.990
		%	0.0	0.0	0.0	0.0	50.0	25.0	2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1	5	3	3	12	
		%	0.0	0.0	0.0	8.3	41.7	25.0	25.0	100.0	
	고등학교 졸업	n	1	2	8	18	31	25	40	125	
		%	0.8	1.6	6.4	14.4	24.8	20.0	32.0	100.0	
	대학 재학, 졸업	n	5	4	13	21	33	20	24	120	
		%	4.2	3.3	10.8	17.5	27.5	16.7	20.0	100.0	
전체		n	7	8	24	46	82	56	77	300	
		%	2.3	2.7	8.0	15.3	27.3	18.7	25.7	100.0	

문 5-6

1년간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이용 빈도

- 전체 시각장애인 300명 중 225명(75.0%)이 업무 시설을 1년간 ‘이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연 1회 정도 41명(13.7%), 6개월마다 1회 정도 12명(4.0%), 3개월마다 1회 정도 8명(2.7%), 매월 1회 정도 7명(2.3%), 매주 1회 정도 4명(1.3%), 매일 1회 정도 3명(1.0%)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 별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대(64.7%)와 30대(48.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40대(42.9%), 50대(84.0%), 60대(86.2%)로 연령이 많을수록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젊은 층일수록 업무 시설을 일부 이용하는 반면, 고연령 층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 최종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 집단(87.2%)에서 ‘이용한 적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대학 재학, 졸업(65.0%), 대학원 재학 이상(56.4%)으로 갈수록 비이용 비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은 연 1회(20.5%), 6개월마다 1회(10.3%) 등 정기적 이용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 요약하면 시각장애인의 업무 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전체의 4분의 3이 이용 경험이 없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80% 이상에서는 업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II-26] 업무 시설 이용 빈도(단위: %)

〈표 II-46〉 시각장애인의 업무 시설 이용 빈도

5-6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2	2	5	6	7	27	133	182	1.982
		%	1.1	1.1	2.7	3.3	3.8	14.8	73.1	100.0	
	여성	n	1	2	2	2	5	14	92	118	
		%	0.8	1.7	1.7	1.7	4.2	11.9	78.0	100.0	
연령	20대	n	0	0	0	0	1	5	11	17	70.839*
		%	0.0	0.0	0.0	0.0	5.9	29.4	64.7	100.0	
	30대	n	2	1	2	3	3	9	17	37	
		%	5.4	2.7	5.4	8.1	8.1	24.3	45.9	100.0	
	40대	n	1	1	2	0	0	12	12	28	
		%	3.6	3.6	7.1	0.0	0.0	42.9	42.9	100.0	
	50대	n	0	1	1	4	5	10	110	131	
		%	0.0	0.8	0.8	3.1	3.8	7.6	84.0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0	0	0	1	11	12	7.715
		%	0.0	0.0	0.0	0.0	0.0	8.3	91.7	100.0	
	중소도시 (동)	n	0	1	1	4	4	17	69	96	
		%	0.0	1.0	1.0	4.2	4.2	17.7	71.9	100.0	
	대도시(동)	n	3	3	6	4	8	23	145	192	
		%	1.6	1.6	3.1	2.1	4.2	12.0	75.5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37.873*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0	0	12	12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1	1	3	1	10	109	125	
		%	0.0	0.8	0.8	2.4	0.8	8.0	87.2	100.0	
	대학 재학, 졸업	n	2	2	3	5	7	23	78	120	
		%	1.7	1.7	2.5	4.2	5.8	19.2	65.0	100.0	
전체		n	3	4	7	8	12	41	225	300	
		%	1.0	1.3	2.3	2.7	4.0	13.7	75.0	100.0	

(2)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문 6-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공연장 및 관람장의 점자 표기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10점(± 1.06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27점(± 0.855)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공연장·관람장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성별, 거주 지역에 따른 중요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서는 중요도에서, 최종 학력에서는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요도에는 40대 집단(c)이 50대 집단(d)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50대(4.37점)가 공연장 및 관람장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60대(3.98점), 30대(4.05점), 20대(3.88점), 40대(3.39점) 순이었다. 최종 학력에서 중요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교 졸업(e) 집단이 대학원 재학 이상(c) 집단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 정리하면 시각장애인들은 공연장 및 관람장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현재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실제 개선·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47〉 공연장 및 관람장의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6-1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03	1.069	-1.398	2.21	0.856	-1.319
	여성	118	4.20	1.059		2.35	0.851	
연령	20대	17	3.88	0.781	5.975* c<d	2.35	0.931	0.066
	30대	37	4.05	1.129		2.22	1.031	
	40대 ^c	28	3.39	1.641		2.14	1.044	
	50대 ^d	131	4.37	0.954		2.15	0.799	
	60대	87	3.98	0.889		2.48	0.745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33	0.888	1.244	2.25	0.622	0.629
	중소도시(동)	96	4.21	1.055		2.19	0.837	
	대도시(동)	192	4.03	1.080		2.31	0.877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419	2.25	0.500	3.310* e<c
	중학교 졸업	12	3.92	0.793		2.42	0.515	
	고등학교 졸업 ^c	125	4.18	0.937		2.37	0.778	
	대학 재학, 졸업	120	4.06	1.132		2.29	0.902	
	대학원 재학 이상 ^e	39	4.00	1.338		1.82	0.942	
전체		300	4.10	1.067		2.27	0.855	

문 6-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의원은 제외)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병원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23점(± 0.98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13점(± 0.935)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병원 내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요도에서 50대(4.47점)가 가장 높았고, 40대(3.71점)가 가장 낮았으며, 만족도는 60대(2.30점)가 가장 높았고, 50대(1.94점)가 가장 낮았다. 즉, 50대는 중요도는 높은 반면, 만족도는 가장 낮았고, 60대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 요약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병원 내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50대에서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 병원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6-2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1	0.960	-0.416	2.15	0.943	0.498
	여성	118	4.26	1.025		2.09	0.924	
연령	20대 ^a	17	4.12	0.781	0.001* c<d	2.71	0.849	0.004* d<a
	30대	37	4.22	1.031		2.19	1.050	
	40대 ^c	28	3.71	1.536		2.04	0.999	
	50대 ^d	131	4.47	0.844		1.94	0.857	
	60대	87	4.08	0.892		2.30	0.929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793	0.445	2.00	0.739	2.053
	중소도시(동)	96	4.28	0.948		1.98	0.870	
	대도시(동)	192	4.20	1.014		2.21	0.97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134	2.00	0.000	1.889
	중학교 졸업	12	4.17	0.718		2.33	0.492	
	고등학교 졸업	125	4.24	0.937		2.10	0.896	
	대학 재학, 졸업	120	4.22	1.014		2.24	1.004	
	대학원 재학 이상	39	4.31	1.151		1.79	0.923	
전체		300	4.23	0.984		2.13	0.935	

문 6-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는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 시각장애인 3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33점(± 0.882)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84점(± 0.915)으로 보통 수준 이하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학교 내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그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별 중요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50대가 40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50대(4.54점)가 가장 높았고, 30대(4.38점), 20대(4.24점), 60대(4.10점), 40대(4.07점) 순이었다.
- 종합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학교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중년층(50대)에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표 II-49〉 공연장 및 관람장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6-3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0	0.879	-0.893	2.84	0.868	0.015
	여성	118	4.39	0.887		2.84	0.987	
연령	20대	17	4.24	1.033	0.003* e<d	3.24	1.200	0.325
	30대	37	4.38	0.953		2.68	1.056	
	40대	28	4.07	1.184		2.75	1.076	
	50대 ^d	131	4.54	0.767		2.85	0.932	
	60대 ^e	87	4.10	0.807		2.85	0.674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793	0.083	2.58	0.515	0.790
	중소도시(동)	96	4.31	0.977		2.79	0.983	
	대도시(동)	192	4.34	0.841		2.88	0.899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868	2.50	0.577	1.380
	중학교 졸업	12	3.92	0.793		2.75	0.452	
	고등학교 졸업	125	4.35	0.854		2.95	0.822	
	대학 재학, 졸업	120	4.35	0.923		2.83	0.984	
	대학원 재학 이상	39	4.38	0.877		2.59	1.069	
전체		300	4.33	0.882		2.84	0.915	

문 6-4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노인 복지시설 제외)의 중요도와 만족도

- 복지시설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47점(± 0.77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3.69점(± 1.032)으로 다른 공공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복지시설의 점자 표기를 중요하게 인식할 뿐 아니라 다른 시설(병원·학교·공연장 등)에 비해 실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은 다른 공공 시설에 비해 다양한 인구분포에서 모두 점자 표기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다.

〈표 II-50〉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6-4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9	0.825	-2.319	3.54	1.012	-3.209
	여성	118	4.60	0.681		3.92	1.022	
연령	20대	17	4.59	0.618	0.051	3.71	0.920	0.738
	30대	37	4.54	0.803		3.54	1.120	
	40대	28	4.46	0.999		3.57	1.034	
	50대	131	4.58	0.733		3.77	1.035	
	60대	87	4.26	0.754		3.67	1.019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793	0.034	3.42	0.996	2.182
	중소도시(동)	96	4.48	0.846		3.54	1.104	
	대도시(동)	192	4.47	0.745		3.78	0.989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931	3.25	1.258	1.094
	중학교 졸업	12	4.17	0.718		3.92	0.900	
	고등학교 졸업	125	4.50	0.736		3.78	1.005	
	대학 재학, 졸업	120	4.47	0.809		3.66	1.033	
	대학원 재학 이상	39	4.54	0.822		3.46	1.120	
전체		300	4.47	0.778		3.69	1.032	

문 6-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31점(± 0.90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56점(± 0.932)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청사 내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낮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서는 중요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50대가 40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는 50대(4.53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60대(4.13점), 30대(4.24점), 20대(4.29점), 40대(3.96점) 순이었다. 반면,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2.4~3.0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요약하면 시각장애인들은 국가·지자체 청사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낮고, 특히 50대에서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제 만족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5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6-5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1	0.850	-0.055	2.51	0.915	-1.209
	여성	118	4.31	0.976		2.64	0.957	
연령	20대	17	4.29	0.849	0.003* e<d	3.00	0.791	0.123
	30대	37	4.24	1.090		2.76	1.188	
	40대	28	3.96	1.170		2.57	1.034	
	50대 ^d	131	4.53	0.788		2.45	0.888	
	60대 ^e	87	4.13	0.818		2.56	0.845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33	0.888	0.184	2.33	0.888	0.388
	중소도시(동)	96	4.35	0.882		2.56	0.949	
	대도시(동)	192	4.29	0.913		2.58	0.929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560	2.25	0.500	0.648
	중학교 졸업	12	4.00	0.739		2.67	0.651	
	고등학교 졸업	125	4.30	0.900		2.54	0.819	
	대학 재학, 졸업	120	4.33	0.892		2.64	1.035	
	대학원 재학 이상	39	4.38	0.990		2.41	1.044	
전체		300	4.31	0.900		2.56	0.932	

문 6-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업무 시설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26점(± 0.93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58점(± 0.856)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업무 시설 내 점자 표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여전히 낮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에서 중요도는 50대(4.48점)가 가장 높고, 40대(3.82점)가 가장 낮았다. 만족도는 20대(3.12점)가 가장 높고, 50대(2.40점)가 가장 낮았다. 즉, 50대는 업무 시설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만족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 종합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업무 시설 점자 표기를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와 마찬가지로 특히 50대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이들을 개선 요구가 높은 연령대로 볼 수 있다.

〈표 II-52〉 업무 시설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6-6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1	0.946	-1.174	2.57	0.843	-0.269
	여성	118	4.34	0.927		2.59	0.879	
연령	20대 ^a	17	4.00	0.935	0.002* c<d	3.12	0.857	0.002* d<a
	30대	37	4.27	0.932		2.86	1.032	
	40대 ^c	28	3.82	1.389		2.68	0.983	
	50대 ^d	131	4.48	0.854		2.40	0.762	
	60대	87	4.11	0.813		2.57	0.802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33	0.888	0.086	2.33	0.651	0.504
	중소도시(동)	96	4.28	0.867		2.58	0.829	
	대도시(동)	192	4.24	0.980		2.59	0.882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592	2.25	0.500	1.696
	중학교 졸업	12	4.00	0.739		2.42	0.515	
	고등학교 졸업	125	4.33	0.887		2.58	0.732	
	대학 재학, 졸업	120	4.26	0.957		2.68	0.987	
	대학원 재학 이상	39	4.15	1.113		2.31	0.863	
전체		300	4.26	0.939		2.58	0.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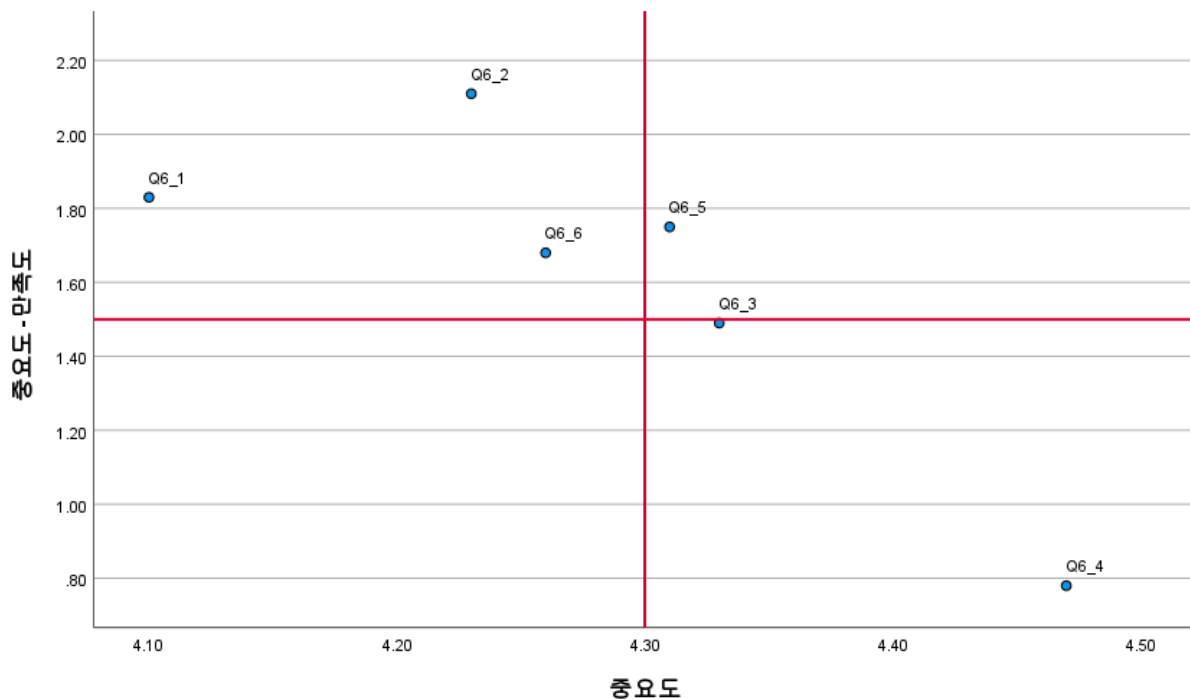
문6 전체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

-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항목은 <표 II-53>과 같이 ‘병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점자 표지판이나 안내판의 위치, 내용,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의료시설은 긴급 상황과 이동 경로의 다양성으로 점자 안내의 필요성이 높은 공간이므로, 병원 내 점자 표지판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 다음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공연장 및 관람장’, ‘업무 시설’, ‘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시설 및 일반 업무 시설, 교육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점자 표지판의 설치와 유지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청사나 공연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한 안내 정보가 요구되므로, 점자 표지판의 위치 통일성과 정보 제공의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리치 지수를 보여, 해당 시설에서는 이미 점자 표지판이 일정 수준 갖추어져 있거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점자 안내 환경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다음으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을 이용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화한 결과, [그림 II-27]과 같이 중요도의 평균보다 높고, 중요도-만족도 차이의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만족도가 낮아 개선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으로, 향후 점자 안내체계 개선 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보리치 요구도와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점자 표지판 및 안내판에 대한 개선 요구는 주로 시각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53〉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문항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만족도	borich	Rank
6-1. 공연장 및 관람장	4.10	2.27	1.83	7.50	3
6-2. 병원	4.23	2.13	2.11	8.92	1
6-3. 학교	4.33	2.84	1.49	6.47	5
6-4.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	4.47	3.69	0.78	3.50	6
6-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4.31	2.56	1.75	7.53	2
6-6. 업무 시설	4.26	2.58	1.68	7.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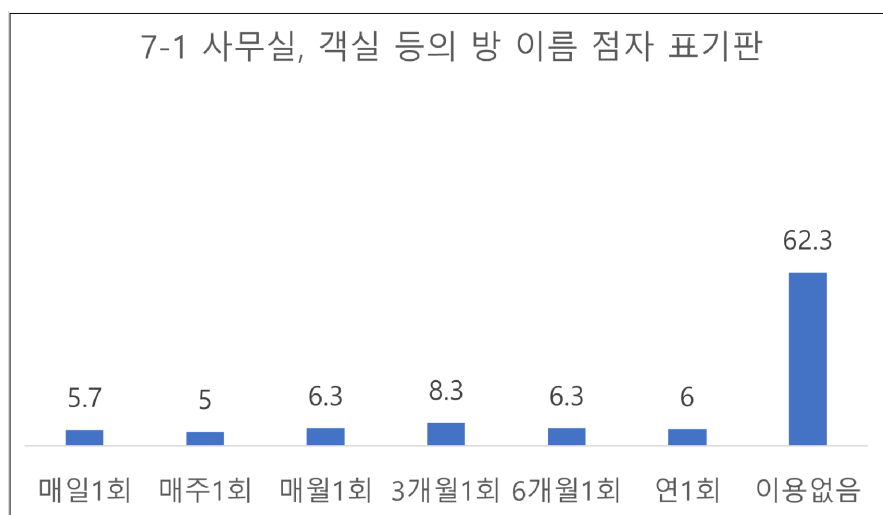
[그림 II-27]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3) 1년간 편의 시설 종류별 점자 표기 이용 빈도

문 7-1

1년간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기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87명(62.3%)이 ‘이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3개월마다 1회 정도 25명(8.3%), 매월 1회 정도 19명(6.3%), 6개월마다 1회 정도 19명(6.3%), 매일 1회 정도 17명(5.7%), 매주 1회 정도 15명(5.0%), 연 1회 정도 18명(6.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객실 등의 점자 표지판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20대(41.2%)와 30대(54.1%)는 비교적 이용 경험이 많았고, 50대(83.2%)와 60대(74.7%)에서는 이용 경험이 거의 없었다. 특히 20-30대에서는 ‘매일 1회’나 ‘매주 1회’ 이용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젊은 층에서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 요약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사무실·객실 등의 점자 표기판을 중요하게 인식하나 실제 이용률은 낮았고 특히 20~30대의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대학 재학,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8]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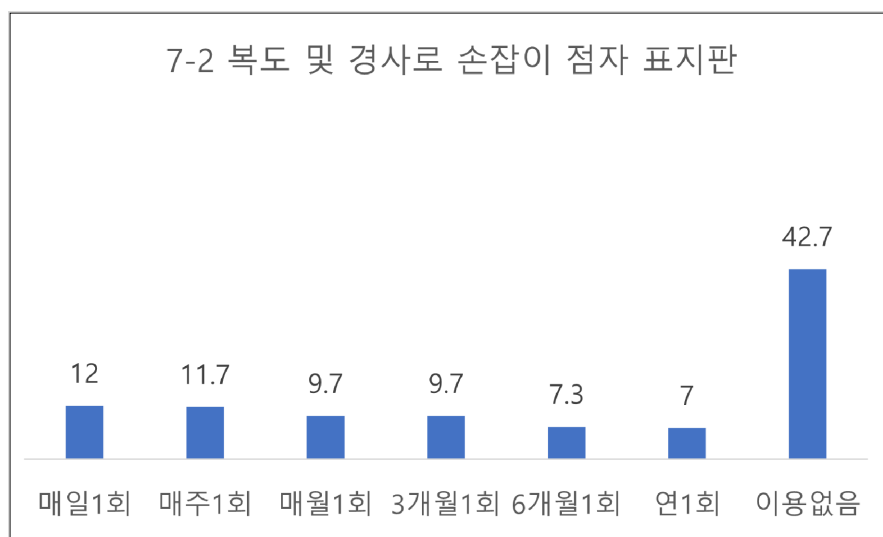
〈표 II-54〉 1년간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

7-1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3	9	12	16	12	9	111	182	2.990
		%	7.1	4.9	6.6	8.8	6.6	4.9	61.0	100.0	
	여성	n	4	6	7	9	7	9	76	118	
		%	3.4	5.1	5.9	7.6	5.9	7.6	64.4	100.0	
연령	20대	n	2	2	1	2	1	0	9	17	50.234*
		%	11.8	11.8	5.9	11.8	5.9	0.0	52.9	100.0	
	30대	n	6	2	1	5	2	1	20	37	
		%	16.2	5.4	2.7	13.5	5.4	2.7	54.1	100.0	
	40대	n	2	3	4	2	4	3	10	28	
		%	7.1	10.7	14.3	7.1	14.3	10.7	35.7	100.0	
	50대	n	4	4	11	13	3	13	83	131	
		%	3.1	3.1	8.4	9.9	2.3	9.9	63.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1	0	1	1	1	8	12	11.858
		%	0.0	8.3	0.0	8.3	8.3	8.3	66.7	100.0	
	중소도시 (동)	n	6	7	8	11	6	9	49	96	
		%	6.3	7.3	8.3	11.5	6.3	9.4	51.0	100.0	
	대도시(동)	n	11	7	11	13	12	8	130	192	
		%	5.7	3.6	5.7	6.8	6.3	4.2	67.7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0	4	4	29.316
		%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1	0	0	0	11	12	
		%	0.0	0.0	8.3	0.0	0.0	0.0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2	7	6	8	6	8	88	125	
		%	1.6	5.6	4.8	6.4	4.8	6.4	70.4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0	5	7	12	10	9	67	120	
		%	8.3	4.2	5.8	10.0	8.3	7.5	55.8	100.0	
전체		n	17	15	19	25	19	18	187	300	
		%	5.7	5.0	6.3	8.3	6.3	6.0	62.3	100.0	

문 7-2

1년간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28명(42.7%)이 ‘이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매일 1회 정도 36명(12.0%), 매주 1회 정도 35명(11.7%), 매월 1회 정도 29명(9.7%), 3개월마다 1회 정도 29명(9.7%), 6개월마다 1회 정도 22명(7.3%), 연 1회 정도 21명(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 중 약 절반 가까이는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점자 표지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일부 응답자만이 일상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 성별,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과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에서 특히 20대는 ‘매일 1회’ 이용(29.4%)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44.3%)와 60대(55.2%)는 이용 경험이 매우 적었다. 최종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5.0%)와 중학교 졸업(91.7%)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에서는 ‘매일 1회(30.8%)’, ‘매주 1회(17.9%)’ 등 정기적 이용률이 높았다.
- 요약하면,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점자 표기는 젊은층과 고학력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고령층과 저학력층에서는 접근성과 인식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그림 II-29]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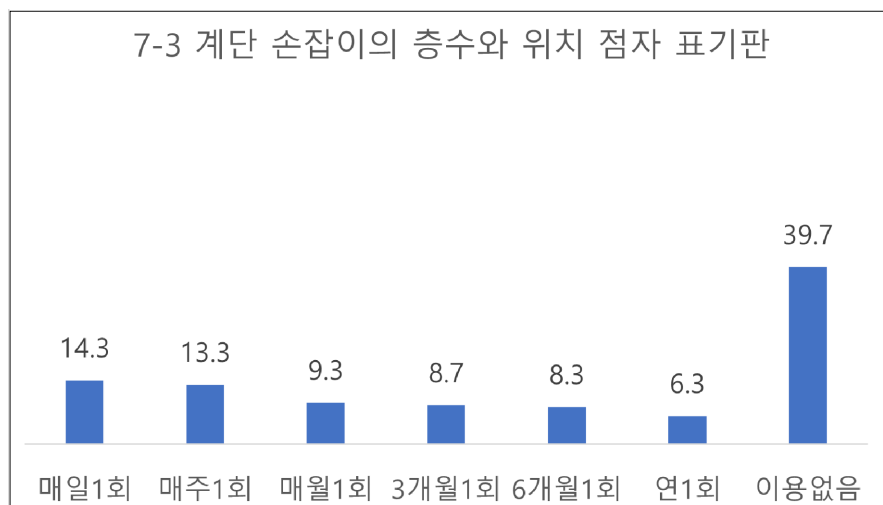
〈표 II-55〉 1년간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7-2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23	19	19	19	13	10	79	182	2.906
		%	12.6	10.4	10.4	10.4	7.1	5.5	43.4	100.0	
	여성	n	13	16	10	10	9	11	49	118	
		%	11.0	13.6	8.5	8.5	7.6	9.3	41.5	100.0	
연령	20대	n	5	1	3	0	1	1	6	17	43.703*
		%	29.4	5.9	17.6	0.0	5.9	5.9	35.3	100.0	
	30대	n	6	6	4	1	6	3	11	37	
		%	16.2	16.2	10.8	2.7	16.2	8.1	29.7	100.0	
	40대	n	7	5	1	7	1	2	5	28	
		%	25.0	17.9	3.6	25.0	3.6	7.1	17.9	100.0	
	50대	n	14	14	13	14	7	11	58	131	
		%	10.7	10.7	9.9	10.7	5.3	8.4	44.3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3	1	2	1	0	5	12	12.690
		%	0.0	25.0	8.3	16.7	8.3	0.0	41.7	100.0	
	중소도시 (동)	n	9	12	10	14	7	9	35	96	
		%	9.4	12.5	10.4	14.6	7.3	9.4	36.5	100.0	
	대도시(동)	n	27	20	18	13	14	12	88	192	
		%	14.1	10.4	9.4	6.8	7.3	6.3	45.8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1	3	4	41.121*
		%	0.0	0.0	0.0	0.0	0.0	25.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0	11	12	
		%	0.0	0.0	0.0	0.0	8.3	0.0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11	14	12	12	6	10	60	125	
		%	8.8	11.2	9.6	9.6	4.8	8.0	48.0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3	14	14	13	12	9	45	120	
		%	10.8	11.7	11.7	10.8	10.0	7.5	37.5	100.0	
전체		n	36	35	29	29	22	21	128	300	
		%	12.0	11.7	9.7	9.7	7.3	7.0	42.7	100.0	

문 7-3

1년간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기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19명(39.7%)이 ‘이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매일 1회 정도 43명(14.3%), 매주 1회 정도 40명(13.3%), 매월 1회 정도 28명(9.3%), 3개월마다 1회 정도 26명(8.7%), 6개월마다 1회 정도 25명(8.3%), 연 1회 정도 19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계단 손잡이의 점자 표지판을 전혀 이용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매일·매주 이용’하는 응답이 27.6%로 다른 시설보다 높게 나타나, 일부 정기적 이용층이 존재하는 시설 유형으로 분석된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20대(11.8%)와 30대(32.4%)는 이용 경험 많고, 특히 20대는 ‘매일 1회’ 이용(29.4%), 40대는 ‘매일 또는 매주 1회’ 이용(57.2%)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51.1%)와 60대(52.9%)는 ‘이용한 적 없음’ 비율이 매우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는 ‘매일 1회’(28.2%), ‘매주 1회’(20.5%)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요약하면, 이용한 적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긴 하였지만 계단 손잡이의 점자 표지는 다른 시설보다 일상적·정기적(매일, 매주 1회 이상) 이용층이 존재하는 시설로 특히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 적극적인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II-30]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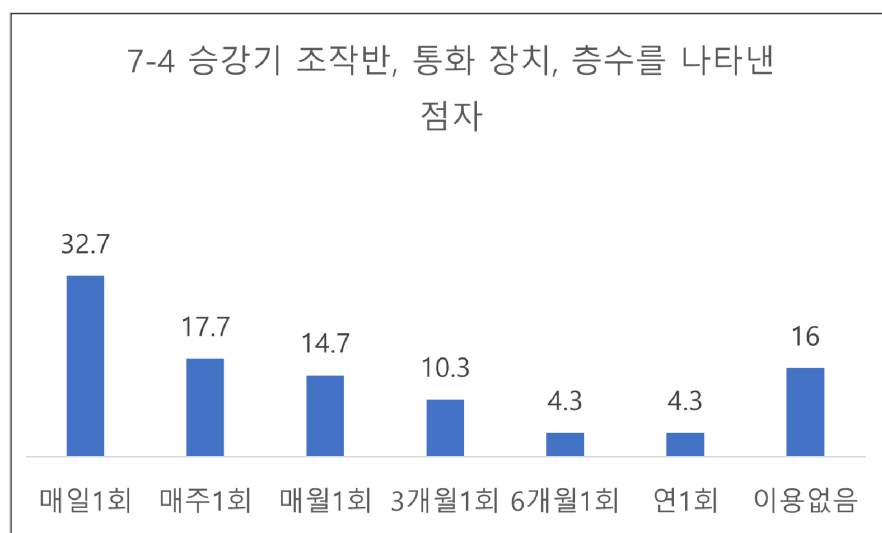
〈표 II-56〉 1년간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기판의 이용 빈도

7-3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25	22	20	18	13	10	74	182	4.227
		%	13.7	12.1	11.0	9.9	7.1	5.5	40.7	100.0	
	여성	n	18	18	8	8	12	9	45	118	
		%	15.3	15.3	6.8	6.8	10.2	7.6	38.1	100.0	
연령	20대	n	5	1	3	0	2	0	6	17	42.736*
		%	29.4	5.9	17.6	0.0	11.8	0.0	35.3	100.0	
	30대	n	10	4	3	2	5	1	12	37	
		%	27.0	10.8	8.1	5.4	13.5	2.7	32.4	100.0	
	40대	n	8	8	1	2	3	2	4	28	
		%	28.6	28.6	3.6	7.1	10.7	7.1	14.3	100.0	
	50대	n	15	18	13	14	8	12	51	131	
		%	11.5	13.7	9.9	10.7	6.1	9.2	38.9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1	3	0	2	1	0	5	12	14.348
		%	8.3	25.0	0.0	16.7	8.3	0.0	41.7	100.0	
	중소도시 (동)	n	12	18	10	11	10	6	29	96	
		%	12.5	18.8	10.4	11.5	10.4	6.3	30.2	100.0	
	대도시(동)	n	30	19	18	13	14	13	85	192	
		%	15.6	9.9	9.4	6.8	7.3	6.8	44.3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0	1	3	4	34.751
		%	0.0	0.0	0.0	0.0	0.0	25.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1	0	1	0	10	12	
		%	0.0	0.0	8.3	0.0	8.3	0.0	83.3	100.0	
	고등학교 졸업	n	13	16	11	12	8	10	55	125	
		%	10.4	12.8	8.8	9.6	6.4	8.0	44.0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9	16	11	10	14	6	44	120	
		%	15.8	13.3	9.2	8.3	11.7	5.0	36.7	100.0	
전체		n	43	40	28	26	25	19	119	300	
		%	14.3	13.3	9.3	8.7	8.3	6.3	39.7	100.0	

문 7-4

1년간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이용 빈도

- 가장 높은 비율은 ‘매일 1회 정도’ 98명(32.7%), 그다음은 이용한 적 없음이 48명(16.0%) ‘매주 1회 정도’ 44명(14.7%), ‘매월 1회 정도’ 31명(10.3%), ‘3개월마다 1회 정도’ 13명(4.3%), ‘6개월마다 1회 정도’ 13명(4.3%), ‘연 1회 정도’ 13명(4.3%) 순이었다. 즉,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약 57%)이 승강기의 점자 표기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편의 시설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 성별, 거주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에서는 20대(70.6%)와 30대(67.6%)는 ‘매일 또는 매주 1회 이상’ 이용 비율이 매우 높았고, 50대(18.3%)와 60대(32.2%)는 ‘이용한 적 없음’ 비율이 높았다. 최종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75.0%)와 중학교 졸업(41.7%)은 ‘이용한 적 없음’ 비율이 높은 반면, 대학 재학, 졸업(36.7%)과 대학원 재학 이상(56.4%)에서는 ‘매일 1회 정도’ 이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요약하면, 승강기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점자 정보 접근 수단으로 파악되며 특히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의 정기적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1]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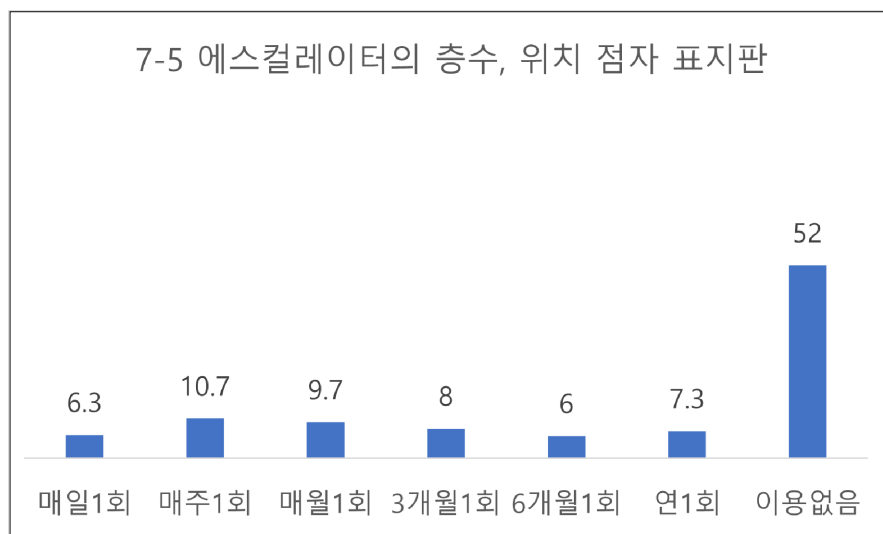
〈표 II-57〉 1년간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의 이용 빈도

7-4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65	29	27	17	7	7	30	182	3.127
		%	35.7	15.9	14.8	9.3	3.8	3.8	16.5	100.0	
	여성	n	33	24	17	14	6	6	18	118	
		%	28.0	20.3	14.4	11.9	5.1	5.1	15.3	100.0	
연령	20대	n	8	3	1	2	3	0	0	17	54.174*
		%	47.1	17.6	5.9	11.8	17.6	0.0	0.0	100.0	
	30대	n	18	8	4	2	3	1	1	37	
		%	48.6	21.6	10.8	5.4	8.1	2.7	2.7	100.0	
	40대	n	13	6	4	2	0	2	1	28	
		%	46.4	21.4	14.3	7.1	0.0	7.1	3.6	100.0	
	50대	n	44	23	21	14	3	8	18	131	
		%	33.6	17.6	16.0	10.7	2.3	6.1	13.7	100.0	
60대	n	15	13	14	11	4	2	28	87		
	%	17.2	14.9	16.1	12.6	4.6	2.3	32.2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1	4	0	3	1	0	3	12	11.470
		%	8.3	33.3	0.0	25.0	8.3	0.0	25.0	100.0	
	중소도시 (동)	n	34	17	13	9	5	5	13	96	
		%	35.4	17.7	13.5	9.4	5.2	5.2	13.5	100.0	
	대도시(동)	n	63	32	31	19	7	8	32	192	
		%	32.8	16.7	16.1	9.9	3.6	4.2	16.7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1	0	0	0	0	3	4	51.811*
		%	0.0	25.0	0.0	0.0	0.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1	2	3	1	0	0	5	12	
		%	8.3	16.7	25.0	8.3	0.0	0.0	4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31	20	22	15	2	7	28	125	
		%	24.8	16.0	17.6	12.0	1.6	5.6	22.4	100.0	
	대학 재학, 졸업	n	44	25	15	12	10	5	9	120	
		%	36.7	20.8	12.5	10.0	8.3	4.2	7.5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22	5	4	3	1	1	3	39	
		%	56.4	12.8	10.3	7.7	2.6	2.6	7.7	100.0	
전체		n	98	53	44	31	13	13	48	300	
		%	32.7	17.7	14.7	10.3	4.3	4.3	16.0	100.0	

문 7-5

1년간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56명(52.0%)이 ‘이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매주 1회 정도’ 32명(10.7%), ‘매일 1회 정도’ 19명(6.3%), ‘매월 1회 정도’ 24명(8.0%), ‘연 1회 정도’ 22명(7.3%), ‘3개월마다 1회 정도’ 24명(8.0%), ‘6개월마다 1회 정도’ 18명(6.0%)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75.0%)와 중학교 졸업(83.3%)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대학 재학, 졸업(48.3%), 대학원 재학 이상(35.9%)은 ‘이용한 적 없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은 ‘매일 1회(20.5%)’, ‘매주 1회(17.9%)’ 이용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요약하면, 에스컬레이터의 점자 표지판을 이용 빈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나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림 II-32]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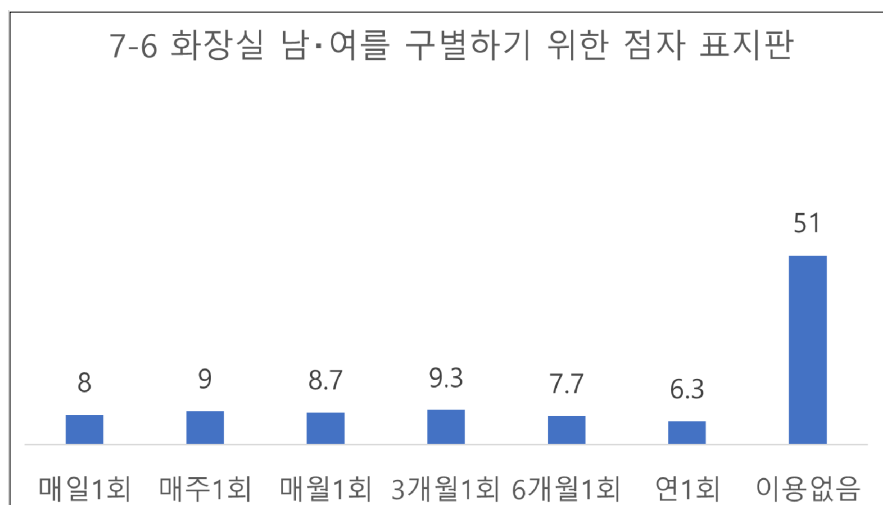
〈표 II-58〉 1년간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7-5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2	22	17	17	11	11	92	182	3.254
		%	6.6	12.1	9.3	9.3	6.0	6.0	50.5	100.0	
	여성	n	7	10	12	7	7	11	64	118	
		%	5.9	8.5	10.2	5.9	5.9	9.3	54.2	100.0	
연령	20대	n	2	2	1	0	2	2	8	17	29.515
		%	11.8	11.8	5.9	0.0	11.8	11.8	47.1	100.0	
	30대	n	5	4	3	1	3	3	18	37	
		%	13.5	10.8	8.1	2.7	8.1	8.1	48.6	100.0	
	40대	n	4	6	3	0	1	3	11	28	
		%	14.3	21.4	10.7	0.0	3.6	10.7	39.3	100.0	
	50대	n	7	12	16	13	5	10	68	131	
		%	5.3	9.2	12.2	9.9	3.8	7.6	51.9	100.0	
	60대	n	1	8	6	10	7	4	51	87	
		%	1.1	9.2	6.9	11.5	8.0	4.6	58.6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1	1	2	1	1	6	12	6.320
		%	0.0	8.3	8.3	16.7	8.3	8.3	50.0	100.0	
	중소도시 (동)	n	4	10	10	9	5	10	48	96	
		%	4.2	10.4	10.4	9.4	5.2	10.4	50.0	100.0	
	대도시(동)	n	15	21	18	13	12	11	102	192	
		%	7.8	10.9	9.4	6.8	6.3	5.7	53.1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1	0	3	4	38.509*
		%	0.0	0.0	0.0	0.0	25.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1	10	12	
		%	0.0	0.0	0.0	0.0	8.3	8.3	83.3	100.0	
	고등학교 졸업	n	3	11	14	13	3	10	71	125	
		%	2.4	8.8	11.2	10.4	2.4	8.0	56.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8	14	12	8	11	9	58	120	
		%	6.7	11.7	10.0	6.7	9.2	7.5	48.3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8	7	3	3	2	2	14	39	
		%	20.5	17.9	7.7	7.7	5.1	5.1	35.9	100.0	
전체		n	19	32	29	24	18	22	156	300	
		%	6.3	10.7	9.7	8.0	6.0	7.3	52.0	100.0	

문 7-6

1년간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이용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은 ‘이용한 적 없음’이 153명(51.0%)으로, 절반 이상이 해당 점자 표지판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개월마다 1회 정도’ 28명(9.3%), ‘매주 1회 정도’ 27명(9.0%), ‘매월 1회 정도’ 26명(8.7%), ‘매일 1회 정도’ 24명(8.0%), ‘6개월마다 1회 정도’ 23명(7.7%), ‘연 1회 정도’ 19명(6.3%) 순이었다.
-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에서 20대(41.2%)와 30대(21.6%)는 이용 경험에 높았으며, 특히 30대에서는 ‘매일 1회’(24.3%), 40대에서는 ‘매주 1회’(17.9%)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73.3%)와 60대(62.1%)는 ‘이용한 적 없음’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거주 지역에서는 중소도시(58.3%)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대도시(44.3%)보다 더 높은 것이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학 재학, 졸업(62.5%), 대학원 재학 이상(56.4%)에서 이용률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교 이하(16.7~25.0%)에서는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 요약하면, 각장애인 중 절반(49%) 정도가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을 실제 이용하며 30-40대와 대학 재학,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3]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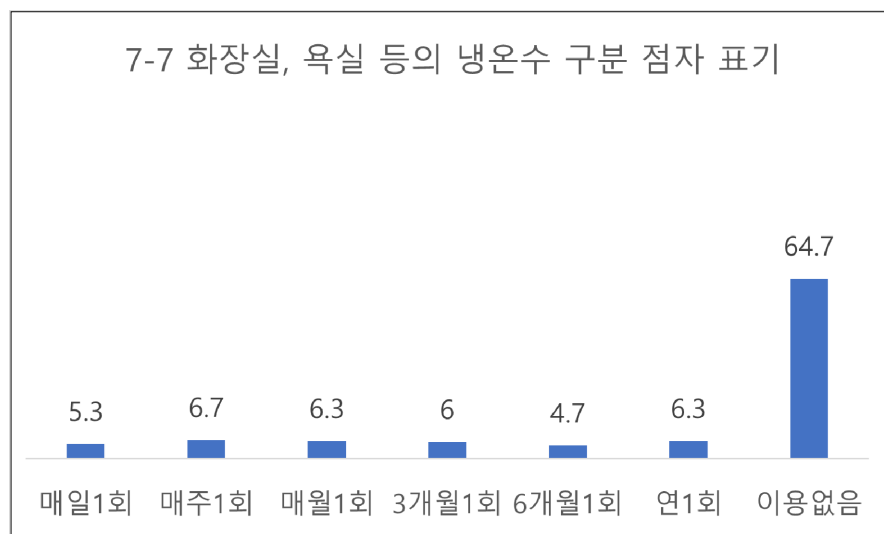
〈표 II-59〉 1년간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의 이용 빈도

7-6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9	17	16	20	16	10	84	182	8.277
		%	10.4	9.3	8.8	11.0	8.8	5.5	46.2	100.0	
	여성	n	5	10	10	8	7	9	69	118	
		%	4.2	8.5	8.5	6.8	5.9	7.6	58.5	100.0	
연령	20대	n	3	2	0	1	3	1	7	17	48.540*
		%	17.6	11.8	0.0	5.9	17.6	5.9	41.2	100.0	
	30대	n	9	3	5	3	5	4	8	37	
		%	24.3	8.1	13.5	8.1	13.5	10.8	21.6	100.0	
	40대	n	4	5	2	5	0	1	11	28	
		%	14.3	17.9	7.1	17.9	0.0	3.6	39.3	100.0	
	50대	n	4	12	12	11	11	8	73	131	
		%	3.1	9.2	9.2	8.4	8.4	6.1	55.7	100.0	
	60대	n	4	5	7	8	4	5	54	87	
		%	4.6	5.7	8.0	9.2	4.6	5.7	62.1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1	0	2	3	0	6	12	26.450*
		%	0.0	8.3	0.0	16.7	25.0	0.0	50.0	100.0	
	중소도시 (동)	n	8	6	11	14	5	12	40	96	
		%	8.3	6.3	11.5	14.6	5.2	12.5	41.7	100.0	
	대도시(동)	n	16	20	15	12	15	7	107	192	
		%	8.3	10.4	7.8	6.3	7.8	3.6	55.7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1	0	3	4	42.004*
		%	0.0	0.0	0.0	0.0	25.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1	10	12	
		%	0.0	0.0	0.0	0.0	8.3	8.3	83.3	100.0	
	고등학교 졸업	n	6	8	13	11	5	4	78	125	
		%	4.8	6.4	10.4	8.8	4.0	3.2	62.4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0	15	11	13	13	13	45	120	
		%	8.3	12.5	9.2	10.8	10.8	10.8	37.5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8	4	2	4	3	1	17	39	
		%	20.5	10.3	5.1	10.3	7.7	2.6	43.6	100.0	
전체		n	24	27	26	28	23	19	153	300	
		%	8.0	9.0	8.7	9.3	7.7	6.3	51.0	100.0	

문 7-7

1년간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94명(64.7%)이 ‘이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시각장애인의 약 3분의 2가 냉·온수 구분용 점자 표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매주 1회 정도’ 20명(6.7%), ‘매월 1회 정도’ 19명(6.3%)과 ‘연 1회 정도’ 19명(6.3%) ‘3개월마다 1회 정도’ 18명(6.0%), ‘매일 1회 정도’ 16명(5.3%), ‘6개월마다 1회 정도’ 14명(4.7%), 순이었다. 즉, 정기적(매일·매주) 이용자는 전체의 약 12% 수준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비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20대(47.1%)와 30대(37.8%)는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 이 많은 반면, 50대(70.2%), 60대(73.6%)는 대부분이 이용 경험이 적었다.
- 요약하면,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는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약 65%로 매우 높으며 20-30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4]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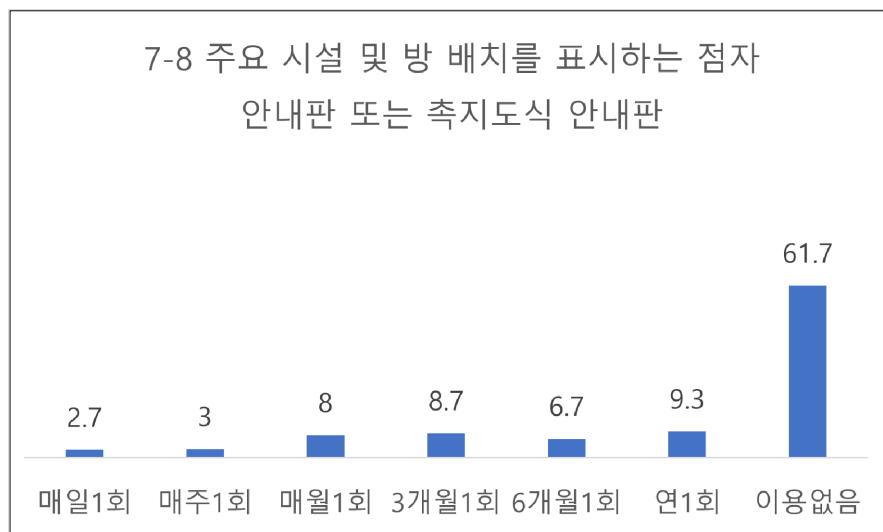
〈표 II-60〉 1년간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의 이용 빈도

7-7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10	12	13	12	10	12	113	182	1.981
		%	5.5	6.6	7.1	6.6	5.5	6.6	62.1	100.0	
	여성	n	6	8	6	6	4	7	81	118	
		%	5.1	6.8	5.1	5.1	3.4	5.9	68.6	100.0	
연령	20대	n	2	3	0	2	0	1	9	17	56.813*
		%	11.8	17.6	0.0	11.8	0.0	5.9	52.9	100.0	
	30대	n	8	3	4	1	4	3	14	37	
		%	21.6	8.1	10.8	2.7	10.8	8.1	37.8	100.0	
	40대	n	3	2	2	1	0	5	15	28	
		%	10.7	7.1	7.1	3.6	0.0	17.9	53.6	100.0	
	50대	n	1	9	9	8	7	5	92	131	
		%	0.8	6.9	6.9	6.1	5.3	3.8	70.2	100.0	
	60대	n	2	3	4	6	3	5	64	87	
		%	2.3	3.4	4.6	6.9	3.4	5.7	73.6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1	0	1	1	0	9	12	7.243
		%	0.0	8.3	0.0	8.3	8.3	0.0	75.0	100.0	
	중소도시 (동)	n	5	7	9	8	5	6	56	96	
		%	5.2	7.3	9.4	8.3	5.2	6.3	58.3	100.0	
	대도시(동)	n	11	12	10	9	8	13	129	192	
		%	5.7	6.3	5.2	4.7	4.2	6.8	67.2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1	0	3	4	33.385
		%	0.0	0.0	0.0	0.0	25.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0	1	11	12	
		%	0.0	0.0	0.0	0.0	0.0	8.3	91.7	100.0	
	고등학교 졸업	n	2	6	8	7	4	3	95	125	
		%	1.6	4.8	6.4	5.6	3.2	2.4	76.0	100.0	
	대학 재학, 졸업	n	11	11	9	8	6	13	62	120	
		%	9.2	9.2	7.5	6.7	5.0	10.8	51.7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3	3	2	3	3	2	23	39	
		%	7.7	7.7	5.1	7.7	7.7	5.1	59.0	100.0	
전체		n	16	20	19	18	14	19	194	300	
		%	5.3	6.7	6.3	6.0	4.7	6.3	64.7	100.0	

문 7-8

1년간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185명(61.7%)이 ‘이용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해, 시각장애인의 과반수가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6개월마다 1회 정도’ 28명(9.3%), ‘3개월마다 1회 정도’ 26명(8.7%), ‘매월 1회 정도’ 24명(8.0%), ‘연 1회 정도’ 20명(6.7%), ‘매주 1회 정도’ 9명(3.0%), ‘매일 1회 정도’ 8명(2.7%) 순이었다. 즉, 정기적으로(매일·매주) 이용하는 응답자는 5.7% 수준에 불과하며, 매우 낮은 빈도로 이용하거나 많은 수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최종 학력별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0대에서 ‘이용한 적 없음’은 35.1%로 가장 낮았으며, 20대 41.2%, 40대 50.0%, 50대 67.2%, 60대 67.8% 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했다.
-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30~40대 이용률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소도시 거주자,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5]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이용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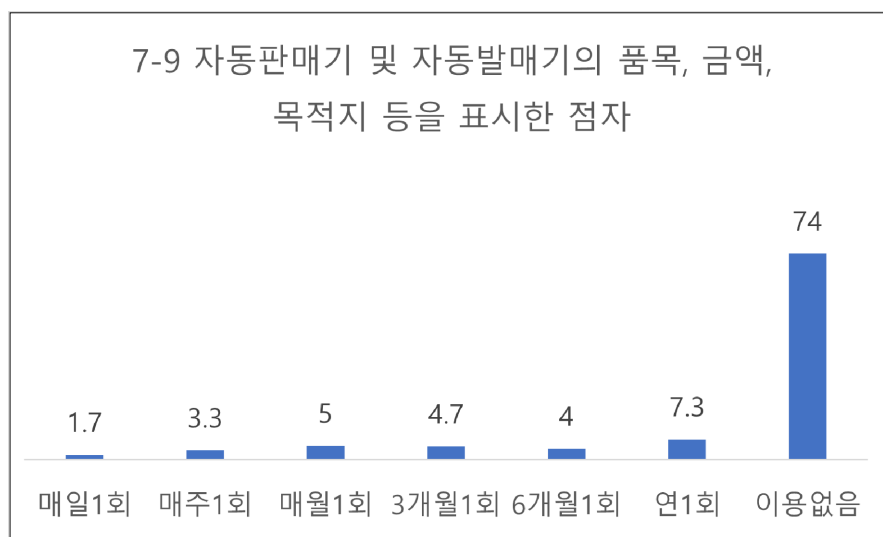
〈표 II-61〉 1년간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이용 빈도

7-8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6	6	17	15	14	19	105	182	4.483
		%	3.3	3.3	9.3	8.2	7.7	10.4	57.7	100.0	
	여성	n	2	3	7	11	6	9	80	118	
		%	1.7	2.5	5.9	9.3	5.1	7.6	67.8	100.0	
연령	20대	n	1	0	3	0	2	0	11	17	42.957*
		%	5.9	0.0	17.6	0.0	11.8	0.0	64.7	100.0	
	30대	n	5	2	4	4	4	5	13	37	
		%	13.5	5.4	10.8	10.8	10.8	13.5	35.1	100.0	
	40대	n	1	2	2	2	2	5	14	28	
		%	3.6	7.1	7.1	7.1	7.1	17.9	50.0	100.0	
	50대	n	1	2	10	13	7	10	88	131	
		%	0.8	1.5	7.6	9.9	5.3	7.6	67.2	100.0	
60대	n	0	3	5	7	5	8	59	87		
	%	0.0	3.4	5.7	8.0	5.7	9.2	67.8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0	2	3	0	7	12	20.048
		%	0.0	0.0	0.0	16.7	25.0	0.0	58.3	100.0	
	중소도시 (동)	n	4	2	11	11	6	13	49	96	
		%	4.2	2.1	11.5	11.5	6.3	13.5	51.0	100.0	
	대도시(동)	n	4	7	13	13	11	15	129	192	
		%	2.1	3.6	6.8	6.8	5.7	7.8	67.2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1	0	3	4	35.756
		%	0.0	0.0	0.0	0.0	25.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1	2	9	12	
		%	0.0	0.0	0.0	0.0	8.3	16.7	75.0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3	7	9	6	6	94	125	
		%	0.0	2.4	5.6	7.2	4.8	4.8	75.2	100.0	
	대학 재학, 졸업	n	6	4	13	10	10	17	60	120	
		%	5.0	3.3	10.8	8.3	8.3	14.2	50.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2	2	4	7	2	3	19	39	
		%	5.1	5.1	10.3	17.9	5.1	7.7	48.7	100.0	
전체		n	8	9	24	26	20	28	185	300	
		%	2.7	3.0	8.0	8.7	6.7	9.3	61.7	100.0	

문 7-9

1년간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 300명 중 ‘이용한 적 없음’이 74.0%로 매우 많았으며, 정기적 이용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매월 1회 정도(5.0%)’, ‘3개월마다 1회 정도(4.7%)’, ‘6개월마다 1회 정도(4.0%)’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0대(64.9%)와 40대(46.4%)는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반면, 20대(82.4%), 60대(77.0%)는 이용 경험이 적었다. 특히 30대는 ‘매일 1회(10.8%)’와 ‘매월 1회(8.1%)’ 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별로 이용 경험 없음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85.6%, 대학 재학, 졸업 65.0%, 대학원 이상은 61.5%로 낮아져,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요약하면, 자동판매기·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시에 대한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고연령 층과 저학력층에서 이용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림 II-36]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의 이용 빈도(단위: %)

〈표 II-62〉 1년간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의 이용 빈도

7-9			매일 1회 정도	매주 1회 정도	매월 1회 정도	3개월마다 1회 정도	6개월마다 1회 정도	연 1회 정도	이용한 적 없음	전체	χ^2
성별	남성	n	4	5	11	11	8	14	129	182	5.021
		%	2.2	2.7	6.0	6.0	4.4	7.7	70.9	100.0	
	여성	n	1	5	4	3	4	8	93	118	
		%	0.8	4.2	3.4	2.5	3.4	6.8	78.8	100.0	
연령	20대	n	0	0	1	0	2	3	11	17	66.634*
		%	0.0	0.0	5.9	0.0	11.8	17.6	64.7	100.0	
	30대	n	4	1	1	2	3	2	24	37	
		%	10.8	2.7	2.7	5.4	8.1	5.4	64.9	100.0	
	40대	n	1	4	2	0	1	7	13	28	
		%	3.6	14.3	7.1	0.0	3.6	25.0	46.4	100.0	
	50대	n	0	2	8	7	3	4	107	131	
		%	0.0	1.5	6.1	5.3	2.3	3.1	81.7	100.0	
	60대	n	0	3	3	5	3	6	67	87	
		%	0.0	3.4	3.4	5.7	3.4	6.9	77.0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0	0	0	0	2	0	10	12	14.782
		%	0.0	0.0	0.0	0.0	16.7	0.0	83.3	100.0	
	중소도시 (동)	n	2	2	7	6	6	5	68	96	
		%	2.1	2.1	7.3	6.3	6.3	5.2	70.8	100.0	
	대도시(동)	n	3	8	8	8	4	17	144	192	
		%	1.6	4.2	4.2	4.2	2.1	8.9	75.0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0	0	0	0	1	0	3	4	40.400*
		%	0.0	0.0	0.0	0.0	25.0	0.0	75.0	100.0	
	중학교 졸업	n	0	0	0	0	0	2	10	12	
		%	0.0	0.0	0.0	0.0	0.0	16.7	83.3	100.0	
	고등학교 졸업	n	0	3	2	6	1	6	107	125	
		%	0.0	2.4	1.6	4.8	0.8	4.8	85.6	100.0	
	대학 재학, 졸업	n	3	4	10	4	8	13	78	120	
		%	2.5	3.3	8.3	3.3	6.7	10.8	65.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2	3	3	4	2	1	24	39	
		%	5.1	7.7	7.7	10.3	5.1	2.6	61.5	100.0	
전체		n	5	10	15	14	12	22	222	300	
		%	1.7	3.3	5.0	4.7	4.0	7.3	74.0	100.0	

(4) 공공 편의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

문 8-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평균 중요도는 4.30점(± 0.893)으로 높았으며, 만족도는 2.58점(± 1.014)으로 중간 이하 수준이었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출입문 점자 표지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최종 학력별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졸 이하(3.08점)와 초졸 이하(2.75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대학원 이상(2.03점)은 오히려 낮았으며, 특히 대학 재학, 졸업(2.60점)과 대학원 재학 이상(2.03점)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 요약하면, 출입문 옆 점자 표지판은 시각장애인에게 공간 인식의 핵심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특히 고학력 이용자일수록 불만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3〉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8-1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6	0.888	-0.925	2.47	0.984	-2.344
	여성	118	4.36	0.901		2.75	1.039	
연령	20대	17	4.29	0.920	2.215	2.65	1.057	0.852
	30대	37	4.49	0.870		2.73	1.170	
	40대	28	4.04	1.261		2.54	1.201	
	50대	131	4.40	0.857		2.47	1.062	
	60대	87	4.14	0.780		2.68	0.77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0	0.674	0.327	2.58	0.900	0.142
	중소도시(동)	96	4.28	0.926		2.53	1.142	
	대도시(동)	192	4.29	0.891		2.60	0.955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622	2.75	0.500	4.117* e<d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08	0.793	
	고등학교 졸업	125	4.28	0.885		2.67	0.887	
	대학 재학, 졸업 ^d	120	4.29	0.920		2.60	1.080	
	대학원 재학 이상 ^e	39	4.46	0.913		2.03	1.112	
전체		300	4.30	0.893		2.58	1.014	

문 8-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평균 중요도는 4.28점(± 0.905)으로 높았으며, 만족도는 2.70점(± 1.003)으로 중간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은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64〉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8-2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7	0.893	-0.204	2.66	1.004	-0.825
	여성	118	4.30	0.927		2.76	1.002	
연령	20대	17	4.47	0.624	1.106	2.53	1.068	0.999
	30대	37	4.27	0.962		2.65	1.111	
	40대	28	4.11	1.286		2.96	1.105	
	50대	131	4.37	0.897		2.63	1.084	
	60대	87	4.17	0.781		2.79	0.749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0	0.674	0.408	3.00	0.853	1.087
	중소도시(동)	96	4.25	0.962		2.60	1.100	
	대도시(동)	192	4.29	0.890		2.73	0.958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490	2.75	0.500	1.309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2.92	0.515	
	고등학교 졸업	125	4.30	0.863		2.82	0.934	
	대학 재학, 졸업	120	4.25	0.946		2.63	1.020	
	대학원 재학 이상	39	4.41	0.993		2.46	1.253	
전체		300	4.28	0.905		2.70	1.003	

문 8-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평균 중요도는 4.36점(± 0.85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만족도는 2.77점(± 1.107)으로 중간 이하 수준이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최종 학력에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3.08점), 고등학교 졸업(2.96점), 대학 재학, 졸업(2.70점), 대학원 이상(2.31점)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사후 검정 결과, 고등학교 졸업(2.96점) 집단과 대학원 이상(2.31점)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 요약하면,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보통 이하 수준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65〉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8-3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4	0.844	-0.485	2.73	1.108	-0.933
	여성	118	4.39	0.877		2.85	1.107	
연령	20대	17	4.41	0.795	1.550	2.59	1.064	0.900
	30대	37	4.51	0.901		2.65	1.317	
	40대	28	4.25	1.143		2.75	1.206	
	50대	131	4.44	0.824		2.72	1.145	
	60대	87	4.20	0.775		2.95	0.914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8	0.515	0.567	3.25	1.055	1.343
	중소도시(동)	96	4.31	0.966		2.70	1.162	
	대도시(동)	192	4.37	0.815		2.78	1.08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696	2.75	0.500	3.062* e<c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08	0.793	
	고등학교 졸업 ^c	125	4.33	0.840		2.96	1.043	
	대학 재학, 졸업	120	4.42	0.856		2.70	1.135	
	대학원 재학 이상 ^e	39	4.41	0.966		2.31	1.217	
전체		300	4.36	0.856		2.77	1.107	

문 8-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표기에 대해 평균 중요도는 4.52점(± 0.73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3.70점(± 1.123)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점자 표기에 비해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 성별,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별 중요도와 최종 학력별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연령별 중요도의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자(3.94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3.23점)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차이를 나타냈고,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요약하면 승강기 내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66〉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8-4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48	0.763	-0.972	3.59	1.122	-1.987
	여성	118	4.57	0.685		3.86	1.112	
연령	20대	17	4.76	0.437	3.041*	3.71	1.359	1.978
	30대	37	4.59	0.798	사후	3.38	1.255	
	40대	28	4.64	0.870	검정에서	3.43	1.260	
	50대	131	4.58	0.667	집단 간	3.87	1.098	
	60대	87	4.30	0.764	유의한 차이 없음	3.66	0.974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8	0.515	0.058	3.67	0.985	0.895
	중소도시(동)	96	4.52	0.754		3.57	1.271	
	대도시(동)	192	4.51	0.738		3.76	1.051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1.117	3.50	0.577	3.828* e<c
	중학교 졸업	12	4.33	0.651		3.92	0.793	
	고등학교 졸업 ^c	125	4.47	0.725		3.94	0.978	
	대학 재학, 졸업	120	4.57	0.730		3.58	1.207	
	대학원 재학 이상 ^e	39	4.62	0.782		3.23	1.245	
전체		300	4.52	0.734		3.70	1.123	

문 8-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낸 점자 표지판의 평균 중요도는 4.27점(± 0.94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57점(± 1.031)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점자 표지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및 최종 학력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67〉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8-5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5	0.911	-0.469	2.47	1.001	-2.091
	여성	118	4.31	0.991		2.72	1.061	
연령	20대	17	4.24	1.091	1.758	2.76	1.091	0.861
	30대	37	4.30	1.051		2.65	1.358	
	40대	28	4.07	1.152		2.50	1.000	
	50대	131	4.42	0.885		2.46	1.025	
	60대	87	4.11	0.855		2.68	0.869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0	0.674	0.376	2.75	0.754	0.523
	중소도시(동)	96	4.25	0.962		2.49	1.066	
	대도시(동)	192	4.27	0.949		2.59	1.029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343	2.75	0.500	1.505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00	0.426	
	고등학교 졸업	125	4.33	0.859		2.64	0.987	
	대학 재학, 졸업	120	4.24	0.987		2.53	1.045	
	대학원 재학 이상	39	4.28	1.146		2.28	1.234	
전체		300	4.27	0.942		2.57	1.031	

문 8-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에 대한 평균 중요도는 4.37점(± 0.84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71점(± 1.040)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해당 점자 표지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 만족도는 그보다 훨씬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 중요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68〉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8-6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35	0.845	-0.519	2.65	1.012	-1.232
	여성	118	4.40	0.859		2.81	1.080	
연령	20대	17	4.53	0.717	3.076* 사후 검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2.94	0.966	0.839
	30대	37	4.51	0.692		2.84	1.280	
	40대	28	4.46	1.036		2.68	1.090	
	50대	131	4.46	0.825		2.60	1.043	
	60대	87	4.10	0.863		2.79	0.917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42	0.669	0.291	2.92	0.515	0.558
	중소도시(동)	96	4.42	0.790		2.64	1.067	
	대도시(동)	192	4.34	0.889		2.74	1.051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789	2.75	0.500	2.119
	중학교 졸업	12	4.08	0.669		3.00	0.426	
	고등학교 졸업	125	4.33	0.831		2.78	0.997	
	대학 재학, 졸업	120	4.43	0.796		2.75	1.055	
	대학원 재학 이상	39	4.44	1.095		2.28	1.213	
전체		300	4.37	0.849		2.71	1.040	

문 8-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 시각장애인 300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3.90점(± 1.129)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평균 만족도는 2.44점(± 0.991)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냉·온수 구분 점자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이용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임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문항의 중요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 성별, 거주 지역,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 중요도와 만족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50대(4.08점)와 60대(3.98점)가 가장 높게 중요도를 인식한 반면, 40대(3.54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20대(3.12)와 50대(4.08)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만족도에서는 20대(2.82점)와 30대(2.84점)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50대(2.26점)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 50대(2.26)와 30대(2.84)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대체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중장년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요약하면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기의 중요도는 높은 편이지만, 4점 미만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고, 50대 이상에서 특히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69〉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의 중요도와 만족도

8-7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3.90	1.130	-0.084	2.35	0.973	-1.852
	여성	118	3.91	1.132		2.57	1.008	
연령	20대 ^a	17	3.12	1.364	4.196 a<d	2.82	1.131	3.488 d<b
	30대 ^b	37	3.70	1.222		2.84	1.236	
	40대	28	3.54	1.347		2.32	1.090	
	50대 ^d	131	4.08	1.074		2.26	0.891	
	60대	87	3.98	0.952		2.49	0.901	

8-7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25	0.866	0.821	2.58	0.515	1.556
	중소도시(동)	96	3.82	1.179		2.29	1.015	
	대도시(동)	192	3.92	1.118		2.50	0.997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1.560	2.75	0.500	0.985
	중학교 졸업	12	3.92	0.669		2.75	0.452	
	고등학교 졸업	125	4.06	1.002		2.40	0.916	
	대학 재학, 졸업	120	3.84	1.216		2.50	1.053	
	대학원 재학 이상	39	3.56	1.314		2.23	1.158	
전체		300	3.90	1.129		2.44	0.991	

문 8-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의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의 평균 중요도는 4.19점(± 0.99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50점(± 0.966)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공간 구조나 위치 파악을 위한 점자 안내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거주 지역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중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사후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50대(4.38점)와 20대(4.40점)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30대(3.95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최종 학력별로는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졸업 집단(3.00점)이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2.10점)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 요약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주요 시설과 공간 구조를 안내하는 점자 안내판 및 축지도식 안내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이용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70〉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8-8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14	1.020	-0.948	2.41	0.935	-1.892
	여성	118	4.25	0.954		2.63	1.003	
연령	20대	17	4.00	1.000	2.443* 사후 검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2.47	1.007	1.274
	30대	37	3.95	1.224		2.78	1.182	
	40대	28	4.00	1.277		2.39	1.066	
	50대	131	4.38	0.907		2.40	0.983	
	60대	87	4.09	0.871		2.55	0.774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50	0.674	0.676	2.67	0.651	1.845
	중소도시(동)	96	4.15	1.046		2.34	0.993	
	대도시(동)	192	4.19	0.985		2.56	0.963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225	2.75	0.500	2.639* 사후 검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중학교 졸업	12	4.17	0.718		3.00	0.739	
	고등학교 졸업	125	4.25	0.867		2.53	0.848	
	대학 재학, 졸업	120	4.14	1.071		2.53	1.028	
	대학원 재학 이상	39	4.15	1.226		2.10	1.119	
전체		300	4.19	0.994		2.50	0.966	

문 8-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4.27점(± 0.91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만족도는 2.42점(± 0.970)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응답자들은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이용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최종 학력별로는 중요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2.50점)와 대학 재학, 졸업 집단(2.43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1.95점)은 현저히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후 검정 결과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요약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II-71〉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의 중요도와 만족도

8-9		N	중요도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성	182	4.26	0.913	-0.356	2.43	0.948	0.190
	여성	118	4.30	0.909		2.41	1.006	
연령	20대	17	4.47	0.874	1.902	2.53	1.179	2.131
	30대	37	4.19	0.967		2.70	1.266	
	40대	28	4.54	0.744		2.43	1.069	
	50대	131	4.34	0.941		2.25	0.906	
	60대	87	4.09	0.871		2.53	0.805	
거주 지역	읍면 지역	12	4.25	0.754	0.130	2.42	0.793	2.235
	중소도시(동)	96	4.31	0.886		2.25	0.984	
	대도시(동)	192	4.26	0.934		2.51	0.965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4	4.00	0.816	0.425	2.75	0.500	3.304* e<c
	중학교 졸업	12	4.17	0.718		2.83	0.389	
	고등학교 졸업 ^c	125	4.22	0.857		2.50	0.829	
	대학 재학, 졸업	120	4.33	0.873		2.43	1.067	
	대학원 재학 이상 ^e	39	4.33	1.221		1.95	1.099	
전체		300	4.27	0.910		2.42	0.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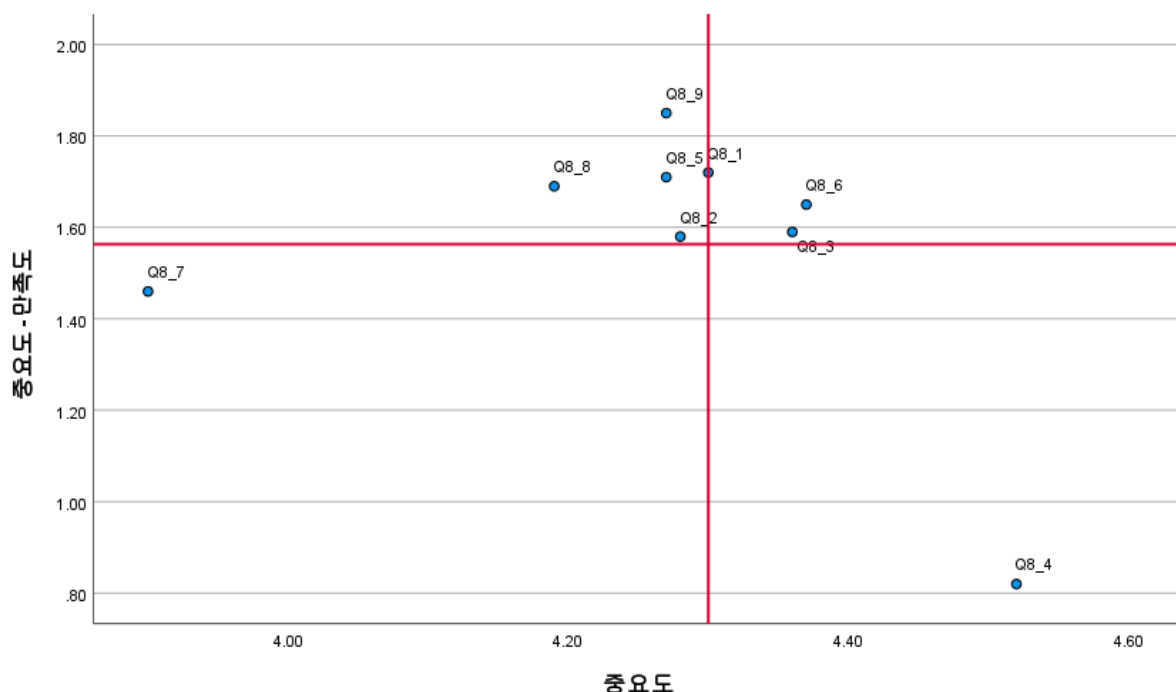
문8 전체

편의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 편의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항목은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자동화 기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자동 발매기, 음료 자판기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정보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 비대면 기기임에도 점자 표기 위치가 불명확하거나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이용 불편이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 다음으로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및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녀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모두 이용자가 공간 내에서 위치를 파악하거나 이동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 요소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점자 표기 체계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반면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리치 지수를 보였다. 이는 승강기의 점자 표기가 이미 대부분 시설에서 일정 수준 표준화되어 있으며, 이용자 인식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화장실 세면대와 샤워실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 점자 표시’ 역시 비교적 낮은 요구도를 보여, 다른 항목에 비해 긴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으로 중요도와 중요도-만족도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결과, [그림 II-37]과 같이 중요도의 평균보다 높고, 중요도-만족도 차이의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점자 표지판’, ‘화장실 출입구 남녀 구분 점자 표지판’, ‘사무실·객실 출입문 옆 점자 표지판’으로 나타났다.
- 보리치 요구도와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편의 시설 내 점자 표기에 대한 개선 요구는 ‘화장실 출입구 남녀 구분 점자 표지판’, ‘사무실·객실 출입문 옆 점자 표지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점자 설치 여부를 넘어, 시각장애인의 자율적 이용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점자 정보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72〉 편의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보리치 요구도

문항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만족도	borich	Rank
8-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4.30	2.58	1.72	7.39	2
8-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4.28	2.70	1.58	6.77	7
8-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4.36	2.77	1.59	6.92	6
8-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4.52	3.70	0.82	3.70	9
8-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4.27	2.57	1.71	7.29	3
8-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4.37	2.71	1.65	7.22	4
8-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3.90	2.44	1.46	5.71	8
8-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4.19	2.50	1.69	7.08	5
8-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4.27	2.42	1.85	7.92	1



[그림 II-37] 편의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로커스 포 포커스 모형

4) 공공 시설 점자 표기에 대한 개선 요구

문 9

공공 시설 점자 안내판 설치 권장 우선순위 3개

- 조사 결과, 공공 시설 중 점자 안내판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은 지역자치센터(46.3%)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보건소(44.3%), 공공도서관(34.0%), 우체국(30.7%), 교육·직업훈련시설(31.3%)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아동센터(12.7%), 전시장·식물원(9.3%), 도매시장·상점(7.7%), 야외시설(4.7%), 관광숙박시설(3.3%), 휴게소(3.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 성별에서는 남성은 지역자치센터(52.2%)가 1순위, 보건소(45.1%)가 2순위였으나 여성은 보건소(43.2%), 지역자치센터(36.4%) 순서로 높게 나타나 우선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 연령대별로 1순위에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지역아동센터(52.9%), 30대는 보건소(37.8%), 40대는 교육·직업훈련시설(39.3%), 50대와 60대는 지역자치센터(56.3%)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지역자치센터(71.7%)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중소도시(28.1%)와 대도시(28.1%, 37.5%)의 선호가 많았다.
- 최종 학력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이하는 우체국(50.0%), 중학교 졸업은 지역자치센터(41.7%), 고등학교 졸업은 지역자치센터(51.2%), 대학교 재학·졸업은 보건소(40.8%)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 요약하면, 지역자치센터와 보건소가 핵심 우선순위 시설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거주 지역과 최종 학력별로 최우선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농촌 고령층은 자치센터 우선, 도시 여성층은 보건소 우선, 청년층은 아동센터, 교육시설 등을 중요한 공공 시설 점자 안내판 설치 우선시설로 보았다.

〈표 II-73〉 공공 시설 점자 안내판 설치 권장 우선 순위 3개

9 다중응답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전체	
성별	남성	n	95	16	42	82	59	62	2	11	23	13	15	56	49	8	182	
		%	52.2	8.8	23.1	45.1	32.4	34.1	1.1	6.0	12.6	7.1	8.2	30.8	26.9	4.4	100.0	
	여성	n	44	20	42	51	33	40	2	3	15	15	8	38	40	2	118	
		%	37.3	16.9	35.6	43.2	28.0	33.9	1.7	2.5	12.7	12.7	6.8	32.2	33.9	1.7	100.0	
연령	20대	n	8	1	4	6	2	9	0	2	4	1	2	7	2	1	17	
		%	47.1	5.9	23.5	35.3	11.8	52.9	0.0	11.8	23.5	5.9	11.8	41.2	11.8	5.9	100.0	
	30대	n	13	6	9	13	14	14	1	2	7	4	5	12	6	2	37	
		%	35.1	16.2	24.3	35.1	37.8	37.8	2.7	5.4	18.9	10.8	13.5	32.4	16.2	5.4	100.0	
	40대	n	6	2	7	9	11	7	1	5	7	5	6	11	3	1	28	
		%	21.4	7.1	25.0	32.1	39.3	25.0	3.6	17.9	25.0	17.9	21.4	39.3	10.7	3.6	100.0	
	50대	n	63	16	35	62	36	48	2	1	14	13	7	44	47	4	131	
		%	48.1	12.2	26.7	47.3	27.5	36.6	1.5	0.8	10.7	9.9	5.3	33.6	35.9	3.1	100.0	
	60대	n	49	11	29	43	29	24	0	4	6	5	3	20	31	2	87	
		%	56.3	12.6	33.3	49.4	33.3	27.6	0.0	4.6	6.9	5.7	3.4	23.0	35.6	2.3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5	2	4	7	4	2	0	0	1	2	0	4	5	0	12
			%	41.7	16.7	33.3	58.3	33.3	16.7	0.0	0.0	8.3	16.7	0.0	33.3	41.7	0.0	100.0
중소도시 (동)		n	48	11	25	54	21	28	1	7	11	7	7	28	27	6	96	
		%	50.0	11.5	26.0	56.3	21.9	29.2	1.0	7.3	11.5	7.3	7.3	29.2	28.1	6.3	100.0	
대도시(동)		n	86	23	55	72	67	72	3	7	26	19	16	62	57	4	192	
		%	44.8	12.0	28.6	37.5	34.9	37.5	1.6	3.6	13.5	9.9	8.3	32.3	29.7	2.1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1	2	2	3	0	0	0	0	0	0	0	2	2	0	4	
		%	25.0	50.0	50.0	75.0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5	3	5	5	6	3	0	1	0	1	0	1	6	0	12	
		%	41.7	25.0	41.7	41.7	50.0	25.0	0.0	8.3	0.0	8.3	0.0	8.3	50.0	0.0	100.0	
	고등학교 졸업	n	66	16	40	64	36	37	1	5	8	15	4	33	46	2	125	
		%	52.8	12.8	32.0	51.2	28.8	29.6	0.8	4.0	6.4	12.0	3.2	26.4	36.8	1.6	100.0	
	대학 재학, 졸업	n	52	14	24	45	35	49	3	6	18	11	13	43	29	6	120	
		%	43.3	11.7	20.0	37.5	29.2	40.8	2.5	5.0	15.0	9.2	10.8	35.8	24.2	5.0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15	1	13	16	15	13	0	2	12	1	6	15	6	2	39	
		%	38.5	2.6	33.3	41.0	38.5	33.3	0.0	5.1	30.8	2.6	15.4	38.5	15.4	5.1	100.0	
전체		n	139	36	84	133	92	102	4	14	38	28	23	94	89	10	300	
		%	46.3	12.0	28.0	44.3	30.7	34.0	1.3	4.7	12.7	9.3	7.7	31.3	29.7	3.3	100.0	

가: 지역자치센터
나: 파출소, 지구대
다: 우체국
라: 보건소
마: 공공도서관

바: 대피소
사: 지역 아동 센터
아: 안마 시술소
자: 전시장, 동·식물원
차: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카: 교육원·직업 훈련소·학원 등
타: 관광 숙박 시설
파: 휴게소
하: 기타

문 10

공공 시설 점자 표지판 설치 권장 우선순위 3개

- 공공 시설 점자 표지판 설치 권장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이용률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접근 빈도가 매우 높고 점자 표지판 설치의 최우선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55.7%), 종교집회장(51.3%), 숙박업소(31.7%), 운동시설(24.0%), 이용원·목욕장(21.7%), 다세대주택(18.0%), 기숙사(13.3%)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는 여성(82.2%)과 남성(73.1%) 모두 음식점을 1순위로 꼽았으나 2순위는 여성은 소매점(64.4%), 남성은 운동시설(50.5%)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 연령대에서는 음식점이 모든 연령대의 1순위였으나, 20대(41.2%)와 30대(51.4%)는 운동시설, 40대는 숙박시설(35.0%), 50대(49.6%)와 60대(54.0%)는 종교시설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별로는 모두 음식점이 1순위로 꼽혔으나 2순위는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 지역은 슈퍼마켓(83.3%), 중소도시는 운동시설(51.0%), 대도시는 숙박시설(34.4%)로 나타났다.
- 최종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슈퍼마켓(100%)’과 음식점(75%)’을 선택하였고 다른 집단은 모두 1순위는 음식점이었다. 2순위는 중학교 졸업자는 슈퍼마켓(58%), 고등학교 졸업자는 종교시설(54.4%), 대학 재학, 졸업자는 숙박시설(35%), 대학원 이상은 종교시설(56.4%)로 차이를 보였다.
- 종합하면, 모든 집단에서 ‘일반 음식점’은 압도적인 1순위로 공통되었다. 다만 성별, 여성, 거주 지역, 최종 학력을 고려하여 해석해 보면 여성, 읍면 지역, 저학력층은 생활형 시설(슈퍼마켓), 남성, 20~30대, 중소도시 거주자는 활동형 시설(운동시설), 40대 이상, 고학력층, 대도시 거주자는 사회·이동형 시설(숙박·종교시설)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74〉 공공 시설 점자 표지판 설치 권장 우선 순위 3개

10 다중응답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종교 집회장	운동 시설	일반 숙박 시설, 생활 숙박 시설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기타	전체
성별	남성	n	91	36	133	30	92	65	39	42	3	182
		%	50.0	19.8	73.1	16.5	50.5	35.7	21.4	23.1	1.6	100.0
	여성	n	76	29	97	14	62	30	33	12	1	118
		%	64.4	24.6	82.2	11.9	52.5	25.4	28.0	10.2	0.8	100.0
연령	20대	n	11	4	13	3	7	5	4	4	0	17
		%	64.7	23.5	76.5	17.6	41.2	29.4	23.5	23.5	0.0	100.0
	30대	n	12	5	25	7	19	16	9	11	0	37
		%	32.4	13.5	67.6	18.9	51.4	43.2	24.3	29.7	0.0	100.0
	40대	n	15	3	21	4	16	10	8	4	1	28
		%	53.6	10.7	75.0	14.3	57.1	35.7	28.6	14.3	3.6	100.0
	50대	n	74	32	98	23	65	45	34	22	0	131
		%	56.5	24.4	74.8	17.6	49.6	34.4	26.0	16.8	0.0	100.0
	60대	n	55	21	73	7	47	19	17	13	3	87
		%	63.2	24.1	83.9	8.0	54.0	21.8	19.5	14.9	3.4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7	6	7	1	7	3	2	3	0	12
		%	58.3	50.0	58.3	8.3	58.3	25.0	16.7	25.0	0.0	100.0
	중소도시 (동)	n	48	26	77	13	51	26	24	15	2	96
		%	50.0	27.1	80.2	13.5	53.1	27.1	25.0	15.6	2.1	100.0
	대도시(동)	n	112	33	146	30	96	66	46	36	2	192
		%	58.3	17.2	76.0	15.6	50.0	34.4	24.0	18.8	1.0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4	1	3	0	2	2	0	0	0	4
		%	100.0	25.0	75.0	0.0	50.0	50.0	0.0	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7	6	9	1	5	2	4	2	0	12
		%	58.3	50.0	75.0	8.3	41.7	16.7	33.3	16.7	0.0	100.0
	고등학교 졸업	n	85	31	101	14	68	30	27	17	2	125
		%	68.0	24.8	80.8	11.2	54.4	24.0	21.6	13.6	1.6	100.0
	대학 재학, 졸업	n	55	23	91	21	57	42	31	27	1	120
		%	45.8	19.2	75.8	17.5	47.5	35.0	25.8	22.5	0.8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16	4	26	8	22	19	10	8	1	39
		%	41.0	10.3	66.7	20.5	56.4	48.7	25.6	20.5	2.6	100.0
전체		n	167	65	230	44	154	95	72	54	4	300
		%	55.7	21.7	76.7	14.7	51.3	31.7	24.0	18.0	1.3	100.0

문 11

개선이 시급한 사례 우선 순위 3개

-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점자 표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사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키패드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74.3%)’가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아파트 연결 복도나 호실의 초인종·벨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42.7%), ‘엘리베이터 상·하 버튼에만 점자가 있고 층 버튼에는 점자가 없는 경우(40.3%)’, ‘공공화장실의 수도꼭지에 점자가 없거나 냉·온수 구분이 안 되는 경우(33.0%)’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공동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를 가장 시급한 개선 항목으로 꼽았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공공건물 안내정보 부재’와 ‘호실 벨 점자 없음’을 비슷하게 중요하게 인식했고, 여성은 ‘호실 벨 점자 없음(2순위)’을 더 높게 평가했다.
- 연령 별로는 20대는 ‘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58.8%)’와 ‘공공건물 안내정보 부재(58.8%)’를 공동 1순위로 꼽았다. 30대는 ‘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83.3%)’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했고 40대는 ‘공공건물 안내정보 부재(60.7%)’를 1순위로, ‘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50.0%)’를 2순위로 꼽았다. 50대와 60대는 각각 ‘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78.6%, 74.7%)’를 1순위로 선택했고, ‘호실 벨 점자 없음’을 2순위로 꼽았다.
- 거주 지역별로는 모두 ‘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를 1순위로 꼽았으나 그다음은 차이가 있었다. 읍면 지역에서는 ‘자동문 ‘누름’ 버튼 표기 없음(58.3%)’과 ‘공공화장실 점자 없음(50.0%)’이 뒤를 이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엘리베이터 층 버튼 점자 부재(43.8%)가 2순위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호실 벨 점자 없음(5.3%)’, ‘공공건물 안내정보 부재(43.8%)’가 뒤를 이었다.
- 최종 학력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층은 ‘공공건물 안내정보 부재(53.8%)’, 대학 재학, 졸업층은 ‘호실 벨 점자 없음(42.5%)’, 대학원 이상층은 ‘엘리베이터 층 버튼 점자 부재(46.2%)’를 꼽았다.
- 종합하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공동현관 키패드 점자 부재’가 가장 시급한 개선 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에 진입하는 첫 단계’ 자체가 가장 큰 장벽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순위에서는 집단별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과 고령층, 대도시 거주자는 ‘호실 벨 점자 미표시’, 남성과 중년층, 중소도시 거주

자는 ‘건물 안내정보 부족’, 고학력층은 ‘엘리베이터 조작부 점자 미표시’, 읍면 지역 주민은 ‘자동문 누름 버튼 점자 부재’를 중점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표 II-75〉 개선이 시급한 사례 우선 순위 3개

11 다중응답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전체
성별	남성	n	76	54	136	49	80	42	80	21	0	182
		%	41.8	29.7	74.7	26.9	44.0	23.1	44.0	11.5	0.0	100.0
	여성	n	45	45	87	33	46	26	48	16	3	118
		%	38.1	38.1	73.7	28.0	39.0	22.0	40.7	13.6	2.5	100.0
연령	20대	n	8	5	10	0	10	5	7	4	1	17
		%	47.1	29.4	58.8	0.0	58.8	29.4	41.2	23.5	5.9	100.0
	30대	n	20	6	31	5	14	8	14	6	1	37
		%	54.1	16.2	83.8	13.5	37.8	21.6	37.8	16.2	2.7	100.0
	40대	n	12	6	14	10	17	5	7	8	1	28
		%	42.9	21.4	50.0	35.7	60.7	17.9	25.0	28.6	3.6	100.0
	50대	n	48	49	103	42	50	33	56	12	0	131
		%	36.6	37.4	78.6	32.1	38.2	25.2	42.7	9.2	0.0	100.0
	60대	n	33	33	65	25	35	17	44	7	0	87
		%	37.9	37.9	74.7	28.7	40.2	19.5	50.6	8.0	0.0	100.0
거주 지역	읍면 지역	n	5	6	6	4	7	4	3	1	0	12
		%	41.7	50.0	50.0	33.3	58.3	33.3	25.0	8.3	0.0	100.0
	중소도시 (동)	n	42	32	68	27	35	23	38	14	2	96
		%	43.8	33.3	70.8	28.1	36.5	24.0	39.6	14.6	2.1	100.0
	대도시(동)	n	74	61	149	51	84	41	87	22	1	192
		%	38.5	31.8	77.6	26.6	43.8	21.4	45.3	11.5	0.5	100.0
최종 학력	초등 졸업 이하	n	2	3	2	0	3	0	0	2	0	4
		%	50.0	75.0	50.0	0.0	75.0	0.0	0.0	50.0	0.0	100.0
	중학교 졸업	n	2	4	10	3	7	3	6	1	0	12
		%	16.7	33.3	83.3	25.0	58.3	25.0	50.0	8.3	0.0	100.0
	고등학교 졸업	n	51	48	94	39	41	31	61	9	1	125
		%	40.8	38.4	75.2	31.2	32.8	24.8	48.8	7.2	0.8	100.0
	대학 재학, 졸업	n	48	34	86	30	58	28	45	17	2	120
		%	40.0	28.3	71.7	25.0	48.3	23.3	37.5	14.2	1.7	100.0
	대학원 재학 이상	n	18	10	31	10	17	6	16	8	0	39
		%	46.2	25.6	79.5	25.6	43.6	15.4	41.0	20.5	0.0	100.0
전체		n	121	99	223	82	126	68	128	37	3	300
		%	40.3	33.0	74.3	27.3	42.0	22.7	42.7	12.3	1.0	100.0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하 버튼에 상하만 점자로 표시되어 있음

나: 공중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누름 또는 센서인 경우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다: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라: 누름 버튼식 자동문의 버튼에 ‘누름’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마: 공공건물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근처에 주요실 위치 정보와 층 안내 정보가 없음

바: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한 공간에 출입 금지 점자 표시판이 없어 잘못 들어감

사: 아파트나 연립 주택 호실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아: 도서관이나 열람실 좌석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자: 기타

문 12

점자 표기가 개선되어야 할 점(자유응답)

- 점자 표기의 위치와 표준화: 응답자들은 점자 표기의 위치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시설마다 점자 표시의 부착 위치가 제각각이라 시각장애인이 이를 쉽게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공공 시설에서 동일한 위치와 규격으로 점자를 설치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엘리베이터, 화장실, 출입문, 계단 손잡이, 방 호실 등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손에 잘 닿는 높이와 위치에 일관성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다.
-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 다수의 응답자는 점자 표시가 오염되거나 마모되어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점자 안내판이나 축지도에 먼지가 쌓여 손으로 만지기 어렵고, 정보가 변경되어도 업데이트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점자 확충 및 적용 범위 확대: 응답자들은 점자 표기가 공공 기관 외의 일반 상업시설, 여가·복지시설, 주거시설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편의점, 음식점, 마트, 카페, 병원, 숙박업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도 점자 안내와 메뉴판, 상품명, 가격표 등의 점자 표기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요구가 많았다. 또한 엘리베이터 버튼, 자동판매기, 터치식 키오스크, 출입문 버튼 등 전자기기 조작부에도 점자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음성 안내 및 기술적 보완: 점자 표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성 안내 서비스와 병행하거나 스마트폰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터치스크린 기반의 비대면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점자와 음성 지원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있었다.
- 법적·제도적 강화: 여러 응답자는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법령과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점자 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표준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협회의 상시 모니터링과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 점자 교육 및 인식 개선: 일부 응답자는 점자 표기 확대만큼 점자 사용 교육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점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점자교육을 조기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그 외에도 응답자들은 △점자의 선명도 및 돌출감 개선 △점자 축지도의 품질 관리 및 오류 수정 △표준 규격에 맞춘 양각 및 띄어쓰기 적용 △점자 안내책자 비치 확대 △유도블록 설치 간격 개선 △남녀 화장실 표기의 통일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일부는 공공 문서나 우편물에도 점자 표기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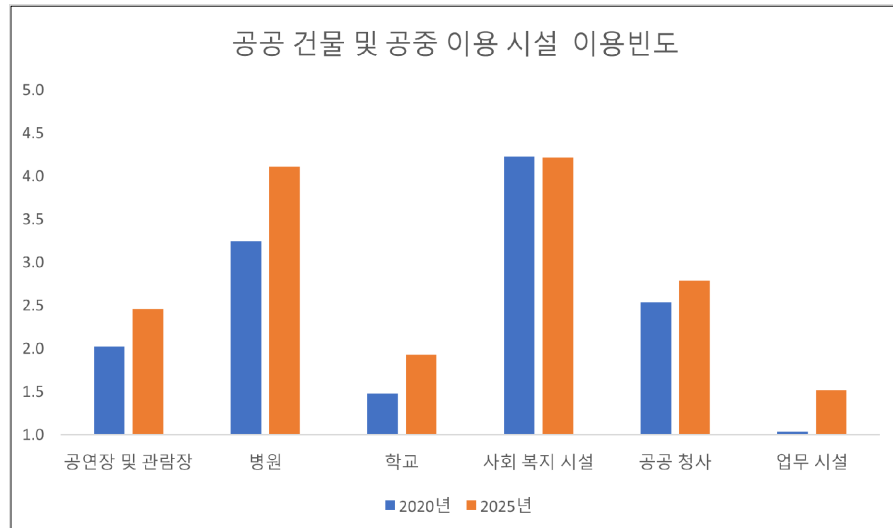
5) 선행 조사 결과와의 비교

비교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빈도

- 2025년 조사는 선행 연구인 2019, 2020년 조사 문항을 수정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가능한 2020년 문항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 2020년과 2025년의 시각장애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용 빈도를 ‘이용한 적 없음(1)’, ‘연 1회(2)’, ‘반기 1회(3)’, ‘분기 1회(4)’, ‘월 1회(5)’, ‘주 1회(6)’, ‘일 1회(7)’로 재코딩하여 등간척도에 준하는 값으로 환산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공연장 및 관람장의 이용 빈도는 2020년 2.03에서 2025년 2.46으로 상승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 시설 접근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병원의 경우 3.25에서 4.11로 크게 증가하여 조사된 시설 중 가장 뚜렷한 증가폭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관리 수요 증가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같은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학교 이용 빈도는 1.48에서 1.93으로 증가하였고, 공공 청사 역시 2.54에서 2.79로 상승하여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업무 시설의 이용 빈도도 1.04에서 1.52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이용 수준은 낮지만 꾸준한 증가 경향이 확인되었다.
-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빈도는 4.23에서 4.22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조사 대상 시설 중 가장 높은 이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주요 생활·지원 시설로서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의료·문화·행정 분야에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38]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이용 빈도

〈표 II-7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빈도

항목	2020년	2025년
공연장 및 관람장	2.03	2.46
병원	3.25	4.11
학교	1.48	1.93
사회복지시설	4.23	4.22
공공 청사	2.54	2.79
업무 시설	1.04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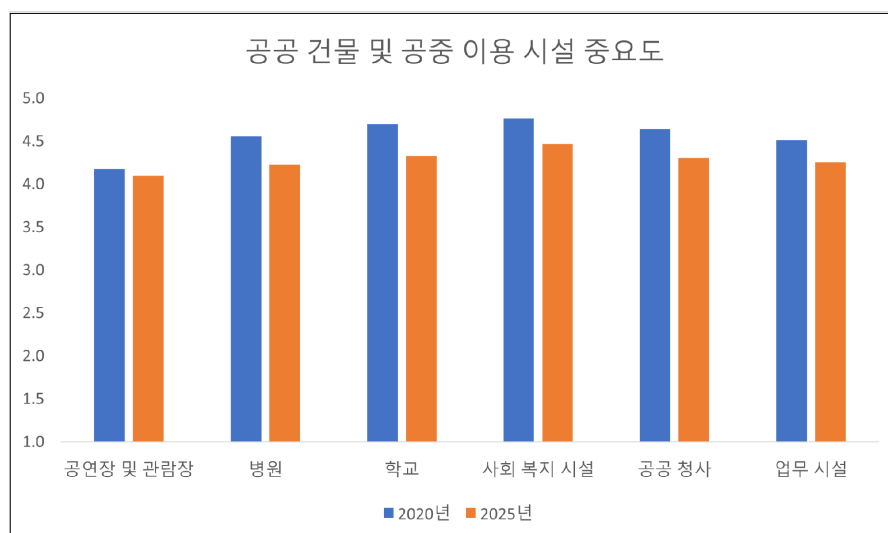
비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점자 표기 중요도

- 2020년과 2025년의 시각장애인 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점자 표기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2025년에 중요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공연장 및 관람장의 점자 표기 중요도는 2020년 4.18에서 2025년 4.10으로 약간 낮아졌으며, 병원 역시 4.56에서 4.23으로 감소하여 의료시설의 중요성 인식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학교는 4.70에서 4.33으로, 사회복지시설은 4.76에서 4.47로 각각 감소하여 시각장애인의 교육 및 복지 관련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중요도 역시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공 청사는 4.64에서 4.31로 낮아졌으며, 업무 시설 또한 4.51에서 4.26으로 감소하여 행정 및 업무 관련 시설의 점자 표기 중요도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2020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활환경 변화나 시설 이용 목적의 다양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39]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점자 표기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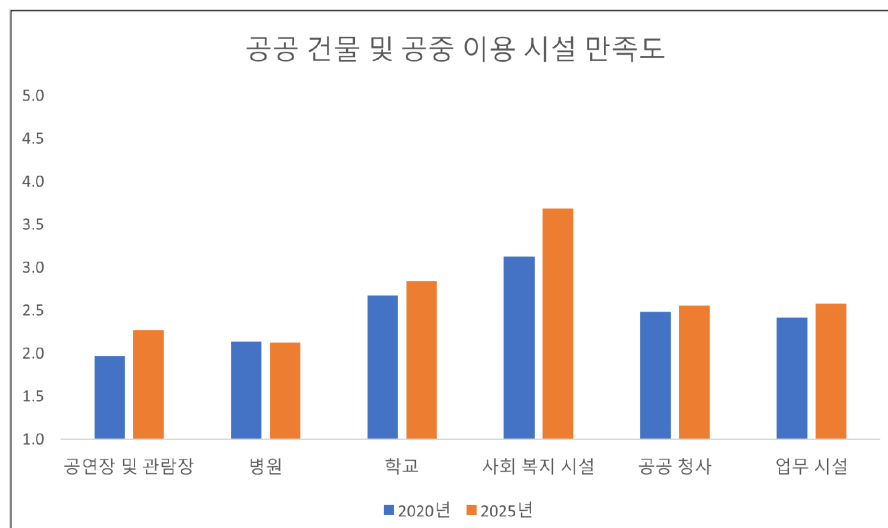
〈표 II-7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점자 표기 중요도

항목	2020년	2025년
공연장 및 관람장	4.18	4.10
병원	4.56	4.23
학교	4.70	4.33
사회복지시설	4.76	4.47
공공 청사	4.64	4.31
업무 시설	4.51	4.26

비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점자 표기 만족도

- 2020년과 2025년의 시각장애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점자 표기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공연장 및 관람장의 점자 표기 만족도는 2020년 1.97에서 2025년 2.27로 증가하여 문화시설의 점자 표기에 긍정적 평가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역시 2.67에서 2.84로 상승하여 교육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2020년 3.13에서 2025년 3.69로 크게 증가하였다.
- 공공 청사(2.49→2.56)와 업무 시설(2.41→2.58) 또한 소폭 증가하여 행정 및 업무 관련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병원의 점자 표기 만족도는 2020년 2.14에서 2025년 2.13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의료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점자 표기 만족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복지·교육·문화시설에서의 점자 표기 만족도 상승이 두드러진다. 이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40] 공공 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점자 표기 만족도

〈표 II-78〉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점자 표기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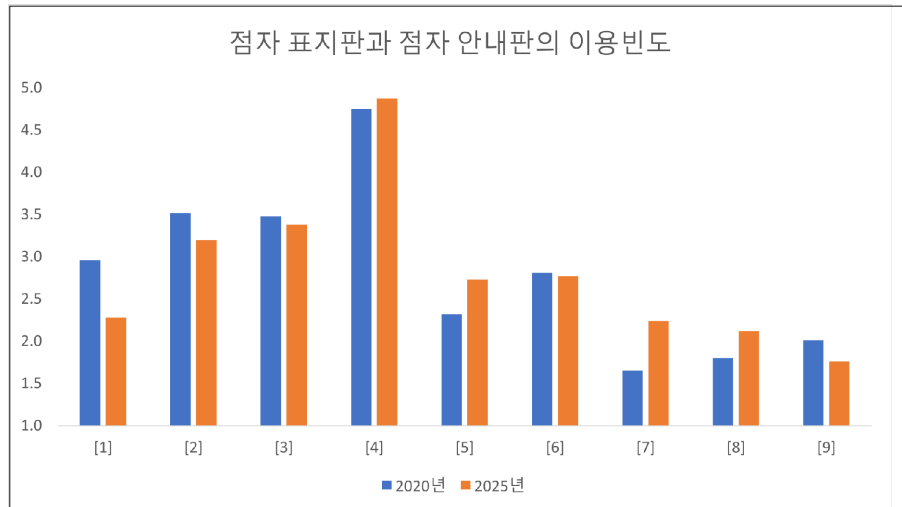
항목	2020년	2025년
공연장 및 관람장	1.97	2.27
병원	2.14	2.13
학교	2.67	2.84
사회복지시설	3.13	3.69
공공 청사	2.49	2.56
업무 시설	2.41	2.58

비교 4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이용 빈도

- 2020년과 2025년의 시각장애인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 이용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용 빈도를 ‘이용한 적 없음(1)’, ‘연 1회(2)’, ‘반기 1회(3)’, ‘분기 1회(4)’, ‘월 1회(5)’, ‘주 1회(6)’, ‘일 1회(7)’로 재코딩하여 등간척도에 준하는 값으로 환산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항목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 먼저, 출입문 옆 벽면의 방 이름 점자 표지판은 2.96에서 2.28로 감소하였고,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 끝부분의 점자 표지판 역시 3.52에서 3.20으로 낮아졌다. 계단 손잡이 끝부분의 층수·위치 표기도 3.48에서 3.38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들 항목은 전반적으로 기존 시설 내 점자 표지판을 활용하는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승강기 조작반 및 층수 표기 점자는 4.75에서 4.87로 증가하여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이용 빈도를 보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동선에서 승강기 점자가 핵심적인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또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점자 표기는 2.32에서 2.73으로 증가하여 정보 전달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화장실 출입구 남·여 표기는 2.81에서 2.77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화장실 세면대·샤워실의 냉온수 구분 점자는 1.65에서 2.24로 크게 증가하여 일상생활 편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점자 정보의 활용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시설 배치를 나타내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 역시 1.80에서 2.12로 증가하여 공간 안내 기능의 활용 빈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시는 2.01에서 1.76으로 감소하여 기기 조작 관련 점자 이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점자 정보는 승강기 관련 점자이며,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일상적 동선에서의 점자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출입문·복도·계단 등 전통적 위치의 점자 표지판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점자 설치 위치나 이용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그림 II-41]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이용 빈도

〈표 II-79〉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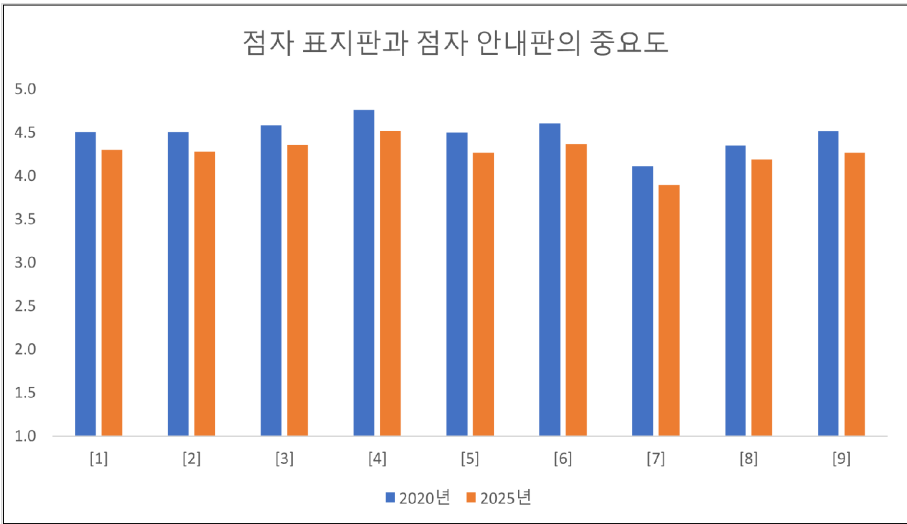
항목	2020년	2025년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2.96	2.28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3.52	3.20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3.48	3.38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4.75	4.87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2.32	2.73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2.81	2.7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1.65	2.24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1.80	2.12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2.01	1.76

비교 5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

- 2020년과 2025년의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4점대 이상의 높은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2025년에 중요도가 소폭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 먼저, 출입문 옆 벽면의 방 이름 점자 표지판은 4.51에서 4.30으로,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점자 표지판은 4.51에서 4.28로 각각 낮아졌다. 계단 손잡이의 층수·위치 점자 역시 4.59에서 4.36으로 감소하여 시설 내부 이동 경로에서 제공되는 점자정보의 중요도 인식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승강기 조작반 및 층수 표기 점자는 2020년 4.76에서 2025년 4.52로 소폭 감소했음에도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점자가 핵심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의 점자 표지판도 4.50에서 4.27로 낮아졌으며, 화장실 출입구의 남·여 구분 점자는 4.61에서 4.37로 감소하여 편의 시설 내 점자 정보의 중요성 평가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세면대 및 샤워실의 냉·온수 구분 점자는 4.11에서 3.90으로 감소했으며, 시설 배치를 나타내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는 4.35에서 4.19로 낮아졌다.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 점자 역시 4.51에서 4.27로 감소하였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은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을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요도가 다소 낮아졌다. 그럼에도 승강기·계단·화장실·출입구 등 이동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점자 정보는 여전히 높은 중요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해당 영역의 점자 정보 품질과 접근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그림 II-42]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

〈표 II-80〉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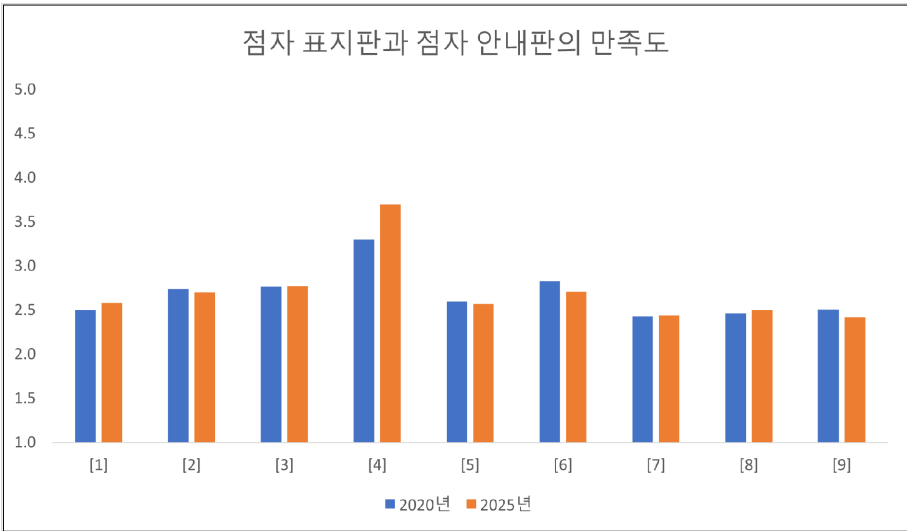
항목	2020년	2025년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4.51	4.30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4.51	4.28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4.59	4.36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4.76	4.52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4.50	4.27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4.61	4.3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4.11	3.90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4.35	4.1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4.51	4.27

비교 6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만족도

- 2020년과 2025년의 시각장애인 점자 표지판 및 점자 안내판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항목별로 서로 다른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는 소폭의 증감이 확인되었다.
- 먼저, 출입문 옆 벽면의 방 이름 점자 표지판은 2020년 2.50에서 2025년 2.58로 소폭 상승하여 출입구 주변 점자 안내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 손잡이의 층수·위치 점자 역시 2.76에서 2.77로 거의 차이는 없으나 약간 상승하였다. 반면,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2.74에서 2.70으로,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점자는 2.60에서 2.57로 각각 소폭 감소하여 일부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화장실 출입구의 남·여 표기 점자도 2.83에서 2.71로 감소하여 화장실 점자 표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승강기 조작반 및 층수 안내 점자에서 나타났는데, 2020년 3.30에서 2025년 3.70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점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설치 품질 또는 접근성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또한 화장실 냉·온수 구분 점자는 2.43에서 2.44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시설 배치를 나타내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는 2.46에서 2.50으로 소폭 상승하여 공간 안내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한편,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 점자는 2.51에서 2.42로 감소하여 기기 조작 관련 점자 정보는 여전히 불충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 종합적으로 보면, 승강기·출입문·축지도 등 일부 항목에서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복도·에스컬레이터·화장실·자동판매기 점자 등은 만족도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동선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점자 안내 시설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기기 조작 및 편의 시설 내 점자 품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II.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그림 II-43]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만족도

〈표 II-81〉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만족도

항목	2020년	2025년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2.50	2.58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2.74	2.70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2.76	2.77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3.30	3.70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2.60	2.57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2.83	2.71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2.43	2.44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2.46	2.50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2.51	2.42

5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 이번 조사는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이동 편의 시설,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 이용과 중요도 및 만족도, 요구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시설은 2020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공공시설)와 동일한 항목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주요 이동과 공공 편의 시설의 점자사용 현황, 인식 및 개선 요구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1) 이동 편의 시설

가. 이동 편의 시설의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의 1년간 이동 편의 시설 이용 빈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교통수단이 가장 자주 이용되는 시설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 이용자의 약 41%가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지하철 자체도 42% 이상이 정기적 이용을 보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지하철이 가장 접근성이 높고, 생활 기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다음으로는 버스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49%)은 여전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매일 또는 매주 이용하는 비율도 13%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도시권 생활 교통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시설 이용 빈도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대도시에서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령·저학력·비도시권 집단은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이동권의 지역적·사회적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 종합하면, 시각장애인의 이동은 주로 도시 내 생활권 중심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거리나 복합 이동(공항, 항만, 환승시설 등)은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여전히 도심 내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이동 편의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

- 시각장애인이 인식한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의 점자 표기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전형적인 불균형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동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 이용 경험에서는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항목은 승강기 버튼과 통화장치의 점자 표기로, 평균 중요도 4.58점으로 전체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승강기가 이동의 핵심 수단이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만족도(3.85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 시설 유지 관리나 점자 위치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 그다음으로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점자 표기와 화장실 출입구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가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각각 4.40점 수준). 그러나 만족도는 각각 3.12점, 2.65점으로 낮았다. 계단 손잡이와 경사로 손잡이의 점자 표기도 중요도(4.39점, 4.36점)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만족도는 3.08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나머지 대부분 시설도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50대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성별 차이는 미미했으나, 여성은 중요도를 약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거주자의 중요도 인식이 높고, 대도시 거주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 집단의 불만족이 두드러졌다.
- 종합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만족도가 낮거나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특히, 승강기 조작반, 계단 손잡이, 승강장 안전문 등 이동 관련 핵심 시설의 중요도는 매우 높았지만, 화장실, 자동 발매기, 좌석 등 세부 서비스 영역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즉, 이동 중 ‘방향과 안전’을 보장하는 점자는 높은 중요도로 인식된 반면, ‘이용 편의성이나 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점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거나 불만족이 컸다.

다.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인식

- 시각장애인이 인식한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의 적절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위치 적절성, 점 간격과 높이, 내용의 정확성, 유지 관리 상태 순으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은

30~40% 수준, 즉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단계로 해석된다. 점자 위치와 간격·높이 등 물리적 구조의 적절성은 중간 수준, 내용의 정확성은 비교적 긍정적, 유지 관리 측면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성별 인식은 유사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20~30대는 중립적이거나 비판적, 50~60대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대학 재학, 졸업층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대학원 이상은 표기의 세밀함이나 관리 수준에서 불만을 보였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 거주자가 다소 긍정적 평가를 보였는데, 이는 설치 유무 자체에 대한 만족감으로 해석된다.
- 개선에 대한 자유의견을 살펴보면, ‘점자가 있어도 읽기 어렵거나 찾기 어렵다’는 공통된 불만을 제기했다. 점자 안내판이 시설마다 제각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때로는 너무 높거나 낮아 손이 닿지 않거나, 오염·마모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기 내용의 부정확성(오타자, 거꾸로 부착, 비표준 규격)과 관리 부재, 점자 위치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즉, 점자의 존재 자체보다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는 점자’가 더 큰 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2) 공공 편의 시설의 점자 사용

가. 공중이용시설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이용 빈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시설 유형에 따라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의료시설(4.11)과 복지시설(4.22)은 이용률이 높고, 공연장(2.46)·업무 시설(1.52)·학교(1.93) 등은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 연령이 적을수록 시설 접근이 활발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한 적 없음” 응답이 증가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의지는 높으나 시설 접근성과 안내 정보 부족으로 실제 이용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 2020년 조사와 동일한 항목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병원 이용 빈도는 2020년 3.25에서 2025년 4.11점으로 0.86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공연장 및 관람장도 2020년 2.03점에서 2025년 2.46점으로, 학교는 2020년 1.48에서 2025년 1.93으로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 복지 시설의 경우 2020년 4.23에서 2025년 4.22로 소폭 이용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공중이용시설 중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시각장애인의 공중 이용 시설 이용 격차는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환경·인프라의 복합적 접근성 문제로 볼 수 있다. 향후 개선 방향은 병원과 복지시설 수준의 ‘실제 접근 가능한 구조’를 타 시설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나. 공공 시설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

-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평균 4.3점 내외)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낮은 수준(2.5점 전후)이다.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는 사회 복지 시설(4.47점), 학교(4.33점),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4.31점), 병원(4.23점), 공연장·관람장(4.10점), 업무 시설(4.26점)이었다. 만족도는 사회 복지 시설(3.69점), 학교(2.84점), 업무 시설(2.58점), 국가·지방 자치 단체 청사(2.56점) 공연장·관람장(2.27점), 병원(2.13점)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50대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은 세대, 20~30대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실제 이용률도 높으며, 고학력층일수록 만족도가 낮고, 중졸~대졸층은 긍정적 인식이 많았다.
- 시각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이용 빈도와 점자 표기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용 빈도는 시설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은 불균형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 2020년 조사와 동일한 항목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점자 표기의 중요도 인식은 모든 시설에서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감소 경향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는 2020년 4.70점, 2025년 4.33, 공공청사는 2020년 4.64, 2025년 4.31로 나타났다. 이는 점자 필요성 감소라기보다 디지털·음성 안내 등 정보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안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복지 시설 점자 표기 만족도는 2020년 3.13점에서 2025년 3.69점으로 0.56점 증가하였으며, 공연장 및 관람장(1.97→2.27), 업무 시설(2.41→2.58), 학교(2.67→2.84)로 다소 증가하였다. 다만 병원은 2020년 2.14점에서 2025년 2.13점으로 만족도가 다소 줄어 들었다. 병원의 경우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용 빈도(3.25→4.11)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므로 점자 표기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공중 편의 시설 종류별 이용 빈도

- 시각장애인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점자 표기는 승강기 조작반(버튼 및 층수 표기)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약 57%)이 ‘매일 또는 매주 1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계단 손잡이의 점자 표기(층수·위치 표기)가 뒤를 이어, 약 27.6%가 정기적으로(매일·매주) 이용했다. 나머지는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 점자, 화장실 출입구 점자(남녀 구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점자, 사무실·객실 출입문 점자, 축지도식 안내판, 냉·온수 구분 점자, 자동판매기·자동 발매기 점자 순으로 이용 빈도가 낮아졌다. 특히 자동판매기·자동 발매기 점자의 경우 전체의 74%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실질적인 접근성이나 위치 인식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젊은층과 고학력층일수록 점자 이용률이 높으며, 고령층·저학력층에서는 접근성과 활용성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었다.
- 2020년 조사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25년 이용 빈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2020년과 2025년 모두 승강기 조작반(버튼 및 층수 표기)의 이용 빈도(4.75→4.8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은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 점자 표기(3.52), 계단 손잡이의 점자 표기(층수·위치 표기)(3.48) 순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계단 손잡이의 점자 표기(층수·위치 표기)(3.38),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 점자 표기(3.20) 순으로 종류별 이용 빈도가 다소 달라졌다.
- 시각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수직·수평 이동과 직접적인 위치 파악에 관련된 점자 표기(승강기, 계단, 복도)는 가장 높은 이용 빈도를 보였고, 보조적·부가적 표지(냉온수, 자동판매기 등)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공중 편의 시설 종류별 중요도와 만족도

- 전반적으로 점자 표기의 평균 중요도는 약 4.3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평균 만족도는 2.7점 내외로 낮은 편이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중요도와 만족도는 순서대로 승강기 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4.58점/3.85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4.40점/3.12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4.40점/2.65점), 계단 손잡이(4.39점/3.08점), 통로·경사로 손잡이(4.36점/3.08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4.30점/2.61점), 승차권 자동 발매기(4.27점/2.48점), 출입구 인근 점자 안내판(4.25점/2.63점), 교통 수단 좌석(4.18점/2.07점), 교통 약자 좌석(4.18점/2.10점), 화장실 세면대 냉온점자(3.88점/2.07점)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를 보였다.

- 시설별로 중요도는 승강기 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4.58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4.40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4.40점), 계단 손잡이(4.39점), 통로·경사로 손잡이(4.3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승강기 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3.85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3.12점), 계단 손잡이(3.08점), 통로·경사로 손잡이(3.08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별로는 젊고 학력이 낮은 집단은 점자 이용 경험이 많고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령층과 고학력층은 점자 표기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불만족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불편 인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체감 만족도가 대도시보다 약간 더 긍정적이었다.
- 2020년 조사와 동일한 항목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공중 편의 시설 종류별 중요도는 승강기 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4.76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4.61점), 계단 손잡이(4.5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조사에서도 승강기 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4.52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4.37점), 계단 손잡이(4.36점)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0년 공중 편의 시설 종류별 중요도는 승강기 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4.76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4.61점), 계단 손잡이(4.5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조사에서도 승강기 버튼 조작반 및 통화장치(4.52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4.37점), 계단 손잡이(4.36점)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0년의 만족도는 승강기 조작반 점자(3.70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점자(2.83점), 계단 손잡이 점자(2.7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조사에서도 승강기 조작반 점자(3.70점), 계단 손잡이 점자(2.77점), 화장실 출입구 성별 점자(2.71점) 순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승강기 조작반 점자가 3.30점에서 3.70점으로 상승하여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종합하면, 승강기, 계단,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동선 핵심 시설’은 ‘매우 중요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며, 정책적 개선의 최우선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읽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점자’ 환경을 갖추는 것이 향후 공공편의 시설 개선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마. 공공 편의 시설 점자 표기 개선 요구

-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꼽은 항목은 첫째는 승강기

조작반의 점자 표기, 둘째는 계단과 경사로 손잡이에 부착된 점자 표기 셋째는 화장실 출입구의 남녀 구별 점자 표기였다. 이처럼 상위 3개 항목은 모두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시설로 분류되었다.

- 점자 권장 즉,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된 항목은 첫째, 복도나 사무실 출입문 옆의 방 이름 점자 표기, 둘째, 축지도식 안내판(건물 전체 구조 안내용), 셋째, 자동 발매기·자동판매기 점자 표기였다. 이들은 시설의 기본적 접근을 넘어 공간 이해, 자율적 이동, 정보 접근의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즉, 이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설치 시 시각장애인의 자율적 탐색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항목들로 인식된 것이다.
- 중요도는 높지만 실제로 불편하거나 미흡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화장실 출입구 점자 표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점자, 승강기 버튼 점자 표기였다. 특히 화장실 점자의 경우 위치가 제각각이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마모와 오염이 심해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점자는 점자가 훼손되거나 손의 위치와 맞지 않아 인식이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되었다. 승강기 버튼 점자 표기는 점자가 거꾸로 설치되어 있거나, 영문 점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있지만 믿기 어려운 점자’로 평가되었다. 이 세 항목은 공통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안내판을 ‘생활 속 이동과 안전의 핵심 장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설치 여부보다 품질과 관리, 그리고 실제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였다. 즉, 앞으로의 점자 정책은 단순히 ‘점자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히고, 믿을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점자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으로 볼 수 있다.

6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점자 표기의 “형식적 설치”에서 “실질적 활용”으로 전환

- 첫째. 현재 대부분의 공공 기관과 주요 시설에는 점자가 부착되어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읽을 수 없거나, 위치가 불규칙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과 안전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초점은 설치 개수 확대보다 ‘품질과 접근성 중심의 개선’으로 옮겨져야 한다.

- 둘째, 점자 편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점자를 설치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사전에 받아 잘못된 시공을 예방하고, 설치 후 하자를 최소화하며, 준공 승인 시 외부 점자 전문가의 검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셋째, 점자 편의 시설 설치 지침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촉지성 기준을 신설하여 마모된 점자 편의 시설의 교체 기준을 수치로 제시(예: 돌출 높이 최소 0.5mm 유지)하거나 지문 위생 문제를 대비하여 항균 점자판 사용을 권장하고, ‘점자 편의 시설 표준 지침서’를 개정·홍보한다.
- 넷째, 정기 점검 유지 관리 체계를 의무화한다. 점자 편의 시설 설치 후 ‘점자 편의 시설 유지 관리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점검과 유지 관리를 의무화한다. 여기에는 촉지 가능 여부, 오염 손상 여부, 위치 유지 여부, 안내 내용의 정확성 등이 포함해야 한다.

2) 제도적 실효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첫째, 점자 편의 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시설별로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무사항도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한 법 조항보다 모니터링 체계, 정기 검수 제도화가 필요하다.
- 둘째, 공공 기관 종사자들이 점자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광고물 부착, 안내판 가림 등)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점자 편의 시설 관련 상세내용이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자 모니터링 체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 참여형 ‘점자 편의 시설 모니터링 단’을 운영하며 공공 기관은 매년 점자 편의 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방 자치 단체와 시설 운영기관의 담당자에게 ‘점자 편의 시설 문제 예방’ 교육(손 베임 사고, 광고 부착 금지 등)을 실시하고, 점자 편의 시설의 위치, 역할 소개 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점자 편의 시설 이해’ 내용을 포함한다.

3) 이동과 안전 중심 시설 개선에 초점을 두고 확장

- 분석 결과, 승강기 점자의 이용 빈도는 4.87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역시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이동 과정에서 승강기, 계단, 복도 등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점자 정보가 핵심적인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자 안내 정책은 단순히 시설 내 위치 표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이동 동선 중심의 안내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4) ‘중요도 높고 만족도 낮은 영역’ 집중 개선

-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다’는 점이였다. 특히 병원, 공공청사, 화장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은 중요도가 4.3~4.5점 수준으로 높았지만, 만족도는 2점대 중반에 머물렀다. 따라서 향후 정책에서는 단순히 설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도가 높은 시설의 점자 위치, 촉지성, 유지 관리, 표기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점자법」
- 국립국어원(2014). 시각장애인 언어 사용 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9). 2019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 점자 사용 실태 조사 도구 개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3). 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4).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 김영일, 이진원(2020).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실태 조사. *시각장애연구*, 36(2), 25-52.
- 김영일, 이태훈(2015). 시각장애인의 점자에 대한 인식과 점자 사용 실태. *시각장애연구*, 31(3), 158-178.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년 등록 장애인 통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식품안전정보원(2022). 제외국의 점자 표시제도 및 관리현황. 식품안전정보원.
- 식품의약품안전처(2023.7.20.).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 장애인개발원(2023). ‘Universal Design 인프라구축 및 생활밀착형 시설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 조사’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 한국소비자원(2019), 의약품 점자 표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2022), 시각장애인 식품 점자 표기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24), 2024년 전국 257개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제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19~2023). 문화체육관광부.
-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2024~2028). 문화체육관광부.
- 東京都 (2024). 『障害者への情報保障等について—令和5年度 第5回 インターネット都政モニターアンケート 調査結果—』東京都.
- 点字利用と読書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委員会 (2014) 『点字利用と読書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日本点字図書館.
- Arditi, A. (2017). Rethinking ADA signage standards for low-vision accessibility, *Journal of Vision*, 17(5), 1-20.
- Bacalla, I., Barcelona, A. L., Gisultura, F., Pacatang, R., Romarate, K., Cortes, V., & Cabanilla, A. (2024). Evaluating the Impact of Braille Signage on Wayfinding System: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mpus Accessibility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CNU-Journal of Higher Education*, 18, 61-73.
- Havik, E. M., Steyvers, F. J., Kooijman, A. C., & Melis-Dankers, B. J. (2015). Accessibility of shared space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A comparative field study.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3(2), 96-110.
- Hofer, U., Lang, M., & Winter, F. (2020). Zusammenfassung des Forschungsprojekts «Zukunft der Brailleschrift» (ZuBra): Schriftsprachkompetenzen von Brailleleserinnen und Braillelesern – Wirksamkeit pädagogischer Angebote (2015-2018). *blind-sehbehindert*, 140, Article 1.
- RNIB. (2018-2023). What we know about public attitudes and understanding. RNIB Research and Insight Reports.
- Ryles, R. (1996). The impact of braille reading skills on employment, income, education, and reading habi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0(3), 211-215.

- Schroeder, F. (1989). Literacy: The key to opportunity.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83, 290-293.
- Silverman, A. M., & Bell, E. C. (2018). The Association between Braille Reading History and Well-being for Blind Adults Abstract.
- Tseng, L., Tang, C. C., & Sun, C. J. (2013). A study on the Braille elevator signage system in public buildings: The QFD perspectiv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5, 152-163.
- Wells-Jensen, S., Wells-Jensen, J., & Gabrielle, B. (2005). Changing the Public's Attitude Toward Braille: A Grassroots Approac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9(3), 1-15.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부록

부록 1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위해 애쓰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팀)에서는 「점자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연구 지원으로 실시하는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의 확정을 위하여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연구진에서 잘 검토하여 조사 도구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문항은 2024년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도구(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조사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부디 바쁜 일정에도 성심껏 의견 주시면,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5. 4. 22.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연구팀 올림

※ 의견 작성 방법;

조사 도구의 타당성 정도와 개선 의견을 문항별로 제시된 아래와 같은 모양의 박스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 국민(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의 점자 인식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 1)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전체적인 조사 영역의 적절성은 어떠합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 2)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의 조사 항목 구성의 적절성은 어떠합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표 1> 국민의 점자인식 조사 영역 및 조사 문항

영역	시각장애이용 조사 문항	비시각장애이용 조사 문항
1. 점자 인지도	1. 점자 읽고 쓸 수 있는 지 여부	1. 점자 인지 여부
		1-1. 점자 본 적 있는 지 여부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2. 점자 문자의 형태 인지 여부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3. 국가 지정 문자로서 점자 인지 여부
2. 점자 경험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4. 공공 기관의 점자 문서 서비스 인지 여부
	5.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여부	5. 일상생활 중 점자를 접한 곳
	5-1.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않는 이유	6.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에 대한 느낌
	6.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	7. 점자 학습 및 사용 경험 여부
3. 점자 인식	7. 점자 사용 과정의 어려운 점	7-1. 점자 학습 및 사용 계기
	8. 음성서비스 사용 환경	7-2. 점자 학습 및 사용 경험 없는 이유
	9. 점자 학습 의향	8. 점자 학습 의향
	10. 점자를 접할 때 느낌	9. 점자를 접할 때 느낌
	10-1. 점자 유용성	9-1. 점자 유용성
	10-2. 점자 배움의 용이성	9-2. 점자 배움의 용이성
	10-3. 점자 사용 편리성	9-3. 점자 사용 편리성
	10-4. 점자 친근감	9-4. 점자 친근감
	10-5. 점자 복잡성 인식	9-5. 점자 복잡성 인식
	11.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10. 시각장애인 학업, 직업, 자립에서의 점자의 중요성
	12.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 정도	11. 시각장애인이 점자 활용 정도
	12-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11-1.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13. 점자 서비스 충분성 여부	12. 점자 서비스 충분성 여부
	14. 사회적 소통에 점자의 기여 여부	13. 사회적 소통에 점자의 기여 여부
	15.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존재 여부	14. 점자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존재 여부
	16. 점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 디지털 점자 기기의 도움 정도	
	1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15. 점자 인식 개선 위한 정부의 역할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1. 성별
	2. 연령	2. 연령
	3. 거주 지역	3. 거주 지역
	4. 교육수준	4. 교육수준
	5. 직업	5. 직업
	6. 시각장애 정도	6. 시각장애인 가족 및 지인 여부

* 음영: 대상자별 별도 조사 항목

2 다음은 비시각장애인 대상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항목의 적절성은 어떠한지 의견 바랍니다.

[비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I 점자 인지도

1. 점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2번으로 이동)
② 모른다(☞ 1-1번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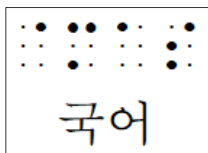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1.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한 특수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의 층수 버튼이나 공공기관 안내 표지판에 볼록하게 새겨진 점을 점자라 합니다. 이 점자를 본 적 있습니까?

- ① 예(☞ 2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점자를 알지 못하셔서 설문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2. 점자는 그림과 같이 가로 2점, 세로 3점의 6점 형식으로 구성된 문자입니다. 이와 같은 점자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점자가 한글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정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공공 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점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5.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건물의 승강기 버튼
- ② 공공기관 등의 촉지도식 안내 표지판
- ③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총수 및 위치 표기)
- ④ 사무실 이름판
- ⑤ 화장실 출입구 옆(남·여 구별)
- ⑥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
- ⑦ 음료수나 화장품 등의 상품이나 생활용품
- ⑧ 점자책
- ⑨ 기타 자주 접하는 곳()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II 점자 경험

6. 승강기, 계단, 공공 기관 안내판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을 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긍정적 인상
- ② 어떻게 읽나 궁금하여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음
- ③ 시각장애인의 일상의 불편감이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함
- ④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침
- 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인상
- ⑥ 나와는 거리가 있어 불편감이 듦
- ⑦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7. 점자를 배웠거나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 ① 예(☞ 7-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요(☞ 7-2번으로 이동)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7-1. 점자를 배우거나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점자 관련 직업을 위해
- ② 가족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자연스럽게 접함
- ③ 봉사활동을 위해서
- ④ 지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관심이 생김
- ⑤ 자기 계발이나 취미로
- ⑥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7-2. 점자를 배워보거나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점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어서
- ②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 ③ 점자를 학습할 수 있는 매체나 적당한 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 ④ 점자는 학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8. 기회가 주어진다면 점자를 학습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 ④ 있다 ⑤ 매우 많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Ⅲ 점자 인지

9.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자에 대한 다음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느낌
		←			→		
1)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별 쓸모없다
2)	배우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어렵다
3)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불편하다
4)	친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거리감 있다
5)	단순하다	①	②	③	④	⑤	복잡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0.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학업, 직업, 자립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1.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1-1번으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11-1번으로 이동)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⑥ 잘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1-1.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필요한 상황에서 점자 표기가 없어서
- ②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③ 점자를 배우지 못해서
- ④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 ⑤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 ⑥ 묵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 ⑦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 ⑧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2.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점자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3. 점자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4. 점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5.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②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 ③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④ 점자 관련 교육 강화
- ⑤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IV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2. 연령은? 만 ()세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거주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교육 수준은?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졸

③ 고등학교 졸

④ 대학교 졸(전문대 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무학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5.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6.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다음은 시각장애인 대상 조사 내용입니다. 조사 항목의 적절성은 어떠한지 의견바랍니다.

[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I 점자 인지도

1. 점자를 읽고 쓸 수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2.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의 6점 형식으로 구성된 문자입니다.
이와 같은 점자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점자가 한글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정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공공 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
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점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II 점자 경험

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사용하십니까?

-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1번으로 이동)
- ②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5-1번으로 이동)
- ③ 종종 사용한다.
- ④ 매우 자주 사용한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5-1. 귀하가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잔존 시력으로 목자를 사용할 수 있어서
- ② 음성 서비스가 있어서
- ③ 지인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에 문제를 느끼지 못해서
- ④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 ⑤ 점자를 배우려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 ⑥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6. 귀하가 점자를 사용할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학습이나 서적을 읽을 때 ② 공공 문서를 읽을 때
- ③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④ 시설물을 이용할 때
- ⑤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⑥ 생활용품을 이용할 때
- ⑦ 업무를 볼 때 ⑧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7. 귀하가 점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점자 자료의 부족 ② 점자 인쇄 품질 문제
- ③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④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8. 기회가 주어진다면 점자를 (계속적으로)학습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9. 귀하가 점자 대신 음성 서비스를 주로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학습이나 서적을 읽을 때 ② 공공 문서를 읽을 때
- ③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④ 시설물을 이용할 때
- ⑤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⑥ 생활용품을 이용할 때
- ⑦ 업무를 볼 때 ⑧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Ⅲ 점자 인지

10.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자는 ‘쓸모없다’ 부터 ‘유용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 ① 전혀 쓸모없다 ② 쓸모없다. ③ 보통이다
④ 유용하다 ⑤ 매우 유용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2) 점자는 ‘배우기 어렵다’ 부터 ‘쉽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쉽다 ⑤ 매우 쉽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점자가 ‘사용하기 불편하다’ 부터 ‘편리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하다 ③ 보통이다
④ 편리하다 ⑤ 매우 편리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점자는 ‘거리감 있다’ 부터 ‘친근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거리감 있다 ② 거리감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친근하다 ⑤ 매우 친근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5) 점자는 ‘단순하다’ 부터 ‘복잡하다’ 까지 귀하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복잡하다 ② 복잡하다 ③ 보통이다
④ 단순하다 ⑤ 매우 단순하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1.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학업, 직업, 자립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6. 점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사전 개발 ② 점자교육원 설치
③ 점역·교정사 양성 ④ 점자 자료 수집 사업(말뭉치 사업)
⑤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 사업
⑥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
⑦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7. 최근 디지털 점자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점자 기기가 문자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 ②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 ③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 ④ 점자 관련 교육 강화
- ⑤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IV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div> <div>전혀 타당하지 않음</div> <div>←</div> <div>→</div> <div>매우 타당함</div> </div>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2. 연령은? 만 ()세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거주 지역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교육 수준은?

-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졸
 ③ 고등학교 졸 ④ 대학교 졸(전문대 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무학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5.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6. 귀하의 시각장애 정도는?

- ① 심한 시각장애(일반활자를 전혀 읽을 수 없음)
 ② 심한 시각장애(확대 활자는 읽을 수 있음)
 ③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눈으로 읽는 것이 불편함)
 ④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눈으로 읽는 것에 큰 불편 없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그 외, 조사 도구 및 조사 방법, 조사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귀하의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설문지(비시각장애인용)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진은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점자 인식 조사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의 사용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보호되며 통계분석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05.

연구책임자: 000(00대학교)

조사 문의: 공동연구원 000(연락처:010-0000-0000 / *****@000000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사 응답 내용의 확인 및 답례품 발송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시각장애 여부, 학력,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 종료 시까지

[비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0. 귀하는 시각장애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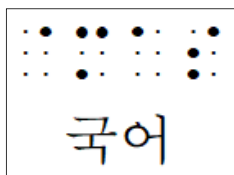
- ① 예(☞ 시각장애인 설문지로 이동) ② 아니요(☞ 설문 진행)

I 점자 인지도

1.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한 특수문자입니다. 이 점자를 본 적 있습니까?

- ① 예(☞ 2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점자를 알지 못하셔서 설문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의 6점 형식으로 구성된 문자입니다. 이와 같은 점자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3. 점자가 한글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정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4. 공공 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점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안다 ② 모른다

II 점자 경험

5.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건물의 승강기 버튼 | ② 공공 기관 등의 촉지도식 안내표지판 |
| ③ 계단의 손잡이 끝부분(층수 및 위치 표기) | ④ 사무실 이름판 |
| ⑤ 화장실 출입구 옆(남·여 구별) | ⑥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 |
| ⑦ 음료수나 화장품 등의 상품이나 생활용품 | ⑧ 점자 책자 |
| ⑨ 점자 명함 | ⑩ 기타 자주 접하는 곳() |

6. 승강기, 계단, 공공 기관 안내판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 점자를 보거나 접했을 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①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② 시각장애인이 찾기 어려울 것 같다 |
| ③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다 | ④ 활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 ⑤ 생각해 본 적 없다 | ⑥ 기타() |

7.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① 예(☞ 7-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요(☞ 7-2번으로 이동) |
|------------------|--------------------|

7-1. 점자를 학습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점자 관련 직업을 위해 | ② 가족 또는 지인 시각장애인이어서 |
| ③ 봉사 활동을 위해서 | ④ 호기심으로 |
| ⑤ 자기 계발이나 취미로 | ⑥ 기타() |

7-2. 점자를 학습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① 점자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어서 |
| ② 점자를 학습할 계기나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
| ③ 점자를 학습할 수 있는 매체나 적당한 기관이 주변에 없어서 |
| ④ 점자는 학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 ⑤ 기타() |

8. 기회가 주어진다면 점자를 학습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
|---------|------|--------|------|---------|
| ① 매우 많다 | ②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없다 | ⑤ 전혀 없다 |
|---------|------|--------|------|---------|

Ⅲ 점자에 대한 느낌

9.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유용하다 | ② 유용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쓸모없다 | ⑤ 전혀 쓸모없다 | |

2) 점자는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쉽다 | ② 쉽다 | ③ 보통이다 |
| ④ 어렵다 | ⑤ 매우 어렵다 | |

3) 점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편리하다 | ② 편리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불편하다 | ⑤ 매우 불편하다 | |

4) 점자는 친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친근하다 | ② 친근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거리감 있다 | ⑤ 매우 거리감 있다 | |

5) 점자는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단순하다 | ② 단순하다 | ③ 보통이다 |
| ④ 복잡하다 | ⑤ 매우 복잡하다 | |

Ⅳ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10.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학업, 직업, 자립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⑥ 잘 모르겠다 |

11.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11-1번으로 이동) | |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1번으로 이동) | | ⑥ 잘 모르겠다 |

11-1.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
- ②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③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 ④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
- 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 ⑥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 ⑦ 묵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 ⑧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 ⑨ 잘 모르겠다

V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12. 점자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럴지 않다 ⑤ 전혀 그럴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13. 점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14.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②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③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④ 점자 관련 교육 강화
⑤ 기타()

VI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만 ()세

3. 거주 시도는?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 | ③ 경기도 |
| ④ 대전광역시 | ⑤ 세종특별자치시 | ⑥ 충청북도 |
| ⑦ 충청남도 | ⑧ 광주광역시 | ⑨ 전북특별자치도 |
| ⑩ 전라남도 | ⑪ 대구광역시 | ⑫ 경상북도 |
| ⑬ 부산광역시 | ⑭ 울산광역시 | ⑮ 경상남도 |
| ⑯ 강원특별자치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3-1. 거주 지역은?

- | | | |
|---------|-----------|----------|
| ① 읍면 지역 | ② 중소도시(동) | ③ 대도시(동) |
|---------|-----------|----------|

4. 최종 학력은?

-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재학)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 |

5.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 ⑪ 기타() | |

6.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시각장애인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 설문지(시각장애인용)

국민의 점자 인식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진은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점자 인식 조사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의 사용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보호되며 통계분석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05.

연구책임자: 000(00대학교)

조사 문의: 공동연구원 000(연락처:010-0000-0000 / *****@000000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사 응답 내용의 확인 및 답례품 발송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시각장애 여부, 학력,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 종료 시까지

[시각장애인용 조사 문항]

I 점자 인지도

- 점자를 읽고 쓸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의 6점 형식으로 구성된 문자입니다. 이와 같은 점자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 점자가 한글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정한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 공공 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점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II 점자 경험

5.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사용합니까?
- ① 매우 자주 사용한다 ② 종종 사용한다
③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6. 귀하가 점자를 사용할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학습이나 서적을 읽을 때 ② 공공 문서를 읽을 때
③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④ 시설물을 이용할 때
⑤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⑥ 생활용품에 이용할 때
⑦ 업무를 볼 때 ⑧ 기타()
7. 귀하가 점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점자 자료의 부족 ② 점자 인쇄 품질 문제
③ 점자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④ 점자가 제공되는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⑤ 점자 사용이 미숙해서 ⑥ 기타()

8. 기회가 주어진다면 점자를 학습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귀하가 점자 대신 음성 서비스를 주로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학습이나 서적을 읽을 때 ② 공공 문서를 읽을 때
③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④ 시설물을 이용할 때
⑤ 일상생활 및 보행할 때 ⑥ 생활용품을 이용할 때
⑦ 업무를 볼 때 ⑧ 기타()

Ⅲ 점자에 대한 느낌

10. 점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자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하다 ③ 보통이다
④ 쓸모없다 ⑤ 전혀 쓸모없다

2) 점자는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쉽다 ② 쉽다 ③ 보통이다
④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3) 점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편리하다 ② 편리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편하다 ⑤ 매우 불편하다

4) 점자는 친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친근하다 ② 친근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리감 있다 ⑤ 매우 거리감 있다

5) 점자는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단순하다 ② 단순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복잡하다 ⑤ 매우 복잡하다

IV 점자 사용에 대한 인식

11.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학업, 직업, 자립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12.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12-1번으로 이동)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1번으로 이동) ⑥ 잘 모르겠다

12-1.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필요한 상황에 점자 표기가 없어서
- ② 점자 인쇄 품질이 낮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③ 점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 ④ 점자가 너무 어려워서
- ⑤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 ⑥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 ⑦ 묵자(활자)를 읽을 수 있어서
- ⑧ 점자가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 ⑨ 잘 모르겠다

13.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점자 제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14. 점자 사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V 점자 발전에 대한 인식

15. 점자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16. 점자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점자 사전 개발 ② 점자교육원 설치
③ 점역·교정사 양성 ④ 점역 관련 기술 개발 지원
⑤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연구·정책 추진
⑥ 점자 교원 양성 및 점자 교육 활성화 ⑦ 기타()
17. 최근 디지털 점자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점자 기기가 문자사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18.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②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③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 ④ 점자 관련 교육 강화
⑤ 기타()

VI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시각장애 정도는?
- ① 심한 시각장애(일반 활자를 전혀 읽을 수 없음)
② 심한 시각장애(확대 활자는 읽을 수 있음)
③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눈으로 읽는 것이 불편함)
④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눈으로 읽는 것에 큰 불편 없음)

4. 거주 시도는?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 | ③ 경기도 |
| ④ 대전광역시 | ⑤ 세종특별자치시 | ⑥ 충청북도 |
| ⑦ 충청남도 | ⑧ 광주광역시 | ⑨ 전북특별자치도 |
| ⑩ 전라남도 | ⑪ 대구광역시 | ⑫ 경상북도 |
| ⑬ 부산광역시 | ⑭ 울산광역시 | ⑮ 경상남도 |
| ⑯ 강원특별자치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4-1. 거주 지역은?

- | | | |
|---------|-----------|----------|
| ① 읍면 지역 | ② 중소도시(동) | ③ 대도시(동) |
|---------|-----------|----------|

5. 최종 학력은?

-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재학)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 |

6.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안마사 |
|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④ 사무 종사자 |
| ⑤ 서비스 종사자 | ⑥ 판매 종사자 |
| ⑦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⑩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에 대한 FGI 사전 조사지

구분	질문	답변
이해도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용어가 있었나요?	
응답 편의성	1~7점 척도(리커트 척도)가 답변하기 어떠셨는지, 너무 많거나 애매하진 않았나요? 추후 설문지는 5점 척도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중복/누락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고 느끼신 문항이 있었나요?	
	추후 연구에서 삭제하는게 좋겠다는 문항이 있나요?	
	‘이런 건 왜 안 물어봤지?’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나요?	
	향후 설문지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나 문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문항 전반 구성	전체 설문 분량이나 구조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나요?(피로감, 문항 수, 흐름 등)	
	설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셨나요? 먼저 혹은 나중에 나왔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나요?	
총평	전체적으로 이 설문이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부록 5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의 전문가 타당도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을 위해 애쓰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팀)에서는 「점자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연구지원으로 실시하는 '점자 사용 환경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도구의 확정을 위하여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연구진에서 잘 검토하여 조사 도구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문항은 2019년과 2020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의견 조사',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에 관한 요구 조사'를 토대로 개발한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도구(안)입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조사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부디 바쁜 일정에도 성심껏 의견 주시면,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연구팀 올림

※ 의견 작성 방법;

조사 도구의 타당성 정도와 개선 의견을 문항별로 제시된 아래와 같은 모양의 박스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1 조사 항목 구성의 적절성은 어떠한지 의견바랍니다.

영역	점자 사용 환경 조사 문항
I 응답자 기본 사항	1. 성별
	2. 연령
	3. 거주 지역
	4. 교육수준
	5. 직업
II 이동 편의 시설	1.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편의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
	2.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인식
	3.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에 대한 의견
	4. 이동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선점
III 공공 시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3. 편의 시설(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 이용 빈도
	4. 편의 시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
	5. 공공 시설의 중 점자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6. 점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7.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던 사례
	8.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I 응답자 기본사항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2. 연령은? 만 ()세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거주 지역은?

① 읍면 지역

② 중소도시(동)

③ 대도시(동)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교육 수준은?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졸

③ 고등학교 졸

④ 대학교 졸(전문대 졸)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무학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5.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① 관리자

② 안마사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기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Ⅱ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질문 항목에 따라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용어설명

- 여객 시설: 버스 정류장, 버스터미널,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선터미널 등
- 교통수단: 버스, 기차,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 점자 표지판: 화장실, 사무실, 객실의 벽면,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설치한 표지판
-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외부 출입문 인근에 건물의 대략적인 구조와 위치를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시한 안내판

1.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편의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여객 시설 사무실(역무실, 고객지원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여객 시설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 부분의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여객 시설 승강기의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여객 시설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 부분의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여객 시설 계단 손잡이의 양 끝 부분의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여객 시설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여객 시설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여객 시설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교통수단 내 좌석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2.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를 실제로 경험한 것을 기초로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평가척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점자는 적절한 위치에 표기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점자 표기의 내용은 충분한가?	① ② ③ ④ ⑤
3) 점자 표기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점자 표기의 내용은 정확한가?	① ② ③ ④ 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3.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에 대한 문항입니다.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 3-1. 교통수단의 점자 표기()
 3-2. 여객 시설의 점자 표기()
 3-3. 기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Ⅲ 공공 시설

1. 아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의무 대상 시설 종류입니다. 귀하는 최근 1년간 해당 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빈도
	① 매일 1회 ② 매주 1회 ③ 매월 1회 ④ 3개월마다 1회 ⑤ 6개월마다 1회 ⑥ 연 1회 ⑦ 이용한 적 없음
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며 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며 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3. 편의 시설 종류별 점자 표기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는 최근 1년간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각의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습니까?

편의 시설	빈도
	① 매일 1회 ② 매주 1회 ③ 매월 1회 ④ 3개월마다 1회 ⑤ 6개월마다 1회 ⑥ 연 1회 ⑦ 이용한 적 없음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실명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승강기의 버튼(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4. 편의 시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편의 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실명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편의 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4) 승강기의 버튼(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에 대한 문항입니다. 현재 점자 안내 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점자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한다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시설을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지역자치센터	② 파출소, 지구대	③ 우체국
④ 보건소	⑤ 공공도서관	⑥ 대피소
⑦ 지역 아동 센터	⑧ 안마 시술소	⑨ 전시장, 동·식물원
⑩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⑪ 교육원·직업 훈련소·학원 등	
⑫ 관광 숙박 시설	⑬ 휴게소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6. 다음은 현재 점자 표지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점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한다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시설을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
② 이용원·미용원·목욕장
③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빵, 차, 음료 등을 판매)
④ 종교 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⑤ 운동 시설
⑥ 일반 숙박 시설, 생활 숙박 시설
⑦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⑧ 기숙사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매우 타당함
1	2	3	4	5
응답 이유 및 개선 사항				

부록 6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지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진은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보호되며 통계 분석에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00. 00.

연구책임자: 000(00대학교)

조사 문의: 000(연락처: 000-000-0000/ *****@000000000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사 응답 내용의 확인 및 답례품 발송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별, 나이, 거주 지역, 시각장애 여부, 학력,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 종료 시까지

I 응답자 기본사항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만 ()세

3. 거주 시도는?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특별자치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북특별자치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3-1. 거주 지역은?

① 읍면 지역

② 중소도시(동)

③ 대도시(동)

4. 최종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재학)

⑤ 대학원 재학 이상

II 이동 편의 시설

1~4번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동 편의 시설 용어 설명

- 여객 시설: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 이동 편의 시설
- 교통수단: 버스, 기차,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 아래의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입니다.

1. 귀하는 지난 1년간(2024. 1. 1.~2024. 12. 31.)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다습니까?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빈도
	① 매일 1회 정도 ② 매주 1회 정도 ③ 매월 1회 정도 ④ 3개월마다 1회 정도 ⑤ 6개월마다 1회 정도 ⑥ 연 1회 정도 ⑦ 이용한 적 없음
1) 여객자동차터미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기차 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하철 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환승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공항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항만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기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지하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항공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선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점자 표기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여객 시설 및 교통수단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사무실(고객지원실, 역무실 등) 옆 벽면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통로 및 경사로에 설치한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승강기의 버튼(조작반) 및 통화 장치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여객 시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성별 구별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의 냉온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출입구 인근의 점자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승차권 자동 발매기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 좌석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버스, 기차,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좌석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 내 화장실 출입구 성별 구별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의 점자 표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를 실제로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평가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점자는 적절한 위치에 표기되어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2) 점자 점 간격, 점 높이는 적절한가?	① ② ③ ④ ⑤
3) 점자 표기의 내용이 정확한가?	① ② ③ ④ ⑤
4) 점자 표기는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

4.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 점자 표기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 4-1. 교통수단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4-2. 여객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4-3. 기타 이동 편의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 사항()

Ⅲ 공공 시설

5~12번은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 공공 시설 점자 관련 용어설명

- 점자 표지판: 사무실이나 객실의 벽면,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표지판
-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외부 출입문 인근에 건물의 대략적인 구조와 위치를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시한 안내판
- 아래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의무 대상 시설입니다.

5. 귀하는 지난 1년간(2024. 1. 1.~2024. 12. 31.) 공중이용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다습니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빈도
	① 매일 1회 정도 ② 매주 1회 정도 ③ 매월 1회 정도 ④ 3개월마다 1회 정도 ⑤ 6개월마다 1회 정도 ⑥ 연 1회 정도 ⑦ 이용한 적 없음
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는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점자 표지판과 점자 안내판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공연장 및 관람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 진료소 등 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는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장애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노인 복지 시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편의 시설 종류별 점자 표기에 대한 요구 조사입니다. 귀하는 지난 1년간(2024. 1. 1.~2024. 12. 3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각의 점자 표지판 또는 점자 안내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습니까?(점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이용했다면 ‘⑦ 이용한 적 없음’으로 표시)

편의 시설	빈도
	① 매일 1회 정도 ② 매주 1회 정도 ③ 매월 1회 정도 ④ 3개월마다 1회 정도 ⑤ 6개월마다 1회 정도 ⑥ 연 1회 정도 ⑦ 이용한 적 없음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편의 시설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편의 시설	(1) 중요도	(2) 만족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1) 사무실,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복도 및 경사로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부착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계단 손잡이의 양 끝부분에 층수와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승강기의 조작반, 통화 장치, 층수 등을 나타낸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에스컬레이터의 수평 고정 손잡이에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점자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화장실 세면대와 욕실 및 샤워실의 수전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표시하는 점자 안내판 또는 축지도식 안내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자동판매기 및 자동 발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표시한 점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공공 시설의 점자 표기 개선에 대한 문항입니다. 현재 점자 안내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점자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자치센터	② 파출소, 지구대	③ 우체국	④ 보건소
⑤ 공공도서관	⑥ 대피소	⑦ 지역 아동 센터	⑧ 안마 시술소
⑨ 전시장, 동·식물원	⑩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⑪ 교육원·직업 훈련소·학원 등	
⑫ 관광 숙박 시설	⑬ 휴게소	⑭ 기타()	

10. 다음은 현재 점자 표지판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 시설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점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슈퍼마켓·이용품 등의 소매점	② 이용원·미용원·목욕장
③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빵, 차, 음료 등을 판매)	④ 종교 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⑤ 운동 시설	⑥ 일반 숙박 시설, 생활 숙박 시설
⑦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⑧ 기숙사
⑨ 기타	

11.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했던 사례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선이 시급한 사례를 우선순위를 정해 3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하 버튼에 상하만 점자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층 숫자는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② 공중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가 누름 또는 센서인 경우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③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④ 누름 버튼식 자동문의 버튼에 ‘누름’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⑤ 공공건물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근처에 주요실 위치 정보와 층 안내 정보가 없어 위치를 찾기 어려움.
⑥ 이용자의 출입을 금지한 공간에 출입 금지 점자 표지판이 없어 잘못 들어가 곤란한 적이 있음.
⑦ 아파트나 연립 주택 호실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⑧ 도서관이나 열람실 좌석 번호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⑨ 기타()

12.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시설 이용을 위해 점자 표기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

책 임 연 구 원 박중휘(유원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원 권성진(인천해광학교 교사)
김동복(한국점자도서관 관장)
김미선(유원대학교 교수)
김홍진(한국시작장애인연합회 연구원)
박성수(도서출판 점자 연구원)
박은희(유원대학교 교수)
송효섭(유원대학교 교수)
임종아(유원대학교 교수)
정미란(유원대학교 교수)

연 구 보 조 원 정은우(유원대학교 직원)

사업 수행기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담 당 연 구 원 곽정란(국립국어원 주무관)
김민정(국립국어원 연구원)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
대표 전화 02-2669-9775

발행일 2025년 12월 5일
인쇄일 2025년 12월 5일
인쇄처 (주)도서출판 점자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국민의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환경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